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대한지리학회지

Volume 53, Number 4 (Series No. 187), August 2018

Special Issue: Cites for Residents

- Re-imagining Seoul as 'the Capital of Citizen' and Civic Polity ..... Choi, Byung-Doo ( 445 )
- Inclusive City as an Ordinary City: Towards New Directions for Seoul ..... Keebom Nahm ( 469 )

Articles

-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the *Sanjulgi* (mountain ridge) Network System based on Network Science ..... Hyo Jin Jang · Soo Jin Park ( 485 )
- Ri's Distance in Late Joseon Dynasty - Focused on *Jeongrigo of Daedongjiji* (大東地志) - ..... Hyun-Jong Kim ( 501 )
- The Travels of Sir John Mandeville* and the Rediscovery of the Orient and the Occident ..... Keumsoo Hong ( 523 )
- The Meaning of Folk Religious Landscapes in Taiwan As Spiritual Healing Through a Case Study of the Goddess of Mazu ..... Sookyung Park ( 549 )
- A Study on the Tourism Image and Representation of Seoul through Picture Postcards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Sunhee Kim ( 569 )

Book Review

- Geographies of Transportation ..... Ju-Seong Han ( 585 )



대한지리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제53권 제4호 (통권 187호) 2018. 8

특 집: 시민의 도시

- '시민의 수도'로서 서울의 재이미지화와 시민정 ..... 최병두 ( 445 )
- 보통도시로서 포용도시 논의와 서울의 과제 ..... 남기범 ( 469 )

논문

- 네트워크 과학 관점에서 바라본 산줄기 연결망 체계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 ..... 장효진·박수진 ( 485 )
- 『大東地志』 「程里考」에 기반한 조선후기의 1리(里) ..... 김현중 ( 501 )
- 『맨더빌 여행기』와 동·서양의 재발견 - 오리엔트의 거울에 비친 서구 자화상의 성찰과 '위반'의 수행 - ..... 홍금수 ( 523 )
- 마주신 사례를 통해서 본 타이완 민속종교경관의 영적 치유로서의 의미 ..... 박수경 ( 549 )
-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본 근대 서울의 관광 이미지와 표상 ..... 김선희 ( 569 )

서평

- 교통의 지리 ..... 韓柱成 ( 585 )



대한지리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ol. 53, No. 4 August 2018

대한지리학회

# ‘시민의 수도’로서 서울의 재이미지화와 시민정

최병두\*

## Re-imagining Seoul as ‘the Capital of Citizen’ and Civic Polity

Choi, Byung-Doo\*

**요약 :** 이 논문은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 단순히 경제·정치적 중추기능들의 중심지라기보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선도하는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서울을 ‘시민의 수도’로서 이미지를 재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서울의 대안적 정체로서 ‘시민정’을 제안하고 도시정책 모형 및 그 정당성을 논의한다. 우선 ‘시민의 수도’로서 서울의 재이미지화를 위해 수도와 시민의 어원과 의미를 고찰하면서 시민의 수도 개념을 제안하는 한편, 오늘날 지구지방화를 배경으로 서울이 시민들의 생활공간, 국가의 수도, 세계도시로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에 어떤 변화가 초래되었는가를 검토한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자율성에서 나아가 도시정부를 통합하여 직접 운영하는 ‘시민정’의 개념과 이러한 시민정에서 추진할 대안적 정책들 또는 새로운 도시모형들(즉 포용도시, 전환도시, 협치도시), 그리고 이러한 시민정과 그 정책을 정당화하고 이를 요구하기 위한 개념적 기반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고찰한다. 결론에서는 그동안 시행된 서울시 정책의 기초를 반영하여 ‘시민의 수도’ 개념의 시의성을 강조한다.

**주요어 :** 서울, 수도, 시민, 시민의 수도, 시민사회, 시민정, 도시에 대한 권리

**Abstract :** This paper is to emphasize that Seoul as the capital of South Korea should be a dynamic and practical field leading the rise of citizens’ quality of life and the democratic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rather than the highest center of economic and political functions. To do so, it tries to re-imagine Seoul as ‘the capital of citizen’, and to provide an alternative type of polity, that is, civic polity, discussing models of its policy. In order to re-imagine Seoul as the capital of citizen, it consider the origin and meaning of both ‘capital’ and ‘citizen’ on the one hand, and explore what has been changed in the civil society of Seoul in its development process in the context of glocalization on the three levels, that is, a living space of citizens, the capital of national state, and a global city. And then it discuss the concept of civic polity in which the civil society goes beyond its autonomy and integrate and manage directly the urban government, alternative models of urban policy(that is, inclusive city, transitional city, governance city) to realize the civic polity, and the concept of the right to the city to justify the necessity of civic polity and its policy models. In conclusion, it looks at briefly the current policy direction of Seoul city government, emphasizing the significance of the concept of ‘the capital of citizen’.

**Key Words :** Seoul, Capital, citizen, the capital of citizen, civil society, civic polity, the right to the city

---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 bdchoi@daegu.a.ckr)

## 1. 서론: 우리에게 서울은 무엇인가?

서울은 한국의 자본주의적 경제성장과 도시 발달, 나아가 사회 전반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지금도 그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과 이를 포함한 수도권으로 전국의 인구와 산업이 몰려들면서,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산된 자본과 잉여가치가 누적되었고, 이를 주도하고 뒷받침했던 중앙집권적 국가 권력도 강화되었다. 자본의 재투자를 결정하는 거대기업들의 본사와 정치적 의사결정의 중추기능들은 거의 대부분 서울에 입지해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부와 정치권력의 집중과 집적은 교육, 주거, 의료보건 등 사회적 서비스와 연구개발, 방송, 출판 등의 문화·예술 기능의 집중과 고급화를 동반했다. 이와 같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경제성장 또는 근대화 과정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고, 그 정치적, 사회문화적 영향력은 ‘서울 공화국’이라는 수사를 만들어내었다.

이와 같이 서울이 한국의 산업화, 도시화, 나아가 근대화 과정을 추동하는 중심이었고, 이 과정에서 전국의 경제적 부와 정치권력이 공간적으로 집중·집적하게 되었다는 점은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서울로 집중된 경제적 부가 시민들의 경제생활을 더 윤택하게 했거나, 권력의 중앙집권화가 서울의 시민사회를 정치적으로 더 성숙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자본주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민주적 정치체제가 점차 제도화되었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의 물질적 생활은 다소 풍요로워졌을지는 모르지만 일상적인 삶에서 경쟁과 긴장은 더욱 심화되었고, 행복감과 여유는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서울의 건조환경은 외형적으로 더 웅장해졌고, 그 속에서 서울 시민들은 더 바빠 움직이게 되었지만, 서울 시민의 삶이 다른 도시나 지역 주민들의 삶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서울에 경제·정치적 권력이 집중·집적되어 있고, 거대한 건조환경이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은 서울 시민들의 삶을 다른 도시나 지역 주민들의 삶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경제·정치적 권력

과 웅장한 건조환경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이들로 구성된 시민사회와는 괴리(즉 물신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이라는 초거대도시를 작동시키는 정치경제적, 사회공간적 메커니즘은 그 동안 경제적 부의 배분과정에서 공정성과 포용성을 무시했고,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협치를 부정했으며, 시민을 위한 도시 환경으로의 전환을 거부해 왔다. 이와 같은 자원 배분에서의 배제, 의사소통적 협치의 부정, 생태환경적 전환의 거부는 구조적 메커니즘의 작동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때로 이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격렬한 시민사회운동을 유발하기도 했다. 서울은 경제·정치적 권력의 중심지이지만, 또한 이러한 시민사회운동을 선도하는 정치적 전선의 실질적, 상징적 장이 되기도 한다.

이 논문은 서울이 한국의 수도(capital)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서울의 물신화된 경제정치체제의 강화나 자본축적을 위한 건조환경의 확장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삶과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서울을 어떻게 개념화 또는 재이미지화할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수도는 흔히 한 국가의 최고 통치기관들이 소재하는 도시이며,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서울이 수도라고 관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서울이 수도로서 고정된 장소인가의 여부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또한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논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이 논문은 이에 관한 논쟁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수도(그리고 시민)의 어원과 의미의 재해석에 기반을 두고 서울이 단순히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고정된 소재지(중핵지) 또는 경제정치적 중추기능들의 최고 중심지라기보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선도하는 역동적·실천적 장, 즉 ‘시민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서울을 ‘시민의 수도’로 정의하면서 그 이미지를 재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서울의 대안적 정체(polity)와 정책 모형 그리고 그 정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시민의 수도’란 단지 시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일 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직접 도시정부를 ‘선도하는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다. 다음 절에서는 ‘시민의 수도’로서 서울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수도’와 ‘시민’의 어원과 의미를 살펴 보면서 ‘시민의 수도’ 개념을 제안하며, 제3절에서는 오늘날 지구지방화 과정에서 서울이 시민들의 생활공간, 국가의 수도, 그리고 세계도시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에 어떤 변화가 초래되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4절에서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에서 나아가 도시정부를 통합하여 직접 운영하는 ‘시민정’의 개념과 이러한 시민정에서 추진될 수 있는 대안적 정책들 또는 새로운 도시모형들(즉 포용도시, 전환도시, 협치도시 등), 그리고 이러한 시민정과 그 정책을 정당화하고 이를 요구하기 위한 개념적 기반으로서 시민정, 나아가 ‘도시에 대한 권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서울시의 정책기조를 간략히 살펴보고 ‘시민의 수도’ 개념의 시의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2. ‘시민의 수도’로서 서울의 재이미지화

### 1) 수도의 역사적 어원과 의미

서울이 한국의 수도라는 점은 ‘관습헌법’에 준하며, 수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 이와 관련된 정치적 논쟁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나간 다음, 서울이 한국의 수도라는 점에 대해 논의하기를 주저하고 있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다. 이는 논쟁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울이 한국의 수도, 즉 모든 정치경제적 중추기능들의 집결지라는 점을 강조할 경우 자칫 국토 불균등발전에 대한 비난과 이에 따른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달리 말해 수도 이전 정책이 필요할 정도로 국토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도 사실이지만, 서울이 수도라는 점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다(김형국, 2003). 그렇다면, 서울이 수도로서 기능을 유지하면서 도시 내적으로 시민들의 삶과 시민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한편, 국가적으로 공간적 불균형의 유발자라기보다 이를 해소(또는 완화)시킬 수 있는 선도자로서 어떤 역

할을 해야 하는가를 깊게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울을 지칭하는 ‘수도’의 어원과 그 역사적 의미를 우선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서울은 원삼국시대 온조(溫祚)에 의해 건국된 백제의 첫 ‘수도’였고, 고려조에는 3경의 하나(개성은 중경, 평양은 서경, 서울은 남경)였으며, 조선의 개국으로 한반도를 통치하는 정치권력의 중심지로서 수도가 되었다(임덕순, 1985). 그러나 엄격히 말해, 근대 이전의 역사에서 서울을 ‘수도’로 지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도의 개념은 근대 국가의 형성 이후에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 조선시대가 끝날 무렵까지도 ‘수도’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대신 수도를 지칭하기 위해 ‘경성’(京城)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sup>2)</sup> 대한제국의 수립(1897년) 이후에는 ‘제국’이라는 의식에 영향을 받아 수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황성’(皇城)이 널리 사용되었다고 한다(김제정, 2013).

수도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19세기 중반 ‘capital’의 영어 개념을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1890년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다른 기존 개념어들과 함께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수도’라는 용어는 1895년 ‘관보’의 ‘외보’를 통해 처음 수용되었고, 같은 해 출간된 『국민소학독본』에서 한 차례 사용된 바 있으며, 1899년 <황성신문>에서는 여러 번 사용되었다고 한다. 수도라는 용어의 사용 초기에는 한국의 수도보다는 외국 특히 서양의 수도를 지칭했고, 이 경우에도 수도보다는 다른 기존 용어들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도를 사용한 용례가 증가했다. 특히 1920년대 후반 중국의 남경(난징)정부 수립과 만주국의 건국 등의 영향으로 신문에서 수도의 사용 빈도가 증가했고, 1935년 이후에는 거의 일반화되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서울을 한 국가의 정치중심지를 의미하는 수도로 지칭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단지 국가 단위가 아니라 지역(또는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를 가리키거나 두 번째 도시로서 ‘제2수도’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정도였다. 왜냐하면, 일본 제국의 도쿄가 한 국가의 수도였으며, 이로 인해 식민지 조선의 서울은 수도로 지칭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시기 일본은 ‘경성’을 서울의 행정명칭으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이 단어가 마치 서울의 고유명사처럼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을 지칭하기 위해 수도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해방 이후이다. 하지만 이 용어의 본격적 사용 배경은 다소 역설적이다. 우리나라나 외국의 국가적 정치중심지를 칭하는 다양한 개념어들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국가로서 한국의 서울을 지칭하기 위해 기존 고유어들 대신 번역어인 ‘수도’를 가까이 사용하게 된 것이다. 즉 해방 이후 서울이 수도로 본격적으로 불리게 된 것은 서울이 일제강점기처럼 수도가 아니라 독립된 국가의 수도라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이 제헌 헌법에서부터 수도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또 다른 역설적 정치 상황을 보여주지만<sup>3)</sup>, 서울이 ‘관습적으로’ 수도로 인식되게 된 것은 해방 이후 한국이 근대 국민국가로서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게 되었고, 독립된 주권을 행사하는 통치기관들이 입지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국가 주도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제적 부의 집중과 집적이 이루어지면서, 서울은 정치경제적 중심지이며 다른 모든 도시나 지역들보다 우월한 중주( 으뜸)도시로 인식되게 되었다.

사실 서양에서도 근대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에는 중앙집권화된 정치권력이 입지하는 ‘수도’의 개념이 없었다. 즉 서양에서 ‘capital’이라는 단어가 수도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경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capital이라는 용어에 도시를 지칭하는 단어를 병기하여 capital town, capital city 등으로 표현되었고, 18세기 이후에야 그 자체로 한 국가의 정치·행정적 중심도시, 즉 수도를 지칭하게 되었다. <옥스포드영어사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영어 ‘capital’이라는 단어는 머리(head)를 의미했던 라틴어 caput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와 이태리를 거쳐 영국에 들어와서 중세영어에서는 머리 또는 수위(top)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단어가 서구에서 봉건제가 해체되고 근대국가의 등장을 배경으로 한 국가의 통치 중심지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일찍부터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소재

지로서 수도를 의미하는 다양한 개념어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capital’이라는 영어 개념이 19세기 중반 일본에 도입되어, 이에 조응하는 다양한 개념어들이 기존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하나로 번역되지 않고, 머리와 도시를 의미하는 한자의 조합어인 ‘수도’로 번역되게 되었다.

그러나 영어 capital 또는 그 어원인 라틴어 caput (capitia)에서 ‘cap’은 수위라는 의미 외에도 지리적 형상으로서 ‘곶’(串)을 의미하며, 나아가 ‘선수’(뱃머리), ‘방향’, ‘전위’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데리다(1997, 17)의 해석에 의하면, cap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극단(極端)의 선단 혹은 말단, 목표의 끝, 궁극적인 것, 최후의 것, 최종적 극단, 극단의 극단(eskhaton) 등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항해에 쓰일 때에는 극(極), 끝, 혹은 방향성이 있고 계산되고, 확고하고, 의지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궁극 목표를 지칭한다.” 데리다는 이러한 cap(곶)의 의미에 근거를 두고 유럽을 하나의 곶으로 묘사하고 정의하면서, 유럽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곶’ 즉 방향(목적지) 바꾸기 또는 선장(騎手) 바꾸기를 제안한다(김정현, 2015). 특히 그는 유럽이 나아가갈 ‘다른 곶’, 즉 미래의 목적지로 ‘도래할 민주주의’를 제시한다. ‘도래할 민주주의’에 대한 데리다의 주장은 미래에 어떠한 것이 도래할 지는 미리 알 수 없으며, 단지 ‘도래할 것’을 위하여 완전히 새로운 장소인 ‘코라’를 열어젖히는 것으로 이해된다(구자광, 2008).

cap에 대한 데리다의 이러한 해석은 수도의 개념을 새롭게 재구성하도록 한다. 우선 수도라는 용어는 오늘날 인식되는 것처럼 지방과는 구분되는 중앙(또는 중심)이라는 의미를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머리’라는 의미에서 수위 또는 으뜸이라는 의미도 단지 부분적인 번역에 불과하다. 사실 조선시대에는 중앙과 지방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고(이현진, 2015), 비슷한 개념어로 바깥을 지칭하는 중외(中外), 내외(內外)와 경외(京外) 등이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수도는 흔히 중앙정부의 소재지로 규정되지만, 개념사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의 기능도 근대 국가의 성립 이후에 형성된 것이다. 즉 수도라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번역어인 ‘중앙정부’라는 용어도 1994년 <한

성순보)에서 처음 사용되었지만, 일제 강점기에 주로 일본 정부를 지칭하는 것이었고, 조선은 일본의 한 지방, 경성은 그 지방의 중심도시로 간주되었다(김재정, 2013). 이러한 점에서 중앙/지방의 구분과 중앙정부라는 용어는 수도라는 용어와 더불어 또 다른 역사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대신 수도의 개념에는 돌출지점, ‘기억의 축적과 결정의 장소인 선두로서의 곳’ 그리고 ‘선장’의 의미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데리다(1997, 25)의 해석에 의하면, 이러한 돌출지점은 시작인 동시에 끝이며, 모든 것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이러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데리다는 하이데거가 ‘장소’라는 뜻을 가진 단어 *ort*를 정의하면서 독일어에서 이 단어가 모든 힘이 마지막에 서로 합쳐지고 집결되는 창끝을 의미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사실 수도로 지칭되는 ‘서울’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의미를 그 속에 포함하고 있다. 서울은 순수한 우리말로 그 유래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지만, ‘서울’의 과거 한자어는 서벌(徐伐), 서나벌(徐那伐), 서라벌(徐羅伐), 서야벌(徐耶伐) 등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러한 한자어에 표기된 서(徐), 서나(徐那), 서라(徐羅)는 높고(高), 신령(神靈)하다는 우리말 ‘수리’, ‘술’, ‘숫’의 음사(音寫)이고 벌은 들관(을 의미하는 우리말 ‘벌’)의 음사이다(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서울은 ‘일어서다’, ‘숫구치다’ 등과 같이 지향성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수도 서울은 일어서서 숫구치는 힘의 집결지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도’의 어원과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유의한 작업일 뿐 아니라 서울이 수도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개념화하는데 통찰력을 제공한다. 특히 데리다의 해석에 따라, 서울을 수도로 지칭하는 것은 서울이 단지 중심이나 으뜸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나아갈 방향, 진로, 목적지, 목표의 설정 등에서 서울이 담당해야 할 선구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데리다(1997, 34)는 오늘날 유럽이 수도와 관련하여 봉착하게 된 문제는 “문화적 주도권을 위한 투쟁의 문제이며, 문화의 ‘헤게모니적 중심성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새로운 유럽을 위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기존에 서울이 수도로서 한국(한반도)의 중심도시이며, 다른 모든 도시나 지역들 보다 수위( 으뜸)의 지위를 가진다는 인식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 즉 서울의 재이미지화가 요구된다. 서울을 절대적 ‘중심’으로 인식하는 사고는 장소나 공간에 관한 물질적 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고, 다른 도시나 지역들과 불균등발전을 조장하는 것이다. 서울이 중심이나 으뜸이라는 인식을 벗어나는 것(즉 기존 정체성의 해체)은 서울 중심주의뿐만 아니라 반(反)중심주의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의 구축을 전제로 한다. 새로운 의미로서 수도 서울은 한국, 나아가 한반도가 나아갈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선도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영어 단어 *capital*이 수도 외에도 자본을 뜻한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한다. 데리다(1997)에 의하면, 자본은 수도와 함께 곳의 의미를 구성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된다. 서구의 역사에서 자본의 발달은 수도도시의 발달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지만(Weber, 2014, 17), 또한 두 단어(또는 한 단어의 두 가지)의 의미를 비교해 보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즉 수도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의미하는 것처럼, 자본은 그 자신에 반대되는 모든 장애와 경계, 차이를 무너뜨리고 축적만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려는 속성을 가진다. 그러나 자본은 공격적으로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앞으로 나아가 보편성을 획득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맥락을 전제로 한다. 이에 관한 김정현(2015, 20)의 해석에 의하면, 자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 즉 “사회공간적 변형 능력을 갈망하면서 자신의 감수성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노동력을 생산에 투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은 “보편적인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감성적인 경험성 혹은 특수성 일반의 경계들”을 넘어서려 한다. 이 과정에서 자본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만, 자본과 더불어 경제의 한 축인 사람들이 소멸시킴으로써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자본의 지배로부터 사람[시민]을 보호하면서 자본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도 수도에 주어진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른) 곳의 개념의 재해석을 통해 자본

의 보편적 추동력을 비판하는 한편 ‘도래할 민주주의’를 논의한 데리다의 연구는 유럽의 나아갈 방향에 관한 많은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켰으며(Czajka and Isyar, 2014), 수도 서울의 의미와 진로를 설정하는데 깊은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데리다의 연구는 자본의 순환 메커니즘을 분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래 민주주의의 도래에 대한 형식을 강조한 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 비판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sup>4)</sup> 그러나 우리 사회나 도시, 특히 수도가 자본의 의지가 아니라 새로운 개척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비록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도래할 것들에 대해 항상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 특히 데리다의 ‘도래 할 민주주의’는 항상 반복되는 민주주의의 끊임 없는 철저한 자기성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데리다의 주장에서 또 다른 문제는 새로운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 배를 운항할 선장, 즉 주체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라는 점에 대해 더 이상 개념적 또는 현실적 논의를 전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도가 단지 물신화된 자본과 권력의 중심지라는 담론에서 벗어나서 도래할 민주주의를 위한 장소 또는 이의 추동력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면, 이러한 추동력을 실천할 새로운 권력 주체에 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도는 ‘자본의 수도’가 아니라 자본에 의해 소멸 위기에 처한 사람, 그리고 도래할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는 ‘시민의 수도’여야 한다는 점이 개념화되어야 할 것이다.

## 2) 시민, 시민성, 시민사회의 개념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간주되지만, 특정한 수도의 개념이나 기능을 실현 또는 실천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별도의 용어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동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정치체제 하에서 사회를 구성하면서 통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민(民)으로 지칭했다(이나미, 2014). 예로, 국민이라는 용어는 근대 이전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어떤 국(國)에 속하는 사람, 즉 백성을 의미했고,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소속된

것을 강조할 경우에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개념이 국가의 건설 주체로 인식되게 된 것은 근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한성순보(1884.2.7.)에서 유길준은 서양 각국의 중요한 요점은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와 시행되는 것”으로 “이를 보아 다스리는 법 역시 국민에게서 나와야지 한 사람이 주관할 일이 아니다”라고 쓰고 있다(이나미, 2014, 154 재인용). 그 외 민중이라는 용어는 본래 말 그대로 ‘백성의 무리’를 뜻했고, ‘피지배계급으로서 일반 대중’을 일컫는 인민이라는 용어는 국민과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해방 직후 좌우 분열의 와중에, 좌익은 인민 개념을 주로 사용하였고, 우익과 미군정은 민중 개념을 주로 사용하였다.

수도의 개념, 특히 도래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장소로서 수도의 개념과 조응하는 주체를 지칭하기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용어는 시민이다. 본래 시민이라는 용어는 조선시대에 서울의 시장 상인집단을 가리키던 단어였다. 이들은 착취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주로 관에 물자 조달과 관매권을 독점하던 봉건적 상인 계층이었다(이나미, 2014).<sup>5)</sup>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는 시민이라는 용어가 국민이나 인민 등에 비해 많이 사용되지 않았고, 주로 시장 관련 주민이나 도시 또는 시가지의 거주민, 드물게는 citizen의 번역어로 사용되었다(도회근, 2013, 441).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주로 서울의 ‘시전(市廛) 상인’을 지칭했던 시민이라는 단어는 1920년대에 들어오면서 서울 상인에서 전국 상인을 의미하게 되었고, 1930년대에는 도시 주민으로서의 시민으로 확대되었다. 1950년대 들어서 시민은 행정구역 단위로 시의 주민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지만, 해방 직후 이념적 분열로 인해 좌파가 ‘시민적인 것’을 자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비판하게 됨에 따라, 시민은 때로 모리배나 상인, 또는 자기중심적인 개인의 이미지를 가진 ‘소시민’이라는 부정적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했다(정상호, 2014, 278-281).

오늘날 사용되는 시민의 개념, 즉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시민 의식과 시민권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서 시민의 개념은 1950년대 미국식 교육체계가 도입되면서 등장하였다. 교과서에 ‘민주적 시민’의 개념

이 서술되었고, 국가로부터 독립된 영역으로서 시민 사회라는 개념도 함께 소개되었다. 특히 4.19혁명을 시민혁명으로 지칭한 점은 이에 참여한 주체들을 서구의 근대적 시민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자신들의 저항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한 것이다(정상호, 2014, 281-282).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의 개념은 국가의 시민교육에 의해 단순히 (민주)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수동적 구성원에서 나아가 능동적으로 사회 변화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주체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민 개념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사라지고 다시 ‘소시민’의 개념이 일반화되었지만,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에서 ‘시민군’ 등의 용어가 등장했고,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넥타이’부대로 상징되는 시민의 전선과 담론이 일반화되었다. 오늘날 시민의 개념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능동적 주체 또는 생활정치的主체로서 의사소통적 시민, 공화주의의 성찰적 시민, 인류에 대한 보편적 시민의식을 가진 세계시민 등이 강조되고 있다(이나마, 2014).

이러한 시민의 개념과 동의적이거나 또는 시민이 가지는 기본 성격을 뜻하기 위하여 시민성(또는 시민권, citizenship)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시민성이란 “시민이 되는 조건 그리고 이러한 지위에 수반되는 책임과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민주주의 사상과 실천에서 핵심 개념”이며, 이를 통해 “시민은 민주적 정치공동체의 완전하고도 평등한 구성원”이 된다(무폐, 2003, 379). 특히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근대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들에게 ‘보편적 권리이자 자격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다. 시민성의 개념은 정치철학적 전통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있다. 특히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근대적 시민성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 권리(즉 인권)로 규정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백인 남성이며 부르주아적인 개인의 권리 보장으로 귀결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정치공동체로서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법적, 형식적 권리로써 시민성 개념 역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또한 기존의 시민성에 관한 논의들은 거의 대부분 이 개념과 관련된 공간적 측면을 간과 또는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

서 시민성의 개념은 정치권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개념을 포괄하며, 공간적으로도 관계적이고 다규모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조철기, 2016).

이와 같이, 수도의 개념과 더불어 현재 사용되는 시민(그리고 시민성)의 개념은 서구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에서, 시민의 서구적 어원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구에서 시민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아테네로 소급된다. 즉 시민으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 citizen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적 특권을 지닌 자유민을 뜻하던 라틴어 civis에서 유래한다. 정상호(2013)는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은 3가지 의미, 즉 토론하고 참여하는 적극적 시민,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시민계급, 그리고 도시의 주민으로서 시민의 의미를 가졌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규정에서, 오늘날 시민은 계급으로 간주되기 어렵고 또한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는 것은 시민을 개념화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보다 분명한 점은 고대 도시국가의 공적 영역을 지칭하는 폴리스(polis)는 노예나 여자와 아동들에 의해 경제적 생활을 유지하였던 가정(oikos)과는 구분되었고, 이러한 점에서 폴리스에 참여하는 시민은 경제적 제약에서 벗어난 집단을 의미했다(아렌트, 2009). 이러한 점에서 고대 도시국가에서 시민은 3가지 의미, 즉 공적 공간으로서 폴리스가 분화된 도시(국가)의 거주민, 도시 공동체에서 일정한 재산과 특권을 갖춘 교양인, 말과 행동을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능동적 주체로 개념화될 수 있다.

이러한 시민의 개념은 로마제국 시기로 오면서 점차 하위계층 및 피정복 외국인으로 확장되었고, 이로 인해 보다 이질적인 시민집단이 창출되었다. 시민의 개념과 이에 바탕을 두었던 정치체제(즉 공화주의)는 봉건시대에는 잊혀 졌지만, 르네상스 시기 도시국가에서 부활하게 되었다. 이 시기 ‘시민인본주의’ 또는 ‘시민공화주의’ 등의 용어가 등장했고, 그 개념적 핵심은 “인간의 잠재력은 그가 자유로운 자치적 정치공동체의 시민일 때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무폐, 2003).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17세기 영국의 입헌혁명과 미국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었고, 특

히 1789년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에서 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그 이후 민주적 공동체의 주체로서 시민보다 보편적이고 동등한 권리로써 시민성(또는 시민권)의 개념이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마샬(2014)에 의하면, 권리로써 시민성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시기별로 달리 실현되었다. 즉 서구사회에서 좁은 의미로 ‘시민적 권리’(보편적 인권으로서 시민권)는 18세기에, 정치적 권리(정치적 의사결정에의 참정권)는 19세기에 발생했으며, 사회적 권리(공적 교육, 보건의료, 고용보험 등에 관한 권리)는 20세기에 확립되었다.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과 실현과정은 근대 사회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시민성을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수동적 권리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김리카, 2005).

시민의 개념을 고대 도시국가의 아테네까지 소급하여 논의하는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오늘날 ‘시민사회’ 개념의 기원을 이루는 공적 영역(또는 공론장)의 개념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시민사회란 기본적으로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결사체를 의미하지만, 이론적으로는 학자들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개념화된다. 애드워즈(2006)에 의하면, 이러한 시민사회에 관한 이론적 관점(또는 노선)은 크게 3가지, 즉 ‘결사적 삶’(associational life)으로서 시민사회(토크빌), 좋은 사회(good society)로서 시민사회, 그리고 ‘공론장’(public sphere)로서의 시민사회(하버마스)로 구분된다. 애드워즈는 시민사회에 관한 논의에서 하버마스의 이론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러한 세 가지 이론적 축을 통합적으로 상호 연계시켜야만 시민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과는 구분되는 제3영역으로 시민들의 결사체이며, 시민적 덕성(시민의 올바른 생활습관, 태도, 가치 등을 포함한 시민의식)을 배양하고 육성하는 영역이고, 시민이 공적 사안들에 관해 토론하고 합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개념 정의에서 특히 공적 영역(공론 영역, public realm) 또는 공론장에 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렌트(2009)에 의하면, 공적 영역은 시민의 개념이 탄생했던 고대 아테네의 폴리스로 소급된다.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적

영역은 공동체적 덕목을 갖춘 시민들이 서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힘과 폭력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상호 소통함으로써 함께 만들어가는 사이(in-between) 공간으로 이해된다.<sup>6)</sup> 이러한 공적 영역에 출현하여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시민들은 사적 영역에서 단순한 생존을 위한 자연적 삶(필연적 생존)을 넘어서 동물과는 구분되는 인간 고유의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렌트는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전자가 후자에 의해 지배되고, 궁극적으로 소멸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현대사회의 위기는 정치에 대한 경제의 승리와 이에 따른 ‘공적 영역의 상실’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아렌트의 주장은 공적 영역의 (정치공간적) 개념화와 더불어 현대사회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김대영, 2004). 그러나 공적 영역에 관한 그의 이론은 그 이론의 토대가 되었던 이분법적 구조로 인해 한계에 봉착한다. 즉 사적 영역(경제활동)과는 분리된 공적 영역(정치적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인간 생존을 위한 노동이 정치적 행위의 필수적 조건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시민사회란 공론장의 의사소통을 합리적으로 이끄는 “자발성에 기초한 비국가적이고 비경제적인 연결망과 결사체의 영역”이다. 즉 시민사회는 경제체계와 정치체계를 각각 지칭하는 시장과 국가와는 구분되는 영역으로 규정된다. 공론장은 의견이 소통되는 네트워크로 이해되며, 공론장에 참여하는 공중은 “자발적인 결사체 및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능동적 시민”, 즉 “자신의 사회적 관심과 경험을 공적인 차원으로 넓혀 해석하고 제도적 절차를 통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민”으로 정의된다(하버마스, 2013, 433~440; 김대영, 2004; 장준호, 2015). 하버마스는 공론장(그리고 공공성)의 개념이 아렌트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미 고대 도시국가에서 시작되지만, 이 개념이 실질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은 근대 초기라고 주장한다. 그는 『공론장의 구조변동』 초판에서 18~19세기 서유럽 국가들에서 부르주아 공론장의 이념형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서술하지만, 그 이후 하버마스는 ‘작지만 비판적으로 토론

하는’ 장소로서 공론장을 도서관이나 출판사뿐만 아니라 커피하우스, 살롱, 만찬회 등을 포함하여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했던 공간으로 이해한다(하버마스, 2001, 127). 이러한 공론장은 프랑스 혁명 이후 검열 저항운동이나 언론자유를 위한 투쟁 등으로 활발하게 정치화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공론장의 내부 구조 변화 및 권력화와 더불어 외적으로 비대해진(과잉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와 대의적 정치체계에 의해 생활세계가 식민화되면서 공론장이 점차 붕괴되거나 또는 체계적으로 왜곡되게 되었다.

아렌트와 하버마스의 공론장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경제 및 정치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소통과 이를 통한 공론의 정치를 강조한다(김대영, 2004). 특히 하버마스에 의하면, 공론장에서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에 기반을 두고 체계가 작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과 권력에 의해 매개되는 시장과 국가가 언어를 매개로 소통되는 생활세계를 식민화함으로써, 현대사회의 경제·정치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해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작동하는 공간으로 공론장의 개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의성을 가진다(정미라, 2015). 또한 여기에 공론장에서 숙의를 통해 제시되는 요구나 저항의 정당성을 제도화한 시민성의 개념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하버마스의 시민사회 및 공론장이론 나아가 의사소통적 행위이론은 많은 논란을 자아내었다. 즉 그의 이론은 자본주의나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보다는 이를 보완하고, 시장과 국가가 시민사회의 통제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함의한다. 하버마스의 이론은 체계에 의해 추동되는(도구적) 근대성을 비판하면서도 근대성을 부정하기보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에서 그 대안을 찾고자 한다(장준호, 2015). 그러나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반한 공론의 정치로 현대사회의 체계적 위기가 극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논쟁점과 관련하여, 아렌트나 하버마스가 제시한 공론장 개념과 특히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달리 말해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과 합의가 비록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정치적 삶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실천으로서 노동의 중요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고대 도시국가에서 공론장에 참여한 시민들은 경제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웠지만, 현대 도시사회에서 시민들은 이러한 경제적 제약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즉 인간의 노동은 인간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경제체계를 작동시키지만, 실제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상품화되어 자본에 의해 식민화(즉 노동의 소외)되었다는 점이 여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본주의 경제체계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탈식민화(탈소외) 운동의 정당성은 경제체계에 누적된 사회적 잉여가 바로 노동에 의해 생산되었다는 사실에 기반을 둘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편적 또는 공동체적 권리를 강조하는 시민권보다는 도시를 생산한 시민들이 가지는 권리로서 르페브르가 제시한 도시권 개념이 더 유의하다고 하겠다.

아렌트, 하버마스 등을 포함하여 시민사회 개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에서 지적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공론의 정치에서 토론·합의되어야 할 구체적 내용과 이의 실현 방식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물신화된 정치체계에 대한 저항은 공론의 정치(즉 협치)에 대한 요구 그 자체가 내용이며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체계에 대한 저항과 요구는 공론의 정치에 바탕을 둔다고 할지라도 그 구체적 내용과 방식은 사회적 부(잉여)의 (재)분배에 대한 참여(즉 물질적 포용)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환경위기의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경제 및 정치 체계가 생태환경과 맺고 있는 관계의 전반적인 전환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의 후반부는 정치협치, 경제적 포용, 생태적 전환에 관한 요구, 그리고 이러한 요구들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정과 도시권의 개념에 근거를 두고 ‘시민의 수도’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그 전에 현실세계에서 수도 서울의 역할과 기능변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편으로 시민사회의 외형적 발달과 다른 한편으로 공론장의 실질적 붕괴 과정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 3. 서울의 사회공간적 위상과 역할 변화

수도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최고 기관들이 소재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근대적 의미에서 국가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권을 가져야 하며, 주권의 내·외적 행사는 영토와 국민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도는 근대적 국민국가의 등장 및 영토공간의 구축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역사적으로 20세기 이전 국민국가와 그 수도는 서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몇몇 국가들에 한정되어 있었다. 고든(Gordon, 2006)에 의하면, 1900년 세계에서 수도를 가진 국민국가는 40여개에 불과했고, 이들 가운데 약 절반은 19세기 스페인과 포르투갈 제국의 붕괴로 독립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자신의 수도를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예로 1980년대 후반 구소련의 해체로 상당수의 국가들과 이들의 수도가 탄생하였다. 이에 따라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 200개 이상의 수도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도 도시들은 다양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발전해 왔으며, 해당 국가와 그 도시 자체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위상을 가진다는 점에서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Hall, 2006).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도는 대체로 근대 이전부터 이미 중앙집권화된 지배 권력의 중심지로서 비교적 오래된 역사적 배경을 가진 도시들이다. 따라서 이 국가들의 수도는 서유럽 국

가들의 수도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탄생한 국민국가와 그 수도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동서양에서 근대 국민국가와 그 수도의 역할은 형성된 시기나 국가의 특성에 따라 상당히 다른 역동성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지역과 시기를 막론하고 일정한 특성을 공유한다. 예로 막스 베버(Max Weber)가 도시를 이념형적으로 개념화하여, 자본주의 발달과정을 중세말기 유럽의 도시국가들에서 확인하고자 한 것처럼, 앞서 논의했던 생활세계로부터 경제·정치체계의 분리, 그리고 생활공간에서 사적 및 공적 영역의 분화 및 시민사회와 공론장의 형성 등은 도시의 민주화 과정을 확인될 수 있는 이념형적 개념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림 1>은 서울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수도의 다규모적 위상과 그 배경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용어들은 한국과 아시아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적, 지구적 차원을 고려하기 위하여 세계경제 차원을 추가했다.

서울은 조선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새로운 지배 권력의 소재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터전 또는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서울은 자생적 경제발전 과정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제 침탈에 의한 식민화로 좌절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적 독립과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자본주의 경제 성장 과정에 진입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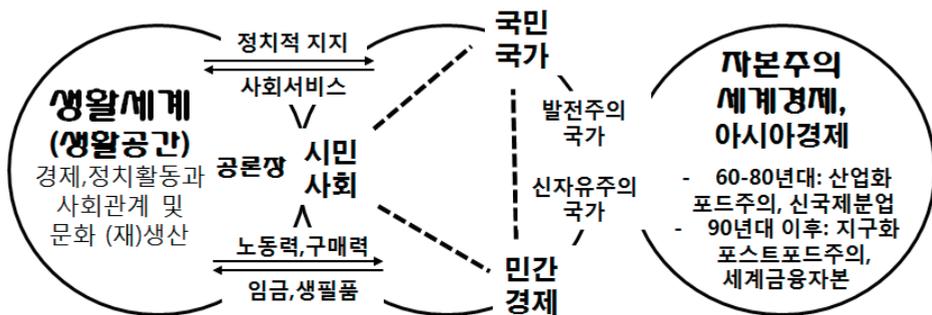


그림 1. 수도의 다규모적 위상의 배경

출처: Douglass, 2006, 544에서 수정

의 자본주의는 주요 도시들에 거점을 둔 부르주아계급에 의해 촉진되었지만,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수도를 포함하여 대도시들에서 부르주아계급이 미형성된 상황에서 독재 권력에 의해 장악된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다. 즉 식민제국으로부터 해방·독립된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독재 권력에 의해 장악된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한 국민국가의 형성과 자유주의적 정치체제의 구축을 경험했다(Douglass, 2006). 또한 흔히 공권력(군사적 폭력)을 동원해 집권한 이러한 지배세력들은 경제발전(그리고 한국의 경우, 반공)을 가장 우선된 통치 이데올로기로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면서 국가적 통합을 추구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른바 ‘발전주의’ 국가의 전형으로 간주되는 국가에 의해 추동된 한국의 자본주의화 과정은 한정된 자원과 국가 재정의 선택적 투입을 통해 특정 도시나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거점개발전략을 강구했으며, 이에 따라 정치권력의 소재지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원료 및 상품의 수출입이 용이한 동남해지역을 양축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촉진되었다(최병두, 2012). 서울은 지배 권력이 위치하는 국가의 정치적 중심지이고 해방에 따른 해외동포의 귀국과 6.25전쟁에 따른 피난민들로 상당한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본주의화 초기 단계에는 경제적 잉여의 부재로 경제발전이 어떤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 즉 서울은 국가주도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선적인 투자의 대상이었고, 이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추가적으로 집중·집적하는 양상을 보였다. 물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의 경제는 근대적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기반을 두고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고, 물질적 생활환경도 다른 도시나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그렇지만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서울은 농촌의 압출요인들에 의해 유출된 인구가 과잉 집중하여 아직 임노동자로 흡수되지 못한 도시빈민들이 산재해 있는 전형적인 제3세계의 중주도시 특성을 보였다.

이와 같이 1960~80년대 권위주의적 발전주의 국가에 의해 주도된 한국의 자본주의화 과정은 압축적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촉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국가

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칭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었던 ‘한강의 기적’이라는 수사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서울의 중심적 역할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서울의 생활공간에서 주민들은 아직 물질적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시민사회에서 분화된 공적 영역을 구축하기에는 역량이 크게 미흡했다.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국가 권력은 경제성장과 반공을 빌미로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 주민들과 생활공간에 직접 개입하여 감시·통제하고자 했으며, 주민들도 대부분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탈정치화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생활공간에서 시민사회의 발달과 이에 기반을 둔 공론장의 구축은 거의 불가능했다. 물론 해방 후 국민국가의 형성을 주도했던 자유당 정권의 무능과 부패에 항거하는 1960년 4.19혁명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군부 및 신군부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학생운동과 특히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대표되는 격렬한 시민운동이 있었지만, 공권력을 동원한 독재정권에 의해 저지·억압되었다. 요컨대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성장은 시민성을 위한 민주적 권리들의 유보를 대가로 요구했다.

특히 한국의 경제성장은 내생적 요인보다는 외생적 요인에 더 많이 의존했다. 1970년대 서구 경제는 포드주의의 한계로 봉착한 과잉축적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첨단기술부문에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노후하고 표준화된 중화학공업을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로 이전시켰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노동집약적 경공업과 조립가공업에서 벗어나 중화학공업에 기반한 신흥공업국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고, 세계경제공간은 선진국의 첨단기술산업, 신흥공업국의 표준 중화학공업, 그리고 후진국의 경공업 및 자원집약적 산업으로 구성되는 신국제분업으로 재편되었다. 서울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산업구조의 재편과 인력 공급의 증추적 역할을 담당했지만, 1980년대 이전까지 이 역할을 담당할 실제 주체는 아직 미성장한 대기업(자본)이 아니라 권위주의 정부의 한축을 이룬 군부엘리트 집단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종속적 포드주의에서 비롯되었지만 본사와 분공장의 기능적, 공간적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업

의 경영 및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본사와 연구기관들은 서울로 재집중하는 한편 생산시설을 가동하는 분공장들은 물적 인프라와 저렴한 노동력이 산재하는 지방 공업도시들에 분포·확산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은 본사/분공장 간 공간적 분화와 기능적 연계성을 통해 다른 도시와 지역들의 경제를 직접 통제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창출된 이윤(경제적 잉여)을 공간적으로 집중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은 정치 및 경제 양 측면에서 모두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등은 심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포드주의적 대량생산대량소비 경제체계의 발달은 자원의 대규모 소모와 오염물질의 대량 배출로 심각한 환경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 1980년대 후반 권위주의적 신군부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촉발된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은 시민사회의 조직화와 노동조합의 제도화를 이끌어 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론을 민주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언론운동이나 학술운동도 촉진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는 시민사회(공론장을 포함)의 형성과 이에 바탕을 둔 정치적 민주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실질임금의 상승과 노동조건 개선의 확보할 수 있었다. 6월 민주화운동은 서울의 대학 및 시민사회의 공적 공간(거리와 광장)에서 우선 시작되었고, 더욱 고양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서울은 시민(운동)의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수도로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시민의 수도로서 서울의 역할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 1990년대 들어와서 중앙 정치권력은 탈군부화하여 국민 투표로 선출되었고,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도 시행되었지만, 보수화된 정부는 당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과정에 편승하여 기업들의 규제완화와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축소 등을 천명하면서 합리적인 경제 계획과 통계를 포기함으로써 결국 1997년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활동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되었지만, 경제적 삶은 1990년대 초반 실질임금의 상승과 내수시장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1997년 위기 이후 복지서비스의 축소와 실업 및 비정규직의 확대 등으로 오히려 위축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심각한 충격을 받은 한국 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최소한 외형적으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일반화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금융체계의 재정비가 촉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이른바 재벌)들은 도산했지만, 위기를 견뎌낸 대부분의 재벌들은 한국 경제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과정에 편승하여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진입하고자 했다. 정보화와 탈산업화 그리고 지구화과정에서 국가의 경제는 점차 이완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국민국가의 중심으로서 서울이 담당했던 수도의 기능도 점차 약화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울은 과밀화로 인한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아가 지구적 경쟁에서 세계도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도시들보다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신자유주의화 과정에 조응하는 도시정부의 기업주의적 전략으로 더욱 촉진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인구와 부의 집중·집적은 지속되었고, 비수도권과의 불균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정보화과정을 추동한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은 도시 및 지역들 간 초공간적 이동성을 증대시키고 사회공간적 연계성(네트워크)을 확충하면서 지리적으로 양방향 소통과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실제 그 효과는 오히려 불균등발전을 더욱 촉진하는 것이었다.

2000년대 이후 중앙정부와 더불어 서울 및 수도권의 도시정부들은 경제자유구역 등을 지정하여 규제 완화와 각종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외자본을 유치하고자 했으며, 도시정부는 도시의 신자유주의적 기능 및 관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도시공간을 재편하고자 했다. 세계도시의 창출과 수도 도시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정부는 공공부문 개발과 민관파트너십에 기반을 두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으며, 특히 거대 도시 프로젝트들은 서울과 그 주변 건조환경의 대규모 재구축으로 도시 공간과 경관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이에 따라 서울은 국가 영토의 중심으로서 수도에서 나아가 동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세계도시로서 위상

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도시로서 서울의 기능과 위상은 지구적 자본의 이윤추구와 지배적 정치 집단의 권력 강화를 가능하게 했지만, 서울의 생활공간에 심각한 고통을 초래했다. 대규모 건조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메가프로젝트 사업들은 토지와 주택가격을 폭등시켰고, 공적 목적을 명분으로 도시 공간의 재개발과 이에 따른 사유화와 상품화를 촉진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구적 금융위기(예로 2008년 위기)로 인해 금융조달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중단 또는 포기 사태로 이어지거나 또는 이 사업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심각한 저항에 봉착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서울과 주변 수도권권의 난개발이 촉진되었고, 포드주의적 산업화로 악화된 환경문제가 1990년대 어느 정도 통제되었지만, 2000년대 이후 다시 서서히 심화되게 되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과정에서 서울의 도시 공간이 자본과 권력에 의해 지배됨에 따라, 서울의 시민사회와 공적 공간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점차 약화·축소되었다는 점이다. 1980년대 후반 국가의 정치개혁을 요구했던 시민사회의 조직들은 IMF위기 이후 지구적 자본의 도시 유입과 이에 따른 도시공간의 기업주의적 재편에 대해 점차 무력한 태도를 보였다. 시민사회의 정치적 전선은 신자유주의적 국가 정책에 대한 반대에서 나아가 지구적 자본에 대립하는 반지구화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했지만, 오히려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

해 국내 대기업 자본뿐만 아니라 지구적(금융)자본의 유입과 활동이 불가피한 것처럼 보였고, 위기 직후 있었던 재벌 해체에 대한 요구도 점차 줄어들었다. 그리고 보수적 정부(중앙 또는/및 지방)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만연하면서 생활세계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의 심화로 운동 주체가 약화된 상황에서, 시민사회 조직들도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저항운동을 적극 전개하기 어려웠다(김석수, 2001). 그러나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에 걸쳐 지구적 자본의 억압과 보수정권의 통제가 본격적으로 심화되면서, 서울의 시민사회는 이명박정부에서 광우병 우려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운동에서 나타난 세계시장 통합 거부, 즉 반지구화운동, 그리고 무능하고 부패한 채 재벌 대기업들과 결탁한 박근혜정부에 대한 탄핵운동으로 드러난 반신자유주의운동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즉 서울의 시민사회는 생활공간을 억압하는 신자유주의 국가와 세계경제에 저항하는 실질적이고 또한 상징적인 장소로 활용될 수 있었다.

〈표 1〉은 이상에서 논의한 서울의 대규모적 사회공간적 위상과 역할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sup>7)</sup> 서울은 시민들의 일상적 삶이 영위되는 생활공간으로서 도시이며, 국가 경제발전과 정치적, 영토적 통합의 중심을 상징하는 수도이고, 나아가 자본주의 경제체계의 지구화 및 세계정치 질서에 편입된 세계도시로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서울은 1960년대 본격화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나아가 탈산업화와 지구화 과정을 거치면서 위상과 역할에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정

표 1. 서울의 대규모적 위상

규모(스케일)		지역	국가	세계
도시 기능		지방도시(생활공간)	국가 수도	세계도시
사회적	역할	삶의 질을 위한 복지와 일상생활의 (재)생산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통합의 상징	자본주의 경제체계 및 세계 정치 질서에 편입
	변화	억압적 정권으로부터 시민사회의 민주화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국제적 관계에서 세계체제로 전환
공간적	특성	시민의 생활공간 (의사소통과 상호인정)	국가 영토의 중심 (정치경제적 및 상징적)	세계적 자본의 재영토화 (지구적 네트워크의 허브)
	변화	생활세계의 식민화, 공적 공간의 사유화(엔클로즈)와 상품화	영토 경계의 이완(폐쇄적 경계에서 다공적 경계로 전환)	초공간적 이동성과 지구지방화 (다규모적 네트워크화)

권 및 재벌 권력의 중심으로서 국가 수도이고 지구적 영향력을 점차 강화시킨 세계도시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울의 생활공간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물질적으로 다소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경제적 및 정치적 체계의 둔감한(때로는 노골적인) 억압(주거비 상승, 사교육비 증가에서부터 심각한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으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의 시민사회는 권위주의 독재정권의 통제에서 벗어나 정치적 민주화를 일부 이루어졌지만 신자유주의적 국가와 자본주의의 지구화의 영향으로 다시 위축되었다. 시민사회는 국가 권력에 대한 정치적 지지나 자본 축적을 위한 노동력과 구매력의 제공과 같은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또한 동시에 공동체적 생활세계에서 문화적 실천을 유지·창출하기 위하여 생활공간 또는 더글러스 등(Douglass, 2006; Daniere and Douglass, 2009)이 지칭한 시민공간(civic space)을 요청한다. 수입쇠고기반대나 부패정권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지구화 및 신자유주의화로 인한 시민성의 위축에 직면하여 공적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는 도시의 시민공간의 생산과 유지에 결정적이며, 이에 따라 시민사회의 새로운 역동성이 창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서울은 '시민의 수도'로서 위상과 역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 4. 시민정과 도시권에 근거한 시민의 수도 정책

##### 1) 시민사회의 정치에서 시민정으로

수도는 기존 정치경제 질서의 중심지이고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의 용광로이지만(Mayera *et al.*, 2016), 또한 동시에 새로운 사회를 선도하는 정치적 장이 된다. 한국의 수도뿐만 아니라 서구의 수도들도 이러한 위상과 역할을 수행한다. 역사적으로 서유럽의 수도들은 기존의 정치 질서에 대항하는 격렬한 저

항운동을 통해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축하거나 도시 공간을 재편하고자 하는 시민들에 의해 역동적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서구의 수도들은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로서 시민사회에 기반을 둔 민주적 시민사회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그 도시뿐만 아니라 국가적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영향력을 미친 제도적 변화를 추동해 왔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 지구화, 정보화 과정을 통해 국경이 없는 세계 시민사회(탈국민국가) 또는 '중심이 없는 사회'로 지칭되는 네트워크사회(포스트모던 사회)에서도 그러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민국가를 전제로 했던 시민성의 개념은 지구적/지방적 시민성, 또는 세계시민적 시민성 등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도시적 시민성에 바탕을 두고 수도를 중심으로 대도시에서 전개되는 정치는 '시민성의 정치'로 일컬어지며, 이에 따라 시민사회와 국가 사이에 '정치적 전선'(political frontier)이 조성되어 긴장과 대립이 고조되기도 한다(Dijkink, 2000).

지구지방화 과정 속에서도 오늘날 수도는 시민의 식과 책임감을 가지는 시민들과 다양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사회가 정치적, 경제적 억압으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나아가 정치경제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전선 형성의 전형임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들이 있다. 지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직후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시발하였지만,<sup>8)</sup> 미국의 수도 워싱턴과 서유럽의 주요 수도들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던 공적 공간 점거운동은 대표적 사례이다(장세룡, 2017). 수도의 도시공간 점거운동은 이명박정부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운동,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구운동 등과 더불어 수도가 이러한 정치적 전선을 선도하는 대표적이고 가장 명시적인 장임을 보여주었다. 물론 지구경제나 국가정치의 메커니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적소들은 세계 및 국토 공간 어디에나 산재해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새로운 유형의 정치적 활동이나 선구적 운동들은 수도로 집중·집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수도가 국가적, 세계적 경제정치의 중심지로서 상징성을 가지기 때문만 아니라 대규모 인구가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공간이며, 이들이 무

능하고 부정의한 정치권력과 자본에 반대하여 사회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운동 에너지를 잠재하거나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데리다의 수도 개념이 함의하고 있는 바이다. 물론 데리다의 수도 개념은 기본적으로 수도의 어원과 의미 해석에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어떤 한계를 가지지만, 역사적으로 수도는 과거에 대한 기억에 바탕을 두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망하는 역량을 잠재하며, 잠재된 에너지를 현실화하여 정치적 운동의 최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정당화시켜준다. 이러한 점을 개념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이론은 시민(성) 및 시민사회 이론이다. 이 이론은 서구사회에서 발달하여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이 이론들이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이념(또는 가치)은 시민의 자유와 시민권의 보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자치성(자율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하버마스의 시민사회론은 시민들의 생활세계(생활공간)에 대한 지구적 및 국가적 차원의 경제·정치체계의 지배(식민화)로부터 벗어나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을 개념적으로 정당화시켜 준다.

그러나 기존의 시민사회이론, 특히 하버마스의 시민사회이론은 여러 가지 한계 또는 의문점을 자아낸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의문점은 첫째 하버마스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와 체계(국가 및 시장)를 상호 분리된 실체로 파악하고, 시민사회를 경제 및 정치체계에 의해 식민화된 생활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의 장(특히 공론장)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체계 간의 구조적 분리는 시민사회가 비록 자율성을 획득했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이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넘어서 국가(중앙 및 지방정부)를 자치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개념적으로 차단시키고 있다. 둘째, 하버마스의 이론에서 언어를 매개로 한 공론장의 재할성화는 돈과 권력을 매개로 한 체계의 지배나 왜곡(이데올로기)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공론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구성·요구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줄 수 없다. 셋째, 하버마스는 자신이

주장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시민사회의 주장이나 요구, 특히 공론장에서의 합의를 정당화시켜 준다고 주장하지만, 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이러한 정당성을 내재하는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특히 포스트모던 이론가들)에게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질 못한다. 여기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고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논제는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국가와 시장 간 관계에 관한 것이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시민들이 정치 및 경제 체계의 억압에 대항하여 얻게 되는 일정한 성과는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의 확보, 나아가 국가와 시장의 합리적 작동에 대한 요구 등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이 점에서 어떤 의문이 제기된다. 시민들이 국가와 시장의 운영 주체로서 체계에 직접 개입 없이,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가?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하버마스는 시민사회에 관한 자유주의적 입장, 즉 기본적으로 국가와 분리된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이 보편적 권리와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김대영, 2004). 이러한 자유주의적 입장은 그러나(자본주의적) 경제·정치 체계의 작동 메커니즘들의 직접적 통제나 극복 없이, 즉 이들과 무관하게 시민의 자유와 권리,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 답할 수 없다.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시민사회의 역할을 국가 권력의 억압적 행사에 대한 저항 조직과 실천에서 나아가 국가(정부)를 직접 운영하는 ‘정치사회’의 포섭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 대안적으로 강조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적 사고는 그람시의 시민사회 및 국가 개념에 부분적으로 근거한다. 그람시는 하버마스와 유사하게 시민사회를 물질적 생산과정인 경제영역에 속하지 않고, 또한 국가에 의한 통제나 영향을 받지 않는 시민들의 자발적 조직체로 정의한다. 그러나 그는 국가를 단순히 시민사회를 억압하는 정치적 장치라는 견해를 벗어나서 물리적 강제력을 지닌 정치사회와 문화적 헤게모니를 지닌 시민사회의 결합으로 정의한다. 국가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사적 형태의 조직들(예로 정당, 학교, 노조, 언론, 종교단체, 기타 시민단체 등)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만 유지된다. 즉 국가는 부르주아적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동의에 바탕을 둔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한다. 그럼시는 서구 자본주의 체계의 견고성이 억압적인 국가로부터 유래하기보다는 헤게모니가 행사되는 시민사회에서 유래한다고 본다(Gramsci, 1971, 216 및 261). 이러한 점에서 국가가 지배계급의 헤게모니 전략에 가장 확실한 입지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면, 시민사회는 그들의 헤게모니 전략이 평가받고 도전받는 불확실한 경쟁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김성국, 1995, 38; 허평길, 1999, 268). 그렇다면, 자본주의적 지배계급이나 국가 권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사회운동의 목표는 시민사회에서 작동하는 헤게모니에 대한 대항 헤게모니를 창출하여 시민사회를 재구성하고, 나아가 시민사회가 정치사회를 흡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시의 시민사회론도 문제점을 가지겠지만, 그의 ‘통합국가’론은 시민사회가 단지 자율성의 확보에 머물 것이 아니라 나아가 국가의 정치사회(정부와 관료조직)를 포섭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시민사회에 의한 정치사회의 포섭, 즉 시민사회에 의한 정부 운영은 국가나 세계 차원에서보다는 도시나 지방 차원에서 보다 용이하고 실험적으로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의 시민사회가 도시정부의 자치적 운영을 담당하는 정체를 ‘시민정’(civic polity)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sup>9)</sup> 시민정은 도시의 구성원들이 시민적 역량과 정체성

에 바탕을 두고 시민사회를 조직화하여 시민적 권리(또는 도시에 대한 권리)의 적극적 행사를 통해 정치사회(지배계급과 관료조직)를 흡수 또는 대체하여 도시정부를 운영하는 정체로 규정될 수 있다(그림 2 참조). 시민정의 개념은 국가를 완전히 소멸시키거나 대체하고자 하는 아나키즘이나 코뮌주의와는 달리(도시)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인정하면서 운영체도를 시민사회에 편입(융합이 아니라)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민정의 개념은 다양한 관점들, 예로 자유주의적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시민정은 기존의 정치이론에서 흔히 거론되는 국가 형성을 위한 사회적 계약에서 도시의 시민적 정체 형성을 위한 ‘시민적 계약’(civic contract)으로 전환한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Chryssoschoou, 2001).

이러한 시민정의 개념은 현실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념적으로 몇 가지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시민정의 개념은 새로운 주체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기존의 정치구조에서 시민은 정치경제적 지배계급의 통제와 억압의 대상 또는 이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동의의 대상으로 간주되지만, 시민정은 시민과 시민사회의 조직체가 수동적인 저항이 아니라 대항 헤게모니의 구축을 통해 보다 능동적인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시민정은 시민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체 형성에 참여함으로써 그 정체에의 소속감과 정체성, 연대(공동체)의식을 강화시킨다. 둘째, 시민정의 개념은 시민들로 하여금 대립과 저항을 위한 정치적 전선을 넘어서 정치사회의 포섭과 제도적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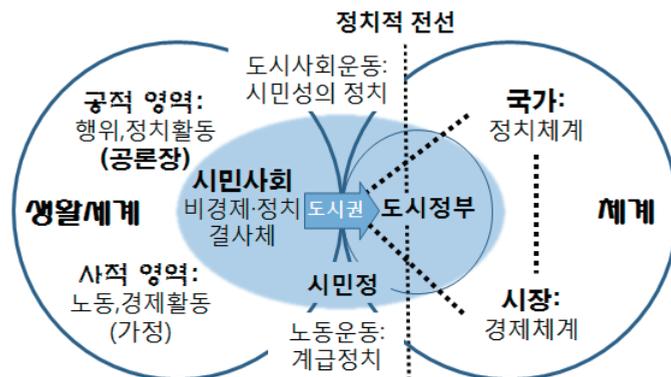


그림 2. 시민사회와 도시정부의 통합체로서 시민정

치에의 직접적 참여를 강조한다. 기존의 시민사회이론들은 대부분 시민들이 시민사회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처럼 인식하지만, 시민정의 개념은 제도화된 정치의 운영자가 될 수 있음을 정당화시켜 준다. 셋째, 이 개념은 기존의 시민(성)과 (국민)국가(또는 정부) 간 관계에서 국가중심적 사고(국가주의적 방법론)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민성의 개념을 강구하도록 한다. 시민들은 보편적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는 자유주의적 주장이나 시민들이 특정한 공동체의 소속을 통해 평등과 권리를 보장 받는다는 공동체주의적 주장은 시민과 국가(정치공동체) 간의 관계성을 무시함으로써 이들 간 통합적 관계에 초점을 둔 새로운 정치의 형성을 가로막는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시민정의 개념은 시민성이 국가의 차원뿐만 아니라 그 하위 규모인 도시적 차원에서 보다 용이하고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정의 개념은 뒤에서 논의될 ‘도시권’의 개념에 의해 더욱 정당화될 수 있다.

요컨대 시민사회가 자발적 조직화를 통해 자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도시정부의 시민-지향적 편성을 제도화하지 못할 경우, 시민정이라는 정치의 정당성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다시 국가중심적 정체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물론 완전한 형태의 시민정은 자본주의적 정치경제체제(즉 대의제를 전제로 한 국가 정치체제와 물신화된 상품 생산에 기반한 세계 경제체제)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와 도시정부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는 점에서 ‘도래할’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시민정의 개념이 가지는 이러한 유의성들에 더하여, 시민정의 개념은 시민의 주체적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점은 두 번째 논제, 즉 언어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적 공론장의 재활성화에서 공론의 구체적 내용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한다.

## 2) 도시 정책의 새로운 모형들과 도시권

좁은 의미에서 시민사회에서의 정치가 생활세계에서 시민들의 사회문화적 재생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보다 넓은 의미에서 시민사회의 정

치, 즉 시민정에서 시민들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넘어서 정치 및 경제 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도시)정부의 운영자로서 정책을 입안·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정에서 필요한 정책의 주요 내용들에 대한 고려가 요청된다. 시민정의 주요 정책들은 시민사회의 사회문화적 재생산의 자율성을 넘어서 정치·경제체계의 점진적 개입을 통한 이의 재편을 기본 취지로 설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3가지 측면 또는 영역의 정책 및 정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정치체계 자체의 재편을 위하여 정치·정책적 의사소통에 기반한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구축(협치의 정치), 둘째 경제체계의 재편을 위하여 차별 배제, 즉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경제적 자원의 재분배(포용의 정치), 셋째 정치·경제체제와 자연환경 간 관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태적 순환체계의 전환(전환의 정치) 등을 포함할 것이다(그림 3 참조). 시민정에서 추진할 정책의 3가지 주요 영역들은 최근 도시이론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3가지 유형의 모형(또는 패러다임)들, 즉 협치도시, 포용도시, 전환도시의 개념들과 관련시켜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사회경제적 자원의 재분배를 위한 포용의 정치는 좁은 의미로 사회(공간)적 차별과 배제를 해소하고 포용과 통합을 지향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좀더 포괄적 의미에서 포용의 정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완화, 자원 배분의 기회 및 결과의 형평성 제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포용을 통한 성장을 모색하는 정치이다. 이러한 포용의 정치는 자본주의적 경제성장 과정, 특히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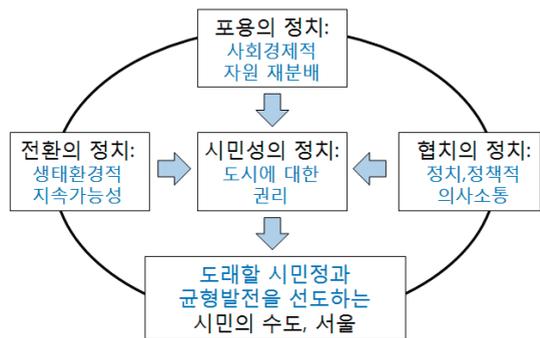


그림 3. 시민정을 위한 정치와 정책

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과정이 경제적 양극화 심화와 사회적 취약집단들의 배제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함으로써 더 이상 경제 과거와 같은 고도의 경제성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성찰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포용의 정치 또는 이를 통한 포용도시, 포용성장은 “현대사회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도시 비전”을 실현하고자 한다(박인권, 2015). 물론 이러한 포용도시 또는 포용성장의 개념이 기존에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경제를 추동했던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도 강조되었다는 점에서(World Bank, 2015 등 참조) 한계에 봉착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체계의 자기 조정과정이라고 비판될 수도 있을 것이다(최병두, 2017). 이러한 점에서 포용의 정치는 체계의 자기조정과정이 아니라 생활세계에서 자원 배분의 차별화와 배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진정한 요구로 추동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생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전환의 정치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지속불가능하게 된 자원순환(즉 신진대사)과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간 사회와 생태환경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새로운 생태환경적 관계를 위한 전환의 정치 또는 전환도시 정책은 사회-환경 관계를 매개하는 기존의 경제정치체제를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변화시키는 거시적 전환을 추구하거나 또는 생태환경의 위기를 점진적으로 해소하여 생태환경의 복원력을 회복하도록 함으로써 사회-환경관계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태환경적 전환의 정치도 역시 그 동안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 확인된 것처럼 기존의 환경위기를 유발한 경제정치체제의 전환 없이 위기 자체만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전략(예로 이른바 저탄소녹색성장 전략)이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전환의 정치, 특히 우리 사회나 도시가 요구하는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에너지원의 전환(예로 화석에너지와 원자력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만이 아니라 공급주도, 중앙집중적, 시장의존적 생산 및 관리체제를 수요관리, 지역분산적, 시민참여형 체제로의 이행을 의미한다(최병두, 2013). 이러한 생

태환경적 전환의 정치는 도시에서 사용되는 물질적 자원(에너지 포함)의 자립적 순환과정을 추구한다.

셋째 정치·정책적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협치의 정치는 오늘날 불가피한 것처럼 보이는 대의제 정치의 문제점을 해소·극복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의 직접적 참여와 의사소통(공론화) 과정을 제도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협치를 의미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또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시장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사회정치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참여와 협력 과정으로 이해된다(Ansell and Gash, 2008; 최병두, 2015). 이러한 협치는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 내에 어떤 규범성(의사소통적 합리성 또는 신뢰와 호혜성)을 함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에는 이러한 규범성이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형식적 동의를 구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위한 명분으로 동원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협치의 정치는 기존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개념에서 벗어나 공론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의사소통적 동의에서 나아가 도시정부에의 실질적인 참여와 운영을 추구하는 시민적 헤게모니 거버넌스(즉 시민정)의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또는 모형)의 도시 정책들은 현대사회의 정치·경제체계 자체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체계로부터 생활세계를 보호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체계에 직접 개입하여 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민정의 실질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시민정의 구축과 이를 통해 추진될 정책·정치들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인 가라는 의문이다.

이 의문, 즉 세 번째 논제에 대한 답으로 우선 고려될 수 있는 개념이 하버마스의 시민사회론에서 제시된 ‘의사소통적 합리성’(또는 공적 또는 상호주관적 합리성)이다. 즉 하버마스에 의하면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시민들은 생활세계 속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들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규제하거나 비판하는 ‘규범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생활세계를 정치경제체계에 의한 식민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의한 공적 영역의 활성화라고 주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포스트모던 이론가들과의 논쟁에서 흔히 지적되는 것처럼, 서구적 전통 속에서 개념화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그 자체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윤리적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한 합의라고 할지라도, 실제 타자의 정체성과 차이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된다. 또한 하버마스 자신의 주장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정치경제체계에 의해 이미 식민화되었거나 ‘체계적으로 왜곡된’ 공론장에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생활세계의 규범적 잠재력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윤리적 근거에 대해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시민정의 구축과 이를 통한 구체적 정책들의 추진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개념으로 시민성(또는 시민권)을 들 수 있다. 시민성은 (도시)사회에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이나 생활태도를 의미하며, 또한 동시에 특정한 정치적 공동체(대표적으로 국가)에 소속됨으로써 가지게 되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시민성은 국민국가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최근 지구지방화 과정과 이에 병행된 공간구조의 재편으로 다규모화되고 있다. 즉 전통적 정치공동체인 국가와 관련된 국가적 권리와 의무로서 시민성의 개념과 더불어 세계화된 시민사회(세계시민주의에 의해 주로 뒷받침되는)의 사고와 관련된 세계시민성이나 도시의 거주자로서 가지는 정체성과 권리에 근거를 둔 ‘도시 시민성’의 개념이 제시되기도 한다(Purcell, 2003; Baubock, 2010). 특히 사회공간적 측면에서 시민성은 개인이 가지는 절대적 권리라기보다는 집단적(공동체적)이며 관계적 권리라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이러한 시민성의 사고는 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 권리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공동체가 부여하는 수동적, 정태적 개념이 아니라 시민들의 실천적 요구에 의해 쟁취되는 능동적, 역동

적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조철기, 2016).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이 어떻게 규범적 원리를 포괄하는가, 즉 시민성의 요구를 정당화시켜 주는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 선뜻 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성의 개념은 다른 규범적 개념들 예로 평등, 사회정의, 인권 등의 시민적 가치나 규범적 원리를 포괄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성의 개념이 이러한 보편적 윤리의 개념들과 관련시켜 재구성될 경우, 시민성의 개념은 그 속에 함의된 장소-특정적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전통적 시민성의 개념이 사회공간적 범위를 전제로 한 공동체의 성원성(membership)에 근거를 둔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시민권을 개별 정치적 행위자들 간 ‘사회계약’의 사고와 관련시키기도 하지만, ‘사회계약’의 사고는 역사적으로 부재한 것의 가정, 즉 현실성을 결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민성의 개념은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와는 무관하게 중산층(부르주아)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사회적 부(경제)의 생산자(노동)계급을 간과 또는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성의 개념을 대체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는 대안적 개념, 즉 그 자체 내에서 규범적 근거를 가지면서도 국민국가와의 관련성을 넘어서 도시적 맥락에 적용될 수 있고 나아가 생산계급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줄여서 도시권)의 개념이 제시될 수 있다. 르페브르는 도시의 일상생활이 처한 위기에서 비롯된 실존적 고통에서 벗어나 대안적 도시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개념을 처음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도시에 대한 권리는 자유에 대한 권리나 주거에 대한 권리와 같이 그 자체로 명백한 권리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권리들인 작품에 대한 권리, 참여와 전유의 권리, 차이의 권리 등을 포함한다(강현수, 2010). 르페브르는 이러한 도시권의 개념을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권리의 문제에서 나아가 (도시)공간의 생산에 대한 권리의 문제로 일반화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하버마스는 도시권을 도시를 생산한 시민들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도시를 재창조할 권리로 이해한다. 이를 반영

하여, 하비는 “도시생활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깨달을 때, 또한 그들이 마음 속 열망에 따라 도시를 건설할 천부적 권리도 얼마든지 외칠 수 있다고 깨달을 때, 우리는 의미 있는 도시정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하비, 2014, 19).

이와 같은 도시권의 개념은 의미 있는 도시정치의 실현을 위한 시민정과 이를 통한 구체적 정책들의 입안 및 시행의 정당성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단순히 의사소통적 합의나 또는 특정한 정치적 공동체의 성원(또는 계약)으로서 가지는 시민성의 개념에서 나아가 도시(도시에 누적된 잉여와 건조환경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를 생산한 주체로서 시민들이 가지는 집단적 권리이다. 도시공간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생산한 공유재이며, 도시권은 시민들(생산자들)이 자신이 생산한 이러한 공유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가진다. 물론 도시의 금융투자거나 개발업자들도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또는 더 강하게) 도시권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는 누가 생산했는가, 또는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투쟁, 즉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정의하는 투쟁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병행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Plyusheva, 2009). 요컨대 시민(사회)이 도시정부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민정을 구축하여 도시권의 구체적 요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도시권은 기존의 시민권 개념에 대한 대안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경제정치체계의 억압에 대한 도전으로서 유의성을 가진다. 즉 도시권은 자본주의적 지구지방화와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에 의해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공간의 재편에 저항하여 도시의 공적 공간들을 점유하고자 하는 실천운동에도 반영될 수 있다. 또한 도시권은 자신들이 생산한 도시공간이 정치경제체계를 위한 공간으로 전유·편성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목적과 희망에 따라 활용되고 재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들을 뒷받침하고 이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에서 제안했던 3가지 유형의 정책들은 이러한 도시권

의 개념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정책들의 합의에 따라 도시권의 구체적 내용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즉 도시권의 개념은 시민사회 나아가 시민정의 정치와 정책을 포괄적으로 정당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3가지 권리, 즉 사회경제적 자원의 재분배에서 포용의 권리, 생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환의 권리, 그리고 의사소통적 정치와 정책 구성을 요구하는 협치의 권리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sup>10)</sup>

첫째 시민들은 자신이 생산한 사회경제적 자원의 집단적 전유와 재분배에 참여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사회경제적 자원의 재분배에서 포용의 권리는 자신이 생산한 도시(도시 잉여물, 건조환경, 공유재 등)의 이용과 관리로부터 불평등하게 차별화되거나 배제되지 아니하고 자원의 상대적 부족이나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득과 고용(일자리), 자원 및 자산의 소유 및 활용, 복지서비스의 제공 등에 포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자연환경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생태환경과 인간사회 간 물질적 순환(신진대사)관계가 자본주의적 정치경제 체계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그 관계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생태환경적 전환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시민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도시의 미래 정책들의 입안 및 시행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이의 실천에 협력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협치의 권리는 시민들이 도시의 정치 활동, 도시의 권리 및 행정에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뿐 아니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의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5. 결론: 시민의 수도로서 서울을 위하여

2010년대로 들어오면서 서울시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6기에 이르기까지 과거와는 다른 시정 기조로

뚜렷이 전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람·시민 중심’이라는 새로운 시정 기조는 다채롭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구상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되었다. 민선 5기(2011.10.~2014.6.) 서울시는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이라는 비전속에서 시정운영 방향의 총괄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희망시정 원년” 그리고 “복지·일자리·안전·시민참여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민선 6기(2014.7.~현재)에 와서 서울시는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비전속에서 시정운영의 방향 총괄로 “혁신·협치·소통을 기반으로 시민생활 구축구석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사람특별시’ 구현”을 설정했다. 이러한 시정 비전과 총괄적 운영방향에 따라 서울시는 새롭고 매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이 정책들은 노동존중 특별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형 복지 도시 등의 포용도시 정책, 원전하나 줄이기(에너지 자립형 도시), 자원순환도시, 보행친화도시, 공유도시 등의 전환도시 정책, 그리고 주민 참여의 활성화와 바탕을 둔 마을 공동체만들기, 주민참여 예산제,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조례 제정과 위원회 정비 등 협치도시 정책 등을 포함한다.

오늘날 모든 대도시들, 특히 수도들은 (명목적이든 또는 실질적이든 간에) 시민의 도시임을 강조하지만 (Friedmann and Douglass, 1998), 실제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 기조와 구체적 정책 내용들은 정책의 실현을 통한 현실 변화를 추동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성하고, 서울시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물론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 기조와 정책 내용들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과 세부적인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이 문제 외에도 좀 더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서울시가 새로운 정책 기조와 정책 내용들을 약속하는 것은 이의 실행을 책임지는 것이며 또한 이의 실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실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정책 기조와 정책 내용들의 약속은 시민사회의 동의와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담론을 재구성한다는 점이다(서울연구원, 2016).

서울에 관한 정치적 담론의 재구성은 서울의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재이미지화의 평가를 위해 예로 다음과 같은 과제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가 흔히 인식되는 것처럼 한국 경제·정치 중심에서 ‘사람·시민 중심의 도시’ 또는 사람 특별시’로 나아가기 위해 이미지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만들고 그 성과를 함께 누리는 서울’을 지향하는 정책을 위하여 도시정부는 어떤 정치형태를 구축해야 하며,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어떤 개념에 근거하여 정당화되어야 하는가?

이 논문은 이러한 과제에 부응하여 서울을 ‘시민의 수도’로 재이미지화하고 시민사회가 도시정부를 포섭한 형태의 시민정 그리고 이를 통해 시행되는 정책들의 정당성을 위하여 도시권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민의 수도’로서 서울의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것은 서울이 한국의 정치경제와 국토공간의 중심으로서 이미지를 물려 받으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전위(선도성)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수도의 어원과 의미, 그리고 시민과 시민사회, 시민성의 개념들을 재검토하였다. 한국의 해방과 근대 국가의 형성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된 수도라는 용어는 영어 ‘capital’의 번역어로 으뜸이나 중심이라는 의미 외에 돌출지점으로서 곳, 선두, 선장 등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데리다는 수도 개념을 도래할 민주주의의 전위로 해석한다. 시민의 개념 역시 영어 ‘citizen’의 번역어로 고대 도시국가(아테네)에서 도시의 거주민, 덕목을 갖춘 교양인, 공론장의 참여자의 의미를 가진다. 시민성(또는 시민권)은 이러한 시민들이 갖춘 자질과 권리를, 시민사회는 이들의 결사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민성과 시민사회의 개념은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특히 아렌트와 하버마스의 공론장 및 시민사회 이론은 자본주의 경제·정치체계에 의해 식민화의 위기에 처한 생활공간과 시민사회의 복원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두 가지 용어의 어원과 역사적 의미를 반영한 ‘시민의 수도’ 개념은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정치체계의 억압 또는 식민화로 인한 생활공간과 시민사회의 위기를 해소하고 나아가 새로운 민주

정 또는 ‘시민정’을 선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수도와 시민의 개념에서 도출된 이러한 ‘시민의 수도’ 개념은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책 과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사실 데리다의 수도와 도래한 민주주의의 개념은 그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이 지적되며, 하버마스의 시민사회 이론(나아가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 역시 절차적 이론으로 실질적 성과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하버마스의 이론은 정치경제체계의 식민화로 소멸의 위기에 처한 공론장의 활성화 또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위하여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강조하지만, 시민들이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나아가 정치 및 경제체계의 작동에 직접 개입하여 운영하고 변화시키려는 전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그람시가 제시한 대항 헤게모니와 통합국가 개념에 근거하여 시민사회와 도시정부의 통합체인 시민정의 개념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정을 통한 시민사회의 도시정부 운영에서 주요한 정책의 내용 설정을 위하여 포용도시, 전환도시, 협치도시의 정책 모형(패러다임)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민정의 개념과 관련 정책들의 정당성을 위한 개념적 근거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나 기존의 시민성의 개념에서 나아가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이 제안될 수 있다. 시민성(또는 시민권) 개념에 대한 대안으로서 도시권은 사회경제적 자원의 (재)분배에 대한 포용의 권리, 생태환경적 순환체계의 전환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의사소통적 참여와 협력을 위한 협치의 권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주

1) 2000년대 중반 노무현정부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수도의 기능을 현재의 세종시로 이전하고자 했지만, 이에 대해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 특별법이 서울을 수도로 하는 관습헌법에 위반이므로 개헌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성문헌법에 기반을 둔 법체계에서 관습헌법이 효력을 갖는가, 그리고 서울이

한국의 수도인 것이 관습헌법에 해당되는가 등을 둘러싸고 학설상 비판적인 견해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예로, 장영철, 2011; 고봉진, 2015 등 참조).

2) 김재정(2013)에 의하면, 수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경성’(京城)이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수도를 소개할 경우에도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그 밖에도 경도(京都), 경(京), 수부(首府), 왕성(王城), 도(都), 도성(都城), 도부(都府) 등이 사용되었다. 또한 김정호가 작성한 서울지도의 이름이 ‘수선전도’인데, 여기서 ‘수선(首善)’은 『한서(漢書)』에 나오는 문장, “건수선자경사시(建首善自京師始)”(‘ 으뜸가는 선(善)을 건설함은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뜻)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3) 남한(대한민국) 헌법이 수도를 특정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48년 제정한 헌법에서 서울을 수도로 규정하였고, 1972년 개정 헌법에서 평양을 수도로 명시하고 있다.

4) 지젝(2006)의 해석에 의하면, 데리다의 ‘도래할 민주주의’는 미래의 민주주의, 또는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민주주의의 메시아로 해석된다. 특히 데리다가 ‘메시아적인 것’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메시아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 도입될 ‘단절’이라는 형식적 측면이라는 점에서, “지젝은 데리다의 내용 없는 형식으로서 ... ‘메시아적인 약속의 순수한 형식’을 비판한다”(구자광, 2008, 15).

5) 정상호(2014, 280)는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는 데 시민들이 거액을 쾌척했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당시 시민으로 지칭되던 상인집단은 조정이나 정부에 대단히 종속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송호근(2013)은 동학의 창시자 최계우도 양반출신이지만 상인이었고, 최초의 종교개혁을 위해 인민을 주체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시민의 시초를 동학에서 찾고자 한다.

6) 정미라(2015, 246)에 의하면, 사이공간은 “물리적 장소와 인간들 사이의 소통에 의해 만들어진 ... 공적 세계”로 “그 자체로 지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호적인 행위가 사라지는 순간 언제나 소멸될 수 있는 위험을 함축한다.”

7) 수도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세 단계 규모 구분은 지리학에서 일반적이지만, 특히 Douglass(2006)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 또한 Cochrane and Jonas(1999)도 통일 독일의 베를린을 재이미지화하면서, 세계도시, 국가 수도, 일상적 장소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8) 윌스트리트는 뉴욕에 있지만, ‘윌스트리트 점령 운동’은 도시 및 지역에 따라 달리 전개되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 이뤄졌던 ‘윌스트리트 점령’ 운동의 핵심은 ‘오쿠파이 캐피털’(Occupy Capital)로 연방법을 재·개정하는 의원들과 그 주변의 로비스트들을 타도하자는 것이

- 주요 과제였다(주간조선, 2012.3.5. 참조).
- 9) ‘시민정’이라는 용어는 벤하비브(Benhabib, 1998)의 주장, 특히 “호혜적이고 완전하게 민주적인 시민사회가 시민정이 된다”는 주장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구체적 내용은 관계가 없다.
- 10) 이러한 점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제3차 유엔 하비타트회의에서 포용도시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논의된 바 있으며(UN Habitat III, 2015), 같은 맥락에서 전환도시 및 협치도시에 관한 논의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현수, 2011, 도시에 대한 권리 -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 고봉진, 2015, “관습헌법의 존재와 효력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 21(2), 1-25.
- 구자광, 2008, “도래할 민주주의: 지적 vs 테리다,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10(2), 7-26.
- 김대영, 2004, “시민사회와 공론 정치: 아렌트와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2(1), 105-144.
- 김석수, 200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새로운 시민주체,” 사회와 철학, 1, 78-108.
- 김성국, 1995,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 유폴무·김호기 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서울, 한울.
- 김정현, 2015, “‘유럽’의 해체: 테리다의 『다른 곳』(L’Autre Cap)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133, 1-36.
- 김제정, 2013, “근대 수도 개념어의 용례와 번역어 ‘수도’의 등장,” 서울학연구, 52, 91-117.
- 김형국, 2003, “행정수도 건설안의 타당성과 시의성,” 대한지리학회지, 38(2), 312-323.
- 테리다, 자크(김다운·이혜지 역), 1997, 다른 곳, 동문선(Derrida, 1991, *The Other Heading: Reflections on Today's Europe*, Indiana Univ. Press).
- 마샬, 토마스 험프리(조성은 역), 2014, 시민권, 나눔의 집(Marshall, T.H.,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And Other Essays*, Cambridge Univ. Press).
- 무폐, 상달(백영현 역), 2003, 시티즌십이란 무엇인가, 시민과 세계, 3, 379-388.
- 박인권, 2015, “포용도시: 개념과 한국의 경험,” 공간과 사회, 25(1), 95-139.
- 서울연구원, 2016,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 서울연구원.
- 송호근, 2013, 시민의 탄생: 조선의 근대 공론장의 지각 변동, 민음사.
- 아렌트, 한나(이진우, 태종호 역), 2009, 인간의 조건, 한길사(Arendt, H., 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 Press).
- 에드워즈, 마이클(서유결 역), 2005, 시민사회: 이론과 역사, 그리고 대안적 재구성, 동아시아.
- 이나미, 2014, “근, 현대 한국의 민 개념,”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3(2), 143-184.
- 이현진, 2015, “조선시대 ‘상경’을 통해 본 수도 한양의 성격,” 서울학연구, 60, 63-91.
- 임덕순, 1985, 서울의 수도 기원과 발전과정, 지리학논총, 별호 1.
- 장미경, 2001, “시민권(citizenship)개념의 의미 확장과 변화 - 자유주의적 시민권 개념을 넘어서,” 한국사회학, 35(6), 59-77.
- 장세룡, 2017, 공간 점거에서 수행성과 (비)재현 공간 행동주의, 최병두 외, 희망의 도시, 한울, 336-370.
- 장영철, 2011, “수도의 법적 지위,” 공법연구, 40(1), 269-296.
- 정미라, 2015, “공적 영역의 상실과 현대사회의 위기,” 철학논총, 81, 241-258.
- 정상호, 2013, 시민의 탄생과 진화: 한국인들은 어떻게 시민이 되었나, 한림대학교 출판부.
- 조철기, 2016, “새로운 시민성의 공간 등장 - 국가 시민성에서 문화적 시민성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3), 714-729.
- 최병두, 2012, 자본의 도시: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도시정책, 한울
- 최병두, 2013, “대구의 도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4), 647-669.
- 최병두, 2015, “협력적 거버넌스와 영남권 지역 발전: 개념적 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3), 427-449.
- 최병두, 2017, “관계적 공간과 포용의 지리학,” 대한지리학회지, 52(6), 661-682.
- 김리카 윌(장동진·장휘·우정열·백성욱 역), 2005,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Kymlicka, W., 2002 (2nd edn.),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 OUP, Oxford).
- 하버마스, 위르겐(장춘익 역), 2013, 의사소통행위이론 1 - 행위합리성과 사회합리화, 나남(Habermas, J.,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1: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Beacon Press, Boston).
- 하버마스, 위르겐(한승완 역), 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Habermas, J., 1962/1990,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 하비, 데이비드(한상연 역), 2014, 반란의 도시, 에이도스 (Harvey, D., *Rebel Cities: From the Right to the City to the Urban Revolution*, Verso).
- Ansell, C. and Gash, A., 2008,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4), 543-571
- Baubock, R., 2010, Reinventing urban citizenship, *Citizenship Studies*, 7(2), 139-160.
- Benhabib, S., 1998, Democracy and identity: in search of the civic polity,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24 (2-3), 85-100.
- Chrysochoou, D., 2001, Towards a civic conception of the European polity, Working Paper 33/01 in ESRC "One Europe or several?" Programme, Sussex European Institute, Univ. of Sussex.
- Cochrane, A., and Jonas, A., 1999, Reimagining Berlin: World city, National capital or ordinary place?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6(2), 145-164.
- Czajka, A. and Isyar, B. (eds), *Europe after Derrida: Crisis and Potentiality*, Edinburgh Univ. Press.
- Daniere, A. and Douglass, M.(eds.), 2009, *The Politics of Civic Space in Asia: Building Urban Communiti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Dijkink, G., 2000, European capital cities as political frontiers, *GeoJournal*, 51(1-2), 65-71.
- Douglass, M., 2006, Local city, capital city or world city? civil society, the (post-) developmental state and the globalization of urban space in Pacific Asia, *Pacific Affairs*, 78(4), 543-558.
- Friedmann J. and Douglass M. (eds), 1998, *Cities for Citizens: Planning and the Rise of Civil Society in a Global Age*, Wiley, New York, 1-18.
- Gordon, D., 2006, Capital cities in the twentieth century, in Gordon D.(ed), *Planning Twentieth Century Capital Cities*, Routledge London, 1-7.
- Gramsci, A., 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 Hall, P., 2006, Seven types of capital city, in Gordon D.(ed), *Planning Twentieth Century Capital Cities*, Routledge London, 8-14.
- Mayera, H., Sagerb, F., Kaufmannb, D., and Warlanda, M., 2016, Capital city dynamics: Linking regional innovation systems, locational policies and policy regimes, *Cities*, 51, 11-20.
- Plyushteva, A., 2009. The right to the city and struggles over urban citizenship: Exploring the links, *Amsterdam Social Science*, 1(3), 81-97.
- Purcell, M., 2003, Citizenship and the right to the global city: reimagining the capitalist world order,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7(3), 564-590.
- UN-Habitat, 2015, *Inclusive Cities*. Habitat III Issue Papers.
- Weber, S., 2014, Mind the 'cap', in Czajka, A. and Isyar, B. (eds), *Europe after Derrida: Crisis and Potentiality*, Edinburgh Univ. Press, 9-29.
- World Bank, 2015, *Inclusive Cities Approach*, GSURR.
- Zizek, S., 2006, A plea for a return to *Difference* (with a Monor *Pro Domo Sua*), *Critical Inquiry*, 32(2), 226-249.
- 교신: 최병두, 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 대구대학교 사범대 지리교육과(이메일: bdchoi@daegu.ac.kr, 전화: 053-850-4155, 팩스: 053-850-4151)  
Correspondence: Byung-Doo Choi,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15 Naeri-ri, Jillryang-gup, Gyeongsan-si, Gyeongbuk, 712-714, Korea (e-mail: bdchoi@daegu.ac.kr, phone: +82-53-850-4155, fax: +82-053-850-4151)
- 최초투고일 2018. 6. 4  
수정일 2018. 6. 21  
최종접수일 2018. 8. 24

# 보통도시로서 포용도시 논의와 서울의 과제

남기범\*

## Inclusive City as an Ordinary City: Towards New Directions for Seoul

Keebom Nahm\*

**요약** : 최근 신자유주의 도시정책으로 인한 불균형 심화와 총량적 효용극대화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면서 포용도시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주로 저개발국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기구들이 생산한 지표와 틀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미 불균형해진 공간, 경제, 사회, 문화적 격차와 상실감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격차지표의 구축을 통한 도시계획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논의들이 주종을 이룬다. 본 연구에서는 저개발국가를 위해 제시된 포용도시 지표나 정책방향이 대도시지역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대도시 서울의 포용성에 대한 논의는, 도시의 본질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기제에서 포용성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과 도시거버넌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포용도시는 사후적 특성을 가진 지표의 충족으로 달성되기 보다는 형성적 특성을 가진 요인(요소)의 구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기존 포용도시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대도시에 적합한 포용성의 개념을 제시하며, 현대 도시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도시포용성을 위한 보통도시의 개념을 제시한다. 보통도시로서 포용도시 서울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제도화, 도시경제 순환시스템의 회복, 연대, 상호존중과 협력의 수평적 관계형성, 경제·사회적 한계계층 지원, 도시공통재와 어메니티에 대한 접근성 향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문화와 지향이 다른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을 가진 이방인의 도시, 환영도시가 되어야 한다.

**주요어** : 포용도시, 보통도시, 서울, 도시공통재, 경제순환시스템, 이방인의 도시

**Abstract** : Inclusive city has been a buzz word, stemming from the critics for the neoliberal urban policies and resultant socio-spatial inequality. Most of the literature, however, are mainly focused on the less-developed countries and cities utilizing index-based ex-post urban planning prescriptions prepar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UN HABITAT, OECD, EU, and ADB. Premising that this approach is inadequate for the global metropolitan city of Seoul, this paper started to investigate the nature of city, urban commons and structural changes for urban governance. By criticizing Seoul's inclusive city policies and strategies, the paper introduced Ash Amin's ordinary city and strangers' city concepts, and suggested new policy directions for an ordinary city Seoul as inclusive city. It proposed new policies such as building people-centered urban governance and sound urban economic circular system, horizontal relating for empathy, mutual respectiveness, and collaboration, subsidizing for the socio-economically marginalized class, and lastly but not least importantly, improving accessibility for amenities and resources for better utilizing urban commons. All in all, in order to become a genuine inclusive city for a global metropolitan city like Seoul is to regain the mechanism of ordinary city and welcoming city by guaranteeing participation of people of various political, social, cultural backgrounds and perspectives in formulating a new urban governance.

**Key Words** : inclusive city, ordinary city, Seoul, urban commons, economic circular system, land of strangers

이 연구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3A2067374).

\*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Sociology, University of Seoul), nahm@uos.ac.kr

## 1. 서론

도시는 인류문명의 성과와 문제가 집약된 장소로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소이자 다양한 문제군의 집약체이다. 최근에는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권의 광역화와 함께 경제의 세계화로 인한 (대)도시권으로의 의사결정권한과 핵심 경제자원이 집중하고 새로운 혁신의 창출지로서 역할하고 있다(사스키아 사센, 2016). 동시에 도시와 비도시간, 도시내에서의 경제, 사회, 공간적 격차의 심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포스트모던 사회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합리성에 기반한 근대주의의 문제, 즉 공리주의에 바탕을 둔 총량적 효용의 극대화에 대한 비판이 증대하고 있다. 공리주의의 원래 가정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효용은 동일하며, 이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것이 계약사회의 행복을 최대화하는 것이었지만, 합리성은 경제적 합리성으로 축소되고 개인의 효용 형평성보다는 사회 전체의 총량적인 효용극대화만 좇다 보니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다. 나아가 불균형에 대한 시민사회적 해결책도 동정(sympathy)과 자선(charity)에 바탕을 둔 부르주아의 관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Tudor, 2011). 다양한 관계의 문제와 갈등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해 공감에 충분하지 않을 때 심화된다. 행정에서도 기존의 하향식 정부주도의 서비스모델에서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의 건설과 권한이양과 지역분권화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연대성에 기초한 다면적 관계에서 다양한 주체가 결합한 사회문제의 해결방식을 공감을 기초로 한 시민들의 참여를 사회자본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Smith, 2010).

여기에 이 글의 목적이 있다. 자본주의 도시의 문제,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총량적 경쟁력 향상(데이비드 하비, 2007)이나 엘리트이론에 기반한 성장주의로 인한 문제(존 로건·하비 몰로치, 2013)의 해결을 위한 포용도시에 대한 논의가 최근 상당히 활발해졌다. 특히 저개발국의 발전과 불균형해소

를 주목적으로 하는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 III)나 OECD, EU, ADB 등의 국제기구에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포용도시(inclusive city)를 주요 의제로 삼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하였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7; European Urban Knowledge Network, 2014; OECD, 2016a; 2016b, UNIDO, 2014; World Bank, 2013). 이에 대응하여 전 세계 수많은 도시에서 포용도시 프레임 설정하고 지표개발과 이에 따른 정책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서울을 대상으로 포용도시의 개념, 지표체계, 정책방향에 대한 학술연구와 정책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었다(박인권, 2015; 박인권·이민주, 2016; 변미리, 2018; 손지현·김종구·황선아, 2016; 윤성주, 2017; 조권중, 2017; 최병두, 2017).

하지만 대부분의 논의는 주로 저개발국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기구들의 기본적인 틀과 유사하며, 이미 불균등해진 공간, 경제, 사회, 문화적 격차와 상실감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격차지표의 구축을 통한 도시계획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논의들이 주종을 이룬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도시에는 저개발국을 위해 제시된 지표나 정책방향이 적합하지 않으며, 더욱이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도시 서울의 포용성에 대한 논의는, 도시의 본질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기제에서 포용성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과 도시거버넌스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포용도시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대도시에 적합한 포용성의 개념을 제시하며, 현대 도시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도시포용성을 위한 보통도시(ordinary cities, cf. Amin and Graham, 1997; Robinson, 2006)의 개념을 도입한다. 보통도시는 경제순환시스템의 역동성이 문화적 혁신, 도시 거버넌스와 제도적 혁신의 원천이 되는 도시로서 경제적 경쟁력과 사회적 응집력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시혁신이 이루어지는 도시이다. 포용지표를 통한 파편적인 도시정책이 도시의 잠재력과 도시 통제에 대한 사회적, 공간적 활용에 장기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논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서울

의 포용도시 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보통도시 회복을 통한 포용도시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 2. 포용도시의 새로운 논의

### 1) 기존의 포용도시 논의

포용도시는 조작적 개념이다. 사회현상이나 공간 경제현상의 변화와 그에 따른 특성을 추상화하여 개념화하는 보통의 학술용어가 아닌, 경제, 사회, 정서, 공간적 배제에 대응하여 국가정부가나 도시정부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인위적, 정책적, 문제해결 지향적 개념이다. 따라서 포용도시는 각 지역과 도시마다 맥락적으로 재정의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사실 포용성의 논의는 1970년대 서유럽에서 시작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이를 강화하는 공간적 배제의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사회적 배제의 논의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정상적인 시장교환, 관행, 권력에서의 배제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적 참여에서의 배제와 범주화되고 낙인화(stigmatizing)되는 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Levitas, 2005; Woodward and Kohli, 2001).

이에 대한 서유럽 국가들의 정책적 대안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다. 특히 세계경제체제에서 도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증가하면서 도시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토마 피케티의 장기성장과 불균형의 연구에서 보듯이(토마 피케티, 2014), 성장률이 낮을수록 불균형의 정도가 증대하는 서유럽의 상황을 고려하면 도시의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자본주의 제도의 특성상 중앙정부가 아닌 도시정부가 '성장'과 '포용'을 위해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Lee, 2018).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저개발국의 대응은 지속가능한 발전(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을 모토로 한 국제기구의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한 도시 처방전이다(United Nations, 2016). 이는 사실상 도

시정부보다는 중앙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처방전의 대부분은 저개발국의 이중 경제구조나 급속한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양극화와 사회·공간적 배제가 심한 도시와 지역에 대한 처방이거나(ADB, 2014; d'Cruz, Cadornigara, and Satterthwaite, 2014; OECD, 2016; UNIDO, 2014; United Nations Division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5), 도시의 포용성 정도를 계량하는 지표의 생산(Donahue, McDearman and Thursday, 2017; European Urban Knowledge Network, 2014)에 초점을 둔다. 우리나라의 포용도시연구도 이 범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박인권, 2015; 박인권·이민주, 2016; 변미리, 201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7).

하지만 포용과 배제는 정태적이고 비관계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들로는 제대로 파악되기 어렵고, 이러한 지표 분석으로는 포용/배제의 상태를 발생시키는 과정에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최병두, 2017). 더욱이 불균형은 지속적이고, 적응적이며, 복잡하고, 상호작용적 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 시스템이 없으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고(Kooiman, 2003), 사실상 도시정부의 도시계획적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도시 자체의 생산력으로는 극심한 양극화와 이로 인한 주거, 건강, 위생, 재난대비 등에 위험에 처한 계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도시전체의 통합성과 응집력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한 저개발국이 아니다. 오히려 기회의 평등과 상대적 박탈감, 사회정치적 과정의 정의로움 등이 더 중요한 이슈로 제기된다. 또한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관점에서는 좀 더 포괄적이고 대도시의 생산과 소비의 기제에 기반한 포용도시의 논의와 의제설정이 필요하다. 당장 생존의 문제가 심각한 계층이 많은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포용지표를 통한 사후적(ex post) 해결이 아니라, 도시 경제순환시스템의 회복을 통해 장기기반의 생산과 소비시스템을 회복하여 경제적 역동성이 문화적 혁신, 도시 거버넌스와 제도적 혁신의 원천이 되는 보통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도시의 잠재력이 증대되고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이 증

대하고 도시공통재에 대한 접근성과 권리를 확보하는 포용도시가 구축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관용, 시혜, 배려로서의 포용도시가 아닌 참여, 협력, 연대로서의 포용도시의 논의가 필요하다. 현대사회의 공동체에서는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책무를 요구하며, 모두가 지켜가는 규범체계가 존재하며, 모두가 책무를 이해할 것이라는 신뢰가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책무, 책임의 바탕 감정은 부채의식과 감사, 그리고 죄책감이며 이와 같은 연결점에는 타자 성찰, 즉 공감과 연대의식이 놓여있다(김왕배, 2013). 공감과 연대는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 피상적인 연민을 느끼고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양적, 시혜적 관계가 아니라,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상호존중하고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에서 실현된다(유찬기·남기범, 2018).

결국 포용성은 관계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포용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빈곤이나 격차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러한 경제, 사회, 공간적 격차를 유발한 원인과 불균형의 주요 인자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빈곤층이 역량을 강화하고 다중 스케일에서 빈곤층의 계층상승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관계적 접근은 경제, 사회, 공간적 격차를 유발한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Mosse, 2010), 포용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이나 도시전체의 기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판단하는 것이다.

## 2) 사회·공간적 배제의 비용과 포용도시의 다양성

도시의 포용성은 사회·공간적 배제의 해소와 도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의 존엄성 확보라는 당위적 명제에 기반하지만, 경제, 비경제적 기회비용의 추산으로도 그 실용적 효용성을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포용성의 기회비용은 포용도시 정책의 추진과 시민의 합의에 의한 포용적 공간의 형성으로 인한 성과로도 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 기회의 포기비용(forgone economic opportunities)의 경우, 미국 샌디에고의 사례를 보면, 경제적 기회가 균등하여 사회

적 약자가 사회적 배제가 없었다면 지역총생산에 기여할 수 있었으나 포기된 비용이 50-60억 달러(지역경제의 6~15%)로 추산되었다(Bradbury and Triest, 2016). 유사한 방법으로 인디애나폴리스에의 경우 포기된 비용이 106억달러로 추산되었다(Treuhft, Scoggins, and Tran, 2014). 이밖에도 감옥, 공공안전, 건강보험 등 경제적 배제로 인한 비용, 인프라 비용, 교육, 어메니티 유지비용 등으로 인해 산업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인 세금관련 비용(tax-related costs)을 상정할 수 있으며, 기술력, 적정 주택과 교통비용 등으로 인한 노동력과 인재확보에 제한으로 인한 기회비용인 노동력과 인재비용(workforce and talent costs), 도시에서 중하층의 도시 외곽이동으로 인한 교통비용, 근무시간 감소, 생산성 감소비용 등 거주적합성 감소비용(costs of decreased livability), 정치, 경제적 실패로 인한 시민저항, 폭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인 잠재적 시민불복종 비용(cost of potential civic unrest), 마지막으로 특정 지역과 장소의 경기침체와 실업으로 인한 비용인 장소의 비용 등을 상정할 수 있다(Donahue, McDearman, and Thursday, 2017).

물론 이러한 기회비용은 상당히 자의적이고 많은 가정에 기반하고 있지만 포용도시의 구축이 사회적 당위성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효과도 상당할 수 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나아가 사회·공간적 배제의 기제와 과정에 대한 성찰없이, 도시계획적 포용지표를 통하여 사후적 균형을 도모하는 포용도시 논의의 전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는 근거가 된다. 결국 도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보통도시의 복원이 경제적 추동력의 회복과 집적경제의 추구라는 도시공간의 기본적 속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방증이 된다. 나아가 도시의 포용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도시개념에 대한 논의와 이를 포괄하는 도시의 미래방향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포용도시만이 아니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도시개념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주류 경제만이 아닌 사회적 경제의 부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제안된 재생도시(regenerative city, Girard, 2014), 도시의 기능다변화, 모뎀화, 생

태·사회적 다양화, 다중스케일적인 네트워킹과 연결성 강화 등을 통한 회복력이 강한 도시를 지향하는 회복탄력성 도시(resilient city, Ahern, 2011), 공유생산과 공유소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양식 구축과 도시의 다중적 합리성을 지향하는 공유도시(sharing city, Cohen and Munoz, 2016),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한 도시 밀도, 포용적 성장, 무장애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smart city, Neirotti et al., 2014) 등의 개념화와 구체화에도 도시의 본질적 특성과 집적을 통한 집합적 소비재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 커뮤니티 경제의 창출에 참여, 활동의 권리, 인지문화경제의 확산에 따른 도시공동체(urban commons)의 전유 등 도시의 기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적으로 필요하다.

### 3. 도시의 본질과 보통도시

#### 1) 도시의 본질과 공통제

도시의 역사를 보면 도시화의 핵심은 집적을 통한 효율성을 창조하는 것으로 사회조직과 국가형성의 혁명적 특성이 도시화에 반영된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경제발전과 도시화의 근본적인 상보적 관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조업 기반 도시들이 지속적 성장하였다. 탈산업화는 탈포디스트 경제화로서 원자재 기반의 제조업경제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유형의 첨단산업, 관리·운영부문, 로지스틱스, 서비스, 디자인, 문화산업 부문의 성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도시화는 근본적으로, 경제발전, 분업, 집적, 전문화, 외부와의 교역 등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진전되는 집적의 역동성(agglomeration dynamics)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Scott and Storper, 2015).

도시내에서의 집적의 역동성은 공유(sharing), 조합(matching), 학습(learning)의 기제를 통해서 발현된다. 공유는 깊은 국지적 연계로서 도시의 생산체제

와 이를 지원하는 공공재로서의 다양한 도시서비스와 불가분의 연계를 유지한다. 조합은 노동력과 작업장을 연계해주는 과정으로서, 대규모의 국지적 기업과 노동력을 지원하고 촉진해 주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은 혁신을 자극하는 공식, 비공식적 정보의 유통과정으로, 집적을 통해 가능해지고 또한 집적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세 차원의 기작으로 인해 도시에서 강한 경제적 시너지가 창출된다. 집적은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인간생활의 다양한 사회, 문화, 정치, 행정적 차원과 연결되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한 환류효과를 보여주고, 도시를 인간활동의 복합체로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접착제 역할을 한다. 스콧과 스토퍼는 이러한 집적의 역동성이 자본과 노동력, 지역간 노동력, 자본, 기업들을 조정, 연결된 시스템 구축과 국가에서 글로벌 스케일까지 다양한 차원의 전문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동력이라고 주장한다(Scott and Storper, 2015). 도시는 공간경제상에서 하나의 총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국지적이고, 스케일적인 접합체로서 양극화와 특화된 토지이용, 강한 상호작용의 네트워킹이 일상적인 도시적 삶의 리듬이 되며, 경제적 과정만이 아니라, 장소의 형성, 주택, 노동비 등 도시특화의 역동성, 사고방식, 문화 등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다. 도시는 생산적인 활동과 인간생활의 근집지로서, 상호작용하는 토지이용과 다양한 활동의 입지, 이에 대응한 제도와 정치체제 등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구체화된다. 즉, 경제적 집적의 역동성이 활동과 장소의 특성에 따라 제도화되고 이의 기초위에 경제적 자원뿐만 아니라 사회, 공간, 일상생활에서의 자원배분을 규정하는 거버넌스를 형성한다. 이러한 장소특정적인 현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규범적 이론이나 모형으로 공간을 설명하는 시도는 실패하기 쉽다.

현대의 노동과정은 갈수록 더욱 지적(intellectual)이고 정동적(affective)인 인간 자산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생산에 있어서 기존의 생산요소 이외에 기술 집약적인 생산과 서비스활동, 디자인 지향의 장인생산, 문화상품의 생산 등이 동력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경영, 연구개발, 정보수집 및 커뮤니케이션 등 관리운영의 측면과 개인간 교환과 정서 등 상징적 내용이 더

육 중요해진다(Scott, 2008). 즉, 도시는 총체로서 하나의 공장으로서 역할하며, 도시민에게 공통의 편익을 제공하거나 공통의 생활형식을 부여하는 ‘사회적 공장’(social factory)으로(Tronti, 1966, Gill and Pratt, 2008에서 재인용) 작동하며, 이에 따라 자본주의적 생산과 부르주아 사회 사이의 관계, 공장과 사회 사이의 관계, 사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는 더욱 더 유기적으로 된다. 사회적 관계는 생산의 관계로 전환되며, 도시사회는 생산의 유기적 연계로 확장된다. 도시사회 전체가 공장의 기능으로 구조화되고, 공장은 자신의 배타적 지배를 도시사회 전체로 확장한다. 이에 르페브르는, “도시는 부가 축적될 뿐 아니라 지식, 기술, 작품(예술작품, 기념비)이 축적되는 사회적·정치적 삶의 중심지다. 도시는 그 자체로 ‘작품’(oeuvre)이다”(Lefebvre, 1996: 66)이라고 지적했으며, 하트와 네그리는 “생산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아이디어나 관계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 노동 시간은 삶의 전체 시간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2008: 162, 권범철, 2017: 142에서 재인용)라고 묘사했다. 대도시에서의 생산은 이 공통적인 것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그 생산물은 다시 대도시로 편입되어 대도시를 재구성한다. 이러한 인지문화경제(cognitive cultural economy)의 확산으로 인해 전문화된 높은 수준의 인지문화자본을 가진 도시의 엘리트 노동력은 빠르게 팽창하는 반면, 하위 노동력은 저임금의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이중구조가 고착화된다(사스키아 사센, 2016).

오늘날의 대도시는 경제적 생산의 공간과 도시 공간이 서로 중첩되며, 노동에서는 생산 시간과 여가 시간의 구분이 흐려지면서 삶 그 자체가 생산의 계기가 된다. 도시 공통재(urban commons)의 개념은 “지구, 그리고 지구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자원들, 즉 토지, 삼림, 물, 공기, 광물 등”만이 아니라 “아이디어, 언어, 정동 같은 인간 노동과 창조성의 결과물”까지 포괄한다(마이클 하트, 2012: 34, 권범철, 2017: 121에서 재인용). 정통파의 도시의 혁신(에드워드 글레이저, 2011)이나 경제성장(Savitch and Kantor, 2002)의 설명에서도 공통재의 영향을 중시한다. 플로

리다의 창조도시의 논의에서 제시된 개방성, 관용, 다양성을 넘어서서 도시사회의 재구조화 문제와 젠트리피케이션의 논의도 결국 노동자들이 창출한 도시 공통재를 누가 전유하고 지대추구적(rent-seeking) 지향을 가지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즉, 도심지역의 저소득층 지역은 부유층에 의한 전유와 재식민지화의 문제로 볼 수 있다(Scott, 2008).

유엔 경제사회국(United Nations Division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5)이 정의한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이란, ‘모든 시민이 자신의 배경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삶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회의 모든 부문의 구성원들이 시민, 사회, 경제, 정치적 활동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 등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와 투쟁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는 도시의 기제와 사회적 배제의 원인보다는 결과적 양태에만 초점을 두는 포용성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책, 도시계획, 도시성장 전략, 도시재구조화, 도시재생 등 다양한 도시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도시 공통재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는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 데이비드 하비, 2014)도 유사한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 즉, 포용성은 도시의 공통재에 대해 도시민들이 도시공간과 도시자원을 통해 접근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의 문제와 연결되고(Cabral, 2016), 이는 곧 포용도시의 문제로 연결된다. 도시민의 일상적 노동과 삶에서 연대, 사회성, 상호 연대를 강화하고, 창조성, 학습, 혁신, 사회적 실천, 문화적 표현의 영역확대를 통해, 즉 도시 공통재의 확보를 통해 포용도시를 구축해야 한다. 도시의 빈곤은 자산, 소득, 일자리의 불균형적인 분배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간, 공간, 입지, 중심성 등 일상적인 경제적 참여의 핵심적인 변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Espino, 2015). 한걸음 더 나아가면 이반 일리치는 자율공동체적(convivial) 사회를 강조하면서, 사적 영역은 팽창하는 반면 공적 영역은 약화되고, 도시 노동자의 창조적 잠재성 발휘를 위한 도시 시스템 능력의 심각한 약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며, 소비문화의 다양성이 모자이크

처럼 연결되어 도시에 역동성을 주고, 지역사회에서의 유대(convivial community)가 도시민의 소속감과 안정감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Illich, 1973). 이러한 공생적이고, 사회적 이익추구와 공동체 형성의 조화로운 발전이 있는 도시, 자율공동체적 도시가 포용도시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도시 공통재의 생산에 대한 관심보다는 공통재의 분배의 문제에만 초점을 둔다면 도시의 잠재력은 장기적으로 감소될 여지가 있다. 서로 지향하는 바는 다르나 인지문화경제체제하에서 도시는 사회적 공장이며, 공통재 생산의 근원이 도시 노동자들이므로 공통재에 대한 접근성을 중시하는 논의와 포용도시 지표를 구축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논의 모두 공통재의 소비와 접근성의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 도시의 본질을 상기하면, 도시가 지속적으로 공통재를 생산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는 경제적 집적의 역동성을 확보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생산과 분배, 효율과 형평 등의 논쟁에서 볼 수 있는 자본주의 방향성을 두고 가치판단의 우열을 가리는 문제와는 궤를 달리한다. 거시경제의 틀을 다루는 국가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기반의 입지정책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도시차원의 정책설정의 문제이다. 즉, 도시의 잠재력 향상, 공통재의 생산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도시 공통재에 대한 접근의 기회를 제공하는 포용도시 정책의 필수 선행조건이 된다. 이를 도외시키는 포용도시 정책은 도시정책을 국가의 거시경제정책과 혼동하는 오류만큼 장기적인 문제를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장소기반의 경제적 경쟁력에 초점을 두고 도시의 장기적인 역동성을 강조하는 도시가 보통도시이다.

## 2) 도시 경제순환시스템과 보통도시의 회복

보통도시(ordinary cities)는 경제, 사회, 문화, 제도적 자산의 다양성에 기반한 도시이다. 도시의 역동적 다양성의 기초는 도시의 경제순환시스템이며, 이의 기반위에 도시민의 소속감과 장소감은 도시의 잠

재력을 강화시켜주며, 사회적 안전감의 원천이 된다. 윤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선한사람들의 선한 의지만 강조하는 도시정책은 도시의 경제적 쇠퇴나 사회적 유대의 약화를 초래하여 오히려 도시의 약자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도시의 경제순환시스템이 약해지거나 제대로 기작을 하지 않는다면 도시의 순환과 분배시스템, 창의성, 혁신성 등을 약화시키고, 경제력 약화로 인한 수요의 감소, 실업률과 범죄의 증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 확대, 도시공간의 물리적 쇠퇴와 공동체의 결속력 약화 등을 초래해 결국 도시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Amin and Graham, 1997; Amin and Thrift, 2002; Robinson, 2006). 결국 정의로운 도시, 포용도시란 도시계획이나 일시적인 빈곤완화정책, 복지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물론 완전한 포용도시는 도시규모에서 해결책이 제시되기 보다는 국가 경제·사회단위의 정의로운 시스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Fainstein, 2010; Massey, 2005: 186). 또한 최근 리와 시슨스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경제성장과 빈곤의 감소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밝혀졌다. 경제성장이 소득상위부문의 임금증가에는 영향을 주지만 중앙점 이하의 임금상승과는 연관이 없었고, 경제성장과 미숙련 노동력의 취업률도 상관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단순한 경제성장을 통해 포용도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Lee and Sissons, 2016).

사실 이미 20세기말에 (대)도시소멸론이 등장했다. 자본과 정보의 세계화와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면접촉이 전자네트워크로 대체되면 환경오염과 높은 주거비용, 교통혼잡을 감수하고 (대)도시지역에 살지 않아도 충분히 다양한 삶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Greig, 2002; O'Brien, 1990). 하지만 2000년대 이후로 오히려 (대)도시로의 인구, 자본, 정보, 서비스의 집중은 더욱 심해졌다. 도시에서 사회문화적 삶의 다차원적 본질은 변하지 않으며, 경제적 실천에 글로벌 경제, 신뢰, 호혜성, 대면접촉의 관계적 네트워크는 도시의 본질이며, 국가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도시가 제공하는 강한 근접성과 상호연계에 기반한 비가시적인 요소가 경쟁력과 창의성, 도시간 연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도시는 생산, 정보, 인적교류 네트워크의 글로벌화의 중심이다. 도시의 이러한 상징적이며 소프트한 집중은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 첨단 교통망 등에 의해서 역설적으로 강화된다. 나아가 포스트포디즘시대로 이전하면서 도시제조업의 역동성이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 대도시지역에 유연적으로 조직된 산업지구가 도시의 재산업화를 추동하며 새로운 혁신지구를 구축하고 있다(Katz and Nowak, 2018). 도시에서는 경제활동에 위험과 불확실성을 회피할 수 있고, 다양한 지식, 노동력, 공급자들이 집적되어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샬리안 산업지구(Marshallian industrial district) 형성에 최적의 장소이다(Amin and Thrift, 1992).

이러한 자본주의 도시의 본질은 다중도시(multi-plex city)이다. 도시의 경제순환시스템의 역동성이 문화적 혁신, 도시 거버넌스와 제도적 혁신의 원천이 된다. 도시의 경제적 경쟁력과 사회적 응집력간의 상호작용을 유지하고 혁신을 위해서는 기존의 공식적이고 위계적인 도시정부에서 복합적 망의 도시거버넌스로, 즉 분산적이고 사회혁신의 요구에 순응적인 거버넌스로 전환하여야 한다(Robinson, 2008). 도시는 복합적인 공간이다. 다양한 조직과 상호작용의 상호 중첩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되어 있으며, 도시 공간의 파편화로 인한 단절의 가능성도 있다. 보통 도시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하는 장소이다. 원래 보통도시의 개념은 도시지표를 통한 세계 도시간의 순위 정하거나 서구의 사고방식, 생활양식과 공간구성에 기반한 도시모형과 이론을 세계적 표준으로 상정하고 세계 모든 지역의 도시들에 이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Robinson, 2002; Shail, 2008). 또한 창조도시, 문화도시, 도시재생 등 도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나 유행하는 정책이 나타나면 도시의 기본적인 기제와 본질에 대한 성찰없이 유행에 휩쓸려 장기적으로 도시의 잠재력을 훼손시키는데 기여한 연구자와 정책의사결정자에 대한 비판과도 맥을 같이한다. 보통도시의 회복은 도시의 존재이유가 되는 경제순환시스템의 회복을 통해 즉, 장소기반의 생산과 소비시스템을 회복하고 공통재에 대한 권리로서 포용도시, 시민권, 도시

에 대한 권리로서 포용도시를 구축하는 일일 것이다. 아민과 그레이엄은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도시의] 경제적 경쟁력강화 보다는 공공공간의 범죄없는 카페에서 즐기는 정책, 도시의 불안정성을 키우면서 한계집단을 지원하는 정책, 커뮤니티의 경제적, 사회적 쇠퇴를 보면서 윤리적 선함만 강조하는 정책, 실업, 범죄, 도시조직의 붕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과소평가한 결과 도시의 순환비용을 높이고 기술변화에 둔감하여 창조성을 잃게 하는 정책, ... 궁극적으로 창업활동과 중소기업의 활동의 잠재력을 꺾는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 정의로운 도시는 경제적으로 활발한 도시이다(Amin and Graham, 1997: 427).

#### 4. 보통도시로서 포용도시

보통도시의 관점에서 포용성은 좀 더 근본적인 시각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먼저, 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사회참여에 있어서 기회의 형평성과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Gupta, Pouw, and Ros-Tonen, 2015). 이를 위해서는 도시민이 창출한 도시 공통재에 대한 사회적 배분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통적인 공간, 타인과의 마주침의 공간, 소통과 협력의 장소의 증진을 위해 “기쁜 마주침”을 증진하고 대립적이고 파괴적이며, 해로운 형태의 공통적인 것을 생산하는 “불행한 마주침”을 최소화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2014). 이를 위해서는 시민중심의 참여 거버넌스를 더욱 확장하고 도시 혁신과 장소기반의 경제적, 사회적 제도화를 이루어 도시 공통재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이 향상되어야 한다(Gupta et al., 2015). 도시민들의 집합적인 활동과 실천을 통해 공통재 형성과 활용을 위한 도시의 잉여물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관용, 시혜, 배려로서의 포용도시가 아닌 참여, 인권, 협력으로서 포용도시, 시민을 포용의 대상으로서의

아니라, 관용적, 포용적 시민으로 협력하는 도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도시의 경제순환시스템을 회복해야 한다. 도시의 역동성은 집적을 통해서 강화되며 공유(sharing), 조합(matching), 학습(learning)의 기제를 통해서 발휘된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특화가 아닌 연관다양성에 기반한 공간집적은 다양성(variety and diversity)으로 인해 도시혁신과 성장에 기여하며, 지식 이전은 산업 핵심부분의 외부에서 유래된다(Jacobs, 1969). 도시지역의 산업구조가 일부 산업에만 집중되어 특화된 경우에는 위험분산의 효과를 저하시켜 지역경제의 불안정을 야기할 우려가 존재하며, 예측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비능력을 약화시켜 결국 지역경제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고용불안정이나 실업률 증가와 같은 요소들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켜 결국 주민 스스로가 지역경제의 회복에 대한 의지를 접게 만들어 결국 지역의 장기 침체라는 구조적 악순환을 초래할 수가 있다(남기범, 2016).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교육, 훈련, 기술접근성 향상을 통한 도시민의 좋은 일자리에의 접근성을 증진하고, 도시내에서 공간, 인재, 네트워크 제공을 통한 지식기반경제의 확장을 기획해야 한다. 또한 장소 기반의 정책을 통해 거주지에 근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지역사회에 일자리와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자본주의의 극한이며, 새로운 플랫폼 경제라고 불리는 시장경제 기반의 공유경제 보다는, 지역화폐와 같이 지역내 경제순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커뮤니티 중심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유희공간과 공공공간의 활용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시장경제적 공유경제의 빠른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역할과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지식형성과 열망을 반영해야 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Borel-Saladin and Turok, 2013).

셋째, 도시사회가 연대, 상호존중과 협력의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의 진정한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공공까지 공유하고 이

해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시 공통재의 활용을 위한 집합적 활동과 실천적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연계와 사회자본의 활성화만이 아니라 문화와 지향이 다른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을 가진 이방인의 도시(land of strangers: Amin, 2012), 즉, 세계시민의 도시(cosmopolitan city: Short, 2004)가 되어야 한다. 비즈니스 엘리트와 세계적인 정치, 경제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도시인 세계도시(global city)가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적 배경과 관점이 다양한 주체들의 제도형성에의 참여할 수 있는 환영도시(welcoming city)가 되어야 하고, 보편적인 픽토그램(pictogram)에서 시작하여 도시 거버넌스까지 보편성(universalism)을 가진 진정한 보통도시가 되어야 한다.

넷째, 이러한 제도와 거버넌스 구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 계층과 한계 지역의 주민에게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환류과정으로 인해 상당히 완화된 형태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제·사회적 한계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장소기반의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단위에서 경제, 사회, 정치, 생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다중스케일적인 영향으로 인해 세계적인 배제나 부정적인 연관과 포함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Ros-Tonen *et al.*, 2015). 부분적 도시재생이나 지역활성화를 넘어서서 주민들이 커뮤니티 경제의 창출에 참여하고 활동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의 경제적 빈곤층, 연령, 성별, 장소적 관점의 취약계층, 사회문화적 한계계층에 초점을 두고 도시의 경제순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Gough and McGregor, 2007; Rauniyar and Kanbur, 2009). 대도시 사회경제시스템의 순환과 공간의 변화에 배제받는 지역과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포용도시는 젠트리피케이션, 레이디피케이션(ladyfication), 투어리스트피케이션(touristification) 등을 방지하고, 지역 공동체의 의미생산과 유통, 일상생활에서 문화와 자연을 변형하며, 장소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도시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상하수도, 에너지, 보건, 대중교통, 치안서비스, 안전, 사회보장서비스 등 도시의 어

표 1. 보통도시로서 포용도시 구성 요소

구성 요소	설명	참고
거버넌스 구축과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사회참여에 있어서 기회의 형평성과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의 구축을 통한 기쁜마주침의 증진</li> <li>- 시민중심의 참여 거버넌스 확장</li> <li>- 도시혁신과 장소기반 경제, 사회제도화</li> <li>- 도시 공동체에 대한 시민 접근성 강화</li> </ul>	Gupta, Pouw, and Ros-Tonen, 2015 Gupta, J. <i>et al.</i> , eds., 2015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2014
도시 경제 순환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적 자본의 힘에 대한 저항할 수 있고 도시경제의 시너지창출과 커뮤니티경제의 활성화</li> <li>- 중소기업 중심의 연관다양성 산업생태계 구축</li> <li>- 혁신주도형 경제시스템과 혁신지구 활성화</li> <li>- 커뮤니티 중심의 공유경제 활성화</li> <li>- 장소기반의 일자리 접근성 증진</li> </ul>	제인 제이콥스, 2004 Ros-Tonen <i>et al.</i> , 2015 Borel-Saladin and Turok, 2013
연대, 상호존중과 협력의 수평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li> <li>- 시민이 공공가치 공유, 이해, 체득 노력</li> <li>- 문화와 지향이 다른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li> <li>- 정치, 문화, 사회적 배경과 관점이 다양한 주체들의 제도형성에의 참여할 수 있는 환영도시 구축</li> </ul>	Amin, 2012 Short, 2004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2014
경제·사회적 한계계층 지원과 장소기반의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젠트리피케이션, 레이디피케이션(ladyfication),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 방지</li> <li>- 사회경제시스템의 순환과 공간의 변화에 배제받는 시민 권리 보호</li> <li>- 장소기반의 사회, 문화, 예술공동체 구축</li> </ul>	Gough and McGregor, 2007, Rauniyar and Kanbur, 2009
도시 공동체와 어메니티에 대한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공동체의 활용을 위한 집합적 활동, 실천</li> <li>- 집합적 소비재에 대한 참여 증진</li> <li>- 공간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생활 인프라와 공공서비스에의 접근성 향상</li> <li>- 도시의 유희공간, 공공공간의 활용성 향상</li> </ul>	Mansuri and Rao, 2004

메니티와 인프라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을 보장하여 도시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Mansuri and Rao, 2004). 지역사회 주민의 일상적 삶에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적 권리와 접근성뿐만 아니라 집합적 소비재에 대한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공간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생활 인프라와 공공서비스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도시이다. 특히 도시 어메니티에 대한 진입장벽의 완화, 시민참여의 수준의 제고, 재영토화를 통한 새로운 영토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확대 등이 중요하다.

보통도시를 회복하고 포용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소기반형 도시리더십의 구축과 시민사회로의 확산에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정부의 자체의 정책적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경제순환시스템의 원활한 기작을 위한 비즈니스 리더

십과 전문적인 관리·운영의 리더십도 요구된다. 또한 시장경제체제가 시장사회로 확대되어 도시 전반을 주도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사회의 리더십의 역량강화와 확산도 필요하다. 쉐넬은 '우리는 한때 시장경제체제를 가졌으나, 이제는 표류하여 시장사회에 살고 있다.'(마이클 쉐넬, 2012)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가치는 동정, 관용, 심려, 공감, 연대 등의 현대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을 몰아내고 있다. 도시정부의 역할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결국 성공적인 포용도시는 경제적으로 역동적이며 다양한 도시, 즉 보통도시이다. 햄블턴은 포용도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Hambleton, 2015).

‘[포용도시는] 강력하고 장소기반의 민주적인 제도

로 운영되는 도시이다. 모든 시민이 충분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도시의 리더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정의로운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는 도시이다.’

## 5. 서울의 정책변화와 포용도시 서울

서울은 1960년대 이촌향도의 도시화와 급속한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압축적 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특히 강력한 중앙정부와 중앙정부에서 임명된 서울시장은 엘리트관료와 대기업의 연합하에 전형적인 동아시아적 발전국가와 발전도시의 궤적을 밟아왔다(Hill and Kim, 2000).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발 패러다임의 도입,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 2000년대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총량적 성장과 세계도시 순위, 도시경쟁력 순위 향상 등 도시 간 순위경쟁에 치중하면서 도시내 불균형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도시민의 삶의 질은 악화되었다. 최근 서울시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와 도시의 총량적 경쟁지표위주의 도시정책에서 탈피하여 도시정책의 우선순위를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 인권도시 등에 두고 협치를 통한 참여예산제, 마을공동체 지원,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 등을 강조하는 포용도시를 지향하고 있다(표 2).

포용도시의 구성요소에 대응한 최근 서울시의 정책들을 보면, 자원배분을 규정하는 도시거버넌스가 도시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당한 제도와 거버넌스구축의 노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거버넌스 구축과 제도화’ 측면에서는 기존의 총량적 성장주의와 엘리트가 주도하는 거버넌스에서 탈피하여 시민중심의 거버넌스와 사회혁신을 지향하고 있다. ‘도시 경제 순환시스템 구축’측면에서 보면 도시경제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노력과 기존의 중소기업지원과 영세상공인 지원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선언적인 측면이 강하고, 기본적으로 대기업중심의 총량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중소기업 중심의 연관다양성 산업생태계의 구축과 혁신주도형 경제시스

템과 혁신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상당히 미흡하다.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연대, 상호존중과 협력의 수평적 관계를 위한 노력은 어느 도시보다 앞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과 일자리에서의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으며, 장소기반의 사회경제정책으로 서울형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지원, 사회적 경제지원, 공유경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은, 교육, 상하수도, 에너지, 보건, 대중교통, 치안서비스, 안전, 사회보장서비스 등 도시의 어메니티와 인프라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이다. 나아가 정치, 문화, 사회적 배경과 관점이 다양한 주체들의 제도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이방인의 도시, 즉 진정한 다문화도시로서의 보통도시를 지향하는 정책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서울시의 경우 포용도시를 향한 도시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의 수효는 무척 많아 상징적 의미와 효과는 크다. 하지만 보통도시로의 회복을 통한 포용도시 정책, 즉 제도화와 거버넌스 구축은, 구호는 있지만 성과는 미흡하고, 정책의 수효만큼 실질적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다양한 사회현실과 장소의 특성에 맞추어 정책을 개발한다는 의미도 있겠으나 많은 사업들이 실질적인 수혜자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아 홍보성 사업이라는 비판도 있다. 예를 들어 한지붕 세대공감(홈쉐어링)사업은 대학가 인근의 노인주택의 낡은 방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으로, 가구주에게는 환경개선공사비를 지원해주고, 대학생에게는 주변 시세의 50% 정도로 방을 임대해 준다. 이 사업은 상당한 반향이 있었으나 실제로 2017년도 이 사업의 수혜자는 200여건으로 상당히 미미하였다(문화일보, 2018.02.21.). 다양한 사업으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정책방향은 자칫 다양한 맞춤형 정책이 존재한다는 알리바이로만 활용될 수 있다.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와 수혜자의 요구과약을 통한 포용성의 확대가 필요하다.

포용도시 서울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경제,

표 2. 포용도시 구성 요소와 서울시의 정책

구성 요소	서울시 정책 사례
거버넌스 구축과 제도화	- 시민중심의 거버넌스 추진 - 사회혁신과 시민의 참여 증진정책
도시 경제 순환시스템 구축	- 마을공동체 지원정책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연대, 상호존중과 협력의 수평적 관계	- 공공기반 공유경제 정책 - 시민의 역량강화 정책
경제·사회적 한계계층 지원과 장소기반의 정책	-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 - 노동취약 계층 지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 - 서울형 생활임금제 - 복지 사각지대 포용정책 - 주거복지 지원센터, 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 공급정책
도시 공통재와 어메니티에 대한 접근성	- 문화예술 향유와 어메니티 접근성 향상 - 보편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환경의 개선

사회, 공간적 격차를 유발한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고, 파편적인 포용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도시사회 전체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등의 큰 틀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의 혁신주도형 경제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보통도시로서 포용도시를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도시의 경제순환시스템 회복을 통해 즉, 장소기반의 생산과 소비시스템을 회복하고 공통재에 대한 권리로서 포용도시, 시민권, 도시에 대한 권리로서 포용도시를 구축하려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반하에 구체적인 노동정책, 일자리정책, 장소기반 재생정책, 계층별, 지역별 도시 어메니티에 대한 접근성 향상정책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6. 토의와 결론

도시는 항상 다양한 스케일에서 사회, 정치의 더 넓은 시스템에 배태되어 있는 복합적인 공간이다. 다양

한 조직과 상호작용의 상호 중첩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되어 있으며, 도시공간의 파편화로 인한 단절의 가능성도 있다. 도시의 역동적 다양성의 기초는 도시의 경제순환시스템이며, 이의 기반위에 도시민의 소속감과 장소감은 도시의 잠재력을 강화시켜주며, 사회적 안정감의 원천이 된다. 지역공동체의 연대성에 기초한 다면적 관계에서 다양한 주체가 결합한 사회문제의 해결방식을 공감을 기초로 한 시민들의 참여를 사회자본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포용도시로 가는 올바른 방향이다. 서울의 도시공간에서 공유, 조합, 학습의 기제를 통해 도시경제의 역동성이 발현될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의 포용성 순위를 책정하는 변수나 지표기반의 포용도시정책은 본말을 전도하는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으며, 경제적 쇠퇴나 도시의 퇴락을 가져와 오히려 도시의 약자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포용도시는 사후적(ex post) 특성을 가진 지표(index)의 충족으로 달성되기 보다는 형성적(forming) 특성을 가진 요인(factor)의 구축으로 이루어진다.

정병순(2016)은 대도시 서울이 포용도시 실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지속가능한 대도시 경제기반 구축을 강조하였다. 세부 항목으로는 산업구조 다양화와 중소기업 주도형 경제시스템 구축, 혁신주도형 대도시 경제의 실현, 경제적 회복력(economic resilience)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하향식 정부 주도의 서비스모델에서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의 건설과 권한이양과 지역분권화를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소통과 배려의 공감도시의 지향이라는 틀 아래 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재분배를 강화하는 균형과 형평의 도시를 지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포용도시란 도시계획이나 일시적인 빈곤완화정책, 복지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보통도시를 지향하여야 한다. 최근 서울시의 정책방향은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와 도시의 총량적 경쟁지표위주의 도시정책에서 탈피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역동성을 가지고 연관다양성(related variety)을 통한 대도시 경제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은 상당히 미흡하다. 사실 산업의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

은 특화된 과학적으로 창출된 지식이기 보다는 응용 기술과 현장에 필요한 문제해결 유형의 지식이며, 소비자의 욕구와 트렌드의 변화를 파악하는 상징적 지식이다. 지역의 역량과 잠재력에 맞는 지식기반의 융합과 중소기업 주도형 연관다양성을 활용한 한 장소 기반형 지역산업 플랫폼의 형성이야말로 지역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시경제정책의 기초가 된다 (Asheim, Boschma, and Cooke, 2011, 901). 나아가 문화와 지향이 다른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을 가진 이방인의 도시, 세계시민의 도시를 지향하여야 한다. 비즈니스 엘리트와 세계적인 정치, 경제적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도시인 세계도시가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적 배경과 관점이 다양한 주체들의 제도형성에의 참여할 수 있는 환영도시 (welcoming city)가 되어야 한다.

포용도시 정책은 도시의 한두 부문, 장소, 주민에 국한되는 정책이 아닌 도시의 전반적인 경제·사회정책의 전환을 통해 그 효과가 나타나는 종합정책이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포용도시 개념과 서울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보통도시로서 포용도시의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구성요소와 세부정책들은 후속 연구를 통해 정교화 되어져야 하며, 대도시 서울에 적합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서울의 포용도시 정책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면 보통도시로서 포용도시 서울의 미래는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권범철, 2017, “현대 도시의 공통재와 재생산의 문제,” *공간과 사회*, 27(2), 119-149.

김왕배, 2013, “도덕감정: 부채의식과 감사, 죄책감의 연대,” *사회와 이론*, 23, 135-172.

남기범, 2016, “‘선택과 집중’의 종언: 포스트클러스터 지역산업정책의 논거와 방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4), 764-781.

문화일보, ‘결국 세대차에 걸려버린 ‘홈세어링’’, 2018.02.21.

데이비드 하비 저, 최병두 역, 2007,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한울아카데미, 서울(Harvey, D., 2005,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Univ Press, New York).

데이비드 하비 저, 한상연 역, 2014, 반란의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점령운동까지, 에이도스, 서울 (Harvey, D., 2013, *Rebel Cities: From the Right to the City to the Urban Revolution*, Verso, London).

마이클 샌델 저, 안기순 역, 2012,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와이즈베리, 서울 (Sandel, M.J., 2012, *What Money Can't Buy: The Moral Limits of Markets*, Farrar, Straus and Giroux).

마이클 하트 저, 조정환·유충현·김정연 역, 2012, 선언, 갈무리, 서울(Hardt, M., 2007,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by Thomas Jefferson, Verso, London).

박인권, 2015, “도시의 공공성: 포용도시 개념과 한국의 경험,” *공간과 사회*, 25(1), 95-139.

박인권·이민주, 2016, “도시 포용성 구성개념과 지표체계의 개발: 한국의 포용도시 의제 설정을 위하여,” *공간과 사회*, 26(4), 109-158.

변미리, 2018, 포용도시를 향하여\_서울형 포용도시 지표 개발과 포용성 진단,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서울연구원, 서울.

사스키아 사센 저, 남기범 외 역, 2016, 사스키아 사센의 세계경제와 도시, 푸른길, 서울(Sassen, S., 2011, *Cities in a World Economy*, 4th Ed., SAGE, London).

손지현·김종구·황선아, 2016, “포용도시 계획요소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를 대상으로,” *국토계획*, 51(6), 5-21.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저, 조정환·정남영·서창현 역, 2008, 다중, 세종서적, 서울(Negri, A. Hardt, M., 2005, *Multitude: War and Democracy in the Age of Empire*, Penguin Books, London).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저, 정남영·윤영광 역, 2014, 공통체: 자본과 국가 너머의 세상, 사월의 책, 서울(Negri, A. Hardt, M., 2011, *Commonwealth*, Belknap Press).

에드워드 글레이저 저, 이진원 역, 2011, 도시의 승리: 도시는 어떻게 인간을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게 만

- 들었나?, 해냄, 서울(Glaeser, E., 2012, *Triumph of the City: How Our Greatest Invention Makes Us Richer, Smarter, Greener, Healthier, and Happier*, The Penguin Press).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7, 우리의 지속가능한 도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서울.
- 유찬기·남기범, 2018, “사회과학의 공감연구 동향과 특성,” 문화콘텐츠연구, 12(2), forthcoming.
- 윤성주, 2017, “포용적 성장’의 개념 및 논의 동향,” 국토, 426, 5-13.
- 정병순, 2016, 서울 대도시론: 위기를 넘어서 희망의 도시로, 서울연구원, 서울.
- 조권중, 2017, ‘포용도시 서울’ 성과와 과제, 서울연구원 Issue Paper, 서울연구원, 서울.
- 제인 제이콥스 저, 서은경 역, 2004, 도시와 국가의 부, 나남, 서울(Jacobs, J., 1984, *Cities and the Wealth of Nations: Principles of Economic Life*, Random House)
- 존 로건·하비 몰로치 저, 김준우 역, 2013, 황금도시: 장소의 정치경제학, 전남대학교출판부, 광주(Logan, J. and Molotch, H., 1987, *Urban Fortunes: The Political Economy of Pla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and Los Angeles).
- 토마 피케티 저, 유영 역, 2014, 불평등 경제, 마로니에 북스, 서울(Piketty, T., 2014, *L'économie des inégalités*, Repères).
- 최병두, 2017, “관계적 공간과 포용의 지리학,” 대한지리학회지, 52(6), 661-682.
- ADB, 2014, *Framework of Inclusive Growth Indicators 2014, 4th ed.,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Special Supplement*, Asian Development Bank, Metro Manila.
- Ahern, J., 2011, From fail-safe to safe-to-fail: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in the new urban world,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00(4), 341-343.
- Amin, A., 2012, *Land of Strangers*. Polity Press, Cambridge.
- Amin, A. and Graham, S., 1997, The ordinary cit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2(4), 411-429.
- Amin, A. and Thrift, N., 1992, Neo-Marshallian nodes in global network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6(4), 571-587.
- Amin, A. and Thrift, N., 2002, *Cities: Reimagining the Urban*, Polity, Cambridge.
- Arthurson, K., 2002, Creating inclusive communities through balancing social mix: A critical relationship or tenuous link?, *Urban Policy and Research*, 20(3), 245-261.
- Asheim, B., Boschma, R., and Cooke, P., 2011, Constructing regional advantage: platform policies based on related variety and differentiated knowledge bases, *Regional Studies*, 45(7), 893-904.
- Borel-Saladin, J.M. and Turok, I.N., 2013, The green economy: Incremental change or transformation?, *Environmental Policy and Governance*, 23(4), 209-220.
- Bradbury, K. and Triest, R.K., 2016, Inequality of opportunity and aggregate economic performance, *RSF: The Russell Sage Foundation Journal of the Social Sciences*, 2(2), 178-201.
- Cabral, J., 2016, The inclusive city as the new urban question and the challenges for urban policies and planning, in Marina, O and Armando, A. eds., *Inclusive Exclusive Cities*, City of Skopje With the support of ‘Europe for Citizens Programme’ of the European Union.
- Cohen, B. and Munoz, P., 2016, Sharing cities and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towards an integrated framework,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34 (Part A), 87-97.
- Cook, S., 2006, Structural change,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in Asia: Pathways to inclusive development. *Development Policy Review*, 24(1), 51-80.
- d’Cruz, C., Cadornigara, S. and Satterthwaite, D., 2014. *Tools for Inclusive Cities: The Roles of Community-Based Engagement and Monitoring in Reducing Poverty*. IIED Working Paper. IIED, London.
- Donahue, R., McDearman, B., and Thursday, R.B., 2017, *Committing to Inclusive Growth: Lessons for Metro areas from the Inclusive Economic Development Lab*, Metropolitan Policy Program at Brookings.
- Espino, N.A., 2015, *Building the Inclusive City: Theory and Practice for Confronting Urban Segregation*, Routledge. New York.

- European Urban Knowledge Network, 2014, *The Inclusive City: Approaches to Combat Urban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Europe*, European Urban Knowledge Network EGTC, The Hague.
- Fainstein, S., 2010, *Just City*, Cornell University Press.
- Gill, R. and Pratt, A., 2008, In the social factory? immaterial labour, precariousness and cultural work, *Theory, Culture & Society*, 25(7-8), 1-30.
- Girard, L., 2014, The regenerative city and wealth creation/conservation: the role of urban plan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Global Environmental Issues*, 13, 118-140.
- Gough, I. and McGregor, J.A., eds., 2007, *Wellbeing in Developing Countries. From Theory to Resear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Greig, J., 2002, The end of geography, globalization, communications, and culture in the international system,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6(2), 225-243.
- Gupta, J., Pouw, N.R.M., and Ros-Tonen, A.F., 2015, Towards an elaborated theory of inclusive development,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27(4), 541-559.
- Gupta, J., Pfeffer, K., Verrest, H., and Ros-Tonen, M., eds., 2015, *Geographies of Urban Governance: Advanced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s*, Springer.
- Hambleton, R., 2015, *Leading the Inclusive City: Place-based Innovation for a Bounded Planet*, Policy Press, Bristol.
- Hill, R. and Kim, J.W., 2000, Global cities and developmental states: New York, Tokyo and Seoul, *Urban Studies*, 37(12), 2167-2195.
- Illich, I., 1973, *Tools for Conviviality*, Harper & Row.
- Jacobs, J., 1969, *The Economy of Cities*. New York: Random House.
- Katz, B. and Nowak, J., 2018, *The New Localism: How Cities Can Thrive in the Age of Populism*, Brookings Institution Press, Washington, DC.
- Kooiman, J., 2003, *Governing as Governance*,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 Latham, A., 2003, Urbanity, lifestyle and making sense of the new urban cultural economy: notes from Auckland, New Zealand, *Urban Studies*, 40(9), 1699-1724.
- Lee, N., 2018, Inclusive growth in cities: a sympathetic critique, *Regional Studies*, DOI: 10.1080/00343404.2018.1476753
- Lee, N. and Sissons, P., 2016, Inclusive growth?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poverty in British citi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48(11), 2317-2339.
- Lefebvre, H., 1996, *Writings on Cities*, Wiley-Blackwell, Cambridge, Massachusetts.
- Levitas, R., 2005, *The Inclusive Society? Social Exclusion and New Labour*, 2<sup>nd</sup> ed., Palgrave Macmillan, Basingstoke.
- Liu, Y. et al., 2018, Towards inclusive and sustainable transformation in Shenzhen: urban redevelopment, displacement patterns of migrants and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73, 24-38.
- Mansuri, G. and Rao, V., 2004, Community-based and -driven development a critical review,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9(1), 1-39.
- Massey, D., 2005, *For Space*, Sage, London.
- McGranahan, G., Schensul, D., and Singh, G., 2016, Inclusive urbanization: Can the 2030 Agenda be delivered without it?, *Environment and Urbanization*, 28(1), 13-34.
- Montgomery, J., 1995, Urban vitality and the culture of cities, *Planning Practice and Research*, 10(2), 101-9.
- Mosse, D., 2010, A relational approach to durable poverty, inequality and power,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6(7), 1156-1178.
- Neirott, P. et al., 2014, Current trends in smart city initiatives: some stylised facts, *Cities*, 38, 25-36.
- O'Brien, R., 1990, The end of geography: the impact of technology and capital flows, *The AMEX Bank Review*, 17(5), 2-5.
- OECD, 2016a, *Making Cities Work for All: Data and Actions for Inclusive Growth*,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6b, *The Governance of Inclusive Growth*, OECD Publishing, Paris.
- Rauniyar, G. and Kanbur, R., 2009, Inclusive growth and inclusive development: a review and synthesis of Asian Development Bank literature, *Journal of the*

- Asia Pacific Economy*, 15(4), 455-469.
- Ros-Tonen, M.A.F., Van Leynseele, Y.P.B., Laven, A. and Sunderland, T., 2015, Landscapes of social inclusion: Reassessing inclusive development through the lenses of food sovereignty and landscape governance,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27(4), 523-540.
- Robinson, J., 2002, Global and world cities: a view from off the map,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6(3), 531-554.
- Robinson, J., 2006, *Ordinary Cities: Between Modernity and Development*, Routledge, London.
- Robinson, J., 2008, Developing ordinary cities: city visioning processes in Durban and Johannesburg,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40(1), 74-87.
- Savitch, H.V. and Kantor, P., eds., 2002, *Cities in the International Marketplace: The Political Economy of Urban Development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 Scott, A., 2008, *Social Economy of the Metropolis: Cognitive-Cultural Capitalism and the Global Resurgence of Cities*,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Scott, A. and Storper, M., 2015, The nature of cities: the scope and limits of urban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9(1), 1-15.
- Shail, M., 2008, *The Other Global City*, Routledge, London.
- Short, J.R., 2004, *Global Metropolitan: Globalizing Cities in a Capitalist World*, Routledge, London.
- Smith, S.R., 2010, Nonprofits and public administration: reconciling performance management and citizen engagement,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40(2), 129-152.
- Teichman, J.A., 2016, *The Politics of Inclusive Development Policy, State Capacity, and Coalition Building*, Palgrave Macmillan, New York.
- Treuhart, S., Scoggins, J., and Tran, J., 2014, *The Equity Solution: Racial Inclusion is Key to Growing a Strong Economy*, PolicyLink, Oakland, CA.
- Tronti, M., 1966, *Operai e Capitale (Workers and Capital)*, Einaudi, Turin.
- Tudor, K., 2011, Understanding empathy,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41(1), 39-57.
- UNIDO, 2014,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 Development: Creating Shared Prosperity, Safeguarding the Environment*,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Vienna.
- United Nations, 2016, *New Urban Agenda*, United Nations, New York.
- United Nations Division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5, *Creating an Inclusive Society: Practical Strategies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United Nations, New York.
- Woodward, A. and Kohli, M., eds., 2001, *Inclusions and Exclusions in European Society*, Routledge, London.
- World Bank, 2013, *Inclusion Matters: The Foundation for Shared Prosperity*, World Bank, Washington, DC.
- 교신: 남기범, 025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전화: 02-6490-2738, 이메일: nahm@uos.ac.kr
- Correspondence: Keebom Nahm, Department of Urban Sociology, University of Seoul, 163 Seoulsiripdae-ro, Dongdaemun-gu, Seoul, 02504 Korea, Tel: 82-2-6490-2738, E-mail: nahm@uos.ac.kr

최초투고일 2018. 7. 24

수정일 2018. 8. 17

최종접수일 2018. 8. 24

# 네트워크 과학 관점에서 바라본 산줄기 연결망 체계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

장효진\* · 박수진\*\*

##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the *Sanjulgi* (mountain ridge) Network System based on Network Science

Hyo Jin Jang\* · Soo Jin Park\*\*

**요약:** 본 연구는 네트워크 과학 관점에서 산줄기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과 중요성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산지 관리 원칙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네트워크 과학이란 복잡계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을 노드(node)와 링크(link)로 단순화하여 네트워크로 연구하는 방법론으로써, 백두대간, 정맥, 기맥, 지맥의 산줄기들을 노드와 링크로 설정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산줄기 구조적 특성과 의미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줄기 연결망의 전체 구조는 멱함수 분포를 보이는 복잡계 네트워크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선형적 구조 안에서 일정 확률을 가진 프랙탈(fractal) 구조와 수많은 선들을 관할하는 허브의 존재를 의미한다. 둘째, 산줄기의 핵심 허브는 백두대간이라는 통념을 네트워크 과학 관점에서도 증명하였고, 낮게 평가되어오던 일부 지맥 산줄기의 중요성을 도출하였다. 지맥은 정책적으로 주요 산줄기에서 제외되어 산지 관리 시 보전보다 이용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분석 결과를 통해 그동안의 산지 관리 정책에서 산줄기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한계점을 밝혀냈다. 본 연구는 실질적인 산줄기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관리 정책을 보완하는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산줄기, 네트워크분석, 복잡계, 산지관리, 산지체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he *Sanjulgi* (mountain ridge) in terms of network science, and to propose the mountain management principles based on the results. Network science is a network method that simplifies interaction of complex components into node and link. In this study, the network analysis was performed by setting individual *Sanjulgi* of *Baekdudaegan*, *Jeongmak*, *Gimaek*, and *Jimaek* as nodes and link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rried out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Sanjulgi*.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ructure of the mountain ridge is a complex system network that follows a Power-law distribution. This implies the existence of a fractal structure which is a nonlinear structure that has constant probabilities and a hub that controls a large number of lines. Second, this study proved that the core hub of the mountain is *Baekdudaegan* in terms of the network science, and the importance of some *Jimaek*. *Jimaek* has been excluded from the main mountain ridge management system, and tends to be considered more strongly on development than conservation in the mountain management in general. Howeve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pointed out that the mountain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기반구조 사업의 지원(#SNUAC2018-011)을 받아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Ph.D. Student, Dep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janghj317@snu.ac.kr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아시아연구소 소장(Professor, Dept. of Geography/Director, Asia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catena@snu.ac.kr

management policy has not comprehensively reflecte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mountain ridge. This study could provide theoretical support for the management policy that does not take account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actual mountain ridge.

**Key Words:** *Sanjulgi* (mountain ridge) map, Network analysis, Complex system, Mountain management, Mountain system

## 1. 서론

우리나라 국토의 약 70%는 산지로 구성되고, 그 내부에는 다양한 지형 체계와 생태계 양상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산줄기 체계를 산지의 공간 단위로 설정하여 산지를 관리해오고 있다(신준환, 2004; 산림청, 2013). 우리나라의 주요 산줄기 체계는 조선 후기에 산지를 대간, 정간, 정맥으로 체계화하는데서 출발하였으며, 현재는 산지 관리의 기본 체계로 활용되고 있다(국토연구원, 2017). 이는 백두대간과 10대강의 유역분수계들을 연결한 것으로, 자연과 인문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산지 개념으로도 인식되어 왔으며(양보경, 1993), 이것을 DB화하여 산지관리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 있다(이양주 외, 2008).

실제로 환경관련 정부 부처는 주요 산줄기인 백두대간, 정맥, 기맥을 중심으로 주변 산지지형과 생태계 관리를 하고 있다. 백두대간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형 요소이자 우리나라의 생태계 핵심축으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최상위 법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주요 산줄기인 백두대간, 정맥, 기맥은 「산지관리법」에 근거하여 보호되고 있다. 한반도의 산지체계를 나타내는 대표성과 소유역 단위의 산줄기를 고려하기 위해 대규모부터 소규모까지 포괄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계층적인 산줄기가 필요하다(박수진·손일, 2005b). 이를 위해 2013년부터 제1차산지기본계획에 따라 ‘백두대간에서 우리 집 뒷동산까지’의 산줄기 연결망 실현을 위해 산을 개별적인 요소로 인식하지 않고 통합된 하나의 산줄기 체계로 인지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을 시도해오고 있다(산림청, 2013). 2013~2015년에는 기존 산경표의 산줄기 체계보다 더욱

구체적인 작은 단위의 산줄기를 추가로 구축하였고, 백두대간부터 말단부 산줄기까지 산줄기를 연결하고자 통합된 하나의 ‘산줄기 연결망(network) 체계’로 구축한 바 있다(국토연구원, 2016).

선행 연구와 정책들의 산줄기 연결망 체계 구축과 통합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산줄기는 동식물 종의 서식처와 이동통로가 되고, 2) 우리나라 국토의 기틀이며, 3) 특히 백두대간은 국토 전체의 산줄기로 연결시켜주는 공간이므로 생태계 가치가 높다는 측면에서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산줄기 단절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동식물의 이동통로 단절과 지형훼손을 야기시키므로 산줄기체계의 통합 관리와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1; 산림청 2013; 이명진·이수재, 2013).

이와 같은 산줄기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과 연구들을 통해 산줄기가 생태적으로 중요한 공간이라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만, 산줄기를 하나의 통합 체계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와 소규모 산줄기의 관리 필요성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를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박수진·손일, 2005b). 또한, 이러한 주요 산줄기에 치중한 지형관리는 소규모 단위의 산줄기와 유역체계가 지닌 세부적인 지형학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산지지형 관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도원 외, 2003; 손학기 외, 2010). 현재 산줄기의 관리 적용 대상은 산지관리법상 주요 산줄기인 백두대간, 정맥, 기맥에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산줄기 위계에 따르는 이유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산줄기 DB를 산경표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산경표는 조선후기 신경준이 산줄기를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위계화하면서 현재까지 그 인식체계가 전해져오고 있다(양보경, 1993; 현진상, 2000). 그러나 과학적인 근거

에 의해 산출기를 위계화 했다고 언급하기 어려우므로 산출기의 위계별 의미를 과학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까지 지맥 이하의 산출기에 대한 관리 방안이나 연구에 대해서는 부재한 실정이고, 전체 산출기 연결망 역시 단순히 선적 연결에 그친 채 산출기마다 다른 관리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본질적인 산출기 연결망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체 산출기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을 밝히는 연구가 선행되고, 그에 따른 정책 실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과학(network science) 관점에서 산출기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여 산출기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산출기 관리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네트워크 과학은 네트워크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노드(node)와 링크(link)로 구조화하여 연구하는 것으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형태를 파악하기에 용이한 학문이다(정하웅·강병남, 2007).<sup>1)</sup> 이를 위해 네트워크 구성요소의 분포를 분석하여 산출기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산출기별 구체적인 의미는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 2. 연구 방법

### 1)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분석

인간이 거주하는 지표공간은 다양한 형태의 요소들로 구성되고 유역은 지표공간의 틀로써 이들을 포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의 경계가 되는 산출기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전국 산출기 연결망의 특성을 보다 과학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네트워크의 구조와 형태는 노드들이 만나는 결절점이 링크가 되는데, 이들의 분포 양상에 따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기를 노드로, 산출기와 산출기가 만나는 지점을 링크로 설정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네트워크 과학 측면에서의 산출기 연결망 분석은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개별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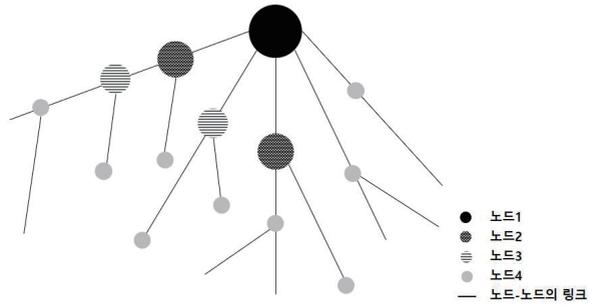


그림 1. 산출기 노드와 링크 개념도

산출을 잇는 산의 능선들을 구조화함으로써 국토를 형성하는 전반적인 지형 특성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네트워크의 특성을 통계물리학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가우시안 법칙을 따르는 무작위 네트워크(random network) 및 좁은 세상 네트워크(small-world network), 멱함수 법칙을 따르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scale-free network) 등이 대표적이다(윤병수·채승병, 2005).<sup>2)</sup>

이처럼 우리 주변 환경은 그들만의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 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 특성에 따라 이용과 관리 원칙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기의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Netminer 4.0 프로그램을 통해 통계물리학적 분포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Kolmogorov-Smirnov test(이하 K-S 검정)와 적합도 검정(goodness-of-fit tests)을 시행하였다(Clauset *et al.*, 2009). 기존 연구들에서는 정규분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K-S 검정에서 0.05보다 크면 정규분포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규분포가 아닌 멱함수로 정의하며, 이에 대한 적합도 검정에서는  $p$ -value가 0.01 이상이면 멱함수로써 유의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Agostino and Stephens, 1986; Clauset *et al.*, 2009; 최명제·김민숙, 2015). 또는 네트워크 구성 개체들의 규모-순위의 Log-Log 그래프를 작성하여 육안상 직선에 가깝거나 회귀분석 결과 결정계수( $R^2$ )가 0.9 이상을 멱함수로 판단하기도 한다(장세은·이수호, 2014; 이상봉, 2015).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성과 네트워크 분석 논문들의 경향을 보다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자의 방법을 택하여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2) 네트워크의 중심성 분석

네트워크 내 수많은 산줄기 노드들이 어떤 소수의 산줄기 노드에 집중되는지 그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중요도와 위계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중요도가 집중되는 노드는 가치가 높거나 허브 역할이 될 것이다. 그 외의 노드들은 이웃이라고 정의하며, 노드의 이웃인 모든 노드들의 합을 그 노드의 연결정도라고 말한다(Freeman, 1979; Annalisa, 1999; 배현준 외, 2017). 본 연구에서는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그리고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분석을 통해 산줄기별 위계를 파악하였다.

각 중심성 분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중심성( $C_p(n_i)$ )은 네트워크의 노드들의 직접적인 연결 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국지적인 연결분포 특성을 반영하며, 연결 수가 많은 노드일수록 중심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식 1). 둘째, 근접중심성( $C_c(n_i)$ )은 노드들 간의 직접적·간접적으로 연결된 다른 노드들과의 거리를 산정하여 중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거리가 짧을수록 중심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식 2). 셋째, 매개중심성( $C_b(n_i)$ )은 한 노드가 네트워크 내의 다른 노드들 사이에서 매개체(중개자)로서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 나타내는 방법이다(식 3). 한 노드가 다른 결점들 사이의 최단거리를 연결하는 최단 경로에 위치할수록 그 결점의 사이 중심성은 높아지며, 복잡한 네트워크 내 보편성을 찾기에 용이하다(Kim et al, 2004; 정하웅·강병남, 2007). 그리고 마지막 위세중심성( $C_i$ )은 자신의 노드 연결정도 중심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자신과 연결된 다른 노드의 중심성 영향력까지 합한 것을 말한다(식 4). 따라서 해당 노드의 중심성이 낮더라도 연결된 다른 노드들의 중심성이 높을 경우, 자신의 노드 중심성은 높아진다.

## 3) 연구 자료

### (1) 연구자료 소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산줄기 체계는 전통적으로 산경표에 따라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신산경표에서 ‘산은 물을 가르는 경계’라는 원칙하에 현대의 지형을 반영하면서 기존 산경표에서 제시한 산줄기 외에 기맥과 지맥을 추가하여 최종 1대간, 12정맥, 12기맥, 20지맥으로 구획하였다(박성태, 2010). 여기서 대간은 기존 산경표에 근거하여 대간을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의 산줄기를 지칭하고, 정맥은 10대강을 구획하는 산줄기, 기맥은 대간과 정맥에서 분기한 100km 이상의 산줄기로, 지맥은 대간, 정맥, 기맥을 제외한 30km 이상의 산줄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산줄기의 보호가치 중요도를 대간, 정맥, 기맥, 지맥의 순서로 인식하고 관리하고 있다.

$$C_p(n_i) = \frac{\sum_{j=1}^g a(n_i, n_j)}{g-1} \quad \text{식 (1)}$$

$g$ :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전체노드의 수

$a$ : 노드의 연결정도.  $n_i$ 와  $n_j$ 가 링크로 연결되어 있으면  $a(n_i, n_j)=1$ , 그렇지 않으면  $a(n_i, n_j)=0$

$$C_c(n_i) = \frac{g-1}{\sum_{j=1}^g d(n_i, n_j)} \quad \text{식 (2)}$$

$g$ :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전체 노드 수

$d(n_i, n_j)$ : 노드  $i$ 에서  $j$ 까지의 거리

$$C_b(n_i) = \frac{\sum_{j>k}^g \frac{g_{jk}(n_i)}{g_{jk}}}{[(g-1)(g-2)/2]} \quad \text{식 (3)}$$

$g_{jk}$ : 노드  $j$ 에서  $k$ 를 연결하는 최단 경로의 개수

$g_{jk}(n_i)$ : 노드  $j$ 에서  $k$ 를 연결하는 최단 경로 중에서 노드  $i$ 를 거치는 경로의 수

$$C_i = \frac{1}{\lambda} \sum_{j \in N(i)} A_{ij} C_j \quad \text{식 (4)}$$

$\lambda$ :  $i$ 와  $j$ 간 관계 매트릭스의 가장 큰 고유벡터의 고유값, 즉 노드  $i$ 의 아에겐 값(eigen value)  
 $N(i)$ : 노드  $i$ 의 이웃 노드들의 합  
 $A_{ij}$ :  $n \times n$  방향 인접 행렬  $A$ 에서 노드  $i$ 와  $j$ 의 연결정도. 연결되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C_i$ 와  $C_j$ :  $i$ 와  $j$ 의 중심성

최근 많은 산줄기 연구에서 지형적·관리적·전통적 특성에 따라 산줄기 체계를 달리하면서 새로운 산줄기 지도 제안을 시도하고 있다(김영표 외, 2004; 박수진·손일, 2005a; 국토연구원, 2016). 그러나 각 연구마다 산줄기 체계와 특징이 상이하여, 실제 산지관리 시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산줄기를 분석하여 정책적 활용으로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실제로 산림청에서 활용하는 남한을 대상으로 구축한 신산경표 기반의 산줄기 DB를 분석 도구로 활용하였다. 해당 산줄기 DB는 2012년 산림청에서 박성태(2010)의 신산경표를 기본으로 하면서 수치고도 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을 활용하여 능선을 추출한 것이다.<sup>3)</sup> 이 지도는 신산경표보다 상세하게 산줄기를 표현하여, 대간 1개, 정맥 7개, 기맥 6

개, 지맥 149개, 그리고 700개의 세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맥은 기존 신산경표에는 없는 산줄기이지만, 보다 면밀한 산줄기와 주변 지형 관리를 위해 대간, 정맥, 기맥, 지맥으로부터 추가로 분기하는 세부적인 산줄기를 지칭한 것이다. 표 1과 그림 2는 한반도의 남한을 대상으로 대간, 정맥, 기맥, 지맥을 표시한 것이고, 산줄기 길이는 ArcMap 10.3에서 산줄기 DB를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세맥의 명칭은 분기된 지점의 산줄기에 따르므로 상세한 명칭의 정리는 생략하였다.

(2) 연구자료 활용 방법

본 연구는 기존 대간, 정맥, 기맥, 지맥의 4단계의 산줄기 체계가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보이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파악한 후 그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위계의 산줄기를 노드로, 다른 위계의 산줄기들(노드)과의 연결 지점을 링크로 설정하여 산줄기 위계별 네트워크의 구조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산줄기 노드별 링크는 ArcMap 10.3을 활용하여 ‘대간-정맥’, ‘대간-기맥’, ‘대간-지맥’, ‘정맥-기맥’, ‘정맥-지맥’, ‘기맥-지맥’로 구축하였다. 그리고 같은 위계의 산줄기들간 중복 산정(예: 부용지맥-각

표 1. 한국의 산줄기 개요

산줄기		길이(km)	산줄기		길이(km)	산줄기		길이(km)
위계	명칭		위계	명칭		위계	명칭	
대간	백두대간	753.9	40	부용지맥	42.4	96	기룡지맥	31.6
정맥		2,003.1	41	만뢰지맥	45.8	97	팔공지맥	126.2
	금강정맥	133.2	42	영인지맥	43.6	98	갈라지맥	49.5
	낙남정맥	195.1	43	봉수지맥	47.6	99	구암지맥	56.5
	낙동정맥	419.1	44	석문지맥	49.8	100	내연지맥	38.0
	한남정맥	178.5	45	망일지맥	34.1	101	비슬지맥	140.3
	한북정맥	166.6	46	성주지맥	32.3	102	거제지맥	48.3
	호남정맥	525.9	47	원진지맥	36.1	103	강화지맥	32.7
	호서정맥	384.8	48	병풍지맥	64.1	104	보개지맥	30.5
기맥		837.5	49	장암지맥	34.1	105	어은지맥	5.0
	영산지맥	159.6	40	봉대지맥	43.7	106	성골지맥	28.6
	진양기맥	155.0	51	흑석지맥	43.3	107	천마지맥	47.1
	땅끝기맥	121.9	52	백룡지맥	28.0	108	백덕지맥	56.1

	금남기맥	110.3	53	사자지맥	43.3	109	주왕지맥	77.5
	금북기맥	125.7	54	친황지맥	70.8	110	태행지맥	44.7
	한강기맥	165.0	55	통명지맥	37.5	111	오두지맥	37.2
지맥	6,963.5		56	무이지맥	35.5	112	해룡지맥	35.2
1	도솔지맥	91.5	57	삼신지맥	29.5	113	오갑지맥	30.0
2	감악지맥	40.3	58	팔봉지맥	51.2	114	모악지맥	65.0
3	도봉지맥	61.5	59	칠갑지맥	28.4	115	변산지맥	53.4
4	춘천지맥	124.8	60	안평지맥	32.8	116	옥룡지맥	47.5
5	영월지맥	129.9	61	신선지맥	30.8	117	화원지맥	80.7
6	관악지맥	37.2	62	등곡지맥	32.0	118	역불지맥	31.5
7	김단지맥	47.4	63	우봉지맥	26.5	119	성수지맥	56.7
8	두승지맥	38.8	64	작약지맥	47.6	120	모후지맥	28.4
9	경수지맥	35.1	65	운달지맥	51.1	121	팔음지맥	53.6
10	고흥지맥	71.0	66	자구지맥	34.8	122	전월지맥	33.0
11	견두지맥	36.0	67	자개지맥	49.7	123	장령지맥	46.4
12	덕유지맥	31.4	68	육백지맥	45.8	124	식장지맥	58.9
13	각호지맥	49.5	69	안일지맥	29.9	125	백운지맥	45.0
14	관암지맥	41.3	70	화림지맥	33.2	126	천등지맥	43.9
15	계명지맥	33.3	71	비학지맥	43.8	127	웅석지맥	44.9
16	금대지맥	57.4	72	성치지맥	41.7	128	연비지맥	37.1
17	수도지맥	102.7	73	운문지맥	33.4	129	양각지맥	31.6
18	국사지맥	39.6	74	영축지맥	43.8	130	칠봉지맥	56.9
19	각화지맥	32.7	75	무척지맥	39.7	131	영암지맥	39.8
20	덕산지맥	72.3	76	화개지맥	30.9	132	승덕지맥	44.9
21	보현지맥	167.2	77	정수지맥	34.7	133	일월지맥	31.6
22	호미지맥	101.5	78	후망지맥	28.0	134	영등지맥	34.2
23	남암지맥	35.3	79	통영지맥	43.3	135	황학지맥	45.0
24	기양지맥	50.5	80	태청지맥	49.9	136	유봉지맥	33.4
25	왕재지맥	55.7	81	대득지맥	29.9	137	선암지맥	56.5
26	삼송지맥	19.6	82	갑산지맥	32.3	138	청룡지맥	37.3
27	화장지맥	15.6	83	독조지맥	60.1	139	열왕지맥	28.9
28	향로지맥	36.8	84	가섭지맥	34.4	140	화왕지맥	31.5
29	적근지맥	33.5	85	고산지맥	33.7	141	왕령지맥	31.7
30	화악지맥	41.5	86	노성지맥	31.7	142	삼태지맥	33.1
31	명지지맥	38.8	87	여수지맥	79.8	143	용천지맥	40.0
32	수락지맥	39.1	88	금적지맥	46.1	144	북거제지맥	32.8
33	왕방지맥	39.6	89	두위지맥	47.3	145	안면지맥	33.1
34	명성지맥	55.8	90	노목지맥	37.2	146	용암지맥	34.0
35	만월지맥	44.9	91	금수지맥	30.3	147	진도지맥	48.1
36	황병지맥	47.0	92	남해지맥	45.9	148	장계지맥	27.0
37	앵자지맥	60.7	93	금오지맥	80.2	149	죽림지맥	33.3
38	서봉지맥	62.0	94	문수지맥	109.5	세맥	8,238.3	
39	쌍령지맥	41.2	95	금장지맥	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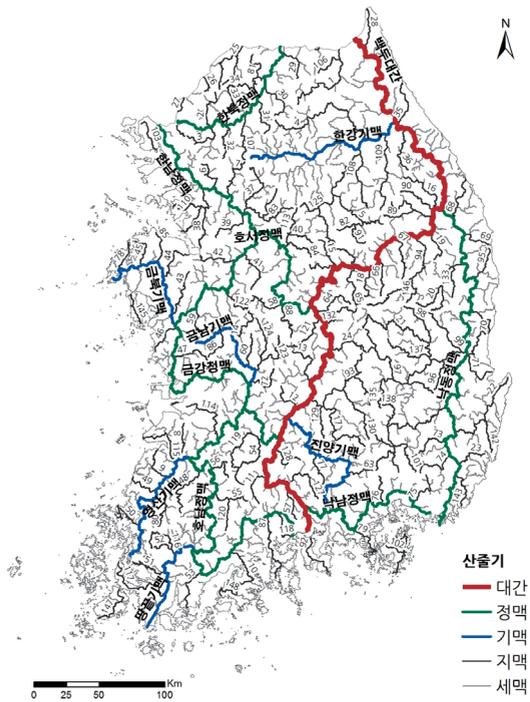


그림 2. 한국의 산줄기 구조와 분포

주: 지맥의 숫자는 표 1의 지맥 연번을 참조  
출처: 산림청의 산줄기 자료를 저자가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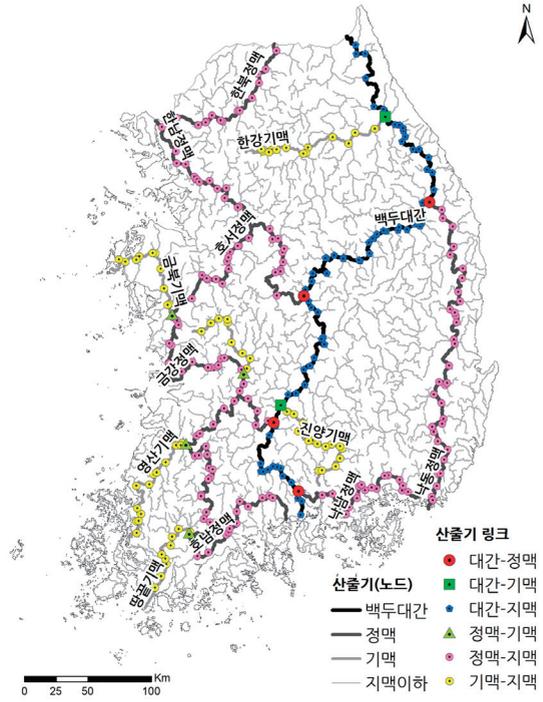


그림 3. 산줄기 노드와 링크

호지맥)을 피하기 위해 동등한 위계 산줄기 링크 설정은 제외하였다(그림 3).

### 3. 연구 결과

#### 1) 산줄기 네트워크의 구조 특성과 의미

산줄기 네트워크의 전체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산줄기 네트워크의 노드별 링크에 대해 K-S 검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p$ -value는 0.011로 멱함수 분포를 나타냈고, 적합도 검정에서 검정의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산줄기 네트워크의 산줄기별 규모(X축) - 산줄기 빈도(Y축) Log-Log 그래프를 보면 직선형으로, 육안으로도 멱함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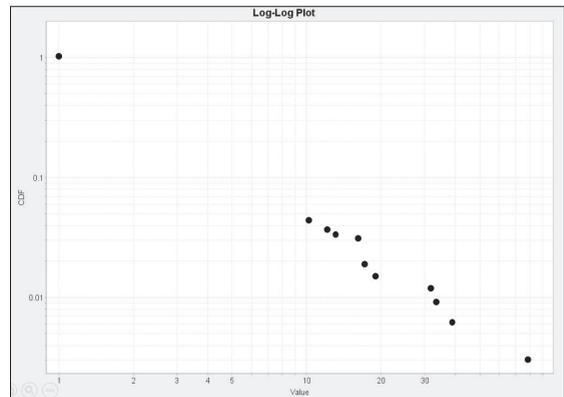


그림 4. 산줄기 네트워크의 규모-빈도 로그그래프

x: 산줄기에 연결되는 링크 수, y: 링크에 연결되는 산줄기의 수

멱함수 분포는 복잡계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질서현상 중 하나이다(Barabasi *et al.*, 2000). 복잡계 구조는 비선형적 상호작용을 나타내는데, 수십 개의 연결선으로만 이뤄진 단순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전체

적으로 살펴보면 수 만개의 연결선들이 일정 확률을 가진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의 특징은 네트워크 시스템이 임계점(critical point)을 넘어서는 순간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선형 현상에서도 나름대로의 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질서가 있는데 이를 자기유사성(self-similarity)라고 하고, 이러한 구조를 프랙탈(fractal)이라고 한다(Lam and Cola, 1992). 개별 요소들의 에너지가 상호작용 하면서 스스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데, 이러한 창발적인 질서 형성 과정인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의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네트워크 특성은 지진, 산발, 도시 규모 등 지리적 현상에서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Barabasi, 2002; Chin and Phillips, 2007; 윤영수·채승병, 2005).

그리고 복잡계 특성을 보이는 네트워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수많은 노드 중 연결이 집중되는 노드, 즉 하나의 허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림 4의 Log-Log 그래프 결과는 가장 우측에 해당하는 링크는 가장 많은 노드가 연결된, 즉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허브가 되고 좌측으로 갈수록 규모는 낮아지면서 빈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 2)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을 통한 산줄기 연결망의 의미 도출

앞서 역함수 분포 발견을 통해 산줄기의 허브뿐만

아니라 위계의 존재도 발견할 수 있었다.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별 산줄기들의 중요도를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그리고 위세중심성 분석을 통해 산줄기 연결망 내의 허브와 영향력을 도출하였다(표 2, 그림 5). 중심성 지수는 0~1 사이로, 각 산줄기를 지수의 내림차순으로 나열하였고 동등한 순위의 산줄기들은 A~M으로 그룹화하여 나타냈다.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백두대간(0.2469), 호남정맥(0.1219), 낙동정맥(0.1031), 호서정맥(0.1000), 낙남정맥(0.0563), 진양기맥(0.0531) 등으로 대간, 정맥, 기맥이 1위부터 10위까지 차지하였다. 백두대간은 상위 10위 내의 산줄기보다 2배 이상의 직접적인 산줄기들을 연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위부터는 지맥과 각 대간, 정맥, 기맥으로부터 뻗어 나온 세맥으로, 이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노드의 수가 같아 모두 동등한 지수로 나타났다(0.0031). 결과를 통해 백두대간이 모든 산줄기를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중요도 1순위의 산줄기로 나타났고, 정책적으로 기맥보다 중요하게 여겨져 왔던 정맥 중 일부는 기맥보다 그 위계가 낮게 나타났다.

근접중심성에서는 백두대간(0.4485), 호남정맥(0.3486), 호서정맥(0.3275), 낙동정맥(0.3179), 낙남정맥(0.3044) 등으로 나타났고 연결중심성과는 다르게 한남정맥, 한북정맥, 금강정맥, 금남기맥이 하위권으로 포함되었다. 근접중심성은 허브에 직접 연결된 만큼 그 위계가 높아지는데, 한남정맥, 한북정맥, 금

표 2. 산줄기 네트워크의 중심성 분석 결과

a. 연결중심성			b. 근접중심성 <sup>1)</sup>			c. 매개중심성			d. 위세중심성 <sup>2)</sup>		
순위	산줄기	Degree	순위	산줄기	Degree	순위	산줄기	Degree	순위	산줄기	Degree
1	백두대간	0.2469	1	백두대간	0.4485	1	백두대간	0.6007	1	백두대간	0.6868
2	호남정맥	0.1219	2	호남정맥	0.3486	2	호남정맥	0.2780	2	호남정맥	0.1426
3	낙동정맥	0.1031	3	호서정맥	0.3275	3	호서정맥	0.1974	3	낙동정맥	0.1325
4	호서정맥	0.1000	4	낙동정맥	0.3179	4	낙동정맥	0.1545	4	호서정맥	0.1226
5	낙남정맥	0.0563	5	낙남정맥	0.3044	5	낙남정맥	0.0846	5	낙남정맥	0.0958
6	진양기맥	0.0531	6	진양기맥	0.3036	6	진양기맥	0.0798	6	진양기맥	0.0943
7	한강/영산기맥 한남/한북정맥	0.0500	7	한강기맥	0.3027	7	한강기맥	0.0749	7	한강기맥	0.0929

8	금강정맥	0.0406	8	A	0.2905	7	영산기맥	0.0749	8	A	0.0759
9	금북기맥	0.0375	9	영산기맥	0.2537	8	금북기맥	0.0554	9	낙동정맥 세맥	0.0292
10	땅끝기맥	0.0313	10	땅끝기맥	0.2502	9	땅끝기맥	0.0455	10	영산기맥	0.0193
10	금남기맥	0.0313	11	B	0.2451	10	금강정맥	0.0036	11	땅끝기맥	0.0177
11	지맥이하 307개	0.0031	12	금북기맥	0.2402	11	금남기맥	0.0030	12	금북기맥	0.0163
			13	C	0.2344	12	한남/한북 정맥	0.0024	13	B	0.0157
			14	D	0.2295	13	지맥이하 307개	0.0000	14	C	0.0146
			15	E	0.2224				15	D	0.0135
			16	F	0.2219				16	E	0.0106
			17	G	0.2215				17	F	0.0104
			18	H	0.1940				18	G	0.0103
			19	I	0.1920				19	금북기맥 세맥	0.0036
			20	J	0.1860				20	H	0.0021
			21	한남/한북 정맥	0.0500				21	I	0.0020
			22	금강정맥	0.0488				22	J	0.0018
			23	금남기맥	0.0445				23	M	0.0000
			24	K	0.0291						
			25	L	0.0275						
26	M	0.0258									

1) 근접중심성

- A: 백두대간세맥 모두, 견두지맥, 덕유지맥, 각호지맥, 계명지맥, 금대지맥 등 총 73개
- B: 호남정맥세맥 모두, 고흥지맥, 여수지맥, 병풍지맥, 사자지맥, 천황지맥 등 총 36개
- C: 호서정맥세맥 모두, 부용지맥, 만뢰지맥, 영인지맥, 성주지맥, 원진지맥 등 총 30개
- D: 낙동정맥세맥 모두, 덕산지맥, 용천지맥, 보현지맥, 호미지맥, 옥백지맥 등 총 32개
- E: 낙남정맥세맥 모두, 무척지맥, 화개지맥, 통영지맥 등 총 17개
- F: 진양기맥세맥 모두, 우봉지맥, 정수지맥 등 총 16개
- G: 한강기맥세맥 모두, 춘천지맥, 주왕지맥, 영월지맥, 성지시지맥세맥 등 총 15개
- H: 영산기맥세맥 모두, 두승지맥, 장암지맥, 봉대지맥, 태청지맥 등 총 15개
- I: 땅끝기맥세맥 모두, 흑석지맥, 백룡지맥, 화원지맥 등 총 9개
- J: 금북기맥세맥 모두, 봉수지맥, 석문지맥, 망일지맥, 후망지맥, 고산지맥 등 총 11개
- K: 금강정맥세맥 모두 12개
- L: 금남기맥세맥 모두, 관암지맥, 안평지맥, 성치지맥, 식장지맥 등 총 9개
- M: 한남정맥세맥 모두, 한북정맥세맥 모두, 관악지맥, 앵자지맥, 서봉지맥, 쌍령지맥, 감악지맥, 도봉지맥 등 총 32개

2) 위세중심성

- A: 백두대간세맥 모두, 견두지맥, 덕유지맥, 각호지맥, 계명지맥, 금대지맥, 수도지맥 등 총 73개
- B: 호남정맥세맥 모두, 고흥지맥, 여수지맥, 병풍지맥, 사자지맥, 천황지맥 등 총 36개
- C: 낙동정맥세맥 모두, 덕산지맥, 용천지맥, 보현지맥, 호미지맥, 남암지맥, 운문지맥 등 총 31개
- D: 호서정맥세맥 모두, 부용지맥, 만뢰지맥, 영인지맥, 성주지맥, 원진지맥 등 총 30개
- E: 낙남정맥세맥 모두, 무척지맥, 화개지맥, 통영지맥 등 총 17개
- F: 진양기맥세맥 모두, 우봉지맥, 정수지맥 등 총 16개
- G: 한강기맥세맥 모두, 춘천지맥, 주왕지맥, 영월지맥, 성지시지맥세맥 등 총 15개
- H: 영산기맥세맥 모두, 두승지맥, 장암지맥, 봉대지맥, 태청지맥 등 총 15개
- I: 땅끝기맥세맥 모두, 흑석지맥, 백룡지맥, 화원지맥 등 총 9개
- J: 금북기맥세맥 모두, 봉수지맥, 석문지맥, 망일지맥, 후망지맥, 고산지맥 등 총 10개
- M: 한남정맥, 한북정맥, 금강정맥, 관악지맥, 한남정맥세맥 모두, 한북정맥세맥 모두, 금강정맥세맥 모두, 앵자지맥, 서봉지맥 등 총 5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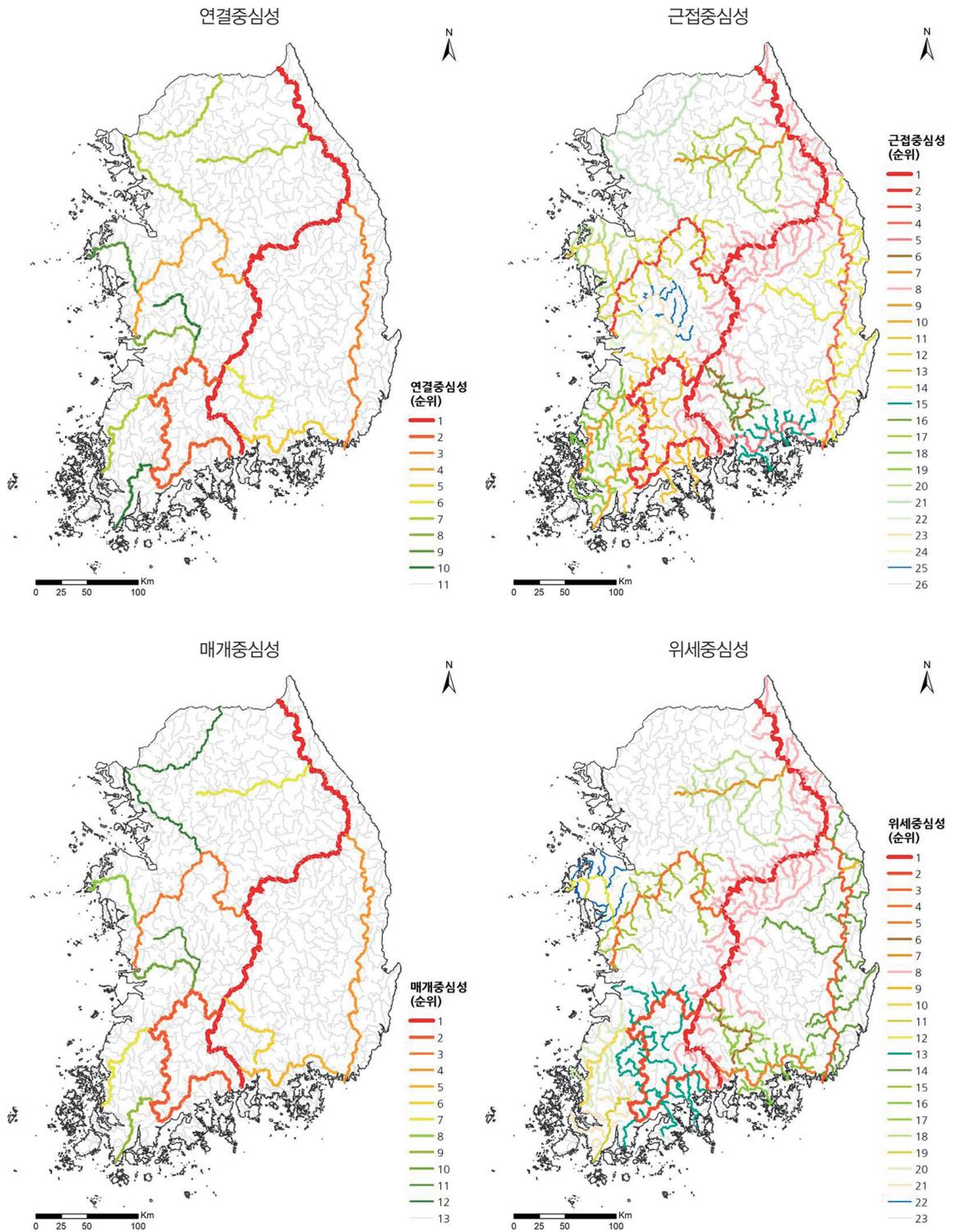


그림 5. 산줄기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강정맥, 금남기맥은 백두대간과 직접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계가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표 2에 해당하는 근접중심성의 A에 해당하는 지맥과 세맥들은 연결중심성을 통해 직접적인 산줄기 노드들의 연결 영향력이 낮은 위계로 나타난 반면, 근접중심성에서는 지리적으로 백두대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그 위계가 상승하였다.

매개중심성에서는 연결중심성과 유사한 순위로 나타났고, 백두대간의 연결성 지수가 0.6007로 도출되었고, 그 다음으로 호남정맥(0.2780), 호서정맥(0.1947), 낙동정맥(0.1545), 낙남정맥(0.0846), 진양기맥(0.0798)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2.2에서 언급했듯이, 매개중심성은 어느 노드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영향을 받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 속의 보편적 특징을 찾는 데 용이하다. 백두대간의 매개중심성 지수가 다른 산줄기보다 약 3배 이상 높다는 의미는 다른 산줄기들과 비교했을 때 산줄기와 산줄기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3배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산줄기의 보편적인 물리적 특성을 파악할 때 백두대간이 전국 산줄기를 관할하는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 위세중심성은 근접중심성과 유사한 순위로 백두대간(0.6868), 호남정맥(0.1426), 낙동정맥(0.1325), 호서정맥(0.1226) 등으로 나타났고 견두지맥을 포함한 기타 지맥과 세맥들이 영산기맥, 땅끝기맥, 금북기맥, 한남정맥, 금강정맥보다 높은 순위권으로 진입하였다. 특히, 백두대간 주변의 지맥과 세맥들은 이웃 산줄기들과의 연결 정도는 낮지만, 백두대간의 높은 중심성의 영향을 받아 높은 지수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가지의 중심성 분석에서 모두 백두대간이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였고, 이로써 백두대간을 산줄기 네트워크의 허브로 결론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직접적 연결을 통해 정맥이 기맥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위계로, 지맥은 하위 산줄기로 나타나 기존 산줄기 체계의 위계와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그림 4와 함께 볼 필요가 있다. 그림 4의 최우측 링크는 허브, 즉 백두대간으로 가장 많은 링크를 점유하는 영향력 높은 산줄기 노드가 된다. 즉, 백두대간은 가장 영향력 있

고 산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국토 관리에 있어 높은 보호가치를 지녔다는 통념을 네트워크 과학 관점에서도 추가로 입증한 것이다. 그리고 좌측으로 갈수록 정맥, 기맥, 지맥 순으로, 점유한 링크 수와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3.1에서 산줄기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구조 특성 분석을 통해 먹힘수 분포를 보이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임을 밝힌 바 있다. 이 네트워크 구조는 프랙탈 구조로, 자기유사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허브로부터 유사한 구조가 창발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허브인 백두대간의 특징만 파악해도 모든 산줄기의 보편적인 구조적 특성을 알 수 있어, 지형관리 시 일반화된 동일한 원칙을 수립하는데 매우 용이할 것이다.

둘째,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노드들의 연결성을 고려한 근접중심성과 주변 노드들의 중심성 영향을 반영한 위세중심성 결과를 통해 네트워크 위계상 일부 지맥들이 상위 계층의 산줄기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을 지도로 확인한 결과, 지리적으로 최상위 계층인 백두대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산줄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의 영향을 받아 주변 지맥들의 위계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2, 그림 5). 특히 표 2에 해당하는 근접중심성의 A 산줄기인 견두지맥, 덕유지맥, 각호지맥, 계명지맥 등은 백두대간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0.2905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백두대간과 기타 산줄기들 사이에서 많은 환경적 요소와 상호작용하는 민감하고 영향력이 큰 상위 산줄기로 판단되었다.

그동안 지맥 이하의 산줄기는 백두대간, 정맥, 기맥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 측면에서 소홀히 관리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맥 이하 산줄기 중요성의 발견은 국토관리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 4. 토의: 산줄기와 국토 관리의 정책적 시사점

산줄기 네트워크에서 먹힘수 분포의 발견은 국토

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멱함수를 보이는 네트워크는 산줄기의 위계와 관계없이 같은 원리에 의해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즉, 네트워크에 척도의 기준이 없어 규모에 상관없이 고유 특성은 변하지 않으며, 구조적으로도 쉽게 붕괴되지 않는 견고함을 지닌 복잡계적 특성을 지녔음을 의미한다(Barabasi, 2002). 복잡계 네트워크의 창발현상 중 대표적인 특징은 어느 특정 임계점을 초과하면 그 영향이 다른 요소들에게 전파되는 증폭현상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산줄기를 골격으로 하는 유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각종 풍수해를 겪으며 다양한 프로세스를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인간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산줄기의 물리적 구조가 복잡계 시스템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산줄기 내부 유역에도 복잡계 시스템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 예를 동역학계(dynamics)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간 위의 끌개(attractor)와 끌림영역(basin of attraction)에 관한 정의와 함께 들 수 있다. 유역경계, 즉 능선에 떨어진 빗방울은 능선을 기준으로 어느 한 쪽으로 흘러내려가게 되면 강줄기가 능선을 가로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산줄기는 빗방울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 즉, 강줄기가 빗물의 끌개라면 유역은 끌림영역이 되고 이 유역들 사이의 경계, 즉 산줄기는 물질의 방향을 결정하는 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우리나라 지형 특성과 생활공간을 반영하는 국토관리의 기본 단위로 인식되었던 전통 지식과도 연결된다(양보경, 1993; 이도원 외, 2003; 신준환, 2004; 박수진·손일, 2005b). 지역마다 인간 생활권의 행태, 언어, 문화 등이 다르고 유사한 성격들이 군집화 되는 현상은 빗방울이 산줄기를 기준으로 다른 방향성을 지니지만 유사한 방향을 가진 빗방울끼리 모인 강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개별적인 요소들이었던 것들이 하나의 큰 강줄기와 하나의 유역이 된다. 이것이 앞서 언급했던 복잡계의 대표적 현상인 척도 없는 네트워크의 구조가 지닌 프랙탈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은 산줄기가 지닌 복잡계적 특성은 우리나라의 다양하고 복잡한 지형적, 인문사회적 특성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Gao and Xia, 1996; Peng *et al.*, 2014).

그동안 수많은 연구에서 산지의 통합관리를 위한 산줄기 연결망에 대해 언급해왔다(산림청, 2013; 국토연구원, 2016). 이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 산줄기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된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 그러나 산줄기를 포함한 지형요소들이 연결되었다는 현황만으로 통합관리로의 방향을 제시했을 뿐, 궁극적인 산줄기 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마련은 미비하였다. 또한, 주요 산줄기인 백두대간, 정맥, 기맥의 개별 산줄기 관리에 그치고 있고, 심지어 지맥은 관리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관리부서 체계에 있어서도 백두대간은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정맥과 기맥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산줄기의 통합관리 목표와는 거리가 먼 정책 수행을 하고 있다.

올바른 국토 관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를 위해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를 위해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이 필요하다. 모든 지형은 사면을 따라 침식-이동-퇴적의 연결성이 존재하며, 선행 연구에서도 이러한 공간적인 연결성은 공간 스케일과 관련 없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형의 일반성을 제안한 바 있다(박수진, 2014). 본 연구의 첫 번째 결과에서 밝힌 산줄기 연결망에서의 멱함수 분포의 발견은 이러한 지형의 동일 형성 원칙을 뒷받침한다. 이는 강원도 산악지대 산줄기와 전라도의 평야지대 산줄기의 형태, 지리적으로 형성된 위치, 주변 환경이 다를지라도 복잡계 측면에서는 산줄기가 형성하는 작용과 구조적인 원칙이 동일하기 때문에 전국에 걸친 산줄기들에 공통된 일반적인 관리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국가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지형 관리를 위해서는 각 사면의 골격에 해당되는 산줄기가 지닌 일반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토지이용 및 지형관리 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허브인 백두대간은 가장 많은 산줄기를 관할하여 물리적으로

이격되어 있어도 수많은 산줄기들이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그 영향력의 폭이 넓다는 특수성을 지녔다. 전국 산줄기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관리 원칙을 수립한 후에 기존의 획일적인 백두대간보호 지역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가 아닌 허브가 지닌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관리 원칙과 더불어 관리 범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백두대간-정맥-기맥-지맥 전반에 걸친 산줄기 연결망의 통합 관리의 필요성과 산지지형 관리의 최적 공간 스케일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산림청, 2013; 국토연구원, 2017), 아직까지 하위 산줄기의 중요도가 백두대간보다 낮다는 인식과 정책이 남아 있다. 또한, 우리나라 유역 체계 중 중권역이 백두대간부터 지맥까지 가장 많은 산줄기를 포괄하는 공간 단위로 추출하였고 지맥까지의 관리를 언급했지만(국토연구원, 2017), 지맥의 중요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산줄기 관리 범위를 백두대간, 정맥, 기맥에 한정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법상 산줄기 주변 지역의 보호제도는 대간, 정맥, 기맥의 보호를 위한 백두대간보호지역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뿐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관리범위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능선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과 주변 생태계 환경을 고려하여 구획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를 하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산줄기로부터 양안 1km 지역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획일적인 공간구획으로 인해 사면의 프로세스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림 6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일대의 강원도 강릉시 안반데기 지역으로,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호지역 내외로 통과하고 있는 지맥들은 모두 근접중심성과 위세중심성에서 8위를 차지한 중요한 산줄기임에도 불구하고 백두대간보호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림 6의 1번은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설정되기 이전인 1965년에 고랭지농업이 시작되어 보호지역에서 제외되었고, 그 후에 농경지 경계에 풍력발전단지가 입지하였다. 이로 인해 토양유출과 침식 등의 문제가 야기되어 산줄기와 산지 사면뿐만 아니라 남서측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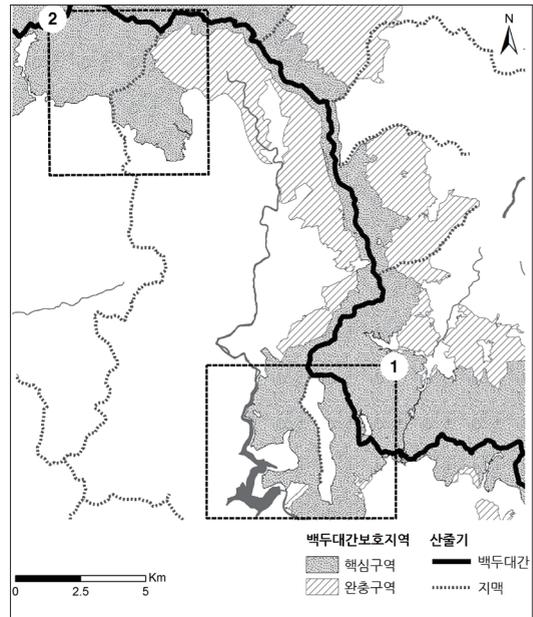


그림 6. 강원도 백두대간보호지역 일대 현황

한 도암호와 주변 수계도 오염문제를 겪고 있다(환경부, 2004). 2번은 황병산 일대로, 하나의 지맥이지만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 속한 산줄기는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산줄기는 보호하지 않고 있다. 이는 향후 개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훼손의 잠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형 회복탄력성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현행법에 따르면 그림 6의 1번 지역은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훼손 영향이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성 분석 결과를 통해 백두대간 주변의 수많은 지맥의 중요성을 도출하였다. 중심성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상위의 지맥들은 이웃의 동등한 또는 다른 위계의 산줄기들을 허브인 백두대간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관리 범위를 지맥까지 확장해야 한다. 지맥으로의 관리 범위 확장은 지맥과 그 능선부 사면이 보호됨에 따라 훼손 지형의 회복에 기여할 것이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지맥과 연결된 다른 산줄기들과 사면, 주변 수계도 함께 회복력을 찾아갈 것이다. 이 결과는 산지 보호측면에서 소외되고 풍력발전단지 등으로 이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맥에 대한 새로운 시

각 전환의 시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sup>4)</sup>

지역 사회는 지역마다의 문화와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인문사회적 특성 관리의 주체와 단위로 지방자치 단체와 각 행정구역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사면의 프로세스와 이것의 골격이 되는 산줄기는 지역의 구분 없이 모두 같은 형성 원칙과 공간적 연결성을 보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거시적이고 일반화된 통합관리 원칙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현재의 국가 정책은 개발과 보전이 양립하는 토지관리 패러다임에 있기 때문에 백두대간부터 지맥까지 전반적인 산줄기 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의 수립과 적용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토와 인간이 장기적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네트워크 관점에서 산줄기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를 모색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줄기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멱함수 분포를 보이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 즉 복잡계 네트워크임을 확인하였다. 복잡계 네트워크는 비선형적 상호작용을 나타내는데, 비선형 현상 안에서 나뉠대로의 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질서를 보이는 자기유사성의 프랙탈 구조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일반화된 동일 원칙을 산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둘째, 중심성 분석을 통해 백두대간이 가장 많은 산줄기를 관할하는 영향력 높은 허브 산줄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정맥, 기맥, 지맥 순으로 산줄기 점유율과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설악산의 환경이 지리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해답을 제안할 수 있다. 모든 산줄기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과 더불어 백두대간이라는 산지 지형과 환경은 가장 많은 산줄기와 연결되어 그

영향 범위가 넓다는 특수성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낮은 위계에 속해 관리에 소홀했던 일부 지맥들의 중요성도 밝혀냈다. 견두지맥, 덕유지맥, 각호지맥 등 총 73개의 지맥과 세맥이 이에 속하는데, 지리적으로 백두대간과 근접하여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현 관리제도에서 지맥보다 중요시 여기던 한남정맥, 금강정맥, 영산기맥, 땅끝기맥, 금북기맥보다 영향력 있는 산줄기로 밝혀졌다. 산줄기 중심성분석 결과를 통해 제1차산지기본계획에서 제안하는 '백두대간에서 우리 집 뒷동산까지'에 대한 관리 목표에 왜 뒷동산까지, 즉 지맥 이하의 하위 산줄기까지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입증할 수 있었다.

산줄기 연결망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형성 원칙에 구조화되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였다. 그리고 산줄기 연결망 내에서도 산줄기마다의 영향력을 파악하여 백두대간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고, 그동안 산줄기 위계에서 다소 낮게 평가되었던 지맥 이하의 산줄기를 재평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힌 전체 산줄기 연결망의 구조적 원칙은 산정부에서 하천까지의 사면 프로세스가 지역에 구분 없는 공간적 연결성을 뒷받침하고, 국가 차원에서 전국토에 대해 지속가능하고 일반화된 지형 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주

- 1) link는 구성요소들을 선으로 표현한 것이고 node는 이 선들이 만나는 결절점을 말한다. 네트워크 과학 분야에서는 국문 표현보다 노드와 링크라는 영어 표현을 사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영어 표현을 차용하였다.
- 2) 가우시안 법칙을 따르는 무작위 네트워크와 좁은 세상 네트워크는 평균적 성향들이 분포하는 정규분포 특성을 보인다. 무작위 네트워크는 노드가 특정 확률에 따라 서로 무작위로 연결된 형태이고, 좁은 세상 네트워크도 무작위 네트워크와 비슷하면서도 노드들 사이에 그들만의 경로가 있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의 구조 특성은 개별적인 개체들의 집합 형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멱함수 법칙(Power-law)을 따르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에 특징적인 척

도 기준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어느 사건 발생의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원리에 의해 형성되고, 발생 확률상 규모가 큰 사건은 드물게 나타나고 작은 것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허브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Albert *et al.*, 1999; Barabasi, 2002).

3) 2012년 한국산지보전협회는 박성태(2010)의 산산경표를 기본으로 수치고도모델(Digital Elevation Model)의 능선을 추출하여 산줄기 DB를 구축하였다. 이는 산림청 내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4) 산지 개발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이점을 기여하기도 하지만, 지형과 생태계 훼손이라는 역효과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주요 산줄기인 백두대간, 정맥, 기맥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서 주로 지맥 산줄기가 풍력발전단지개발의 대상이 됨에 따라 지맥 훼손문제가 대두되고 있다(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2014).

### 참고문헌

- 김영표·임은선·김연준, 2004, 한반도 산맥 체계 재정립 연구: 산줄기 분석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2016, 산줄기연결망체계 구축 및 산지관리방안연구 최종보고서, 산림청.
- 국토연구원, 2017, 2017 산지이용 실태조사(별책) -지형·인문적 산지이용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공간구축-, 산림청.
- 박성태, 2010, 산산경표, 조선매거진, 서울.
- 박수진·손일, 2005a, “한국 산맥론(I) : DEM을 이용한 산맥의 확인과 현행산맥도의 문제점 및 대안의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40(1), 126-152.
- 박수진·손일, 2005b, “한국 산맥론(II): 한반도 ‘산줄기 지도’의 제안,” *대한지리학회지*, 40(3), 253-273.
- 박수진, 2014, “한반도 지형의 일반성과 특수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대한지리학회지*, 49(5), 656-674.
- 배현준·박용화·김영인, 2017, “아시아 주요공항의 저비용항공사 네트워크 분석,” *대한교통학회지*, 35(3), 247-259.
- 산림청, 2013,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2013~2017), 산림청.
- 손학기·정희남·최수·이동근·서창완, 2010, 산줄기·물줄기를 고려한 산지구분 및 합리적 관리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보고서.
- 신준환, 2004, “백두대간 개념의 형성 과정과 복원 방향,” *한국의 전통생태학*(이도원 엮음), 사이언스 북스, 서울.
- 양보경, 1993, “조선시대의 자연인식체계,” *한국사 시민강좌*, 14, 70-97.
- 윤병수·채승병, 2005, 복잡계개론, 삼성경제연구소, 서울.
- 이도원·신준환·강신규, 2003, “백두대간 체계 안에 내포된 유역개념과 문제점,” *한국생태학회지*, 24, 215-221.
- 이상봉, 2015, 디지털 기록 증거에서 멱함수를 이용한 범죄특성 도출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진·이수재, 2013, “GIS를 활용한 백두대간·정맥 추출 및 환경성평가 방안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6(3), 136-146.
- 이양주·강상준·윤은주·염인석·박나영, 2008, 경기도 한북정맥 보전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장세은·이수호, 2014,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세계 크루즈산업 연구동향,”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8(6), 607-614.
- 정하웅·강병남, 2007, “복잡계 네트워크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 *물리학과 첨단기술*, 16(10), 7-9.
- 최명제·김민숙, 2015, “학술지 ‘신경정신의학’의 연구 네트워크 특성 분석,” *신경정신의학*, 54(4), 418-426.
- 현진상, 2000, 한글산경표, 풀빛, 서울.
- 환경부, 2004, 고랭지밭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환경부.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1,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계 조사 종합보고서, 환경부.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2014.10.6. “육상풍력, 환경은 지키면서 보급 활로 연다,” 보도자료.
- Agostino, R.B.D. and Stephens., M.A., 1986, *Goodness-of-Fit Techniques*, Marcel Dekker, New York.
- Albert, R., Jeong, H. and Barabasi, A.L., 1999, The diameter of the World Wide Web, *Nature*, 401, 130-131.
- Annalisa, C., 1999, Measures of Optimal Centrality: Indicators of City Effect and Urban Overload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3), 273-299.
- Barabasi, A.L., Albert, R., Jeong, H. and Bianconi, G., 2000, Power-Law Distribution of the World Wide

- Web, *Science*, 287(5461), 2115.
- Barabasi, A.L., 2002, *Linked: The New Science of Networks*, Basic Books, New York.
- Chin, A. and Phillips, J.D., 2007, The self-organization of step-pools in mountain streams, *Geomorphology*, 83 (2007), 346-358.
- Cluaset, A., Shalizi, C.R. and Newman, M.E.J., 2009, Power-Law Distributions in Empirical Data, *SIAM Review*, 51(4), 661-703.
- Freeman, L.C., 1979,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1(3), 215-239.
- Gao, J. and Xia, Z., 1996, Fractals in physical geography, *Progress in Physical Geography*, 20(2), 178-191.
- Kim, D.H., Noh, J.D. and Jeong, H., 2004, Scale-free trees: The skeletons of complex networks, *Physical Review E*, 70(2004), 046126.
- Lam, N.S. and Cola, L.D., 1992, *Fractals in Geography*, Prentice Hall, New Jersey.
- Peng, G., Xiang, N., Lv, S. and Zhang, G., 2014, Fractal characterization of soil particle-size distribution under different land-use patterns in the Yellow River Delta Wetland in China, *Journal of Soils and Sediments*, 14(6), 1116-1122.
- 교신: 장효진,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이메일: janghj317@snu.ac.kr, 전화: 02-880-6444)
- Correspondence: Hyo Jin Jang, 08826,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e-mail: janghj317@snu.ac.kr, phone: +82-2-880-6444)

최초투고일 2018. 4. 11

수정일 2018. 8. 8

최종접수일 2018. 8. 23

# 『大東地志』 「程里考」에 기반한 조선후기의 1리(里)

김현중\*

## Ri's Distance in Late Joseon Dynasty - Focused on Jeongrigo of Daedongjiji (大東地志) -

Hyun-Jong Kim\*

**요약:** 본 연구는 김정호가 저술한 『대동지지』 「정리고」를 바탕으로 조선후기 리(里)의 거리를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을 이용해 계산하고 1리 거리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대동지지』 「정리고」는 모두 1,459개의 구간으로 구성되며, 이 중 경유지와 경로의 비정 정확도가 높은 1,244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각 경유지와 경로는 노드링크(node-link)모델에 근거하여 공간정보 레이어로 구축하였다. 『대동지지』 「정리고」의 전체 리수는 24,620리이며 전체 거리는 약 11,289km이다. 전국의 1리 거리는 약 459m이다. 구간별 1리 거리의 분포를 통해 보면, 1리 거리의 평균은 표준편차  $\pm 1$  구간(68% 신뢰도)에서 312~650m이다. 구간별 1리 거리의 편차가 큰 곳의 원인은 ① 『대동지지』 「정리고」 자체의 기록의 오류, ② 경유지와 경로의 비정의 오류, ③ 초기 리수 측정의 오류로 지목된다.

**주요어:** 도량형, 『대동지지』, 리수(里數),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 정리고

**Abstract:** This study has measured the distance of ri in later Joseon by using the Historical Geography Information System (HGIS) on the basis of 『Daedongjiji』 「Jeongrigo」 that was written by Kim Jeongho and statistically analyzed. 『Daedongjiji』 「Jeongrigo」 is structured for a total of 1,459 sections and 1,244 sections with relatively accurate assumption of the location for the stop-over and route were selected as the subject of this study. Each of the stop-over and route is structured with the layer based on the node-link model and the distance of each section is calculated in the meter unit. The entire risu of 『Daedongjiji』 「Jeongrigo」 is 24,620-ri and the total distance (meter unit) is approximately 11,289km. The distance for each ri is approximately 459m. Looking through the distribution of risu for each section, the distance for each ri is 312~650m with the standard deviation of  $\pm 1$  area (68% of reliability). The reason for having significant deviation 1 ri's distance for each section is attributable to ① error in record within 『Daedongjiji』 「Jeongrigo」, ② error in assumption of the location for the stop-over and route, and ③ error in initial measurement of risu.

**Key Words:** Daedongjiji(大東地志),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HGIS), Jeongrigo(程里考), Risu(里數), Weights and Measures System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인문지리학과 박사과정(Doctoral Student, Cultural Informatics·Human Geography Department,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unqtsi@gmail.com)

## 1. 머리말

조선시대에 10리는 현재 몇 km인가? 현존하는 조선시대 자의 길이를 mm 단위까지 측정 후 1리(里)로 환산하면 대략 400~540m의 길이가 된다.<sup>1)</sup> 곧 10리는 4.0~5.4km에 이르는 거리로서 현재 통용되는 4km하고는 차이가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1리 거리는 대한제국 1905년(광무 9) 때 제정된 도량형 규칙에 의한 길이로 392.7m이다.<sup>2)</sup> 1리 사이에서는 최대 140m의 비교적 짧은 차이지만, 거리가 길어질수록 그 차이는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한성과 의주 사이의 거리는 오차가 150km<sup>3)</sup>까지 늘어날 수 있다. 오늘날과 달리 이동 수단이 도보 또는 우마에 불과했던 전근대에 시간거리는 물리적 거리와 정비례한다. 이런 의미에서 1리가 의미하는 정확한 길이를 파악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공간 인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된다.

조선시대 1리 거리 추정 연구는 크게 도량형(度量衡) 및 척관법(尺貫法) 연구, 그리고 고지도의 축척을 통한 연구 두 방향으로 수행되어 왔다. 각 방법의 특징과 한계를 짚어보면, 첫 번째로 도량형 중심으로 1리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의 경우, 20~30cm의 자로서 수km~수십km를 어느 정도 정확히 측량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건축물이나 성곽의 둘레 등은 자나 보수척(步數尺)<sup>4)</sup> 또는 승량지법(繩量之法)<sup>5)</sup>을 사용해 비교적 정밀한 측량이 가능하나, 전국 단위의 거리를 이런 방법으로 측량하는 방식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했을 것이다. 세종 때 문헌에 처음 등장한 기리고차(記里鼓車)를 이용해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거리를 측량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나, 이 또한 우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 한정될 수밖에 없고, 문헌 기록이 제한적인 것을 보면 널리 이용되지 않았던 것 같다.<sup>6)</sup> 기리고차 도입 후에도 조선후기까지 문헌에는 성의 둘레, 경유지 간의 거리 측정이 거의 보수(步數)로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로 고지도를 통한 연구는 실제 길이와 지도상의 거리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고지도를 중심으로 연구할 경우 고지도 제작 시의 공간 정보의 정

확도와 제작 기술에 따른 오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고지도에 수록된 도로선과 정리표 등의 교통정보는 실제 거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경유지와 경로의 표시가 현재와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가 등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대동여지도』의 축척은 연구자에 따라 1:160,000에서 1:216,000에 이르는데, 주요 판단 근거는 ① 『대동여지도』 방표(方界表)에 의한 축척 계산, ② 10리를 4km로 추정, ③ 특정 구간의 거리 측정 및 지도 투영법 변환을 통한 축척 계산이다.<sup>7)</sup> 이중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한 연구로 김상수(1989)와 원경렬(1991)의 측지학적인 방법에 주목하고 싶다. 이는 실제의 거리와 면적 등을 『대동여지도』 도상의 내용과 비교한 연구로서 원경렬의 경우 인천에서 강원도 고성까지의 직선 구간을 『대동여지도』 도상의 거리와 실제 거리를 비교해 1:165,000~1:168,000 축척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지도 제작 시의 투영법에 따른 거리의 왜곡이 발생하고 지역별로도 왜곡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구간의 축척을 통해 1리 거리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두 방법론은 1리를 파악하기 위해 도량형 제도에서 시작한 연연적인 방법, 지도와 실제 거리의 비교를 통한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해 논리상, 과정상의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귀납적 방법의 문제가 그렇듯 일부의 사례가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며, 연연적인 과정 또한 체제 안에서의 논리적 문제는 없지만,<sup>8)</sup> 실제 이를 현실에 대입할 때 발생하는 차이를 설명해줄 수 없다. 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일부의 경로를 정확히 복원하여 산출한 1리 거리가 조선시대 리(里)의 대표 수치임을 보장할 수 없고, 문헌 기록만으로는 교통로의 설계가 실제 어느 정도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자의 크기가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균일했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다.<sup>9)</sup> 이런 논리적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 통계적 표본 수의 증가로 모집단에 가까운 값을 제시하면서, 지리적인 특이 패턴을 설명해나가야 한다. 이미 GIS를 통해 이런 접근 방법론은 공간 정보 분석 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는 GIS기반으로 구축된 역사지리정보 레이어가 한정적이고 유통이 잘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GIS를 이용해 통계적 접근 분석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역사지리정

보시시스템(HGIS)에 기반을 둔 연구나 사업에서 역사 공간레이어가 구축됨에 따라 이런 연구방법이 역사 지리 분야에서도 가능해지기 시작했다(김종혁, 2003, 2015; 김유철 외, 2010). HGIS는 역사지리환경의 복원과 역사지리정보 관리뿐 아니라, 분석에 있어서도 GIS의 기본 기능을 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HGIS 기반으로 조선시대 전국의 주요 도로망을 복원한 뒤 이를 이용해 통계적으로 1리 거리의 문제에 접근 한다.

조선시대 1리의 대표 거리를 추정하는 것 외에 본 선과 지선별로 1리에 대한 거리 차이가 어떻게 분포하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 또한 주요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1리 거리(미터단위)<sup>10)</sup>의 차이는 노선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두 번째, 구간별로 1리 거리의 통계적 분포의 특성은 어떠한가? 세 번째, 1리 거리의 평균과 차이가 큰 구간과 그 원인은 무엇인가?

## 2. 연구 자료 및 방법

### 1) 김정호의 『대동지지』 「정리고」와 신경준의 『도로고』

교통로와 관련된 육상, 해상 교통 정보를 경로 중심으로 정리한 지리지는 정리고(程里考), 도로고(道路考), 도리고(道里考) 등의 제목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서술방식이 아닌 표 방식으로 대로 중심으로 경유지를 정리한 자료들은 정리표(程里表) 계열로 묶인다. 도도로키 히로시(2010)와 류명환(2014)의 정리고의 계통성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의 차이는 있지만 주요 정리고의 저본은 1531년의 『신증동국여지승람』, 1770년의 신경준의 『道路考』, 1770년의 『東國文獻備考』 「輿地考」이다. 이후의 정리고 계열과 고지도에 기록된 리수는 이들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김정호가 편찬한 『大東地

志』 「程里考」를 저본으로 삼는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여타 정리고에 비해 경유지가 촘촘하기 때문이며, 두 번째, 동일인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 『동여도』, 『청구도』 등의 고지도를 경유지와 경로 비정시 보완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대동지지』는 김정호가 1861년 이후부터 1866년경 사이에 편찬한 조선 전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찬지리지이다. 「정리고」는 『대동지지』의 27~28권에 해당하는데, 도성의 내부 도로를 기록한 궐문분로(闕門分路), 도성의 8대문을 정리한 성문분로(城門分路) 그리고 10대로의 경유지와 리수를 기록한 총목(總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동지지』 「정리고」외에 리수를 비교하기 위해 신경준의 『도로고』(이하 『도로고』)의 저자는 신경준을 의미함)를 활용하였다. 『도로고』는 1770년 신경준에 의해 편찬되었으며,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집필에 영향을 주었다. 『도로고』는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권은 어로(御路), 팔도 육대로(八道 六大路)로 2권은 팔도 각 읍의 사방경계(四方境界)와 경성(京城) 및 제영(諸營)에 이르는 리수(里數), 3권에는 사연로(四沿路), 역로(驛路), 파발로(擺撥路), 봉화로(烽火路), 4권에는 해로(海路), 사행지로(使行之路), 부(附), 조석(潮汐), 풍우(風雨), 개시(開市) 등이 기술되어 있다.

### 2)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을 이용한 교통로 복원

선행 연구의 귀납적인 1리 거리 추정 방법은 특정 A지점과 B지점과의 리수를 실제 거리와 비교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의 방법론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구간별 1리에 대한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추정한 것이 이 연구의 차별점이 된다. 이 방법은 비정 가능한 경로의 전수 조사를 통해 1리의 실제 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통계적으로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한 연구의 주재료는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 기반으로 복원된 경유지와 경유지간 거리이다. 역사지리정보시스템의 기능은 과거의 지리정보의 구축, 지도화, 분석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살펴 볼 수 있다(Gregory *et al.*, 2007a). 기존의 HGIS는 역사지리정보의 구축과 지도화에 많은 노력을 기했다고 볼 수 있다. 교통로에도 경유지와 경로의 역사지리정보의 구축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조선시대 교통로를 기반으로 리(里)의 거리 분석을 위한 설계 및 복원을 병행하였다.

김현중(2017)은 HGIS를 사용하여 경기도 광주 지역의 지역 간 간선도로와 지역 내 주요 도로망을 복원하면서 그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단계는 지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위치 비정, 2단계는 교차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위치 비정, 3단계는 1910년대에 제작된 『조선오만분일지형도』의 도로망 복원, 4단계는 1890년대에 제작된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의 도로망 복원, 5단계는 조선시대 도로망의 복원의 순서로 진행된다. 위 연구는 광주 지역을 사례로 했지만, 조선시대 전국을 대상으로 복원을 시도하는 것은 개인 연구 차원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만, 『대동지지』 「정리고」의 도로망은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2008~2015)에서 HGIS를 기반으로 복원한 성과를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이하 「대동지지 정리고 복원본(2015)」으로 기술). 그러나 이 사업은 종이지도 제

작을 위한 레이어 구축에 목적이 있어 본 연구의 분석에 바로 활용할 수가 없다. 이에 『대동지지』 「정리고」의 원문 검토부터 시작해 HGIS 설계 기반으로 경유지와 리수를 재구성하였고, 노선별 그리고 경유지별 1리 거리의 분석에 용이하게 기존 레이어를 보완, 수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1리 거리를 산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3. 경유지와 경로의 복원

#### 1) 『대동지지』 「정리고」의 재구성

첫 번째 단계로, 노선별 경유지의 체계적 정리와 경유지별 리수의 파악을 위해 『대동지지』 「정리고」의 내용을 경유지와 경유지간 거리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대동지지』 「정리고」에 등장하는 지명은 보통 리수 정보를 포함하지만 일부 단순 경유지도 있어 이런 예는 제외하였다.<sup>11)</sup> 리수가 파악되는 경유지는 총 1,459개이다.

『대동지지』 「정리고」는 교통로 수목 체계에 계층성이 있기 때문에 표 1과 같은 형식으로 거의 모두 정

표 1. 「대동지지」 「정리고」의 재구성, 의주로(경도-고양 구간)

경유지명	노선명 및 분기	경유지거리	이명	한성과의 거리	주석	추가 정보
[京都]	西北至義州一大路	-	-	-	-	-
餅塵巨里	-	巨里十里	-	-	-	踰大小綠磬峴
梁鐵坪	-	三里	-	-	-	自此北至面山二十五里加羅非場二十五里通麻田積城小路經館基
礪石峴	-	七里	-	-	-	-
黔巖站	-	三里	俗稱舊擺撥	-	-	渡德水川潦漲未渡
礪峴	-	七里	-	-	-	-
新院	分岐	五里	-	-	-	渡新院川
[高陽]	-	十里	-	京四十五里	-	東楊州四十里西南幸州津三十里分三岐西北金浦二十里西富平二十里南陽川十里…(중략)

리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다. 첫 번째, 노선 기점에 대해서는 중복된 경유지라도 모두 표시했다.<sup>12)</sup> 두 번째, 분기점은 모두 경유지에 해당되지만, 분기가 표시만 있을 뿐 리수가 기록되지 않은 경유지는 제외했다.<sup>13)</sup> 세 번째, 분기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분기가 되는 경유지는 포함시켰다.<sup>14)</sup> 네 번째, 압록강과 두만강의 연로 구간은 제외했다.<sup>15)</sup> 다섯 번째, 해남로와 제주로를 연결하는 제주해로의 경우에는 경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해로에서 기술하는 리수 자체가 육상교통로의 리수와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전후에 리수가 표시되어 있는 하천 지명의 경우에는 경유지에 포함시켰다.<sup>16)</sup> 위의 예외 사항을 반영하면 중복된 경우를 제외한 1,348개 경유지와 1,389개의 구간 경로로 정리된다.

## 2) 경유지의 비정

경유지 1,348개의 위치는 『대동지지 정리고 복원본(2015)』에 위치 근거가 불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당부분 비정이 되어있다. 본 절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위치비정의 근거를 검토하여 “1:확실”, “2:유력”, “3:불확실”, “4:불명”, “5:오류” 등 다섯 범주로 경유지의 신뢰도를 부여하였다. 본 작업은 불확실한 경유지의

여부를 가리는 과정으로, 경유지간 거리를 측정 할 때 확실한 경유지를 중심으로 리수를 통합 산출하기 위한 선행 과정이다. 예를 들어 A-B-C로 구성된 경로 중 A에서 C로 가는 경로가 명확하나 B의 위치가 불확실할 경우 A-B의 리수와 B-C의 리수는 의미가 약해지므로 A-C 구간의 리수를 채택하였다.

각 신뢰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확실”은 『정리고』에 기재된 경유지 명칭과 『조선오만분일지형도』와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에 수록된 기호(symbol) 또는 레이블(label)이 지명, 취락, 지형의 형태, 도로망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모두 부합하는 경우이다. “2:유력”은 지형도 상에서 동일하게 매칭되는 지명은 없지만, 정확상 그 위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이다. 보통 고개와 하천과 같은 자연지명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A-B 구간 중에 우회를 포함하여 꼭 넘어야 하는 고개가 있거나, 육로와 하천이 교차하는 나루나 교량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3:불확실”은 전후 경유지의 리수와 도로의 거리를 통해 상대적으로 유력한 곳에 비정하는 경우이다. 단순히 거리만이 아니라, 지명의 유사성, 취락의 유무, 고지도 상 주변 지명과의 상대적 위치 등을 판단해서 결정한다. “4:불명”은 “3:불확실”에서 언급한 추가 기준 판단에도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다. “5:오류”는 『대동지지』 기록 자체가 맥락 상 경로를 상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보통

표 2. 『대동지지』 「정리고」의 경유지 유형별 비정 신뢰도

	인문지명	행정지명	자연지명	합
1:확실	479	334	200	1,013 (72.9%)
2:유력	115	-	91	206 (14.8%)
3:불확실	71	-	13	84 (6.0%)
4:불명	56	-	13	69 (5.0%)
5:오류	8	-	9	17 (1.2%)
계	729 (52.4%)	334 (24.0%)	326 (23.5%)	1,389 <sup>17)</sup>

경유지의 순서가 바뀌어있거나, 해당 경유지의 위치가 주된 경로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이다.

경유지를 신뢰도와 지명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표 2). 경유지의 비정과 경로의 비정 시에는 “4:불명”과 “5:오류”는 제외하고 “3:불확실” 단계 까지 활용하지만, 리수의 계산에서는 “1:확실”과 “2:유력” 두 유형만을 유효한 경유지로 인정하였다.

### 3) 경로의 비정

경로 비정 작업도 「대동지지 정리고 복원본(2015)」을 기반으로 한다. 경로의 비정은 하나의 자료로는 부족하고 종합적 판단 과정이 필요하다. 경로 구축을 위해 사용한 바탕도로 근대측량지도인 『조선오만분일지형도』를 주 자료원으로 사용하되, 경로의 연결에는 1895년부터 1906년 사이에 측도된 것으로 알려진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가 더 유용하게 이용된다. 이는 정리고의 노선과 구한말의 주요 도로가 상당부분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존하는 도엽이 한반도 전 지역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엽이 누락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선후기 고지도 중 『朝鮮地圖』, 『大東輿地圖』, 『東輿圖』, 『朝鮮圖』 등을 중심으로 보완하였다.

『조선오만분일지형도』에는 이미 신작로가 반영되어 있으며, 조선시대의 도로망이 신작로로 정비되는 과정에서 직선화된 구간도 적지 않다. 또한 일제 시기 때 만들어진 도로 등급에 의해 도로의 기호가 도식화되었기 때문에 자칫 오해의 소지도 있다.

이 외 일부 구간은 고지도와 인터넷 지도를 포함하여 현재의 지도를 활용해서 복원했으며, 지도뿐 아니라 교통로 확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국지리지 및 읍지 등을 활용했다. 또한 기존의 경로 비정 연구 성과가 있을 경우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경유지의 전후 거리의 비율에 따라서 경로의 합리성을 판단하여 수정을 했다. 전근대 도로망은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최단 경로를 취하되, 이동 편의를 위해 하천 연안이나 산록의 동일 고도선을 따르거나, 너무 우회하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넘어가는 경로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김중혁, 2004).

그림 1은 이렇게 복원된 『대동지지』 「정리고」의 경유지와 경로를 표시한 지도이다. 경유지 중에는 부, 목, 군, 현 등의 행정중심지와 역, 참, 원, 발소 등의 교통중심지만을 표출했으며, 각 노선의 본선과 지선을 구별하였다.

### 4) 노드링크(Node-Link) 모델 기반 토폴로지 구축

교통로를 구성하는 경유지와 경로는 교통로 DB 구조 중의 하나인 노드-링크(Node-Link) 모델로 연결된다. 노드링크 모델의 실용적인 예는 자동차 네비게이션 시스템으로 이를 기반으로 구축된 교통망 데이터는 최단경로 탐색에 활용된다. 교통로 관점에서 노드란 차량이 도로를 주행함에 있어 속도의 변화가 발생하는 곳을 표현한 곳이며 링크란 노드와 노드를 연결한 선을 의미한다. 노드와 링크는 현실세계에서 다양한 교통 시설물과 연계된다.<sup>18)</sup>

조선시대 네비게이션을 만들지 않는 이상 굳이 이런 모델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아할 수 있으나, 단순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교통로 DB도 노드링크 방식의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드간의 정확한 거리 측정 방안으로 노드링크 모델에 준한 위상(Topology) 관계를 구축했다. 이는 비정한 선과 점의 연결 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디지털링 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어 정확한 길이 측정에 도움이 되고, 화면상에서는 쉽게 검출되지 않는 중복선과 같은 예외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 5) 미터 단위의 구간 거리의 측정

어떤 투영법이라도 적용한 기준 자오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모든 오차는 증가 될 수밖에 없으며, 같은 투영법 안에서도 측지계 기준이 달라지면 거리가 달라진다. 또한 대축척의 경우 지형도 상에서 평면 측정 거리를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소축척의 경우 지구타원체 및 평균해면상의 거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립지리정보원 지형도 제작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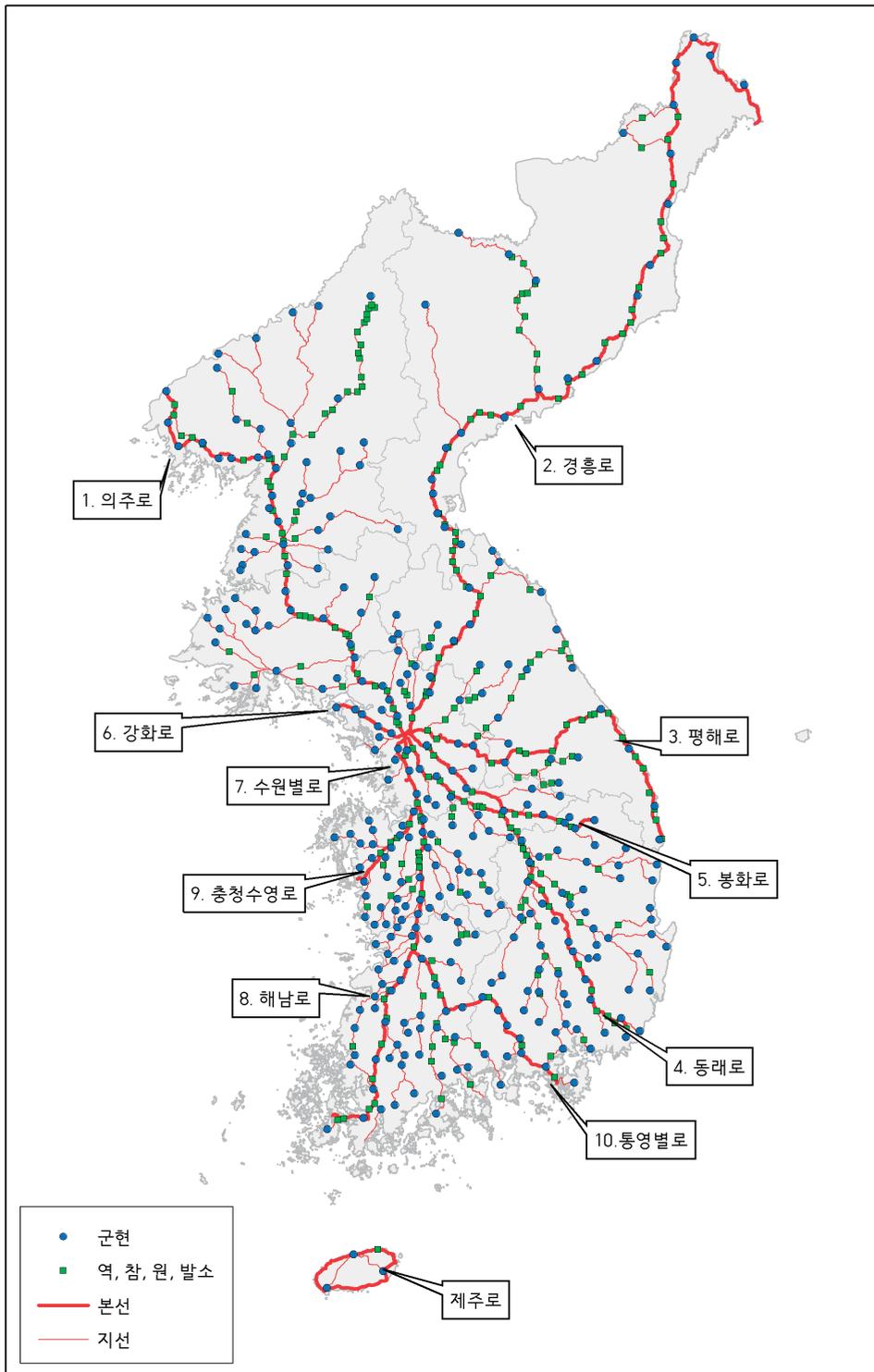


그림 1. 『대동지지』 「정리고」의 경유지와 경로 비정

인 황측메르카도법(TM도법), 세계측지계 ITRF2000을 사용하였고, 중심자오선으로 중부원점(동경 127도)을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위 기준으로 『대동지지』 「정리고」의 제 4로인 동래로의 본선 거리를 계산하면 창덕궁 돈화문에서 동래 치소까지 415.1km이다.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중부원점 127도는 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어 127.5도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UTM-K 투영법<sup>19)</sup>을 적용할 경우 414.9km로 약 200m 정도 짧아진다. 이는 동래로 전체 거리의 약 0.05%에 정도에 해당하는 거리로 본 연구가 요구하는 정확도의 수준에서는 무시할 만하다. 측지선(Geodesic)<sup>20)</sup>을 기준으로 거리를 산출할 때에도 415.0km로 차이가 없다. 불확실하거나 오류인 경우지를 제외한 1,244개의 구간 경로에 대해서 위의 기준으로 미터 단위로 거리를 계산하였다.

## 4. 1리 거리의 측정과 분석

### 1) 노선 별 1리 거리의 분석

먼저 본선만 보면 11개 노선(제주로 포함<sup>21)</sup>)의 전체 리수는 7,980리로 약 8,000리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흥로가 2,200리로 가장 길고, 이어서 의주로가 1,065리, 해남로 970리 등으로 이어진다. 지선은 최대 4차까지 분기되며, 지선을 포함한 리수는 의주로가 5,605리로 가장 길다. 전체 노선의 본선과 지선을 합친 리수의 총합은 24,620리에 달한다.

『대동지지』 「정리고」의 리수가 이전 정리고 계통에 비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고』와 『대동지지』의 각 노선별 리수의 합을 비교해 보았다(표 4). 전반적으로 중점 기준으로 본선의 리수는 10~20리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의주로가 -324리, 동래로가 +43리, 해남로가 -37리 차이

표 3. 『대동지지』 「정리고」의 노선별 리수(里數)

(단위: 里)

노선명	본선	1차지선	2차지선	3차지선	4차지선	합
1. 의주로	1,065	2,855	965	630	90	5,605
2. 경흥로	2,200 (2,190)	1,700	340	40	-	4,280
3. 평해로	895 (890)	785	337	-	-	2,017
4. 동래로	940 (950)	1,790	1,530	90	-	4,350
5. 봉화로	500	320	-	-	-	820
6. 강화로	160	83	20	-	-	263
7. 수원별로	100	25	-	-	-	125
8. 해남로	970	1,905	595	-	-	3,470
9. 충청수영로	210	1,020	65	-	-	1,295
10. 통영별로	520 (490)	655	590	40	-	1,805
제주로	420	170	-	-	-	590
계	7,980 (7,945)	11,308	4,442	800	90	24,620

\* 괄호 안의 수치는 『대동지지』 「정리고」에 기록된 각 노선의 총 리수로, 구간 리수를 누적한 값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 4. 『대동지지』와 『도로고』의 노선 별 누적 리수 비교

대동지지(1861~1866년)				도로고(1770년)				리수 차이
노선명	기점	종점	리수	노선명	기점	종점	리수	
1. 의주로	경도	의주	1,065	1. 의주로	경성	압록강 (의주)	1085 (1,075)	-10
2. 경흥로	경도	서수라진 (경흥)	2,190 (2,120)	2. 경흥로	경성	서수라진 (경흥)	2504 (2,444)	-324
3. 평해로	경도	평해	890	3. 평해로	경성	평해	872	+18
4. 동래로	경도	동래	950	4. 동래로	경성	부산진 (동래)	937 (907)	+43
5. 봉화로	경도	봉화	500	-	-	-	-	-
6. 강화로	경도	교동 (강화)	160 (120)	6. 강화로	경성	강화	120	0
7. 수원별로	경도	간릉	100	-	-	-	-	-
8. 해남로	경도	우수영 (해남)	970 (900)	5. 제주로	경성	관두량 (해남)	987 (937)	-37
9. 충청수영로	소사점	충청수영	210	-	-	-	-	-
10. 통영별로	삼례역	통영	490	-	-	-	-	-
제주로	제주	제주	420	-	-	-	-	-

\* 괄호 안의 수치는 『대동지지』와 『도로고』의 종점 기준 리수를 비교하기 위한 참조 경유지

가 있어 상세 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서 이후 본 장의 5절에서는 동래로 본선 구간에 대해 구간별 상세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이 리수는 어느 정도의 정밀도로 측량되었던 것일까, 기리고차처럼 반자동 측량 장치를 이용하거나 또는 보측을 이용했다면 정밀도는 어느 정도 일까? 10리마다 소후(小垸)로 표시하고 30리마다 대후(大垸)와 역을 설치했다는 기록<sup>22)</sup>과 기리고차가 10리마다 정을 쳤다는 기록<sup>23)</sup>에 따르면 10리와 1식(息, 30리)이 조선시대의 거리 인지의 중요 단위임을 알 수 있는데, 『대동지지』 「정리고」의 경우에 거리 간격의 빈도를 계산해 본 것이 표 5이다. 10리의 표기가 전체 26%로 가장 많고, 이어 20리가 25%로 많다. 15리, 30리의 표기가 이어 12%로 1식 간격의 거리 간격이 경유지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5리, 25리, 35리 등 5리 간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통해서도 10리 간격의 리수 기록이 우세함을 유추할 수

있다. 10리 이하인 2,3,4리 등은 6% 정도를 차지하지만, 『도로고』(1770)가 5리, 10리의 거리 간격을 주로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대동지지』 단계에서는 1리 간격 정밀도로 기록한 비율이 높아졌다.<sup>24)</sup> 1리 간격의 리수는 기존의 두 경유지 사이에 새로운 경유지가 추가되면서 기록된 경우가 많은데, 경로가 바뀌지 않는 이상 1개의 구간 경로가 2개 이상으로 분할될 수밖에 없다.<sup>25)</sup> 필자는 10리 간격의 경로가 분할되면서 1리 간격의 정밀도로 리수가 기록된 점에 주목하는데, 전국 단위 정리고에서 최소 2리 간격까지 기록이 있다는 것은 곧 약 800m~1km 간격의 거리 정확도를 고려했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지역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10리 단위의 공간 인지 단계의 한계를 메우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비정한 경로에 근거하여 각 노선의 본선 및 지선의 거리를 미터 단위로 측정하였다(표 6). 본선 기준으로 각 노선 기점에서 종점까지 의주로가 539km, 경흥로

표 5. 『대동지지』 「정리고」의 리수 간격별 빈도

리수 간격	개수	비율	비율 소개
5리	124	8.8%	5리 단위: 27.0% 10리 단위: 67.0%
10리	372	26.3%	
15리	171	12.1%	
20리	348	24.6%	
25리	69	4.9%	
30리	174	12.3%	
35리	12	0.8%	
40리	42	3.0%	
45리	6	0.4%	
50,60,70,80리	12	0.8%	6.0%
2,3,4리	20	1.4%	
6,7,8,9리	37	2.6%	
12,13,17,18리	22	1.6%	
22,26,27,28리	5	0.4%	

가 1,063km, 평해로가 404km, 동래로가 415km, 봉화로가 229km, 강화로 79km, 수원별로 55km, 해남로 438km, 충청수영로 96km, 통영별로 238km, 제주로 188km이다. 본선 길이는 총 3,744km이고, 지선을 포함하면 전국 11,288km<sup>26)</sup>이다.

다음은 노선 별 리수와 실제 거리를 확보한 후 본선 중심으로 1리 거리를 산출하였다(표 7). 본선 기준

으로 전체 리수는 7,980리이며, GIS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미터 거리는 3,744km이다. 곧 『대동지지』 기준 본선의 1리 거리는 469.2m이다. 한편 본선에 지선을 포함하면 전국의 1리 거리는 458.5m로 본선 대비 11m 짧다. 여기서 본 연구에서 처음 제시했던 조선시대 10리는 얼마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조선시대 10리는 약 4.6km이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주척을 통해 1리 거리를 추정할 값과 비교해보기 위해 위의 값을 주척으로 환산해보면 본선 기준으로 1척은 약 21.7cm며, 지선을 포함하면 약 21.2cm이다.<sup>27)</sup> 기존의 연구는 주척의 길이를 20~21.8cm 정도로 추정하는데,<sup>28)</sup> 본 연구의 결과 값과 상당히 비슷하다. 이는 도로의 리수 측정 기준에 주척을 단위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노선마다 1리 거리는 본선 기준으로 -28m~+83m 폭의 편차를 보인다. 각 노선별 편차는 수원별로는 +83m, 의주로는 +37m, 강화로는 +27m 동래로는 -28m, 제주로는 -22m, 평해로는 -18m, 해남로는 -17m이고 그 외 노선은 ±15m 안팎이다.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가설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이유를 짚어보고자 한다. 평안도와 함경도를 지나는 의주로와 경흥로가 전국 1리 거리보다 이상인 것은 오래전부터 중국과의 국경 문제가 지속되

표 6. 『대동지지』 「정리고」의 노선별 비정 경로 거리

(단위: 미터)

노선명	본선	1차지선	2차지선	3차지선	4차지선	합
1. 의주로	539,022	1,348,889	401,561	273,277	37,319	2,600,068
2. 경흥로	1,062,502	735,691	153,853	20,101	-	1,972,148
3. 평해로	403,853	351,754	162,793	-	-	918,399
4. 동래로	415,090	823,966	699,697	40,679	-	1,979,432
5. 봉화로	228,546	140,125	-	-	-	368,671
6. 강화로	79,423	40,722	9,785	-	-	129,930
7. 수원별로	55,242	13,877	-	-	-	69,119
8. 해남로	438,194	867,995	269,515	-	-	1,575,704
9. 충청수영로	96,108	492,539	29,118	-	-	617,765
10. 통영별로	238,271	299,154	234,530	19,885	-	791,840
제주로	188,020	77,748	-	-	-	265,768
계	3,744,271	5,192,460	1,960,851	353,943	37,319	11,288,843

표 7. 『대동지지』 『정리고』의 노선별 1리 거리

(단위: m/里)

노선명	본선	1차지선	2차지선	3차지선	4차지선	합
1. 의주로	506.1(+37)	472.5	416.1	433.8	414.7	463.9
2. 경흥로	483.0(+14)	432.8	452.5	502.5	-	460.8
3. 평해로	451.2(-18)	448.1	483.1	-	-	455.3
4. 동래로	441.6(-28)	460.3	457.3	452.0	-	455.0
5. 봉화로	457.1(-12)	437.9	-	-	-	449.6
6. 강화로	496.4(+27)	490.6	489.2	-	-	494.0
7. 수원별로	552.4(+83)	555.1	-	-	-	553.0
8. 해남로	451.7(-17)	455.6	453.0	-	-	454.1
9. 충청수영로	457.7(-12)	482.9	448.0	-	-	477.0
10. 통영별로	458.2(-11)	456.7	397.5	497.1	-	438.7
제주로	447.7(-22)	457.3	-	-	-	450.5
계	469.2	459.2	441.4	442.4	414.7	458.5

\* 괄호 안의 수치는 전국의 본선 1리 거리(469.2m)와 노선별 본선 1리 거리와의 편차

어은 접경지역 지리정보의 부정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압록강, 두만강 연안 지역이 『대동여지도』 역시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오류가 심하다(이상일·조태현, 2014). 반대로 동래로의 1리 거리는 전국 1리 거리보다 낮은데, 동래로의 경우 『대동지지』 『정리고』와 『도로고』 두 문헌에 기록된 리수가 다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로고』의 동래로의 경우 경도에서 동래까지 907리로 『대동지지』의 950리하고 약 43리의 차이가 있다. 『도로고』의 907리를 현재 거리에 반영하면 1리 거리가 457.6m로 전국 1리 거리에 좀 더 근접한 값이 나온다. 수원별로의 경우 1리 거리가 552m로 전국 1리 거리와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에 준하여 환산하면 주척의 길이는 25.7cm가 된다. 특히 이 구간은 용릉까지 정조가 능행하는 구간으로서 『도로고』에 수록되지 않은 신설 구간이다. 리수를 새롭게 측정해서 반영했을 가능성이 보인다.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이런 가능성들을 좀 더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전체 구간 중에서 어느 구간이 평균과 격차가 큰지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음 절에서는 구간별 1리 거리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해 보고자 한다.

## 2) 구간별 1리 거리의 분석

노선별 분석은 전국 규모에서 대략적인 1리 거리의 특징을 파악 수 있으나, 10리의 거리는 약 4.6km이고, 각 노선 별로 4.4~5.5km 범위에 있다는 정보밖에는 얻지 못했다. 이런 한계는 기술 통계(Descriptive Statistics)의 평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지만, 공간 정보의 경우 큰 단위의 지역 통계가 작은 지역의 공간 특이성을 가리는 현상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전 절에서 제시한 노선별 1리 거리 차이의 가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선의 상세 구간의 리수 분석이 불가결하다.

『대동지지』 『정리고』의 1,348개의 경유지를 연결하는 경로의 수는 1,389개이다. 그러나 경유지와 경로의 비정에서도 언급했듯이, 경유지의 비정이 불확실하거나 불명한 경우는 전후의 경유지를 통합한 경로를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으로 1,244개 구간이 사용되었다.

1,244개 구간에 대한 1리 거리는 최소값 62m, 최대값 1,693m의 범위를 가지며, 평균은 481m이고 표준편차는 169m이다. 이상치(outlier)의 영향을 덜 받는 중위치(median)의 경우 457.8m이다. 그림 2는 구간별 1리 거리에 대한 히스토그램이다. 평균 주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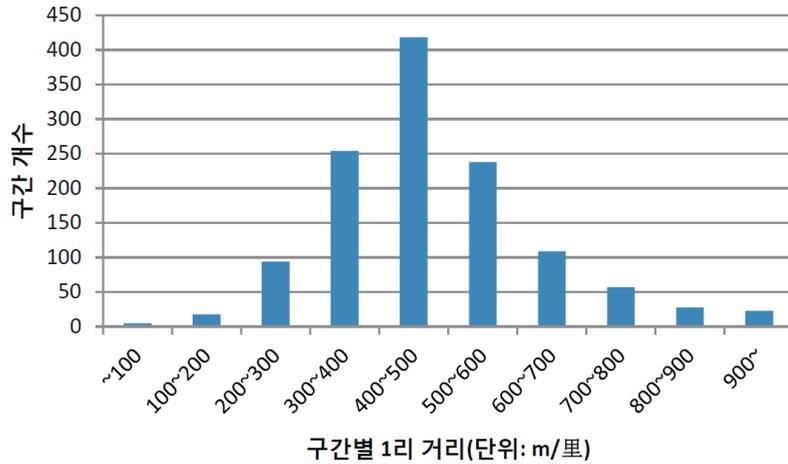


그림 2. 구간별 1리 거리의 분포(1,244개 구간 대상)

에 값이 몰려있어 정규분포에 가까운 분포 형태를 보여주지만, 신뢰도 95% 기준에서 신뢰구간이 143~819m에 이를 정도로 범위가 넓다. 이는 곧 구간마다 1리 거리 차이가 676m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몇 개 구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경향이라는 측면에서 편차가 큰 구간의 원인을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우선 이런 1리 거리의 차가 어디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지를 보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1리 거리의 중위치±1Std(표준편차) 구간을 중심으로 3등분하여 분포도를 작성했다. 95% 신뢰도 구간은 평균으로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1표준편차 범위에 해당하는 68% 신뢰도 구간인 312~650m를 중간범위로 설정했고, 지도에서 녹색선에 해당한다. 빨간선이 1리 거리가 이 중간 구간보다 긴 구간이고, 파란선은 짧은 구간을 의미한다.

그림 3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3개의 구간은 고르게 분포되어 특이한 패턴이 발견되지 않는다. 분포의 경향이 강하지는 않지만 호남과 영남 지방은 대체로 평균을 갖는 구간이 많이 있다. 평균보다 높은 구간이 밀집한 곳은 한성부 일대의 방사선 도로와, 의주로 구간에서 확인된다.

구간별 1리 거리의 노선별 또는 지역별 패턴이 특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아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개별 구간에 대한 상세 검토가 요

구되지만 이에 앞서 구간별 1리 거리의 평균과 차이가 큰 구간은 다음 세 가지에 연유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대동지지』 「정리고」 자체의 기록의 오류, 두 번째, 필자의 경유지 및 경로의 비정 오류, 세 번째, 조선 초기 측정한 리수의 오류이다. 추가로 지형적인 부분, 즉 노선 경로의 기록과 굴곡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위 분포도 상에서는 지형과의 상관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지형과 교통로 입지의 상관성, 그리고 지형의 고도와 경사를 반영한 리수에 대한 분석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첫 번째 원인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정리고 계통의 자료가 필요하다. 자료 간 비교를 통해 『대동지지』 이전의 정리고 계통에서도 리수가 동일한지를 확인한지를 추적한다. 5~10리 차이 라면 김정호가 리수를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경로의 변화나 기록의 오기를 의심할 수 있다. 또한 『대동지지』 「정리고」의 경우 이전 정리고 계통에 비해 경유지가 눈에 띄게 추가되었다. 경유지 추가 후 기록된 리수가 실측에 의한 분할인지, 아니면 기존 리수를 단순 분할했는지에 따라 1리 거리의 정확도가 달라질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비정의 정확도와 관련된 문제로서 2장에서 조선시대 교통로 DB 구축과정 시 정확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한 기준과 예외처리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비정의 오류는 발생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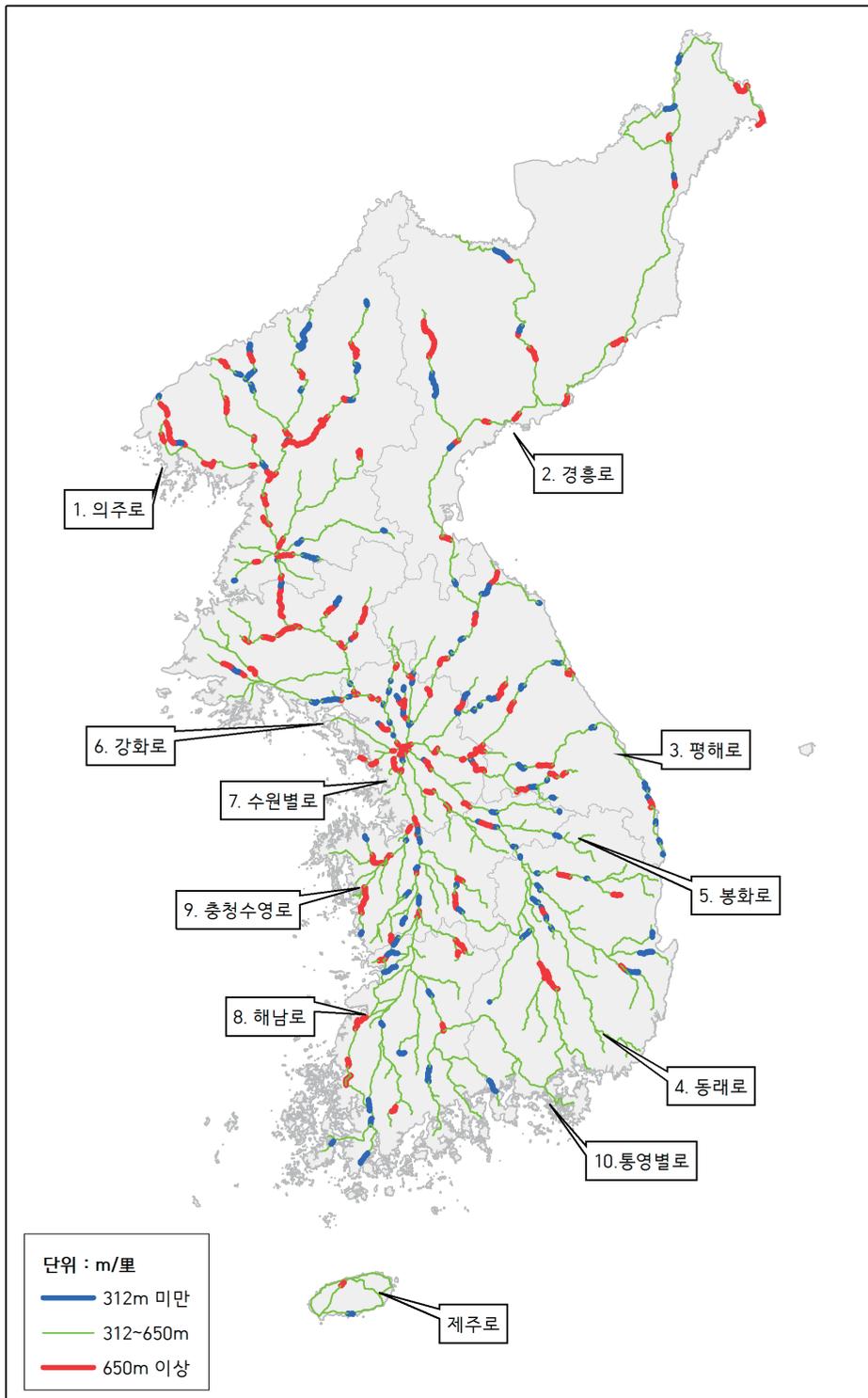


그림 3. 『대동지지』 『정리고』 구간별 1리 거리의 분포

으며, 오히려 본 연구에서 경유지 간 1리 거리의 특이 패턴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이런 비정의 오류를 검토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위치 비정은 지속적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 시점에서는 『대동지지 정리고 복원본(2015)』의 검토본을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

세 번째 원인은 초기 측량의 신뢰도에 관한 문제이다. 조선 초기에 새로운 보수적으로 읍치간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초기 측량된 거리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이후 무비관적으로 인용되면서 『대동지지』 「정리고」까지 이어져 왔을 가능성이 있다. 텍스트 자료만으로는 지금까지 이런 오류를 검증하기 어려웠지만, 향후 이런 의심 구간에 대해서는 본 연구 결과가 보정에 활용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한성 중심 인근 경유지 구간, 동래로 본선 구간을 대상으로 1리 거리의 평균 구간 보다 편차가 큰 곳을 중심으로 위의 세 가지 원인의 근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 3) 한성 부근 구간별 1리 거리 검토

한성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는 이용도가 높고 군사·행정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도로보다 1리 거리가 정확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평균 구간과의 차이가 커서 한성을 기점으로 하는 노선에 대해 검토하였다. 『대동지지 정리고 복원본(2015)』은

『대동지지』에서 표기된 기점을 창덕궁 돈화문으로 판정했다. 창덕궁은 임진왜란 이후 본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제작된 『대동지지』가 도로의 기점을 창덕궁 돈화문으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1리 거리가 평균보다 길기 때문에 4대문이나 광화문이 기점일 가능성도 있어 세 개의 기점 기준에 대해 8개 노선 본선의 첫 번째 경유지까지의 거리를 따로 추출하였다(표 8, 그림 4).

창덕궁이 기점일 경우 도성 안팎의 척도가 달리 적용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만하다 즉 도성 안은 영조적으로 측량하고 도성 밖은 주척으로 거리를 측량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29)</sup> 그러나 창덕궁 기점으로 이미 1리 거리는 전반적으로 평균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주척보다 긴 영조척을 혼용해서 리수를 측정했을 가능성은 떨어진다. 광화문 중심으로 할 경우 봉화로와 같이 동쪽을 향해 뻗어 있는 도로는 애초에 1리 거리가 더 길어져 광화문이 기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4대문을 기점으로 한 경우, 1리 거리는 403~569m 범위로 전체 평균범위로 떨어져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성 인접 구간 경로는 전국의 1리 거리 계산에 영향을 많이 미칠 정도가 아니어서, 점과 경유지와의 연결관계에서 발생하는 예외로 처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점들 중에 기점과 종점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교통로를 통한 네트워크적 인식들을 구성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분석은 경유지를 현재의 도로원표와 같이 점으로서 판단하고, 점

표 8. 경도의 기점 별 첫 번째 경유지까지의 거리

노선명	기점	첫번째 경유지	리수	창덕궁기준 거리(m) 1리 거리		광화문중심 거리(m) 1리 거리		4대문중심 거리(m) 1리 거리	
1.의주로 <sup>30)</sup>	[경도]	병전거리	10	6,451	645	4,908	491	4,365	436
2.경흥로	[경도]	수유현	15	9,706	647	10,829	722	6,049	403
3.평해로	[경도]	중량포	12	8,753	729	9,877	823	6,294	524
4.동래로	[경도]	한강진	10	8,888	889	8,402	840	5,690	569
5.봉화로	[경도]	전곶교	10	6,824	682	7,947	794	4,365	437
6.강화로	[경도]	양화도	15	9,557	637	8,014	534	6,607	440
7.수원별로	[경도]	노량진	10	8,890	889	8,404	840	5,692	569
8.해남로	[경도]	동작진	12	9,688	807	9,202	767	6,490	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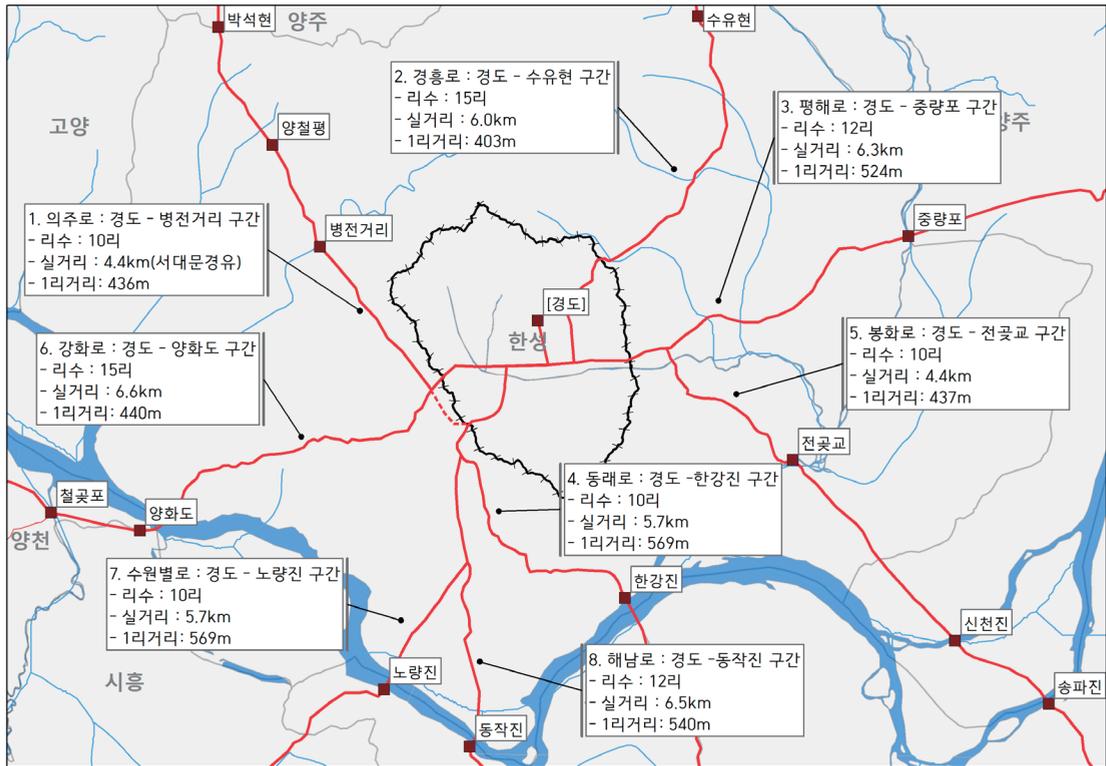


그림 4. 한성부와 8대로, 4대문 기점 1리 거리

과 점을 잇는 방식의 교통로 복원이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성의 사례뿐 아니라 읍성 및 군사성곽 등은 영역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도로 접점이 발생하는 노드가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4) 동래로의 구간별 1리 거리 검토

동래로의 경우 전국 본선의 1리 거리 469m보다 짧은 441m이다. 반면 『도로고』와 비교하면 전체 리수는 한성에서 동래까지 33리가 더 길다. 본 항에서는 『도로고』(1770)와 『대동지지』 「정리고」(1861~1866) 사이의 변화상을 살피는데, 이러한 변화가 실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편찬 과정의 오류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약 90년 사이의 변화상은 크게 ①리수의 변화, ②경유지의 추가, ③경유지의 삭제, ④경유지명의 변경, ⑤경로의 변화로 나뉘볼 수

있다. 이런 변동 사항이 실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편찬과정의 오류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본 분석의 목적이다.

『도로고』의 동래로 본선 구간은 55개이고<sup>31)</sup>, 『대동지지』 「정리고」는 67개이다. 두 개 자료를 상호 비교해보면 경유지명과 리수가 같은 구간은 32개로 전체의 45%에 불과하다. 나머지 55%의 변화를 위의 변화상에 따라 구분하면 ①리수의 변화가 20건, ②경유지의 추가가 15건, ③경유지의 삭제가 3건, ④경유지명의 변경은 19건, ⑤경로의 변화가 1건이다. 동래로의 경우 한성에서 부산에 이르기까지 경로의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고 상의 경유지의 추가와 삭제, 리수의 변화가 이 정도에 이른다는 것은 약 90년 사이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좀 더 정밀한 리수의 표기를 위해 힘써왔던 것을 반증한다. 다음은 이런 변화상 중 리의 거리에 초점을 맞춰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판교점(板橋店)에서~용인(龍仁) 구간이다(표 9, 그림 5). 이 구간은 전체 리수는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판교점에서 험천까지 5리가 줄고 열원에서 용인까지는 5리 늘었다. 열원은 『대동지지』

에는 경유지에서 삭제되었다. 판교에서 용인을 넘어 가는 중에 있는 험천은 탄천의 지류인 동막천이다. 이 구간은 탄천을 따라서 평지를 따라 나란히 남하하는 직선 구간이어서 경로 비정에 논의의 여지가 없다. 판

그림 9. 동래로(판교점-용인 구간) 리수 변화 분석

『도로고』			『대동지지』 「정리고」			변화 사항	비고
경유지	구간리수	누적리수	경유지	구간리수	누적리수		
판교점(板橋店)	10	50	판교점(板橋店)	10	50	-	-
험천(險川)	15	65	험천(險川)	10	60	리수변화 (-5리)	대동지지 리수 오류 (판교~험천, 험천~용인 거리 비등)
열원(列院)	10	75	-	-	-	경유지삭제 (-10리)	-
용인(龍仁)	5	80	용인(龍仁)	20	80	리수변화 (+15리)	대동지지 리수 오류 (판교~험천, 험천~용인 거리 비등)

\* 누적리수는 한성부터 해당 경유지까지의 거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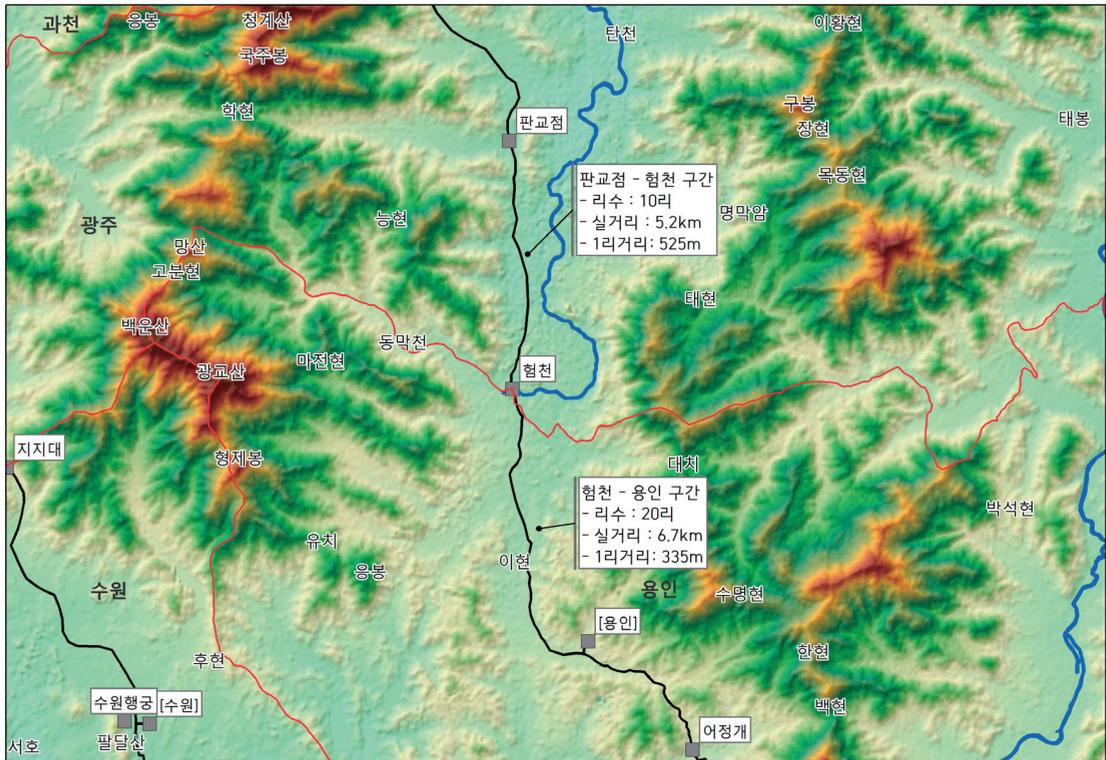


그림 5. 동래로(판교점-용인 구간) 경유지 및 경로 복원

교점에서 험천까지 5.2km이며 험천에서 용인까지는 6.7km이다. 두 번째 구간이 길기는 하지만, 『대동지지』처럼 2배 차이까지는 아니다. 『도로고』의 열원(列院)은 지명 비정이 불명한데, 『대동지지』가 열원 경유지를 없애면서 리수의 통합 과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예는 용안점(用安店)에서 달천진(達川津) 구간이다(표 10, 그림 6). 이 구간은 『도로고』의 리수가 『대동지지』에서 역상이 되었지만, 실제 구간 거리는 용안역~검단점까지가 13km, 검단점~달천진까지가 2km로 『도로고』 쪽의 리수 비율이 더 적당하다. 그러나 실제 비율이 6배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동지지』에서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한 것이 오히려 오류가 된 듯하다. 이 구간의 1리 거리도 용안역~검단점이 1333m, 검단점~달천진이 101m로 전국의 1리 거리와 비교해 편차가 매우 크다. 리수 표기의 오류를 1리 거리를 통해 검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충주의 경우에는 『대동지지』 동래로 본선에서는 경유지가 삭제되었고, 동래로의 지선 중의 경유지에 포함시켰다. 동래로 본선과 충주는 인접하기 때문에 경유해도 무방하지만 지선을 정리하면서 중복된 군현 경유지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외한 듯하다. 『대동지지』에서는 10리를 리수에서 제외해서 이 구간의 변화를 반영시켰다(그림 6).

두 경유지 사이에서 새로운 경유지가 추가될 때, 새

경유지 간 거리는 애초의 거리를 분할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우암창(牛巖倉)-금호강(琴湖江) 구간은 『도로고』의 경우 20리인데, 『대동지지』가 이 사이에 [칠곡]을 경유지로 추가하면서 우암창-칠곡 사이가 10리, 칠곡-금호강 사이가 10리로 조정되는 방식이다. 이런 과정은 대체적으로 일관성을 가지며 예외가 적다. 그러나 오히려 기존 리수를 수정하지 않아 오류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영향역(迎香驛)-괴곡(槐谷) 구간은 『도로고』의 경우 10리인데, 그 사이에 해평(海平) 경유지가 추가되면서 『대동지지』의 경우 10리가 증가한다. 그러나 경로를 복원해보면 『도로고』와 『대동지지』는 차이가 없다. 해평이 경유지로 추가된다고 해서 리수가 더 길어질 이유가 없다는 의미이다.

동래로의 경우 『대동지지』의 누적 리수 기록에 오류도 보인다. 양지와 문경간의 리수는 『대동지지』에 380리로 기록되었으나, 개별 구간의 리수를 모두 더해 보면 370리로 10리 많게 기록되어 있다. 이런 누적 리수 기록의 오류는 다른 노선에서도 몇 구간이 더 확인된다. 일부 구간의 리수 수정은 군현단위로 리수가 집계한 시점 이후에 편집이 된 것으로 예상되는데, 컴퓨터로 지리정보를 관리하지 않는 이상 일부 구간의 리수의 수정이 이하 경로의 경유지의 누적거리를 일괄적으로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표 10. 동래로(용안역-충주 구간) 리수 변화 분석

『도로고』			『대동지지』 「정리고」			변화 사항	비고
경유지	구간리수	누적리수	경유지	구간리수	누적리수		
용안점(用安店)	7	247	용안역(用安驛)	10	250	리수변화 (+3리)	
검단점(黔丹店)	20	267	검단점(黔丹店)	10	260	리수변화 (+10리)	대동지지 리수 오류 (검단점과 달천진 리수 바뀜)
달천진(達川津)	10	277	달천진(達川津)	20	280	리수변화 (-10리)	대동지지 리수 오류 (검단점과 달천진 리수 바뀜)
충주(忠州)	10	287	-	-	-	경유지삭제 (-10리)	경로 변경

\* 누적리수는 한성부터 해당 경유지까지의 거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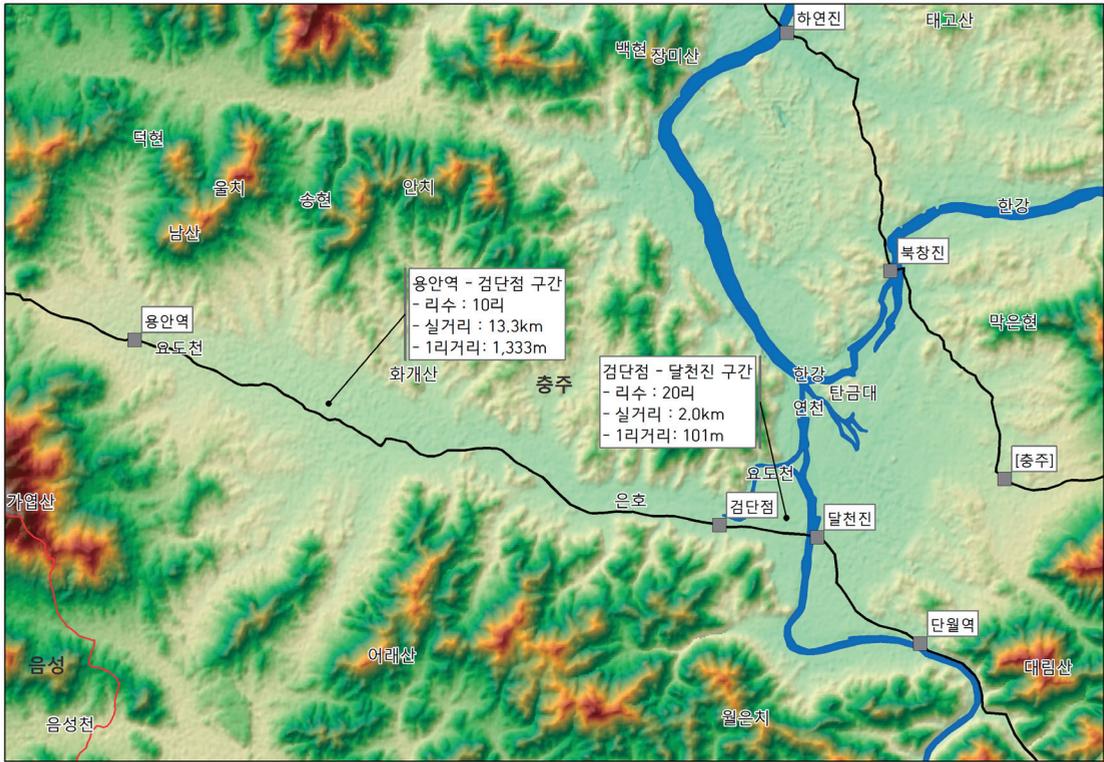


그림 6. 동래로(용안역-충주 구간) 경유지 및 경로 복원

## 5. 맺음말

전근대 과학기술사의 관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주로 측량기기(測量儀器)와 도량형 제도에 기반하여 측량기술의 수준과 그 과학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조선시대의 1리가 오늘날 몇 미터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더구나 동일 자료나 시기에서도 1리의 물리적 거리가 일정하게 적용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편차는 자료와 시기, 지역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그 이유 역시 아직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0,000 지형도 상에서 전국의 도로 노선과 경유지의 위치를 비정하고 실거리를 측정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접근한다. 이와 같은 역사지리학적 방법론이 조선시대 1리 거리와 그 편차를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가능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조선시대의 공간 인지를 미터법과 같은 근대적 관점에서 해석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으나, 보측을 포함한 리수의 파악은 군사, 행정, 생활 공간에서 이미 폭넓게 쓰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리수의 거리 파악은 전근대 공간 인지에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본 연구는 정리고 계통의 자료 중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지지』 「정리고」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11개 노선을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으로 재구성 및 위치 비정을 하고 이를 통해 리수의 거리 측량 및 통계적 분석을 시도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동지지』 「정리고」의 노선은 11개로 구분되며, 총 1,459개의 구간 경로가 기록되어 있다. 이 중 중복 사례를 제외하면 1,348개의 경유지와 1,389개의 구간으로 정리 된다. 경유지의 신뢰도를 5단계로 구분한 뒤 경로와 리수가 불명확한 경우를 제외한 1,244개의 구간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동지

지』에 기록된 전체 경로의 리수는 24,620리로 본선이 7,980리이고, 지선이 16,640리이다.

둘째, 「대동지지 정리고 복원본(2015)」를 기반으로 한 경유지, 경로 GIS 레이어를 노드링크모델에 근거해 토폴로지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횡측메르카토르(TM) 중부좌표계를 중심으로 미터 단위로 거리를 계산하였다. 경로의 전체 길이는 약 11,289km이다. 본선만은 약 3,744km이다. 각 노선의 본선 길이는 의주로 539km, 경흥로 1,063km, 평해로 404km, 동래로 415km, 봉화로 229km, 강화로 79km, 수원별로 55km, 해남로 438km, 충청수영로 96km, 통영별로 238km, 제주로 188km이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대로의 길이는 리수로만 인용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미터단위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조선시대 공간의 거리감을 판단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대동지지」 「정리고」의 리수와 해당 구간 거리(미터)를 이용해 1리 거리를 계산한 결과 전국의 1리 거리는 459m로 계산되었다. 곧 10리는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4.6km이다. 본선만으로 한정하면 약 469m이며 지선을 포함하면 약 459m이다. 노선별로 그 편차가 -28m에서 -83m까지 나타난다. 또한 1리 거리를 주척으로 환산하면 본선 기준으로 약 21.7cm며, 지선을 포함하면 약 21.2cm이다. 이는 도로의 길이를 표현할 때는 주척 단위를 사용했음을 반증하는 예가 될 것이다.

넷째, 「대동지지」 「정리고」 1,244개의 구간 분포를 통해 보면 1리 거리는 최소 62m에서 최대 1693m로 넓은 범위를 가진다. 분포의 평균은 481m, 표준편차는 169m, 중위치는 457.8m이다. 표준편차  $\pm 1$ 구간(68% 신뢰도)의 신뢰구간은 312~650m이며  $\pm 2$ 구간(95% 신뢰도)의 신뢰구간은 143~819m이다. 이것은 세 번째 결과를 좀 더 유의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1리 거리의 편차가 300m 가까이 발생한다는 점은 평균 거리를 모든 곳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간별 1리 거리 분포도를 작성했다.

다섯 번째, 1리 거리가 평균과 차이가 크게 나는 구

간의 원인은 세 가지가 추정된다. ① 「대동지지」 「정리고」 기록의 오류, ② 경유지 및 경로 비정의 오류, ③ 초기 리수 측정의 오류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한성 중심 인근 경유지 구간, 동래로 본선 구간에 대해서 구간별로 상세 분석을 하였다. ① 지리지 기록 오류의 경우 다른 자료원의 경유지와 리수의 비교 분석을 통해 발견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필사, 유통되면서 발생한 오류인지, 경유지와 리수를 보완하기 위한 수정 사항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때 1리 거리에 대한 통계적인 값이 판단에 유용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 ② 비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료의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명과 경로의 비정에 대한 기존의 논문 보고 방식으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을 기반으로한 공동 연구를 통해 지명과 경로 비정 연구 성과물의 누적이 필요하다. ③ 초기 리수 오류는 간단하게 검증하기는 어렵다. A-B 구간에 대한 최초 리수 기록을 파악하고 그때 시점의 측량방식과 척의 종류 등을 검토하며, 이후 어떻게 리수의 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추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조선 후기로 대상을 한정했지만, 동래로 본선의 경우에도 약 90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누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이어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경유지 간 거리의 자료원으로서 「대동지지」 「정리고」를 활용했지만, 「정리고」의 계통을 있는 다른 자료원들과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두 지역 간의 거리는 계속해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갱신해 나가기 마련이고, 때로는 경유지의 이동과 경로의 이동으로 인해 리수의 변화가 발생되기도 한다. 리수의 갱신을 추적 분석함으로써 정리고 계열의 계통성을 분석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뿐더러, 지역별로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지리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찾을 수 있다. 둘째, 고지도와 연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대동여지도」 상의 도로는 10리 간격으로 눈금이 그려져 있어 이 자체가 또한 정리고의 시각화된 결과물이다. 지도라는 매체를 통해 당시 거리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지역별로 분석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리고 계통뿐 아니라 지리적 위치를 표현하는 지리지의 표현 방

법도 연계하여 탐구할 필요가 있다. 지리지는 일반적으로 치소(治所)로부터의 방향과 거리를 기술함으로써 인접 군현과의 거리뿐 아니라, 군현내 취락이나 각종 시설물과 자연 지물의 위치를 표시한다. 지리지별, 시기별, 지역별 리수와 방향의 정확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거리와 방향 인지의 특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 사사

본 연구에 활용한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 기반으로 『대동지지』 「정리고」의 경유지 및 경로를 복원한 성과물은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2008~2015년)에서 제작된 것이다. 조선시대 교통로 복원을 담당하신 김종혁 선생님과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팀에 양해를 받아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김종혁 선생님과 편찬사업팀에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주

- 1) 척의 길이는 척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 연구 결과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주척은 약 20~21cm, 영조척 약 31cm이다. 대한제국에 정비된 1척의 거리는 30.3cm이다(국립민속박물관, 1997). 조선후기 1리 거리는 1척(20.8cm)를 따를 경우 449.3m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里). 또한 『대동여지도』의 축척 비교 연구에 따르면 1 주척의 길이는 약 18.5~25.0cm에 이른다. 10리의 거리는 이에 따라 4~5.4km로 추정된다(양보경, 1999).
- 2) 『고종실록』 권45, 고종 42년 3월 21일, 도량형법의 비준과 반포를 기록하였다.
- 3) 『대동지지』 기준 한성에서 의주까지의 누적 리수는 1065리이다.
- 4) 『세종실록』 권92, 세종 23년 8월 29일(계사). 각 도의 역로 이수 거리를 새로 만든 보수적으로 측량했다.
- 5) 『태종실록』 권10, 태종 5년 9월 10일(임인), 각 도의 전지(田地)를 승량(繩量)법으로 측량했다.
- 6) 『세종실록』 권92, 세종 23년 3월 17일(갑인). 세종이 운수현에 행할 때 기리고차 사용했다. 『문종실록』 권4, 문종 즉위년 10월 23일(계사). 기리고차로 상전도와 연파근의

- 도로(道路) 길이를 측정했다. 洪大容, 『籌解需用』, 외집, 권6, 量地條. 기리고차 구조를 기록하였다.
- 7) 대한측량협회(2003, 170-193), 『고산자 김정호 관련 측량 및 지도 사료 연구』의 논의를 요약한 것이다. ①대동여지도 방패표에 의한 축척 연구는 성남해, 이상태, 이우형, ②10리를 4km로 추정한 연구는 이찬, 방동인, 홍시환, 김두일, ③특정 구간의 거리 측정 및 지도 투영법 변환을 통한 축척 계산에 관한 연구는 김상수, 원경렬, 양보경이 수행했다.
- 8) 도량형에 근거한 1리 거리 연구는 연역적, 귀납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현존하는 주척의 길이도 그 길이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자의 길이를 연구해서 그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귀납적인 접근 방법이고, 도량형법에 의해 1척은 6보, 1리는 360보, 1식은 30리 등으로 산술적 계산에 의해 척으로부터 리의 길이를 파악하는 것이 연역적인 접근 방법이다. 지도와 실제 거리를 비교 분석해서 일반적인 리의 길이를 파악한다는 방식과 대비해서 도량형의 1리 거리 파악 방식을 연역적인 측면에서 서술했다.
- 9) 『經國大典』, 도로 교량 구거를 정의했다. 柳馨遠, 『礪溪隱錄』. 도로의 너비 규정과 이정표 간격을 기록하였다. 申景濬, 『旅菴遺稿』. 도로 너비와 이정표 간격, 영조척과 주척을 사용한다고 기록하였다.
- 10) 이후에 등장하는 거리 표현은 다음을 따른다. 1리 거리: 특정 구간의 전체 리수와 실제 거리를 통해 계산한 1리의 미터 환산 거리; 구간별 1리 거리: 특정 노선의 상세 구간별 1리의 미터 환산 거리
- 11)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지만 경로 추정 시에는 단순 경유지도 반영하였다.
- 12) 8개 노선의 경도(京都)와 충청수영로의 소사점(素沙店), 통영별로의 삼례점(參禮驛), 제주로의 제주(濟州)가 해당한다.
- 13) 의주로의 오정문(五正門)과 충청수영로의 무근성(無根城)은 예외로 한다. 오정문에서 분기(分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경유지 간 리수가 없다. 일단 경유지로 포함은 시켰으나, 리수의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경로의 비정에만 활용하였다.
- 14) 의주로의 오정문(五正門)과, 경흥로의 신안역(新安驛), 북청(北靑), 경흥(慶興), 광수원(光遂院)과 동래로의 석원(石院), 통영별로의 전주(全州)가 이에 해당한다.
- 15) 『도로고』의 구성과 다르게 『대동지지』 「정리고」의 경우 연로를 기술한 장이 다르다. 『도로고』는 사연로(四沿邊)에 양강연(兩江沿)과 삼해연(三海沿)으로 나누고 양강연에서 백두산로와 압록강연로, 두만강연로를 서술한 반면, 『대동지지』 「정리고」는 11개 노선(제주로 포함) 중 의주로에 압록강 연로 2개의 경로와 경흥로에 두만강 연로 1개를 포함

- 시키고, 연변해로(沿邊海路)에 나머지 연로를 간단히 기술하고 있다. 『대동지지』 「정리고」는 3개의 연로를 분기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한성과 전국의 읍치를 연결한다는 의미에서의 간선도로망과는 성격이 달라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 16) 강화로에서 인화석진(寅火石津) 다음에 ‘월진, 5리, 수로’(越津, 五里, 水路)라고 적혀 있는데, 이때 월진은 경유지명이 아니라 ‘나루는 건너다’라는 기술 사항으로 판단하였다. 즉 강화도와 교동도를 잇는 수로의 거리를 5리로 이해, 이를 인화석진의 리수에 합산하여 처리하였다.
- 17) 1,348개의 경유지를 연결하는 경로의 수는 1,389개이다. 노선 간 중복된 경유지를 제외하면 1,348개이나, 본 통계는 노선별로 중복된 경유지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1,389개의 경유지를 대상으로 집계하였다.
- 18) 지능형교통체계관리시스템, 표준링크/노드 체계, <http://nodelink.its.go.kr>
- 19) 단일평면직각좌표계(한국형 UTM좌표계)는 전국단위의 연속적인 기본지리정보의 위치기준으로 분야별 기본지리정보와 여러 GIS를 상호 연계, 통합하기 위해 설정된 좌표계이다. “기본지리정보구축을 위한 단일평면직각좌표계”를 측량법시행령 제2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6월 15일 고시했다.
- 20) 타원체상에 있는 두 측정사이의 타원체면을 따라 이루어진 거리. 이는 정측면(Normal Section)과 달리 직선이 아니다. 그러나 매우 긴 기선을 제외하고 정측면과 측지선 사이의 차이는 매우 미소하다(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2016).
- 21) 『대동지지』 「정리고」는 10대로 외에 제주도를 대로 급수준으로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대로라는 명칭이 표시되지 않아, 11대로로 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11노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 22) 『중종실록』 권5, 중종 3년 3월 11일(무신). 중국 사신 방문 시의 도로 정비를 기록하고 있다.; 申景濬, 『旅菴遺稿』, 소후와 대후는 이정표석(里程標石)으로 도로의 거리와 지명을 새겨 넣은 것을 말한다.
- 23) 洪大容, 『籌解需用』, 量地條, 기리고자 구조가 기록되어 있다.
- 24) 5리, 10리 거리 간격이 아닌 리수의 기록은 의주로 34개, 해남로 18개, 충청수영로 13개, 평해로 8개, 강화로 5개, 경흥로 4개, 동래로 2개이다.
- 25) 의주로 본선을 예로 들면 5리, 10리 간격이 아닌 구간 중 경유지가 추가된 사례는 모두 위 규칙에 부합된다.; 병진거리~박석현: 양철평이 추가되면서 10리가 3리, 7리로 분할.; 검암찬~신원: 여현이 추가되면서 10리가 3리, 7리로 분할.; 쌍불현~[파주]: 신집 추가되면서 7리, 5리, 8리로

- 분할.; 장단-관적천교: 오목리와 조현이 추가되면서 2리, 13리, 5리로 분할.; [가산]-납정점: 효성령의 리수가 5리에서 2리로 변경되면서 다음구간이 18리로 변경.
- 26) 3장 3절에서 후술하지만, 실제 도로의 길이가 아닌 일부 중복된 경로를 포함한 거리 합이다.
- 27) 『태종실록』 권30, 태종 15년 12월14일(정축).: 『續大典』, 工典, 橋路, 八道路程; 『大典會通』, 工典, 橋路, 八道路程; “팔도의 도로는 주척을 사용하고, 1보는 6척, 1리는 360보, 1식은 30리” 기준에 근거에 계산했다.
- 28) 20.81cm: 세종12년(1430), 21.79cm: 인조12년(1634) 수표교 수위계, 19.63cm: 정조 연간 화성축조시, 21.60cm: 건륭6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0.00cm: 광무6년(1902) (김왕직, 2007,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 29) 『경국대전』에는 도로의 폭을 측량할 시에 영조척을 사용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신경준의 『여암유고』, 권3에는 도성 내에는 영조척을 사용하고 팔도 리수 측량에는 주척을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경준의 『여암유고』에서는 1리를 300보로 정의하고 있어, 기존의 1리를 360보로 정한다는 규칙과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동지지』 기준으로 360보로 계산했다.
- 30) 의주도가 도성 안으로 진입하는 최단 경로는 서대문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주로는 가장 중요한 중국과의 외교로였기 때문에 단순히 거리 효율성만으로 경로를 비정할 수만은 없는 요소가 있다. 즉 중국 사신들이 입경할 때 항상 고양 벽제관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 영은문을 지나 남대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기점 경도(京都)에서 첫 번째 경유지인 병진거리(餅塵巨理)까지의 거리는 서대문을 통하면 약 6.5km이고 남대문을 통하면 약 7.6km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대문을 경유하는 경로를 사용하였다.
- 31) 『도로고』의 경우 동래까지는 53개 구간이고, 이후 동래-좌수영, 좌수영-부산진 2개의 구간이 더 있다.

## 참고문헌

- [저서 및 논문]
- 고동환, 2015, 한국 전근대 교통사, 들녘, 파주.
- 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의 도량형.
- 김상수, 1989, 대동여지도 제작의 측지학적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철, 2010, “동북아역사지도의 편찬 현황과 방법,” 문화역사지리, 22(3), 154-55.
- 김중혁, 2004, “조선후기의 대로,” 역사비평, 69, 359-83.

- 김종혁, 2015, “역사지도 제작을 위한 역사지리환경의 복원,” 한국지도학회지, 13(2), 77-94.
- 김추운, 2003, “조선시대의 測量儀器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19(1), 13-34.
- 김현중, 2017, “역사지리정보시스템 (HGIS) 를 활용한 조선시대 교통로 복원 방법론 연구 - 경기도 광주 부를 중심으로 -, ” 문화역사지리, 29(3), 145-65.
- 대한측량협회, 2003, 고산자 김정호 관련 측량 및 지도 사료 연구.
- 도도로키 히로시(轟博志), 2010, “『距京程里表』의 내용유형과 계통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5(5), 647-68.
- 류명환, 2014, “義州路 道程 기록 계통 연구,” 한국고지도연구, 6(1), 37-61.
- 양보경, 1998, “대동여지도,” 한국사 시민강좌, 23, 84-121.
- 양보경, 1999, “일본 大阪府立圖書館 소장 《朝鮮圖》의 고찰,” 서지학연구, 17, 421-36.
- 오성호·조지현, 2005, “표준 노드/링크DB 구축동향 및 활성화 방안,” 교통기술과정책, 2(4), 60-70.
- 원경렬, 1991, “대동여지도 : 현대 지도학적인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26(2), 151-63.
- 윤병남·박성현, 2013, “동북아역사지도 제작을 위한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96-300.
- 이상일·조대현, 2014, “고지도의 왜곡 양상에 대한 GIS 기반 연구 -대동여지도를 사례로 한 시론적 분석-, ” 대한지리학회지, 49(3), 438-55.
- 이종봉, 2004, “조선후기 도량형제 연구,” 역사와 경계, 53, 41-76
- 이종봉, 2016, “韓末 度量衡制의 개혁과 성격,” 석관논총, 64, 173-226.
- 한주성, 2010, 교통지리학의 이해, 한울, 서울.
- Gregory, Ian N.; Healey, Richard G., 2007a, Historical GIS: Structuring, mapping and analysing geographies of the past,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31, No. 5, 638-653.
- Gregory, Ian N..Paul S. Ell, 2007b, *Historical GIS: Technologies, Methodologies, and Scholarship*,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 [고지도]  
大東輿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0333.  
東輿, 국립중앙박물관, M127.  
東輿圖,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0340.  
朝鮮圖, 일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韓14-7.  
1872年地方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0357.  
朝鮮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6030.  
海東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大4709-41.  
舊韓末韓半島萬地形圖, 성지문화사 영인본(1996).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경인문화사 영인본(1988).
- [고문헌]  
김정호, 『大東地志』,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4790-37-v.1-15.  
신경준, 『道路考』,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7327-v.1-2.
- [인터넷 웹 자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조선시대전자문화지도, <http://www.atlaskorea.org>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지도 서비스, <http://e-kyujanggak.snu.ac.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리지 종합정보, <http://kyujanggak.snu.ac.kr/geo>
- 교신: 김현중, (14046)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78, 612동 1110호(비산동, 셋별아파트). 이메일: unqtsi@gmail.com. 전화: 010-9998-0330  
Correspondence: Hyun-Jong Kim, 612-1110, 78, Daran-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14046. e-mail: unqtsi@gmail.com. phone: 82-10-9998-0330

최초투고일 2018. 7. 21

수정일 2018. 8. 12

최종접수일 2018. 8. 20

# 『맨더빌 여행기』와 동·서양의 재발견 - 오리엔트의 거울에 비친 서구 자화상의 성찰과 ‘위반’의 수행 -

홍금수\*

## *The Travels of Sir John Mandeville* and the Rediscovery of the Orient and the Occident

Keumsoo Hong\*

**요약 :** 『맨더빌 여행기』는 중세 서구사회의 동양에 대한 심상을 형성한 대표적인 여행기이다. 저자의 신원과 원본의 집필 장소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번역본을 포함해 300여 필사본이 남아 있을 정도로 당대는 물론 르네상스의 독자를 매료시킨 고전으로서, 다양한 참고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을 독창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허구 가득한 본 여행기가 주목을 받는 것은 오리엔탈리즘의 반향에 따라 편파적인 상상의 지리를 날조하는 대신, 동양이라는 성찰의 거울을 통해 유럽사회의 신앙·윤리적 타락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촉구하며 위반이라는 수행을 통해 동양을 문화적 교섭의 대상으로 재발견한 점 때문이다. 책에 묘사된 동방의 물질 풍요와 엄격한 도덕윤리의 유토피아는 성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군사적 연합의 현실적 갈망과 함께 대항해시대의 개막을 유도한다. 실재와 환상을 넘나드는 맨더빌의 글쓰기 전략은 십자군 심상에 추동된 사제 요한의 가공과 그를 향한 탐험을 촉발해 콜럼버스의 신대륙 확인과 희망봉을 경유하는 인도항로의 개척이라는 지리적 유산을 남겼다.

**주요어 :** 맨더빌 여행기, 사제 요한, 십자군 심상, 위반

**Abstract :** *The Travels of Sir Mandeville* has been a representative travel writing which shaped Westerners' mental images of the Orient during the Middle Ages. Being a literature of an anonymous writer called Mandeville, the book with about 300 manuscripts in dozens of languages had caught the attention of both contemporary and renaissance audiences. Critical reviewers argue that the book was relied to a great extent on miscellaneous references rather than being based on personal experiences. This fictitious volume, however, proves special in that it urged Westerners to think over European society's moral sins reflected on the mirror society of the Orient and helped to rediscover the East through the enlightening performance of *transgression*. The masterpiece in addition heralded the Age of Discovery with the imagined description of material bounty of Cathay and Indias and with the invention of the mysterious figure of a Christian Priest-king of John who was expected to assist the West for dispelling the Muslims from the Holy Land. *The Travels* driven by the geographical curiosity toward *terra incognita* and what I would call the Crusade mentality played a crucial role in opening the geographical horizon wide in the history of geography.

**Key Words :** Crusade mentality, Prester John, *The Travels of Sir Mandeville*, *transgression*

---

\*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University), kshong85@korea.ac.kr

## 1. 서론

문학의 소양은 창의적 상상을 자극하고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필력의 중요한 원천이다. 일례로 소설가와 시인의 장소 묘사는 독자의 감성을 자극하여 해석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 더고선 땅의 본질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게 하며, 그런 측면에서 시각에 도드라진 현상을 총체적으로 집약하는 데 몰두했던 지리학자가 문학자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장소의 심층적 의미를 파헤치는 예술적 기교를 전수받고자 자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Mallory & Simpson-Housley, 1987, xi-xii). 문학자의 감성 충만한 창작활동과 사실 중심의 지리학 연구의 만남으로 성립되는 문학지리학은 가치와 태도에 관심을 환기시키고 인간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며 생동감을 불어넣는 대안일 수 있다.

미적 가치를 언어로 구현하는 예술로서 문학은 과거와 현재의 삶을 관통하는 보편성을 해명하는 데 일조하며 허구를 포용하기 때문에 경험과 과학만으로 밝힐 수 없는 인간정신에 통찰을 부여한다. 특별히 문학작품을 지리적 관점에서 읽어 내리는 것은 작가가 체험한 장소의 의미를 공유하고 그가 가정한 세계 이미지를 상기하는 기회가 된다. 작품 속 지역과 장소에서 펼쳐지는 인간 경험의 다양한 특성을 재현하는 문학지리학의 연구대상으로서 문학작품은 특정 지역의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과거의 지역을 복원하거나 장소의 의미를 해석하고 공간이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역·장소·공간을 소재로 한 작품은 실재로서의 지역을 실증적으로 구성하거나, 인본주의에 입각해 기억되고 경험되는 의미 가득한 실존의 장소를 통찰하며, 총체적 관점에서 인간·사회·환경이 교섭하는 삶의 역동적 변화를 살피는 기제가 된다(이은숙, 1992; 심승희, 2001).

한편, 문학은 사회와 지리의 변화를 유도하는 동인으로서 장소와 공간의 의미화 과정에 이데올로기로 개입하여 이미지 형성을 주도하고, 내면화된 이미지는 다시 공간행위와 실천을 촉발한다. 미개척의 영

역이 더 넓었던 고대, 중세, 근대 초의 기행문학은 그런 측면에서 흥미로운데, 경이와 신비의 동양 여행을 꿈꾸지만 일상의 여러 제약과 두려움에 포기해야 했던 대다수의 유럽인은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미지의 세계를 실제 경험한 탐험가의 일기, 편지, 메모, 약도, 시, 항해일지, 자서전 등과 함께 사실과 허구가 혼재하는 작가의 여행기를 찾았고(von Martels, 1994, xi), 이들 기행 자료는 동양에 대한 서양인의 심상을 형성한 이미지 메이커로서 역사와 세계를 바꾸는 실천을 담보했다.

중세 말 수많은 독자를 거느리며 유럽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맨더빌 여행기(The Travels of Sir John Mandeville)』(c.1357)는 세계사를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선회시킨 작품이자 서구사회의 동양에 대한 인지도도를 초월적으로 구성한 기행문학의 고전이다. 저자의 신원은 미제로 남았고 원본의 탈고 장소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저술이지만 번역서를 포함한 필사본만도 300책을 헤아릴 정도로 당대는 물론 르네상스 계몽기의 독자를 매료시켰다. 내용 대부분을 기존의 여행기, 역사서, 지리지, 백과사전, 성서, 논문 등에서 발췌·편집한 것으로 드러난 데다 타과하지 못한 전통적 허구가 다분한 이 한 권의 책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표절의 의혹을 불식할만한 창의적 구성과 함께 서양 특유의 동양에 대한 편견 섞인 상상의 지리, 즉 오리엔탈리즘의 질곡을 떨치고 자신이 속한 사회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하며 암흑의 신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지리적 지평을 확대한 데 있다.

『맨더빌 여행기』는 글쓰기의 실천을 통해 세계를 상상하고 재현하였다. 비판적 관점에서 여행은 특권을 가시화하고 여행기는 제국주의 몸짓을 함의한 텍스트 행위의 앙상블로서 권력의 관계망을 형성한다지만 동시에 판타지, 열망, 위반(*transgression*) 가능성의 플롯까지 아우른다. 특히 경계(*limite*)의 이원개념으로 푸코가 제안한 ‘위반’은 여행과 여행기의 후기 구조주의적 의미부여에 유용한데, 경계가 없으면 위반이 성립될 수 없고 위반 없는 경계는 무의미하다는 상호의존적 전체가 깔린다. 푸코의 경계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과는 무관하며 그

렇다고 단순한 환영의 기름막을 위반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그가 가정하 위반은 양쪽을 대립시키거나 근간을 조롱 또는 와해시키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의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넘나드는 실천이자 수행이며 (Foucault, 1977, 33-35), 안정된 주체가 정연한 합리적 상태로부터 무질서의 비합리 상태로 이행하는 통상적 행위가 아닌 불안정한 주체의 끊임없는 경계 넘기(crossing-over)를 의미한다. 맨더빌은 상호이해 극극의 목적을 위해 유럽과 동양의 흐릿한 경계를 상징하고 반복해서 위반하였다.

여행은 모호하고 긴장된 사이공간(space in-between)을 생성하기 위해 작동하는 일종의 번역행위로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차이를 인정하고 치유하는 복합적 변증법 안에서의 순회, 즉 위반의 표상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타 문화와 자연의 재현은 경계넘기와 재정렬을 통해 다른 문화적 수사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현지주민에게 지닌 장소의 상징적 의미를 다른 상징적 가치로 대치시킬 위험, 중립을 어기고 일방의 열망을 관철하기 위한 권력과 공모를 함의한다. 그럼에도 번역의 구현으로서 여행기는 동시에 권위와 가정을 회의에 붙이는 모호한 입장을 견지한다(Duncan & Gregory, 1999, 1-5).

본고는 여행에 내재된 권력의 정당화와 권위의 부정이라는 이중성 가운데 후자의 측면을 『맨더빌 여행기』의 분석과 해석을 통해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행가 맨더빌은 교조적 중세인이 아닌 계몽적 지식인의 관점에서 동·서양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데, 필자는 자아의 우월적 지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타자의 모순, 부조리, 불합리, 야만성을 부각하는 대신 동양이라는 타자의 거울에 투영된 유럽사회의 종교·도덕·윤리적 타락상을 성찰하는 보편적 문화상대주의에 주목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여행기가 지리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가치를 재평가하기 위해 사라센 세력에 접거된 성지의 회복을 갈망하는 십자군 심상(Crusade mentality)이 동방에 구축한 사제 요한(Prester John)의 허상에 유의하면서 그를 향한 고난의 순례가 대항해의 개막으로 연결된 측면을 지리적 유산으로 되짚으려 한다.

## 2. 중세인 맨더빌의 상상여행과 도덕지리

고대 이래 유럽인은 지중해 중심의 세계관을 형성하여 문명의 핵심은 지중해 연안, 외곽은 야만의 공간으로 고정시켰다. 기독교 가치관이 그리스·로마의 신화를 대신한 이후로도 예루살렘이 상징적 중심으로 부상한 것을 제외하면 큰 변화는 없었다. 주변부에 자리한 동양은 신화와 기독교의 도상에 의해 반인반수와 식인풍습의 비인간적 이미지로 재현되거나 신이 머물며 해가 떠오르는 지상낙원으로서 양가적으로 묘사되었다. 맨더빌(John Mandeville)은 유럽 기독교 사회의 심상지도 안에 편입된 신비의 타자를 과감하게 찾아 나선 중세인으로서 1322년에 태어나고 자란 잉글랜드 세인트 올번스(St. Albans)를 나서 성지를 순례한 뒤 페르시아 너머 카타이와 인도 등지를 돌아보는 34년의 세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다. 기억을 되살려 그간의 행적을 기록한 결과물이 바로 1357년에 빛을 본 『맨더빌 여행기』로서 술한 논란에도 기행문학 장르에서는 불멸의 고전으로 남아 있는 작품이다.

현전 필사본만도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70여 책에 견주어 4배 가까운 『맨더빌 여행기』의 권위는 압도적이다. 중세 문학서 가운데 가장 널리 확산된 서적으로서 1356~1357년 무렵 앵글로노르만어(Anglo-Norman) 또는 대륙 프랑스어로 작성된 원본은 1400년경 유럽의 주요 언어로 번역되고 1500년을 전후해 도판을 담은 인쇄본 출간이 시작된다.<sup>1)</sup> 이후로도 여러 판본이 영어, 라틴어, 독일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게일어 등 10여개 언어로 재차 번역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17세기까지 재판이 간헐될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Moseley, 2005, 9; Gaunt, 2009; Higgins, 2011, xii-xiii; 성백용, 2010, 110-111). 필사자, 번역자, 개찬자, 채색사(彩飾師), 도해자, 식자공, 인쇄인 등의 손을 거치면서 판본은 단순한 편집 수준에서 새로운 텍스트로 느껴질 만큼 각색 및 윤색되지만, 짐터(P. Zumthor, 1992)의 무방스(mouvance) 개념이 암시하듯 텍스트와 구전의 상호작용 속에서 전면

개정, 첨삭, 대체, 재배치 등의 방식으로 간단없이 변형된 중세 작품의 속성을 감안하면 텍스트의 가변성(textual mobility or variation)과 후술하게 될 저자의 익명성이 작품의 가치를 폄훼하지는 못한다. 암송, 구술, 필사 전통이 우세한 중세문학의 특수성은 텍스트의 진정성을 고집하며 ‘원본’을 복원하는 것보다 작품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과정’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를 실어주며, 책은 원저자 한 사람의 지적 자산이 아닌 연속해서 등장하는 저자들에게 의해 텍스트 상태(*etats du texte*)로서 유전된다는 입장을 숙고하게 만든다(Speer, 1980, 317-319; Desmond, 2009, 219-220). 집단저자는 역사의 순간마다 독자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책을 지속적으로 재구성·재탄생시켜 온 것이며, 『맨더빌 여행기』도 성직자, 탐험가, 지도학자, 예술가, 작가, 일반민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친 독자의 이해·목적·편견과 당대의 철학·도덕·종교를 반영해 반복적으로 개작되었다. 화자 맨더빌의 정체성이 기사, 순례자, 여행가, 신

학자, 문화비평가, 역사학자, 인류학자, 지리학자, 정치학자, 과학자처럼 다양한 범주에 걸쳐 있었던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원본에 가깝다고 추정되는 판본은 도서본(*Insular version*), 대륙본(*Continental ver.*), 개찬대륙본(*Interpolated Continental ver.*; *Liège ver.*)의 세 종류이다(표 1), 맨더빌이 저술 위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판본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인지 확인하지 않다. 본인을 세인트 올번스의 기사로 설명한 책 내용처럼 잉글랜드에서 앵글로노르만어로 집필했을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잉글랜드의 기사 또는 기사를 사칭한 성직자가 유럽대륙에서 앵글로노르만어로 집필하였거나 프랑스의 기사 또는 성직자가 잉글랜드 기사로 행세하면서 섬으로 건너와 대륙 프랑스어로 작업을 진행하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잉글랜드 아니면 유럽대륙에서 태어나 왕실 및 종교계와 일정 관계를 맺고 백년전쟁 중 도서관에 소장된 라틴어와 프랑스어 논저를 폭넓게 참고하면

표 1. 『맨더빌 여행기』의 주요 판본

판본	특징
원본	1356년 or 1357년 앵글로노르만어(Anglo-Norman) or 프랑스어(Continental French)
프랑스어 필사본	-도서( <i>Insular</i> )본: 25본(A-N 14, CF 11), 1356~1357년경, 원본에 근접 -대륙( <i>Continental</i> )본: 30본, 1357년경, 원본에 근접, 1371년 파리 필사본 현존 最古 -개찬대륙( <i>Interpolated Continental</i> )본: 리에주(Liège) 본, 일명 오자이어(Ogier le Danois) 본, CF 7본, 1390~1396년경
중세영어 번역필사본	-결손·핀손( <i>Defective, Pynson</i> ) 본: 36본, 1390년 이전, 시기 다양, CF 도서본이 저본, 이집트 부분 12장 유실, 1496년 핀손(R. Pynson)에 의해 인쇄되면서 1725년까지 모든 인쇄본의 저본 -카튼( <i>Cotton</i> ) 본: 1본, 1400년경, 3장 유실, 결손본과 A-N 도서본이 저본, 중세 영어 완역본, 활자본 1725년 이후 -에거튼( <i>Egerton</i> ) 본: 1본, 1400~1430년경, 결손본과 유실된 왕립 라틴어본의 영역본이 저본, 가필·재배치, 인쇄본은 1889년 이후
라틴어 번역필사본	-라이덴( <i>Leiden Latin</i> ) 본: 5본, 1390년 이전, CF 도서본이 저본 -로얄( <i>Latin Royal</i> ) 본: 7본, 1390년 이전, A-N 도서본이 저본 -불가타( <i>Vulgate Latin</i> ) 본: 40여본, 1390년 이후, 리에주 본이 저본, 다국어로 확산 -할리( <i>Harley Latin</i> ) 본: 3본, 1400년경, CF 도서본이 저본 -애시모어( <i>Ashmolean Latin</i> ) 본: 1본, 1400~1450년, CF 도서본이 저본
독일어 번역필사본	-미셸 벨서( <i>Michael Velser</i> ) 본: 40여본, 1393년경 북부 伊에서 제작, 대륙본이 저본 -오토 폰 디메링겐( <i>Otto von Diemeringen</i> ) 본: 45본, 1398년, 인쇄본은 1480~1481년 이후, 리에주 본이 저본

자료: I. M. Higgins, ed., 2011, *The Book of John Mandeville with Related Texts*, pp.187-218; M. C. Seymour, 1993, *Sir John Mandeville*, pp.38-56; C. Deluz, ed., 2000, *Le Livre des merveilles du monde*, pp.28-32(Gaunt(2009)에서 재인용).

서 종합할 수 있을 정도의 학식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의 저술(Higgins, 2011, xv-xvi) 정도로 범위는 좁힐 수 있다.

만더빌 스스로 밝힌 출생지를 신뢰한다면 도서본은 대륙본에 앞설 것이며 그 경우 여행기 원본이 프랑스 북서방언의 변형으로서 노르만 잉글랜드(1066~1154)의 상류층 언어였던 앵글로노르만어로 작성되었다는 것은 하등 놀라운 일이 아닌데, 1300년대만 해도 궁정문학의 전통이 여전했고 잉글랜드 지식인 사이에서 영어보다 문화적 위상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류층의 프랑스어 교육을 담당한 성직자가 흑사병으로 크게 감소한 데다 초서(G. Chaucer) 같은 문호가 등장함에 따라 문학계는 앵글로노르만어 서적을 토착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며, 그 결과 『만더빌 여행기』도 14세기 말부터 중세영어로 번역되어 카튼 본(Cotton ver.), 에거튼 본(Egerton ver.), 결손본(Defective ver., 이집트 부분 12페이지 유실)의 결실을 보게 된다(Moseley, 2005, 11, 35-39; Higgins, 2011, 187-218).

필사와 번역이 거듭되던 책 내용과 낱양스에 미묘한 차이가 생기게 마련으로 관본의 일반화 또는 정규화는 목관, 동관, 활자를 이용한 인쇄본의 출간을 기다려야 했다. 조르그(A. Sorg)가 1478년과 1481년에 펴낸 아우쿠스부르크 관본, 코메노(Comeno)의 1480

년 밀라노 관본, 결손본을 저본으로 한 1496년 윈손(R. Pynson)의 인쇄본이 가지는 의미이기도 하다. 1500년 이전 『만더빌 여행기』 인쇄본은 독일어 8본, 프랑스어 7본, 라틴어 4본, 네덜란드어 2본, 영어 2본 등이었고, 책의 대중성에 기대어 빠르게 확산된 결과 16세기에는 180여종의 인쇄본이 각국 언어로 출간되는데, 잉글랜드에서 유통된 여행기는 대부분 윈손 관본으로서 영어의 표준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Moseley, 1974, 5-8, 15, 21, 25; 2005, 31; 2015; 성백용, 2010, 110). 인쇄는 지식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으며 그로 인해 엘리트 사회는 책 읽는 대중사회에 길을 내준다.

그러면 저자로 알려진 만더빌은 어떤 인물일까? 책에서는 세인트 올번스에서 태어나 성 미카엘 축일에 항해를 떠나 성지와 동양을 여행하였고 기억을 되살려 책을 완성한 기사 정도로 언급했을 뿐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한다(그림 1). 어쩌면 책의 대중적 성공에는 베일에 싸인 저자도 한 몫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먼 지역에 관한 신비한 지식으로 무장한 만더빌은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은둔함으로써 막강한 권위를 주장한 셈이다.<sup>2)</sup> 평론가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그의 실체를 파악하려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해명된 것은 많지 않다. 만더빌을 실명으로 하는 잉글랜드의 기사를 당연시 하거나(Bennet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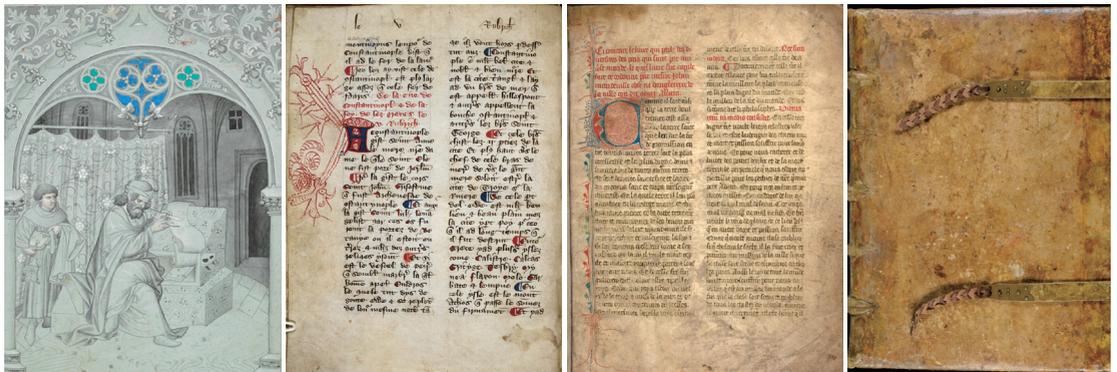


그림 1. 만더빌과 여행기 필사본

여행기를 집필하고 있는 만더빌과 14세기말~15세기초 앵글로노르만어 필사본, 14세기말 프랑스어 필사본, 15세기 전반 디메린겐 번역필사본 등 『만더빌 여행기』 다양한 관본의 텍스트 및 겉표지이다(자료: Illustrations for Mandeville's Travels, Catalogue of Illuminated Manuscripts, The British Library; e-codices Virtual Manuscript Library of Switzerland).

1954) 기사가 아닌 다방면으로 박식한 잉글랜드의 평신도 또는 그들의 필명이라는 의견이 있다. 1373년경의 리에주 판본에는 드 부르고뉴(Jean de Bourgogne)라는 인물의 권유에 따라 저자가 책을 썼다는 내용이 보이며 이를 입증하듯 1375년의 불가타 라틴어 번역본은 부르고뉴와 저자가 카이로에 있는 칼리프의 궁정에서 만난 사실을 적고 있다(Souers, 1956, 162; Seymour, 1993, 35).

부르고뉴는 지금의 벨기에 리에주(Liège)에 거주한 실존인물로서 책의 저자로도 거론된다. 이 지역의 역사가 두트르피즈(Jean d'Outremeuse)(1338~1440)가 『역사의 거울(Myreur de historis)』(c.1388) 제4권에 사실을 적었다고 하는데, 책이 소실되기 전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는 아브리(L. Abry)에 따르면 1372년 11월 12일 부르고뉴가 임종에 유언집행인으로 동석한 친구 두트르피즈에게 자신의 실명이 맨더빌이라 실토했다고 한다. 잉글랜드 몽포르의 백작이자 캄디 섬 페루즈 성에 거주한 영주로서 살인을 자행하고 세 대륙을 오가며 도피생활로 전전하다 1343년 리에주에 정착하여 의사로 일했고 사망 후 아브로이 교외의 기으망(Guillelmins) 교회에 묻혔다는 전말이다(Bormans, 1887, cxxxiii-iv; Letts, 1953, xviii-xlii).

사실을 입증하는 묘비가 교회에 남아 있었다는 증언은 설득력을 더하는데, 묘지와 교회는 프랑스혁명에 파괴되었지만 1462년 라이하르츠하우젠(J. P. von Reichertshausen)이 오스트리아의 대공에게 보낸 편지에서 몽트빌(Joannes de Montevilla)의 이름이 새겨진 라틴어 비명이 처음 소개되고, 1575년에는 벨기에의 지리학자 오르텔리우스(A. Ortelius)가 선명하게 담긴 묘비를 확인한 뒤 Montevilla를 Mandeville로 고치는 등 문안 일부를 수정한 바 있다(Hamelius, 1919, 1-2; Seymour, 1993, 32, 35). 위버(J. Weever, 1767, 332-333) 또한 『고대 장의 기념물(Ancient Funeral Monuments)』(1631)에 세인트 올번스 수도원을 소개하면서 타운 주민들이 맨더빌의 탄생지이자 사망지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장지로 추정되는 곳에 세운 돌기둥의 비명을 소개하지만, 정작 본인은 기으망 교회를 방문한 경험에 비추어 출생지는 세

인트 올번스가 맞지만 묘역은 리에주에 있다며 직접 확인한 묘비명을 실었다.

그러나 부르고뉴의 임종을 지켜본 인물이 두트르피즈 단 한 사람뿐이어서 기록의 신빙성에 의문이 따르고 『맨더빌 여행기』의 텍스트를 개찬함으로써 대륙본의 필사전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두트르피즈 자신이 저자일 가능성까지 제기되지만(Hamelius, 1919, 8-13), 맨더빌을 부르고뉴와 두트르피즈 어느 한 사람의 실명 또는 필명으로 보는 견해에는 회의가 적지 않다(Moseley, 2005, 10, 29). 논란의 중심에 있는 두트르피즈가 『역사의 거울』에 적은 허위 내용을 진실로 믿고 1372년 부르고뉴가 사망한 뒤 누군가가 기으망 교회에 묘비를 세우는 역사화 과정을 의도적으로 진행했을 것이라는 추론이며, 비명을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두트르피즈가 막후의 기획자라는 설이 불거진다.

여기에 프랑스어 사용자로서 라틴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성경에 박식한 성직자이며 예루살렘과 동방을 여행한 경험은 없지만 도서관의 책자와 성지를 오간 잉글랜드 순례자를 통해 전해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1357년경 책을 편집한 인물을 전제로, 북서프랑스 생 오마르 지역 베네딕트 수도원 생 베르탱의 대수도원장이자 역사학자인 롱(Jan de Langhe)이 후보로 추가된다. 이프르 태생으로서 1334년 무렵 8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한 수도원에 합류한 롱은 파리 대학에 파견되어 철학과 법학을 공부하였고, 복귀 후 1351년에 동양에 관한 6권의 라틴어 자료를 프랑스어로 번역해 한 데 묶어 책자로 펴냈는데, 이 안에 헤이툼(Hetoum)의 *Flor des estoires de la terre d'Orient*, 오도릭(Odorico da Pordenone)의 *Relatio*, 볼덴젤레(William von Boldensele)의 *Liber de quibusdam ultramarinis partibus* 등 맨더빌이 참고한 핵심 문헌이 포함되었다고 한다(Seymour, 1993; Lerner, 2008, 133, 137-141; Higgins, 2011, xvi; Phillips, 2013, 45; Moseley, 2015).

이상의 여러 제안을 종합할 때 『맨더빌 여행기』의 저자는 세인트 올번스에 묻힌 잉글랜드의 기사 맨더빌, 부르고뉴에게 책을 집필하도록 권유받은 맨더빌, 부르고뉴로 개명하고 리에주에 살다 기으망 교회 세

미테리에 묻힌 맨더빌, 두트르피즈, 룡, 맨더빌을 필명으로 사용한 익명의 기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확증이 불가한 상황에 원저자를 비정하는 것보다 작품이 유럽사회, 동서교류, 세계지리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에서 ‘맨더빌로 불린 저자(the Mandeville author)’로 이해하자는 제안이 호응을 얻고 있다. 원본과 저자의 진정성을 경직되게 고집하는 대신 끊임없이 재탄생하는 작품의 구성적 측면에 주목하여 ‘맨더빌’을 원저자, 필사자, 번역자, 편집자, 인쇄자 등 집단저자의 명명으로 대신하자는 발상이다(Higgins, 2011, xvi, xviii-xix; Tinkle, 2014, 449).

19세기 고대와 중세 문헌에 대한 치밀한 고증으로 여행기가 다양한 전거에 의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실하고 상당한 수준의 교양을 겸비한 탐험여행가 맨더빌의 이미지와 명성에 흠이 간다. 인용한 여행기, 문헌서, 역사서, 백과사전, 성경, 과학서 가운데 볼텐 켈레의 *Liber de quibusdam ultramarinis partibus*는 1~14장, 윌리엄(William of Tripoli)의 *Tractatus de statu Sarracenorum*은 15장, 오도릭의 *Relatio*는 16~34장, 헤이툼의 *Flor des estoires de la terre d’Orient*는 24~25장을 서술하는 데 비중 있게 참고하였다(Higgins, 2011, 219-271).<sup>3)</sup> 자연스럽게 맨더빌은 유럽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과 이야기를 표절하거나 간접적으로 활용한 데 불과하며, 그가 가장 멀리 한 여행은 도서관까지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 기사십자군으로 성지를 돌아보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페르시아 너머는 결코 가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방대한 자료를 독창적으로 종합하는 것이 능력으로 인정받고 용인되던 중세문학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책의 실체가 드러남으로써 맨더빌의 여행경험에 신뢰를 보낸 독자가 안겨 된 실망은 결코 작지 않았다. 유럽인의 탐험을 계기로 속속 보고된 사실에 비추어 관심과 흥미의 대상이었던 동양이 책에 그려진 것과 다른 데서 오는 충격도 컸지만 저자의 기만에는 비할 바 못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더빌 여행기』를 전대미문의 ‘문학적 사기’로 평가절하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여행기 본연의 허구적 특성을 인정해야 하

고 이국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기담과 체험담 형식의 장치를 통해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은 저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인데,<sup>4)</sup> 많은 사람이 여행기를 남겼음에도 맨더빌이 단연 돋보인 것은 그런 독자의 취향과 기대에 부응했기 때문이라는 해명이다(Moseley, 2005, 11-12; 성백용, 2010, 131-132). 환상에 내재된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독자들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인지하면서도 맨더빌은 자신의 여행에 신뢰를 다지고 책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전혀 내려온 낭만적인 괴물을 실제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서사 전략을 취하며, 진실보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 허구는 독자에게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게 만들었다(Classen, 2013, 229-230).

『맨더빌 여행기』는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한 판타지와 로맨스를 펼치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기마상, 예수의 십자가·옷·뭇, 용으로 변한 히포크라테스의 딸, 이집트의 피닉스, 아르메니아 새매의 성, 인도의 다이아몬드, 사도 도마의 손, 칼로낙 섬의 물고기 등 소재는 각양각색이다. 이역의 문화에 관한 소개도 깊다. 그리스·페르시아·칼데아·이집트·유대·사라센 문자의 특징을 포착하고, 기손 강의 경우 계자리와 사자자리에 들면 범람하여 경작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간파하며, 이집트는 비가 적어 공기가 청정한 까닭에 다수의 천문학자를 배출한다는 결정론적 사유를 표출한다. 홍해의 지명은 해변의 붉은 자갈에 기인한다고 풀어준다. 사라센은 코란의 금기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는 농경에 소가 중요하므로 소고기를 거의 먹지 않는다는 현실적 이유를 들이댄다. 물이 쓰고 짜지만 빠져 죽지 않는다는 사해, 시리아와 인근 왕국의 전서구(傳書鳩), 자바의 생강·정향·계피·강황·육두구·메이스 등 향신료, 호수 위에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1만개 이상의 다리를 갖추고 물자가 풍부한 카사이 등의 소개가 인상적이다. 카타이의 풍습, 신앙, 역참체계인 객사(客舍)의 설명 또한 사뭇 흥미롭다.

책은 기독교 세계의 성지 및 인접지역을 다룬 전반부(1~15장)와 페르시아에서 시작되는 주변지역에 관한 후반부(16~34장)로 나뉜다. 맨더빌은 ‘선한 그리

스도인이 힘을 모아 약속의 땅을 되찾고 이교도를 몰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성지탈환의 십자군 수사를 동원해 자신의 정체성을 강력히 피력하지만 여정을 거듭하면서 대립적 논조는 이내 순화된다. 이야기는 신을 가장 가까이서 대면할 수 있는 예루살렘 순례여행의 안내 형식으로 시작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지순례의 경험을 지인에게 전하여 참배를 독려하지만 절대 다수는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만큼 『맨더빌 여행기』는 정신적 순례와 성스런 감정을 공유하는 소중한 길잡이로 활용되는데(Moseley, 2015; Zumthor, 1994, 810-811), 잉글랜드를 나선 저자는 콘스탄티노플을 향해 출발하였고 키프로스를 비롯한 지중해의 여러 섬, 바빌론, 이집트, 시나이 산, 베들레헴, 시온 산, 여호사팟 골짜기, 사해, 사마리아, 갈릴리, 예루살렘, 시리아 등지를 돌아보는 신성한 경험을 소개하며 거치는 길에 목격한 다양한 풍습, 기현상, 신앙, 지형, 물산, 성소, 역사 등을 일화로 곁들인다.

맨더빌은 이미 유포된 여행담에 자신만의 급진적이고 다원적인 터치를 가해 전혀 다른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독자를 즐겁게 하고 교육하며 꾸짖고 위로하는 한편, 세계관을 심고 다양한 메시지를 전한다. 흥미롭게도 여행길에 만난 이교도와와의 대화는 동양의 도덕·신앙적 미덕에 빗대어 기독교 세계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토로하고 성찰을 촉구하는 역 오리엔탈리즘(reverse Orientalism)의 수단으로 긴요했는데,<sup>5)</sup> 동서양의 종교, 도덕, 관습, 가치, 신념을 일상 속에서 친밀하게 대함으로써 오해와 고통을 풀고 상호이해를 돕는 한편, 타자의 유머, 풍자, 아이러니, 정치적 관념을 자아의 비판적 성찰을 위한 장치로 활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사라센 술탄의 입을 통해 기독교도의 죄악을 열거하게 함으로써 유럽의 독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과감한 선택을 한다. 왕과 영주는 약속의 땅을 되찾기보다는 이웃나라를 약탈하는 데 골몰한다고 비판다. 타락한 사제들은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결혼과 고리대금업을 죄라 여기지 않고 성직을 매매하며, 그들로 인해 허영심과 탐욕 가득해진 교인들 역시 온갖 수단을 동원해 남을 속이고 율법을 욕보이기 일쑤라 꾸짖는다.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처럼 가난

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악행만 일삼으며 탐욕스럽고 신의를 지키지 않아 성지를 빼앗겼다고 단호하게 진단한다. 맨더빌은 술탄으로 하여금 신을 헌신적으로 섬긴다면 성지를 되찾게 되리라 예언하게 하지만 이교도의 힐책을 빌려 타락한 교회와 신도의 신앙적 경박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내부를 향한 냉대와는 대조적으로 비기독교인과의 차이는 중립적인 위치로 물러나 담담히 관조하는데, 심지어 성지를 되찾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벌여야 했던 사라센인조차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온순하며 정이 많고 정의롭다고 치켜세운다. 맨더빌의 자아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타자에 대한 이 같은 침잠의 태도는 앞으로의 여행에서도 흔들림 없이 유지된다.

저자는 상상 속 동양의 나라와 생명체를 보고할 때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증명할 수 없다.’는 식의 수사로 여행이 실제임을 강조하는 교묘한 트릭까지 동원하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여정에 포함된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기보다는 전혀 가보지 않았거나 일부 지역만을 돌아보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유럽에서 성지로 향하는 다양한 길 가운데 어디를 취하든 지나치게 될 지역을 주지하였다는 사실은 백과사전적 자료를 끌어올 수 있는 방대한 도서관에 근접해 있었음을 대변한다. 문학적 기술 이면에 여행에 소요되는 거리와 일정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대입될 때에는 숨을 죽이게 만든다. 순례여행은 깊은 종교적 신념과 정밀한 지리정보의 결합에 기초하였으며 여기서 확보한 카리스마는 동양에 대한 맨더빌의 다양한 해석과 과장과 담론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다(Classen, 2013, 238-248).

책 후반부는 성지 너머의 동방세계를 다룬다. 맨더빌은 여행기, 역사서, 지리서, 백과사전, 성경, 『알렉산더 로망스』, 사제 요한의 서간 등 도서관에 비치된 다양한 자료에 의거하였으며 특유의 구성으로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페르시아, 인도, 카타이를 중심으로 내륙의 군소 왕국과 해양의 여러 섬에 대한 설명이 쉬이 핵심적으로 사제 왕 요한의 신화가 펼쳐진다. 중세의 시대적 상황에서 『맨더빌 여행기』는 욕망과 함께 도덕적 차원의 교훈을 담아내야 했고 맨더빌은 이

를 위해 거시공간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가까워 정확하게 인식된 성지 일대의 미시공간과 달리 동양은 인지의 심상경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흐릿한 기억과 상상에 의지해 신화, 전설, 불가사의로 구성되는 한편, 천지창조에서 최후의 심판에 이르는 신학의 도상과 실재가 혼재한 세계로서 도덕률이 시험되는 무대로 인용된다(Moseley, 2005, 14-15). 권위는 단순히 과학적 사실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며 독자의 무한한 갈망을 채워줄 문학적 수완을 필요로 했고 미시공간의 실제지리가 거시공간의 도덕지리(moral geography)로 이행함에 따라 직관과 상상에 의한 상징적 의미의 해석이 마음껏 발휘되었다.

### 3. 역 오리엔탈리즘과 위반을 통한 동양과 기독교 세계의 재구성

새로운 세계와 환경에 대한 평가 및 그에 기초한 이미지는 일정부분 주체의 이념과 이상을 반영하여 사회적으로 구성된다(Powell, 1977, 18-19). 땅의 중심(Medi-terranean) 동쪽에 자리한 오리엔트는 자연의 법칙이 유럽과 다르게 적용되는 타자의 주변적 영역이자 상상에 의한 가공이 무한정 허용되는 신화의 공간이었고 이교도의 차별적 영역이었다. 표면적으로 맨더빌은 유럽과 동양을 비교한 끝에 문화 일부는 유사하고 어떤 것은 현저히 다르며 중간에 모호한 지점이 자리하는 구도를 확인한다. 익숙한 서구와 이국적인 동방 사이에 놓인 그리스정교회의 영역은 서사적으로 유럽성과 비유럽성이 혼재된 경계지대를 대변한다. 아브라함 종교(Abrahamic religion)로서 기독교의 교리를 공유하여 근본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본 이슬람에 대해서도 자타의 경계짓기를 주저하며 그 너머 낯선 타자와의 차이를 드러내는 계제에 침묵에 붙인다. 동방의 이교도는 체형이 다르고 문화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괴물인간으로 그려진다. 신비와 환상을 기대하는 독자의 취향에 어필하려는 의도와 함께 미추(美醜)로 구성된 우주의 미학적 조화에 부합하도록 세계문명의 중심에 대한 일종의 균형

추로서 인간이하의 타자가 필요했을 것이다.

오리엔탈리즘에 입각할 때 일리아드부터 시작하는 유럽 지식체계와 권력의 야합은 동양의 헤게모니적 재현이자 타자에 대한 문화적 지배의 상상행위(imaginative acts of cultural domination)에 비유되는 여행기로 체화한다. 그 안에서 관습을 달리하는 위험하고 죄악에 빠진 문화적 타자는 신화의 영역인 동쪽으로 밀어붙여 가치판단을 하거나 의식에서 사라지게 하는 오리엔트화를 겪는다(Friedman, 1994, 65-68). 서구의 정상적 외형과 매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서 신체와 윤리도덕의 기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타자 그리고 그들의 공간으로서 동양을 상정한 것이다. 동양은 높은 산맥, 광활한 바다, 물리적 거리에 의해 유럽인과의 직접적 접촉에서 벗어나 있으며 대척점의 공백은 서구에 의해 자의적으로 메꾸어진다. 타자와의 절연을 희망하면서 동시에 공간을 통제하려는 열망으로서 그곳은 발이 머리 위에 가 있는 뒤바뀐, 권력의 주체로부터 격리된 주변인의 땅으로 그려진다.<sup>6)</sup>

멀고 낯선 나라로의 여행은 페르시아에서 출발하며 인도, 인근의 여러 섬, 카타이, 사제 왕 요한의 왕국을 경유하는 긴장과 희열 가득한 경험으로 채워진다. 그리스·로마 이후 기록으로 전한 인도, 환상과 공포가 교차하는 성서적 동양, 몽골 평화시대에 사신·선교사·상인이 목격한 동방의 모습이 중첩되는 특이한 경험이다. ‘저 너머에는 다양한 나라와 신기한 것들이 정말 많지만 나도 직접 다 보지는 못했다.’며 에둘러 표현하는데, 해변으로 몰려든 물고기 떼, 조장, 양털 달린 암탉, 반인반수, 그림자 발 종족, 외눈박이, 피그미, 자웅동체의 인간, 식인종 등 기괴한 현상과 종족으로 채워진 동양은 판타지 세상으로서 맨더빌의 상상과 독자의 기대가 절묘하게 맞물린다. 유럽 중심에서 이탈할수록 무질서한 야생의 자연으로 전이한다는 오리엔탈리즘의 투사일 수 있지만 문학적 상상에 의해 창출된 이미지로서 맨더빌 자신이 그런 세계를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먼 지역에 대한 지식이 권위로 인정받던 중세사회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여행에 나선다는 것은 권력을 얻기 위한 일종의 과시적 행동이었고 일반인이 닿을 수 없었던 동양은

따라서 공포와 위협으로 가득한 세상이어야만 했다(Helms, 1988, 18). 독자의 호기심을 충족하고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 실재와 허구를 넘나드는 이미지 각색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며 이는 고대 이래 문학의 전형이었다.

그리스인은 신화 속 괴물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을 말의 귀와 꼬리를 가진 사티로스, 반인반마의 켄타우로스, 뱀사람을 유혹해 파선시킨 사이렌, 추녀의 상반신과 새의 날개·꼬리·발톱을 가진 하피 등으로 장엄화하고 인도에도 괴수인간을 창조하여 서구의 정신세계에 포함시켰는데, 기원전 5세기 경 페르시아 왕실 주치의 크테시아스(Ctesias de Cnido)의 *Indica*로 소급된다. 책에는 학과 싸우는 피그미, 한 발만으로 작렬하는 태양을 가리고 빠르게 이동하는 사이어포드, 개의 머리를 한 카노폴로스가 묘사된다. 머리 없이 어깨 사이에 얼굴이 있는 종족, 30세에 하얀 머리카락이 검어지며 여덟 손발가락을 가진 종족, 팔꿈치와 등 전체를 덮을 만큼 큰 귀를 가진 종족, 거인, 긴 꼬리 종족도 있었다. 이후 기원전 326년 알렉산더 대왕의 인도원정을 계기로 찬드라굽타 왕조에 대사로 파견된 메가스테네스(Megasthenes, 350BC~c.290BC)가 *Indika*에서 기괴한 유형을 추가하였다.<sup>7)</sup> 크테시아스와 메가스테네스의 괴수인간은 코뿔소를 형상화한 유니콘처럼 관찰에 입각한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도의 서사시를 포함한 문학적 상상에 기원을 둔다(Wittkower, 1942, 159-164).

중세기 괴물의 주된 출처는 플리니우스(G. Plinius Secundus, 23-79)의 *Historia naturalis*로서<sup>8)</sup> 3세기 저술인 솔리누스(G. J. Solinus)의 *Collectanea rerum memorabilium*에 인용되어 대중적 인기를 누렸으며, 성서의 권위와 조율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괴수인간을 아담의 계보로 연결시켰고 이시도루스(Isidorus Hispalensis, 560~636) 역시 *Etymologiae*에서 괴물성을 창조의 일부로 설명하였다(Wittkower, 1942, 166-168). 『알렉산더 로망스』를 비롯한 여러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직접적 위협을 제기할 수 없는 먼 곳에 있어 공포보다는 낭만의 소재였던 괴물인간은 문학을 넘어 〈엡스토르프 지도(Ebstorf Map)〉(c.1240)에 담기고, 1300년 무

렵의 마피문디 〈헤리퍼드 지도(Hereford Map)〉 또한 변방에 괴수와 기이한 20여 종족을 그려 중세인의 세계관을 재현하였다(Edson, 2007, 17-18; 박용진, 2014, 363-366).<sup>9)</sup> 이처럼 괴물종족은 공포와 경이가 수반되는 장엄미와 낭만을 통해 동양을 신비화하는 장치였지만 여행자들이 실제 대면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단지 외형과 사회적 관습에서 그들을 기괴하는 유럽인과 달랐을 뿐이다.

식인관행도 동양에 대한 오랜 스테레오타입의 하나였다. 맨더빌이 소개한 사례는 꽤나 다채롭다. 사마리 섬에서는 충격적으로 상인들이 관매한 아이들을 살찌워 잡아먹고 나쿠메 섬의 카노폴로스는 전장의 포로를 먹으며 거인종족 또한 식인풍습을 가지고 있었다. 병자를 자연사하게 내버려두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로 하여금 물어 죽이게 하고 사자의 인육을 취식하는 것은 카폴로스 인근 섬의 관습이었다. 돈돈 섬의 경우 동료가 병에 걸려 죽게 되면 아들이나 아내를 함께 질식사시키고 동료의 시신을 잘게 조각내 지인들과 나누었으며, 땅속의 벌레에게 잡아 먹히면 고인의 영혼에 큰 고통을 안긴다는 현지인의 믿음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으로 맨더빌의 이해를 대신한다. 부친의 사체를 잘게 잘라 새의 먹이로 제공하고 머리는 지인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며 해골로 음료를 만들어 평생 기억하는 리벗 섬의 풍습에 대해서도 저자는 경건한 의식으로 승화된 행위라며 암묵적 동의를 표한다. 사실 여부를 떠나 혐오의 정서는 부인할 수 없지만 내부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려는 진중한 태도가 엿보인다.

맨더빌은 상상으로 동양을 지배하는 유럽의 왜곡된 지식을 거부하고 자아와 타자는 유사하다는 복선을 깬다. 이교의 우상과 그리스도교의 성상은 본질에서 다를 것이 없으며 가족의 사체를 먹는 혐오스런 관행을 예수의 성체를 나누는 기독교 전통과 ‘거의 동등한 차이(nearly-the-same difference)’로 해석한 것이다(Tinkle, 2014, 469-470; Fleck, 2000, 381-392). 그의 중립적 태도와 논조는 전도된 가치를 차분하게 나열하는 대목에서 예견되었는데, 예를 들어 태양의 열기로 피부가 검게 그을린 무어인에게 검은 천사는 흰 악마와 대비되고, 칼데아 왕국에서는 아름다

운 남자와 더럽고 흉측한 추녀가 각을 세우며, 아마조니아 여인국은 남자에게 지배권을 맡기지 않고 선거를 통해 가장 현명하고 용감한 전사를 여왕으로 선출한다. 폴롬브의 여자는 포도주를 마시고 수염을 깎지만 남자는 그렇지 않고, 라마리 섬의 나체 거주민은 의복을 착용한 이방인을 비웃는다. 우스꽝스럽지만 이런 뒤바뀐 장면은 저자의 내면에 깔린 문화상대주의를 투사한다.

물론 맨더빌에게서 오리엔탈리즘의 잔영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은 힘을 모아 예수의 존귀한 피로 물든 예루살렘에서 이교도를 몰아내야 한다며 결의를 다지고 그리스도교가 아니면 완전한 신앙은 못 된다는 노골적인 언사도 확인된다.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에게 나타난 나사렛 교회 옛 기둥에서 순례자의 공물을 받는 사라센인을 사악하고 잔인하다며 혹평한다. 그러나 현실은 직시해야 했다. 군사적 승리를 신의 선택으로 받아들일 때 과거 유대인이 차지했던 성지는 기독교의 유산으로 이전되자마자 이내 무슬림에게 장악된 상황인 것이다. 연이은 십자군원정의 실패에서 이교도에 은총이 내리지는 모순을 해명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맨더빌은 군사적 패배를 최종 승리를 향한 과정으로 합리화한다. 신이 사랑하는 자 또한 벌을 받으며 사라센인은 신의 징벌을 대신하는 요원에 불과하다는 논리로서(Tinkle, 2014, 450, 452, 458) 훗날 신이 성지를 돌려줄 것이라 앞서 거론한 술탄에게 인정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독자의 믿음을 강화한다.

유대인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파덴 섬의 독 나무를 이용해 전 세계 그리스도인을 독살하려 한 민족으로 낙인찍는다. 유대교는 기독교를 있게 한 과거이자 정체성의 원천이며 구약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현재이지만, 맨더빌에게 유대인은 구원이 불가능한 악이었다. 증오에 가까운 반감으로 점철된 유대인의 타자화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자리하여 불편했던 데서 주변화를 또한 요청하였고 신화의 지원까지 얻어내는데(Fleck, 2000, 395-397; Tinkle, 2014, 443-445, 459-462), 성경의 영적 의미를 부정한 유대인에게서 선민의 지위를 빼앗고 알렉산더 대왕으로 하여금 그들을 곱(Gog)과

마곡(Magog)에 가두게 한 것이다. 동쪽은 태양이 뜨는 신의 거처이자 인류가 창조된 근원이지만 인간은 죄를 지어 쫓겨났고 지상낙원을 다시 찾으려면 반드시 곱과 마곡을 지나야 했다. 사자가 생전에 지은 죄의 판결을 기다리는 지옥과 천당中间的 연옥, 즉 영혼이 위험을 무릅쓰고 통과해야 할 불속 같은 상태에 비유되는 공간으로서 이곳에는 카인의 죄로 인해 기형으로 태어나 추방된 괴물종족이 잠적한다(Friedman, 1994, 75; Le Goff, 1984, 2-8; Phillips, 1994, 47-50). 곱과 마곡의 유대부족은 동방의 낙원으로 향하는 길에 극복해야 할 괴물인간으로 유럽인의 인지 지도에 각인된 것이다.

이 같은 내부 오리엔탈리즘(internal Orientalism)의 입장을 제외하면 맨더빌은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용인하고 절충하려는 자세를 흐뜨리지 않는다. ‘모든 땅과 섬에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고 그들이 가진 종교와 믿음도 다르다.’는 발언에서 기류가 느껴진다. 동방정교와 네스토리우스교가 분파적인 이단에 불과하다는 로마 교회의 비판이 반드시 정당할 것은 아니라는 속내를 내비치며, 무슬림의 자비와 보시 앞에서 기독교의 도덕적 우위는 회의에 붙여지고, 동양의 식인 풍습·나체주의·일처다부제에 합리적 근거가 부여되며, 심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도 우상을 향해 오체투지로 참배를 강행하는 고행 앞에서 숙연해진다. 신이 누구를 사랑하고 싫어하는지 정해진 것은 아니라 과격적으로 선언하며, 동방에 대한 모든 것이 비합리적이고 기이한 것만은 아닌 것처럼 유럽에서 정상인 것도 관점을 바꾸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고 풍자한다. 타자에 대한 관용과 아량은 『맨더빌 여행기』 뒷부분으로 갈수록 강화되어 그들의 금욕적 삶은 감동을 낳고 카타이의 선한 정부는 유럽 내부의 다툼과 대비되며 사제 요한의 이상적인 기독교 왕국은 선망된다. 이교도의 인신공양과 우상숭배를 봉헌의 의도에서 동정과 열린 마음으로 대하며 기독교인 이상으로 하늘을 무겁게 여기고 우상을 위해 죽음까지 감수하는 데 경탄한다. 세상이 아무리 기괴해도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없다는 의견은 급진적이기까지 한데(Moseley, 2005, 24-28), 괴물인간과 식인종이 득실대는 야만의 세계를 찾아가는 여행임에도 오

히려 낭만적일 수 있는 이유이다.

관용의 측면은 그밖에 여러 곳에서 포착된다. 카나 섬에서는 영웅, 태양, 달, 불, 나무, 뱀 등의 모상과 우상을 숭배하지만 주민은 그것이 천상의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적극 대변한다. 사원에서 잔반을 원숭이에게 제공하는 관행에 대해 자력으로 생존이 가능한 빈자보다 동물로 환생하여 참회의 고통을 겪는 영혼을 배려하는 것이 더 자비롭다는 현지인의 관념을 풀어준다. 오리엔트를 향한 관용은 이내 선망으로 바뀌며 브라만 섬에서 정점에 이른다. 선량하고 진솔하며 신앙심이 두터운 현지인은 도덕적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오만하거나 탐욕스럽지 않고 시기하거나 분노하지 않으며 탐식을 일삼거나 음란하지 않다고 칭송한다.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는 등 10계율을 충실히 이행하는 '믿음의 땅'으로 부르고 싶어질 정도다. 섬은 도둑, 살인자, 매춘부, 거지가 없는 순수한 사람들만 사는 곳으로서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신은 선한 행실을 사랑하여 재해, 전염병, 전쟁,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나 명을 다하도록 허락한다. 맨더빌은 '신은 교리에 상관없이 선의와 진심으로 순종하고 받드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로 그들의 진솔한 생활을 예찬한다. 브라만족은 기독교가 오래도록 잊고 있던 미덕을 대리 발견할 수 있는 선민이었고 그들의 신앙 체계는 신도 인정하는 보편종교였던 것이다(Tinkle, 2014, 463, 465).

맨더빌은 급진적이고 다원적인 의식의 필터를 거쳐 동방의 관습과 신념을 평가하고 기독교 세계의 정치, 종교, 문화에 일침을 가하는 동서양 교류를 실천한다. 사제 요한이 다스리는 영토 가운데 선거가 치러지는 섬은 인상적인데, 왕은 귀족이나 부자가 아닌 예의바르고 품행이 단정하며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했다. 판결은 신분, 지위, 재산, 감정과 무관하게 죄에 따라 공평하게 내려지며, 국왕은 영주, 고문, 중신의 동의 없이 사형을 명할 수 없고 심지어 자신도 죄를 범하면 단죄된다. 대간은 하늘 아래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황제이지만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것을 막지 않고 종교 선택의 자유를 허락한다며 부러움을 표하는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고 비옥하며 물

자가 풍족한 만키 왕국의 2,000 도시 가운데 라토린은 파리보다 크다며 유럽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요컨대 『맨더빌 여행기』는 타자의 문화에 대한 관대한 이해와 개방적 태도의 산물이다. 편견에 매몰됨이 없이 성찰을 통해 대안적 이상사회를 꿈꾸게 하는 일탈의 공간이 바로 동양임을 자각한 것이다. 그곳에서 마주한 선한 야만인의 원시적 유토피아는 서구 문화의 우월성과 익숙한 질서에 대한 회의 및 개혁의 이상을 투사하기 위한 가상현실이자(성백용, 2010, 134) 자성의 거울(self-critical mirror)이었다. 동양은 저자가 속한 사회의 단순한 전도, 유럽의 거시공간적 상상에 의해 고안된 대항사회(counter-societies)를 초월한 자율적 타자로서 서양의 신학적, 도덕적 현실을 비판하고 참회를 이끄는 동시에 기독교적 공간을 부정하지 않고 온전히 드러내게 한다. 맨더빌이 타자를 구성하고 제시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푸코의 위반으로서 익숙한 자아로부터 알려지지 않았거나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타자 사이의 경계를 의식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양자의 직접적 대면이라는 실천을 담보하는 전략이었다(Foucault, 1977). 비록 상상에 그쳤다 하더라도 맨더빌의 여행은 위반이었고 미지의 신화적 세계를 가로지르며 완성한 그의 여행기는 경계와 한계를 반복적으로 넘나드는 위반의 표현(verbalization)이자 텍스트화(textualization)였다. 저자는 미시공간적 지식과 거시공간적 추측 사이의 모호한 벽을 넘어설 것을 권고하며 상호배타적으로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대신 문화적 이해와 교섭이 가능한 지점으로 인도한다. 타자를 단순히 거울사회 또는 정치·종교적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차이의 에피스티미 경계를 넘어 미지의 것과 자발적으로 교류하는 호기심의 에피스티미로 전환된 것이다(Sobecki, 2002, 329-338, 342-343). 르네상스의 무한한 발견에 요구된 결정적 전환이었다.

#### 4. 사제 요한의 상상 왕국

호기심에 추동된 지적 탐구정신의 반영으로서 『맨

『맨더빌 여행기』는 중세의 성지순례로부터 르네상스기 지리상의 탐험으로의 이행을 상징한다(성백용, 2010, 132). 여행기 집필 당시 동양의 중심을 차지한 원·4한국의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는 평화국면을 안착시켜 14세기 중엽까지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을 통한 활발한 동서문물 교류를 이끌었다. 카르피니와 루브룩에 이어 마르코 폴로와 오도릭이 그 길을 오갔고 여행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사제 요한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슬람 세력의 패권 확대로 성지회복의 꿈이 요원해질수록 역사적으로 유럽인의 정신세계에 잔상으로 남아 있으며 『맨더빌 여행기』가 생생하게 묘사한 사제 요한에 대한 열망은 강렬해졌고 이는 동방으로의 탐험을 인도한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다. 비록 허상을 향한 탐문이었지만 신화로 개척이라는 예기치 못한 세계사적 성과를 합작한다.

통치행위와 관련해 맨더빌은 폭력적이지 않으면서도 권위를 유지하는 이집트의 술탄, 아마조니아의 여왕, 카타이의 대칸, 사제 왕 요한에 관심을 표한다. 특히 낙원 인근 카타이의 대칸과 사제 요한은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하는데, 선의 가득한 정부는 교황의 탐욕과 무소불위의 권위를 비판하는 거울이 되고 화려한 궁정은 유럽 못지않은 풍요를 과시하여 선망의 대상으로 다가온다. 성지 바깥 시원의 야생지 한 가운데 들어선 대칸의 왕국과 기독교 성군 요한의 왕국이야말로 성숙의 분열이 첨예한 유럽이 본받아야 할 유토피아에 다름 아니었다. 동방 어딘가에서 강력한 왕국을 이끌고 있을 사제 요한은 무슬림과 이교도로 인해 위기에 빠진 기독교세계를 구원해줄 메시아로서 12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유럽인의 심상에 깊게 각인된, 그러나 현실로 드러나지 않는 신기루 같은 존재였다. 교황, 국왕, 영주, 성직자, 평신도는 그가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성지로 진격할 것이라 굳게 믿었다. 맨더빌은 그의 호화로운 궁궐과 인도 및 인근 72개 지방으로 이루어진 광활한 왕국을 돌아보면서 사제 왕의 위엄을 확인하였고 보석 박힌 십자가를 앞세우며 전투에 나선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전하며 기대감을 심었다. 신비의 사제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여행가와 선교사가 그의 궁정으로 향했고 사라센에 대적할 수 있는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외교사절이 파견되

었다.

사제 요한의 왕국으로 인도가 지목된 데에는 성도마(St. Thomas)의 전설과 위경인 도마행전이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전도와 순교의 영예를 안고 돌아오리라 하는 예수의 예언에 따라 인도로 건너가 가난하고 병약한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다 끝내 죽임을 당한 성인의 이야기다(윤기향, 2007, 63-71). 힌두교 지역으로 기독교를 전파한 도마의 신화는 그가 안치된 인도 동남해안 밀라포르의 산토메 성당으로 순례를 촉발하지만 이내 위기에 처한 유럽을 구원해줄 사제 요한의 소문에 덮인다(Phillips, 1994, 37). 막강한 권력과 부를 소유한 동방의 통치자로서 이슬람에 포위된 기독교권을 구원하기 위해 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제 요한의 탐문은 성지가 함락 위기에 처한 12세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식인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 복음을 만방에 설교하였고 동방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며, 성지순례 차 내방한 동양의 기독교인과 조우했을 때 확신했다. 동방의 성직자 입에서 사제 요한과 그의 기독교 왕국이 언급되기도 하였다.<sup>10)</sup>

역사적으로 사제 요한의 이름은 오토(Otto von Freising, c.1114~1158) 주교의 『두 도시의 역사(Historia de duabus civitatibus)』에 처음으로 명확하게 등장한다. 1144년 쟁기가 이끈 이슬람 세력에 의해 십자군의 중요한 거점 예테사가 함락된 이듬해 교황 에우제니오 3세와 각국 군주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교황청을 방문한 자발라의 주교 위고가 전한 소식을 적은 것인데, 극동의 네스토리우스교도 사제 왕(Priest-king) 요한(Iohannes)이 페르시아와 메데스를 지배하던 사미아르디 형제와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진군하여 티그리스 강에 이르렀으나 도하가 여의치 않아 회군했다는 것이다. 위고의 전언은 1141년 9월 금에 쫓겨 서쪽 카슈가리아까지 퇴각하다 카라칸조를 점령해 카라키타이(黑契丹, 서요)를 건립한 耶律大石과 셀주크의 술탄 산자르가 사마르칸드 인근 초원에서 벌인 전투의 역사적 사실이 교묘하게 접목된 신화였다. 전투에서 승리하여 이슬람 정벌자로서의 명성을 얻은

야율대석은 불교도였지만 무슬림과 대항하는 사람은 암묵적으로 기독교도라 여긴 유럽인은 동방에서 출현한 그에게 네스토리우스파의 옷을 입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서방에 전하였고(Beckingham, 1996, 2-4; de Rachewiltz, 1996, 61-65; Jackson, 1997, 425; 이영찬, 1996, 180-181; 김호동, 2002, 11-14; 정수일, 2002, 239; 남중국, 2013, 81-86),<sup>11)</sup> 사제 요한의 신화는 그렇게 탄생했다.

무성한 소문에도 실체가 불분명했던 지상의 구원자 사제 요한은 교황이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친서를 소지한 사절을 파견할 정도의 실존인물로 부상하는데, 결정적 사건은 비잔틴의 황제 콤네누스 앞으로 발송된 서한(The Letter of Prester John)이었다. 황제의 재임기간(1143~1180년)과 1165년경부터 유포된 정황이 유일한 단서일 뿐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알 수 없는 편지였지만 성지를 둘러싼 공방 가운데 전해졌기에 극도의 관심을 끌었다. 그리스어 원본은 유실되고 여러 언어로 번역된 필사본과 인쇄본만이 수도원과 도서관에 전하는데, 짧은 문서이기에 다양한 계층의 독자가 접할 수 있었고 중간에 위조, 변조, 첨삭을 거쳤으며 수신자 또한 교황, 신성로마제국 황제, 각국의 군주로 확대된다. 편지에서 자칭 요한은 인도 3국의 광활한 영토, 72명의 왕을 휘하에 둔 막대한 권력, 젓과 꿀이 넘치는 풍요, 32세의 나이로 무병영생할 수 있게 해주는 올림포스 산 아래 신비의 샘, 진귀한 동식물, 괴수인간 등의 과장된 언설과 함께 대군을 이끌고 성모를 방문해 적을 패주시키겠다고 공언함으로써 중세 말 유럽의 국제정세와 지리상의 발견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다(Bar-Ilan, 1995, 294; Beckingham, 1996, 8-12; de Rachewiltz, 1996, 65; Uebel, 2005; 김호동, 2002, 28-36).

치밀하게 위조된 까닭에 서신은 호소력과 설득력을 가지고 유럽인에게 진지하게 다가왔다.<sup>12)</sup> 고전에 반복적으로 투영된 환상의 세계에 중세의 종교 이미지가 더해짐으로써 십자군의 충동을 넘어선 인기를 누렸는데, 이국적이고 찬연하며 풍요로운 기독교 왕국을 갈망하는 독자는 모든 여행자와 순례자가 환대 받고 가난, 약탈, 아침, 거짓말, 탐욕, 분열, 불륜, 악이 없는 사제 요한의 도덕적 이상향에 환호하였다. 교

황 알렉산드레 3세는 1177년 사제 왕에게 사절을 보내 답신을 전하고 공식적으로 친교관계를 맺고자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하지만 친서 전달의 중책을 맡은 주치의 필리프가 도중에 실종되어 미완의 사명으로 끝나고 말았다(de Rachewiltz, 1996, 65; Phillips, 2013, 47; 남중국, 2014, 115-117). 이후로 한동안 사제 요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187년에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음에도 유럽은 동방 기독교 군주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성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잉글랜드, 프랑스, 신성로마제국이 연합한 3차 십자군원정이 실패하면서 그의 이름은 재차 환기되며,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가 5차 원정을 결의하고 1218년에 원정대가 이집트 다미에타를 점령한 상황에서 사제 요한 또는 그의 아들이나 손자로 추정된 인도의 다윗 왕이 페르시아로 진격하여 무슬림을 격퇴하려 한다는 낭보가 들려왔다. 전문의 주인공은 나이만족(乃蠻部) 왕자로서 카라키타이의 耶律直魯古를 폐위시키고 등극한 뒤 칭기즈칸에 패한 쿠츨루크로 추정되었으나(정수일, 2002, 239), 사건의 추이에 비추어 실제 인물은 1219년에 화레즘 원정에 나선 칭기즈칸이었다. 소문의 진원인 중앙아시아 네스토리우스교도의 입장에서 신도인 쿠츨루크는 과거 야율대석에게 기대된, 십자군과 연합해 이슬람을 패주시킬 사명을 완수할 책임자였지만 이미 칭기즈칸의 손에 사망한 상태였다. 그들의 간절한 염원이 칭기즈칸과 쿠츨루크의 이미지를 섞어 강력한 인도 기독교 왕국의 다윗으로 둔갑시켰던 것이다(de Rachewiltz, 1996, 65-67, 72; 김호동, 2002, 38, 40-43, 60-61, 74-79; 남중국, 2013, 99-102). 구원부대를 고대하며 펼친 원정대의 작전 실패와 칭기즈칸의 후사인 오고타이와 바투의 무자비한 유럽 침공으로 일말의 기대는 환상에 지나지 않았음이 밝혀지지만, 이는 단지 대간이 사제 요한은 아니라는 것일 뿐 사제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은 여전하였다.

몽골 평화시대(*Pax mongolica*)의 자유로운 교류 국면에 편승해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는 1245년 북음전과와 외교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사절단을 몽골의 대칸 구육에게 파견하면서 사제 요한을 수소문하

였고, 도미니쿠스 수도사 롱주모(A. de Longjumeau)는 케라이트족 옹 칸이 그토록 찾던 장본인으로서 이미 1203년에 칭기즈칸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고 넓은 영토를 상실하였다는 실망스런 소식을 전한다. 마르코 폴로(1254~1324) 역시 딸을 신부로 맞고 싶다는 칭기즈칸의 청을 거절하며 결전을 벌인 옹 칸을 사제로 지목하였다. 반면, 도미니쿠스 수도회의 특사로서 1253년에 카라코룸의 대칸 몽케를 알현한 루브록(G. de Rubrouck, c.1220~c.1293)은 막강한 나이만족을 이끌고 스스로 왕이 된 인물이 사제 요한이고 옹 칸은 그의 형제라며 롱주모 및 마르코 폴로와 입장을 달리하였다. 탁발수사 오도릭(c.1286~1331)은 사제 요한이 대칸의 영역에 있다고 밝힌 마지막 여행가로서 카타이 서쪽 50일 여정 거리에 있는 초라한 나라의 국왕으로 보고하였다(김호동, 2000, 190; 성백용, 2011, 15-16; 남중국, 2014, 122; de Rachewiltz, 1996, 73; Hamilton, 1996b, 239, 241, 247-249).

이례적으로 카르피니(G. da Pian del Carpine, c.1182~1252)는 칭기즈칸의 아들 오고타이가 소인도(Lesser India)를 정복한 다음 남쪽 대인도(Greater I.)를 침입했을 때 ‘그리스의 화염’을 사용해 그를 격퇴한 현지의 왕이 사제 요한이라 설명하였고(Hamilton, 1996b, 248), 맨더빌 또한 하늘 아래 최고의 군주로서 인도 일부와 인근의 도서 왕국을 바르게 통치하며 계율에 따라 신실한 삶을 영위하는 풍요로운 기독교 왕국의 권력자라 묘사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중앙아시아에서 출현했던 사제 요한이 인도로 행방을 달리한 뒤 대항해 시대를 즈음해서는 재차 에티오피아로 옮겨간다는 사실이다.

황제 콤네누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제 요한은 3인도를 통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재확인 차 몽골제국의 일부였던 제1인도(First I.)를 여행한 외교사절, 선교사, 상인, 탐험가의 보고는 기대를 저버렸다. 가능한 후보자는 이미 사망하고 후손이 대칸의 신하로 봉직하는 상황에서 화려하고 막강한 왕국이 설 자리는 없었다. 그렇다면 사제 왕은 카르피니의 추론대로 대칸의 영역 밖인 제2인도(Second I.)를 통치하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대륙 깊은 곳으로의 여행에서 그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고, 귀향길에 해상으로 남인도

를 방문한 마르코 폴로의 경우 성 도마의 유적만을 보았을 뿐이며, 한말라바르 해안에서 네스토리우스 공동체를 찾아낸 선교사들도 위대한 기독교 군주와 끝내 대면하지 못했다(Hamilton, 1996b, 249).

남은 것은 제3인도(Third I.), 즉 에티오피아 일대로서 대륙의 윤곽이 명확하지 않았을 당시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접경지역으로 인식된 곳이다. 고대와 중세에 아시아는 나일 강 또는 알렉산드리아 서부를 경계로 리비아(아프리카)와 분리되었으며 이 경우 이집트 일부와 그 이남은 아시아로 기술되었다. 에티오피아는 인도 소속으로 간주되어 그곳에서 유럽으로 수출된 상아와 흑단이 ‘인도산’으로 소개되는가 하면 동일 상품이 실제로 인도로부터 유입되어 혼란이 있었지만(de Rachewiltz, 1996, 61),<sup>13)</sup> 에티오피아는 충분히 사제 요한이 있을 법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13세기 말 시점에 그에 거는 기대는 절실하지 않았다. 이슬람 세력이 미약한 데다 대칸 중에는 네스토리우스 아내 또는 모친을 가족으로 두어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본토를 여행하도록 관용을 베풀었기에 사제 요한에 대한 믿음을 되살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수소문이 재개된 것은 시리아 본토의 십자군 근거지가 1291년 맘룩에게 함락되고 1295년에 페르시아 일한국의 가잔 칸이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돌변한 지정학적 상황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해 1324년에 *Mirabilia descripta* 4·5·6권에서 각각 북인도를 의미한 소인도(I, the Less), 남인도를 가리킨 대인도(I, the Greater), 아프리카 혼 지역에 해당한 제3인도(Third I.)를 소개한<sup>14)</sup> 도미니쿠스 수도원 소속 남인도 킬란의 주교였던 조단(Jordanus de Severac)은 서양에서 처음으로 솔로몬의 후손인 사제 요한이 제3인도를 통치한다고 설명하였고(Hamilton, 1996b, 252) 그의 견해는 널리 수용된다.

기억에서 지워지기 직전 사제 요한은 동아프리카로 이동해 새롭고 생산적인 국면에서 전설적 삶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때마침 일대의 교역로를 장악한 강력한 기독교 권력이 에티오피아에 등장하였고 신왕조를 개창한 예쿠노암락(Yekuno Amlak, 재위 1270~1285)은 자신을 솔로몬의 후손으로 자칭한 바 있다. 연합의 움직임도 구체화되어 1310년경 이슬람



그림 2. 에티오피아 황제 사제 요한 (1599, by Luca Ciambertano)

자료: The British Museum, London, England

과의 전투를 준비하던 황제 위템라드는 ‘스페인’ 국왕에게 30여명의 사절단을 파견하였으며, 계승자인 암다시오은 정복을 이어가 아프리카 혼의 7개 이슬람 공국을 복속시켰다(Hamilton, 1996b, 250-253; 그림 2). 유럽은 새로 등장한 기독교 세력과의 동맹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았으나 국제정세는 불리하게 돌아가 1322년에 일한국의 아부사이드가 맘룩의 술탄과 평화조약을 맺었고, 이런 암울한 시점에 『맨더빌 여행기』는 다양한 문헌과 콤페누스 앞으로 발송된 편지의 진술을 짜깁기하여 꺼져가는 사제 요한 신화의 불씨를 살리려 애썼지만 오스만은 동유럽으로 진격해 1393년경 다뉴브 강변에 이르렀으며, 아시아 광활한 지역은 일한국의 분열과 함께 페르시아의 강자로 부상한 티무르(Tamerlane, 1369~1405)의 차지가 된다. 동방의 우군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하는 상황에서 에티오피아의 위대한 기독교 황제는 큰 위안이었지만 조율된 군사전략이 성사되기는 어려웠는데, 이슬람 세력에 의해 페르시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혔기 때문이다(Hamilton, 1996b, 253-254).

돌아보건대 사제 요한은 십자군 심상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고 그의 상상의 왕국은 강력한 이슬람 정적에 맞서고 있는 자신들을 후원해줄 희망의 상징이었다. 성지를 되찾는 종교적 소명을 다한 후 누리게

될 풍요와 평화의 유토피아를 꿈꾸게 만든 인물이기 에 수도사, 상인, 탐험가, 외교사절은 동방 깊은 곳을 여행하며 집요하게 그를 찾았다.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지만 대가는 충분하였다. 여행자들은 미지의 세계에서 생소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관찰하며 기록으로 남겼다. 이전에 알지 못하던 대륙, 자연, 민족, 문화, 취락 등에 관한 묘사는 세계의 윤곽을 보다 명료하게 하고 신선한 자극을 부여하였다.

## 5. 맨더빌 여행의 지리적 유산

몽골 평화국면에 선교, 외교, 통상, 탐험 목적의 아시아 여행으로 동양에 관한 보다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고, 중세가 끝을 향해가는 시점에는 사제 요한과 그의 왕국에 대한 허구적 믿음이 열대 아프리카 이남의 윤곽을 그려내고 지도에 빠져 있던 대륙을 새로 추가하는 의미심장한 변화를 초래한다. 동양에 대한 이미지 형성을 주도하고 대항해 시대의 전기를 마련한 『맨더빌 여행기』를 재평가해야 하는 이유이다. 경험으로 획득한 실제적 지식에 의해 사제 왕 요한의 존재가 회의에 붙여지고 전통 동양관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맨더빌은 영적 호기심을 추동하고 지구 구체설의 과학적 진단으로 유럽으로부터 인도에 이르는 신항로 개척의 실천을 성사시켰다.

중세 과학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대척점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지구 반대편까지 갈 수 있다는 발상을 비웃었고 8세기부터 그런 믿음 자체를 이단으로 규정하였다(Wittkower, 1942, 182). 그러나 맨더빌은 성서, 추론, 직·간접 경험에 입각해 지구는 둥글고 성지 예루살렘 반대편 동방에 지상낙원이 있으며 세계일주가 가능하다 믿는 동시에 연장선에서 모든 땅과 섬에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토로하였다.

“배를 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세상 모든 땅들을 돌아 다시 고향으로 오게 될 것이다. ... 이쪽에

있는 것은 저쪽에도 있다. ... 인도 황제인 사제 요한의 나라는 우리 아래 맞은편에 있다. ... 우리가 밤일 때 그들은 낮이다. ... 세상 어디에 살든 똑바로 걸을 수 있다. ... 고대 천문학자의 말에 따르면 둘레는 2만 425마일이다. 좁은 식견으로는 그보다 더 큰 것 같다.”(주나미, 2014, 219-221)

맨더빌은 자연법칙이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고 인류문화의 공통된 특성을 강조하였다. 북쪽 하늘의 움직이지 않는 ‘길잡이 별’ 트란스몬타네와 대척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이어 뜨거워 지날 수 없다는 열대는 허상일 뿐이라 바로잡고, 천문학자가 제시한 지구의 원주 2만 425마일 대신 자신만의 방법으로 3만 1,500마일로 조금 더 길게 계산해낸다. 실측치에 근사한 에라토스테네스(c.275BC~c.195BC)의 2만 5,000마일보다 과장된 추정이지만 지구가 둥글다는 전제 하나는 분명했다. 15세기 말 세계사적 탐험을 후원·계획·실행했던 주역들은 지구가 둥글고 따라서 나침반만 있으면 일주가 가능하며 세계 어느 곳이든 거주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준 맨더빌에 힘입어 대서양을 횡단하고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인도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시대를 앞서간 르네상스 인간형을 그에게서 찾아보게 된다.

『맨더빌 여행기』는 출간 후 200여 년 동안 탐험가, 선교사, 상인, 학자는 물론 일반인에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책 안의 전설과 무용담은 열정을 깨웠다. 다빈치가 1499년 프랑스 루이 12세의 밀라노 침공으로 피렌체로 건너갈 때 지참한 유일한 여행기가 맨더빌의 것이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Moseley, 2005, 9; Higgins, 2011, xii).<sup>15)</sup> 세기 전환기의 탐험가 콜럼버스는 1492.8.3~1493.3.15, 1493.10.13~1496.6.11, 1498년 5월 말~10월 말, 1502.4.3~1504.11.7 등 4차에 걸쳐 ‘인도’로의 항해를 감행하였다. 동양 여러 지역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참고한 도서는 『동방견문록』 라틴어본, 지구의 둘레를 과소 추정한 포세이도니오스의 1만 8,000마일을 인용한 프톨레마이오스(c.90~c.168)의 『지리학(Geography)』, 카나리아 제도에서 중국까지 3,000마일에 불과하다 예측하고 서쪽으로 항해하면

인도에 닿을 수 있을 것으로 진술한 추기경 다이(P. d' Ailly, 1350~1420)의 『이마고 문디(Imago Mundi)』 등이었다.<sup>16)</sup> 콜럼버스의 항해 결심을 굳혔던 다이는 『맨더빌 여행기』를 인용한 것으로 전하며 탐험을 후원한 이사벨라 여왕 또한 책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Flint, 1994, 95-96, 101-102).

가상의 여행자 맨더빌은 사제 요한이 화려하기 그 지없는 궁정에서 광활한 영토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풍요로운 왕국을 다스린다고 전한다. 왕국이 지상 낙원 가까이 위치한다며 동경을 부추긴 데 이어 청춘의 샘물로 요한에게 영원한 젊음을 부여함으로써 과거를 현재, 나아가 미래로 연결시키고 사제 왕 탐색을 유럽인에게 숙명으로 지운다. 카타이 대칸의 지배가 미치는 범위 또한 넓어 한 번 둘러보는 데에만 뱃길과 육로로 7년이 걸리고 도처에 황금, 보석, 진주 등이 가득하다며 부러워한다.

“카타이는 아름답고 부유한 거대한 나라로 상품들이 넘쳐난다. ... 대칸의 왕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으로 성벽의 둘레가 2마일 이상이나 된다. ... 황제나 대영주들의 식탁에 놓인 그릇들은 벽옥이나 수정, 자수정, 순금으로 되어 있다. ... 이쪽 세계에는 그런 궁전이 없다. 천하에는 타타르의 대칸 만큼 위대하고 부유하며 세력이 강한 군주가 없다. 대인도와 소인도의 황제인 사제왕 요한이나 바빌론의 술탄, 페르시아의 황제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주나미, 2014, 254-260)

대항해 시대의 개막은 대서양 건너에 존재할 것으로 믿어진 인도와 카타이 그리고 희망봉 너머 에티오피아 또는 인도 어디쯤에 은둔한 사제 요한과의 접촉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의도치 않은 결과였다. 맨더빌이 묘사한 카타이의 엘도라도 이미지는 배가 땅 끝에서 추락할지 모른다고 걱정한 선원을 이끌고 열망하던 ‘인도’에 발을 디딘 콜럼버스에게 동기를 부여하였다(이영찬, 1996, 9, 16-17). 성지 탈환을 지원할 것이라는 사제 왕에 거는 기대 또한 인도항로 개척의 단초가 되었다. 아프리카·아시아 접경 일대 이슬람 세력의 확장으로 아라비아 반도를 경유하는 인도

와의 교류가 차단된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대안으로 취할만한 통로를 찾아야 했고, 선봉에 선 것은 엔리케 왕자(Prince Henry the Navigator, 1394~1460)로서 그는 아프리카 서해안을 남하하면서 대륙의 지리를 밝혀나갔다. 뒤를 이어 주앙 2세(재위 1481~1495)도 서부 해안을 탐사하면서 사제 요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1486년에 기니 만 베닌 왕국의 특사가 내방하여 전한 요한 왕국에 관한 소식이 오해로 판명되었음에도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탐험을 재촉하는 계기가 되었다(Hamilton, 1996b, 255).<sup>17)</sup>

1488년 희망봉을 거쳐 인도양으로 진입하는 경로를 발견한 디아스(c.1451~1500)의 위업에 힘입어 1497년 7월 리스본을 떠나 인도항로를 개척한 다가마(c.1460s~1524) 원정대가 1498년 5월 인도 켈리컷에 도착할 때까지 사제 요한은 신화가 아닌 현실이었다. 마누엘 1세(재위 1495~1591)의 친서를 휴대하고 아프리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던 1498년 3월 2일의 일기에는 사제 요한이 나타를 타고 도달할 수 있는 내륙에 기거하며 대선을 이용한 통상교역이 활발한 다수의 해안도시를 통치한다는 무어인의 제보가 적혀 있다. 무어인에 포획된 두 명의 인도 출신 기독교도와 대면한 일행은 전설이 실체가 되는 순간이라며 감격하였다(Mancall, 2006, 63). 향신료 교역을 성사시키기 위해 인도로 향하던 중 브라질로 표류한 카브랄(c.1467~c.1520)에게도 에티오피아(중인도) 요한 왕국을 확인하는 부수적 사명이 있었다. 이처럼 사제 왕은 내륙의 오지와 대양으로 탐험가를 견인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고 실존 인물이었다면 불가능했을(de Rachewiltz, 1996, 74) 세계사적 성과를 유산으로 남겼다.

근대과학으로의 가교역할을 수행한 맨더빌의 흔적은 도처에서 확인된다. 이론은 있지만 청춘의 셈 전설을 믿고 1513년에 소재를 찾아 나선 폰세드레온(J. Ponce de León)은 플로리다를 발견하였고, 엘리자베스 1세에게 지문하며 영국의 항해사업을 독려한 디(J. Dee)도 『맨더빌 여행기』에서 영감을 얻었다. 인도와 중국으로 가는 북서항로를 모색하다 배핀 만을 발견한 프로비셔(M. Frobisher)의 중국 관련 정보는 지참한 맨더빌의 책에서 얻은 것이며, 북미 식민화의 일익

을 담당한 레일리(W. Raleigh) 역시 『기아나 제국의 발견(Discoverie of the Empyre of Guiana)』(1596)의 동양 부분을 설명할 때 참조하였다(Higgins, 2011, xii; Moseley, 2005, 32-33; Edson, 2007, 109; 성백용, 2010, 111).

맨더빌은 지구가 둥글다는 계몽주의적 우주관으로 중세와 근대의 혼성성을 특징으로 하는 지도의 형상화에 영향을 미쳤다. 여행기는 경험과 관찰에 의거하면서도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간접적으로 습득한 자료나 소문을 참고하기 때문에 허구가 개입할 여지가 컸지만, 지리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미지의 세계를 지도화하는 쓰임새가 컸다. 중세의 시대적 상황에서 종말을 상정하는 곡과 마곡의 경우 전설과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데,<sup>18)</sup> 카스피 해 서쪽 해안에 ‘gog et magog’를 표기한 1025년의 〈카튼 지도(Cotton map)〉가 가장 오래며 마지막 지도화는 1740년경으로 추정된다. 곡과 마곡을 10개 유대지파로 간주한 『맨더빌 여행기』의 가정은 1430년의 〈보르기아 지도(Borgia map)〉에 그대로 재현된다(정인철, 2010, 169, 172). 그밖에 크레스크(A. Cresques)가 8매의 양피지에 남상방위로 그린 1375년의 〈카탈루냐 아틀라스(Atlas català)〉에 포함된 동아시아 정보는 『동방견문록』에 의거하였지만, 매장 관습, 카스피 해, 카타이의 타운 등은 『맨더빌 여행기』의 내용과 유사하다. 비앙코(A. Bianco)의 1436년 지도, 1492년에 베하임(M. Behaim)이 뉘른베르크에서 제작한 지구본에도 맨더빌이 책에서 밝힌 내용이 압축적으로 상징화 또는 기록되었다. 추정된 리에주의 맨더빌 묘역을 찾기도 한 오르텔리우스가 근대 최초의 아틀라스 『세계의 무대(Theatrum Orbis Terrarum)』(1570)를 제작할 때 부분적으로 맨더빌을 참조하였고, 메르카토르는 1569년 세계지도에서 자바와 남반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맨더빌 여행기』가 제공했다고 인정하였다(Moseley, 1981, 89; 2005, 31-33; Edson, 2007, 109; 정인철, 2010, 166, 168, 178-179; 2015, 4).

『맨더빌 여행기』는 지도 제작자와 지도를 들고 지리상의 발견에 나선 탐험가의 정신세계를 투영하며 한 권의 책이 촉발한 항해의 결과는 확인했다. 〈카탈



그림 3. 카탈루냐 아틀라스(1375)· 프라 마우로 지도(c.1450)· 칸티노 지도(1502)

자료: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Paris, France; Museo Correr, Venice, Italy; Koninklijke Bibliotheek, Biblioteca Estense, Modena, Italy

루냐 아틀라스》로 대변된 아프리카 중부 이남과 아메리카가 빠진 상태의 세계인식은 프라 마우로(Fra Mauro)의 양피지 구형평면도의 세계로 확대·개편되는데, 대륙에 둘러싸인 내해로서의 톨레미식 인도양을 대신해 대서양과 연결시키는 새로운 방식으로 형상화한 것이다(Edson, 2007, 141-164, 230-231). 이어 아프리카 남단을 경유해 두 대양을 잇는 지리적 탐사는 <칸티노 지도(Cantino planisphere)>(1502)로 귀결된다. ‘Ilha yssabella’ 섬 북서쪽 반도를 두고 아시아, 유카탄, 쿠바, 가상의 지역으로 다양하게 비정하지만 플로리다 반도로 보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그럴 경우 칸티노의 비밀지도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대륙 체제를 벗어나 남북 아메리카의 브라질 해안과 플로리다 반도가 추가되고 대서양과 인도양 연안이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진 최초의 지도로 평가된다(Nunn, 1924, 92; True, 1954, 77; 그림 3).

탐험여행에 의한 지리상의 ‘재’발견에 따라 『맨더

빌 여행기』는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조작된 책의 불명예를 얻고 그간 쌓아온 문학적 평판과 위대한 여행가로서 맨더빌의 명예 또한 한없이 추락하였으나, 그의 여행기가 세계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준 촉매제가 되었던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이영찬, 1996, 335-336). 『맨더빌 여행기』에 내재된 상호텍스트성을 고려할 때 고전문학이 형성한 동양이라는 텍스트에 대해 동시대인은 적어도 일부의 독해를 공유한 공동체였던 만큼, 독단적으로 문학적 전통과 권위에 도전하여 동양에 대한 고정된 관념과 이미지를 탐험에서 확인한 사실로 단박에 희석하기보다 환상에 빠지고 싶어 하는 독자의 기호와 취향을 반영해 체험 형식의 현장감을 살리면서 허구적 요소로 흥미를 돋우는 맨더빌의 글쓰기 전략은 동양에 대한 거부감 대신 친숙한 면을 강조하여 방문과 환대를 기대하게 만든 요인이었는지 모른다. 사제 왕 요한과 대칸의 위대한 왕국은 주변에 산재한 무질서, 혼돈, 야성의 암흑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안전관으로 존재하였고 그런 만큼 동양은 접근불가의 낯선 영역은 결코 아니었다.

콜럼버스보다 길고 기술적으로 난해한 탐사를 통해 개척한 인도 신행로는 아프리카 황금·나탈·스와힐리 해안의 상아, 직물, 노예와 함께 인도 및 동남아시아의 계피, 육두구, 후추, 정향 등 향신료 해상무역의 독점적 지위를 포르투갈에 안긴다(Northrup, 1998, 189-195). 역경을 극복하며 에티오피아 황제(nəgusä nägäst) 신분의 '사제 요한'을 확인하였지만 그는 더 이상 신화와 전설 속 불멸의 구원자가 아닌 이슬람 세력의 공세로 위기에 봉착하는 평범한 군주로서 토착적 일상을 보내는 빈한한 주민을 통치할 뿐이었다. 탈주술화된 그의 왕국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역사적 현실이 되는 순간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그간 신비의 사제와 그의 왕국에 부여된 일체의 권위는 와해되지만(Hamilton, 1996b, 255-256; 김호동, 2002, 88), 서구 유럽에게도 동양 기독교세력과의 동맹은 더 이상 절실하지 않았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가톨릭 통치자는 아프리카, 인도양, 대서양, 중남미에 걸친 육·해상제국을 건설하였기 때문이다(Hamilton, 1996b, 256-257; Jackson, 1997, 428). 십자군원정의 시대는 끝을 향했고 승리주의에 도취된 유럽인에게 사제 요한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향후 포르투갈과 아프리카, 인도, 중국의 관계는 에티오피아 기독교 왕국을 보호하고 이교도와 무신론자를 개종하며 제국주의 착취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한다.

## 6. 결론

시공간적으로 근대와 세계화의 출발점이 된 1492년의 아메리카 대륙 확인과 1498년의 인도 도착 이전 서구의 동양에 대한 인식은 지표 위의 실재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상상에 의해 구성된 이미지와 허상이었다. 고대 유럽인의 심상지도 외곽에 자리한 동양은 반인반수로 채워진 야만의 타자였으며 중세 기독교 세계에서는 불가사의와 지상낙원의 유토피아가 공존하는 이중적 영역으로 관념화된다. 1357년 무렵 집필되

어 필사본, 번역본, 인쇄본의 형태로 르네상스와 근대 초기까지 대중적 인기를 누린 『맨더빌 여행기』는 유럽중심주의에서 탈피해 자본화를 반성하고 타자를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역 오리엔탈리즘의 통찰을 부여한다.

저자의 신원과 원본의 집필 장소를 둘러싼 신비주의로 은폐하고 미지의 동양에 관한 지식을 과시함으로써 권위를 인정받은 『맨더빌 여행기』는 원저자는 물론 필사, 번역, 편집, 인쇄, 출판에 관여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완성된 집단저작으로서 시대와 사회의 상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정을 거쳤다. 전환기를 살았던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 맨더빌은 흥미와 상상을 자극하는 낭만적 전설, 지역지리에 관한 상세한 정보, 지구에 관한 근대과학의 지식을 종합해 계몽적 저술을 완성하며, 가상의 중세 기사를 1인칭 화자로 등장시켜 낯두리와 대화 형식으로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독창적 구성을 선보인다. 저자 본인이 속한 기독교 세계를 성찰하는 윤리·도덕적 태도 또한 인상적 이어서 고대와 중세의 문학전통에 길들여진 독자의 코드에 부응하기 위해 이국적인 동식물과 관습,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서 비롯된 동양의 타자성을 부각시키지만, 단순히 서양의 자아를 지탱하는 타자가 아니라 그 도덕적 타락상을 비추는 거울로 묘사한다.

맨더빌은 비판, 성찰, 침잠하는 가운데 세상에 만연한 차이와 분란을 통합하고 절충하며 다양성과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종교적 신념이 기독교에 기울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타자성에 대한 관대한 태도는 일체의 문화현상에 대한 중립적 입장으로 표출된다. 그는 동서양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함에도 관계를 적대적으로 상정하는 대신 서양의 종교·도덕적 자화상을 들여다보는 거울로서 동양을 활용한다. 동방은 문명과 야생이 교차하고 물질 욕망을 자극하며 교화의 대상인 동시에 고결한 땅으로서 신앙의 순수성이 넘쳐나고 분열과 탐욕이 없으며 경건하고 정의로워 기만 가득한 기독교 사회의 추악한 일면을 성찰하고 교훈을 추출하는 원천이었다. 저자는 나아가 불안정한 경계를 반복적으로 넘나드는 위반을 통해 동서양의 문화적 대화를 성사시키고 궁극적으로 상호이해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동양은 신이

목적론에 입각해 조화롭게 창조한 세계 안의 반쪽이었다.

동양은 대칸과 사제 왕 요한의 통치를 받는 창조 범위 안의 또 다른 세계였다. 특히 동양과 서양의 가교역할을 자임한 사제 요한은 인도에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사도 도마의 전설, 정통 기독교로부터 파문되어 동방으로 교세를 떨친 네스토리우스의 역사적 맥락, 성지를 잃고 위기에 빠진 유럽의 군사전략적 상황과 맞물려 창안된 가공의 인물이지만 교황이 사절을 파견해 친서를 전할 만큼 현실 안에서는 실존하는 것으로 유럽인의 심상에 깊게 뿌리를 내린다. 도덕적이고 풍요로운 사제 요한의 기독교 왕국은 유럽이 당면한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인도를 거쳐 대항해 시대가 개막될 즈음에는 에티오피아로 지리적 위치를 달리한다. 성지를 두고 이슬람 세력과 패권을 다투던 십자군이 수세에 몰리면서 막강한 동방의 지원군에 대한 기대감이 빛은 신기루였지만 맨더빌의 여행기는 인도를 찾아나서는 실천으로 환상을 체화한다.

사제 요한을 향한 독자의 갈망과 지구는 동글어 일주가 가능하고 세계 여러 곳에 다양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라는 저자의 신념은 엔리케 왕자를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의 탐험가에게 동방여행의 동기를 부여하였다. 동서양을 자유롭게 오간 선교사, 상인, 외교관에 의해 동양의 실상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단순 호기심의 세계는 이제 향신료와 각종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서 탐험가를 끌어들이며 그 과정에 카타이와 인도의 물적 풍요를 전한 『맨더빌 여행기』는 촉매제가 되었다. 대항해의 결과 권위를 갖춘 사제 왕은 환상이었고 풍요와 신비의 땅 동양은 초라하기만 한 현실이 전해짐으로써 역설적으로 맨더빌의 권위는 실추되었으나, 『맨더빌 여행기』는 동서문명의 교류를 구체화하는 세계사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아메리카 대륙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불타는’ 열대와 희망봉을 돌아 무역공과 해류를 이용하며 인도와 동남아시아 항로를 개척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여행을 거의 하지 않은 맨더빌 본인은 허구의 전략으로 중세 유럽인의 상상을 자극하여 목숨을 건 동방탐험에 동기를 부여한 공적을 인

정받아 세계사에 기록될 위대한 탐험가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동양의 발견, 성찰을 통한 서양의 재발견, 근대 세계체제의 형성은 사제 요한을 가공한 십자군 심상과 청춘의 샘, 지상낙원, 괴수인간, 인도, 카타이, 사제 요한 등의 환상을 전한 『맨더빌 여행기』의 찬연한 유산이다.

## 주

- 1) 중세기 책의 출간 및 유통은 수도원이 독점하였다. 양피지를 이용한 필사가 학업의 일부였기에 제본기술이 발전하였고 교회, 왕실, 귀족은 후원자이자 수입원이었다. 12세기 말 대학설립과 자본계급의 등장은 서적의 복사·배포에 변화를 초래한다. 피시아(pecia, quires)는 한 사람이 책 전체를 필사하는 데서 오는 비효율을 제어한 개선책으로서 저자로부터 원본을 전해 받은 서적상이 필사하여 등본(exemplar)을 제작, 분철한 다음 대학 파견단의 엄밀한 대조와 승인을 거쳐 대어 및 복제하는 체제였다. 분철해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필사함으로써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등본에서 사본을 제작하는 방식도 14세기부터 송진 처리한 기름종이를 활용하여 오탈자 문제를 해결한다. 종이는 저가의 책을 대량 제작하는 데 절대적이었으며 인쇄혁명을 이끈다(Martin & Febvre, 1976, 11-30).
- 2) 지식의 은밀성은 권력을 담보한다. 거리와 공간도 정치·이념적 의미를 내포하며 권력화에 조력하는데, 접근이 어려운 지역, 그곳으로 여행하는 데 따르는 위험, 원격지 전문가의 희소성은 해당 지역에 관한 지식을 신비화하였다. 전통사회의 수평적 거리는 우주의 중심을 오르내리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지리적으로 먼 장소에 대한 경험이 초자연적 맥락에서 이해된 만큼 직·간접적으로 습득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식은 고도의 권위를 보장하였다(Helms, 1988, 4-5, 14-18).
- 3) 맨더빌은 성지 일대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에 관한 기술을 위해 Tractatus de distanciis locorum Terrae Sanctae, Descriptio Terrae Sanctae, Descriptio Terrae Sanctae, Liber de Terra Sancta, Peregrinatio, Liber de quibusdam ultramarinis partibus 등에 의존하였고, 동양을 다룬 부분에서는 Iter Alexandri Magni ad Paradisum, Littera Presbyteris Johannis, Relatio 등을 참고하였다. 그밖에 Historia Hierosolomitanae Expeditionis, Alexander Romances, Historia rerum in partibus transmarinis gestarum, Flor des estoires de la terre d'Orient, Historia

- Orientalis 같은 역사서, Li Livres dou Tresor, Otia Imperialia, Imago Mundi, Speculum Historiale, Speculum 등의 백과사전, 성경, Tractatus de statu Sarracenorum, Legenda Aurea 등의 종교서, Tracratus de Sphera 등 과학서를 집필에 활용하였다.
- 4) 중세 여행기는 객관적 관찰·발견과 문학적 환상·상상·허구의 모호한 경계에 놓인다. 저자의 경험이 항상 대중의 기대에 부응한 것은 아니어서 허구가 실재로 밝혀지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었다. 독자를 실망시키지 않고 작가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또는 단순한 기억, 선호, 공명심을 이유로 저자는 때로 진실을 감추며 윤색에 나선다(von Martels, 1994, xiv-xviii).
  - 5) 역 오리엔탈리즘은 개념을 처음 소개한 워스테드(J. T. Wixted, 1989) 이래 동양의 소비니즘, 민족주의, 셸프오리엔탈리즘을 함의한 옥시덴탈리즘(Occidentalism)의 의미로 이해되다 서구에 대한 선망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대되며, 서양의 사회과학자가 서구의 경제적 침체 및 사회적 무질서에 대비되는 아시아 가치(Asian value)를 재평가 하면서 동양의 강점을 부각하는 개념으로 변형되고(Hill, 2000), 논의에 철학적 깊이가 더해지면서 서구인이 특권적 관점을 가진해서 해체하고 동양의 맥락에서 타자를 구성한 뒤 서구로 투사하는 성찰의 개념으로 해석된다(Kikuchi, 2004).
  - 6) 몽골주도의 안정기에 동서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수도사, 외교사절, 탐험가, 상인 등의 경험과 관찰에 의해 동방은 실체를 드러낸다. 그러나 그들의 여행기록을 접할 수 있는 계층은 한정적이어서 일반인에게는 여전히 고대 이래 잔상으로 전해오는 문명과 야만이 혼재하는 미지의 세계, 기괴한 형상의 종족과 우상숭배가 유지되는 타자의 영역, 물질 풍요의 지상낙원이 자리한 이상향으로 인식되었다.
  - 7) 발가락이 뒤로 향한 사람, 구운 살코기 냄새와 과일 및 꽃의 향기로 살아가는 입 없는 사람, 1,000년을 사는 극북인, 콧구멍이 없고 입 윗부분이 아랫입술 쪽으로 튀어나온 사람, 개의 귀에다 이마에 외눈 달린 사람 등을 언급하였다.
  - 8) 크테시아스에서 플라니우스에 이르기까지 그리스와 로마의 작품에는 가슴이 없는 Amazons, 식인종족 Anthro-pophagi, 대척점에 사는 발이 반대로 달린 Antipodes, 머리가 없는 Blemmyae, 개의 머리를 한 Cynocephali, 검게 탄 Ethiopians 등 40여 종족이 확인된다(Phillips, 1994, 46-48).
  - 9) 인도에 Sciapodes, 피그미, 거인, 입 없는 사람, 사람의 머리 사자의 몸 전갈의 꼬리를 한 Martikhora, 유니콘, 스키타이와 인접 지역에는 말발굽 인간, 큰 귀 인간, 식인종, Hyperboreans, 그리핀과 싸우는 외눈박이 Arimaspians, 에티오피아에 Satyrs, 염소의 하체를 가진 Fauns, 긴 입술 인간, 어깨와 가슴에 머리를 가진 인간, 뱀의 왕 Basilisks 등이 그려진다(Wittkower, 1942, 174).
  - 10) 랭스 소재 생호미 수도원의 대수도원장 오도(Odo)가 작성한 문서와 출처불명의 또 다른 자료에는 교황 갈리스토 2세와 인도 대주교의 1122년 로마 모임이 기록되는데, 대주교는 원로원에서 성 도마의 기적과 사도의 권좌를 보호하고 있는 그리스도 권력자에 대해 강연하였고 미상의 자료에는 그의 신원을 대주교 요한(John of India)으로 밝혔다(de Rachewiltz, 1996, 62; Hamilton, 1996b, 237-238; Phillips, 2013, 46). 대주교가 사제 요한으로 알려진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 동양 먼 곳에 강력한 기독교도 통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의 보고를 통해 처음 알려진다.
  - 11)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네스토리우스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구분하여 429년 에페소스 공회에서 이단으로 파문당하고 페르시아, 인도, 중국 등지로 교세를 확장한다(de Rachewiltz, 1996, 61).
  - 12) 황제를 신처럼 떠받든 비잔틴에 적대적이었고 『알렉산더로망스』의 동양에 대한 전통적 관념이 투영되며 성서적 세계관이 다분한 점으로 미루어 라틴세계에서 의도를 가지고 조작한 위작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성로마제국의 프리드리히 1세가 교황 알렉산데르 3세와의 알력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제국으로 요한의 왕국을 가정하고 이를 선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날조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Hamilton, 1996a; Jackson, 1997, 426-427; Phillips, 2013, 46-48).
  - 13) 4세기에 대인도(India Major)와 소인도(I. Minor)가 언급되고 1118년의 피사노(G. Pisano) 문서에 3인도가 등장한다. 저베이스(Gervase of Tilbury, c.1150~1220)는 오바다 위경에 기대 바돌로매가 복음을 전한 상인도(I. Superior), 도마의 하인도(I. Inferior), 마태의 중인도(I. Meridiana)로 나누었다. 역대로 3인도는 근·소·상(Nearer·Lesser·Minor·Superior) 인도, 원·대·하(Further·Greater·Major·Inferior) 인도, 제3·중(Third·Middle) 인도로 나뉘고, 각각 북인도, 남인도 말라바르·코로만델과 동남아시아 일부, 에티오피아를 가리켰다. 모호했던 중인도는 대륙의 윤곽이 명확해지면서 혼란을 해소하는데, 근인도~원인도, 소인도~대인도, 상인도~하인도 사이가 아닌 유럽에서 인도로 가는 중간에 자리한다는 'Intermediate' India의 의미가 컸다. 한때 에티오피아가 홍해와 인도양 서부를 부분적으로 통제했던 것을 고려하면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Hamilton, 1996b, 239; Phillips, 1994, 30-31; de Rachewiltz, 1996, 73-74; Beckingham, 1996, 15-17).
  - 14) 현재 북인도는 굽타 왕조, 무굴 제국, 힌두교 성지, 부처 유적지로 중요하지만 유럽인에게는 문순을 이용해 아라비

아와 동아프리카의 항구에서 쉽게 닿을 수 있었던 남부가 더 친숙하다.

15) 플랑드르의 판 기스틀레(J. van Ghistele)가 집필한 *Tvoyage*(1490)에서도 맨더빌의 영향이 감지된다(Bejczy, 1994, 85-91). 1481년에서 1485년까지의 여행기록으로서 성지를 방문하고 사제 요한의 왕국으로 알려진 에티오피아를 찾아가는 모티프는 낯설지 않다. 베니스에서 베이루트행 선박을 타고 예루살렘에 성공적으로 도착하였지만 후반부 여정은 사정으로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역시 여행 중에 괴물인간을 찾으려 했고 직접 목격하거나 제보자들로부터 확신을 얻을 수 없었지만 에티오피아 인근 또는 인도 어디쯤엔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견지하였다.

16) 추기경 다이는 인도양이 내해라는 톨레미의 주장을 반박하며 남아프리카 인근의 대양이라 *Imago Mundi*에서 주장함으로써 포르투갈 탐험가의 인도항로 개척에 큰 영향을 미쳤다(Martin, 2005, 45).

17) 12세기 유럽은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세력에 대한 공포와 반감을 표출한 반면 사하라 이남은 환상의 창조물로 가득한 신화의 땅으로 상상하였다. 고전지리학의 영향으로 열대에 위치하여 삶이 불가하다 보았으나 에티오피아는 지상낙원으로 추정되었다. 기독교 국가로서 전설의 사제 요한이 통치하기 때문이다. 에티오피아인이 낙원에 산다고 믿은 것은 아니지만 그에 가깝게 자리한 것만으로도 은총이라 여겼으며, 언젠가 사제 요한과 연합해 사라센과 대적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전설은 15세기 이후까지 존속하며 아프리카의 이미지에 호의적으로 작용하였다(Duncan, 1993, 47-49).

18) 근대과학에서 여행과 탐험의 경험과 물적 증거가 이론 중심의 철학과 문학의 오류를 밝혔음에도 미개척 지역을 추론할 때에는 여전히 고전의 신화적 창조물이 등장하는데, 설령 발견이 고전의 해석을 전도하였더라도 성서적 관점은 경험적 발견의 해석을 통제하였다(Olesen, 2011, 130-135).

### 참고문헌

- 김호동 역, 2000,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세계절. (Marco Polo, 1938, *The Description of the World*, trans. A. G. Moule & P. Pelliot, George Routledge & Sons Ltd.)
- 김호동, 2002, 동방 기독교와 동서문명, 까치글방.
- 남종국, 2013, “사제 요한 왕국 전설의 형성,” 서양중세사연구, 32, 81-106.
- 남종국, 2014, “사제 요한 왕국을 찾아서,” 서양중세사연구, 34, 116-143.
- 박용진, 2014, “중세 말 유럽인들의 아시아에 대한 이미지와 그 변화,” 서양중세사연구, 33, 353-380.
- 성백용, 2010, “맨드빌의 『여행기』와 동양,” 동국사학, 49, 105-138.
- 성백용, 2011, “‘몽골의 평화’ 시대의 여행기들을 통해서 본 『맨드빌 여행기』의 새로움,” 서양중세사연구, 28, 197-229.
- 심승희, 2001, “문학지리학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13(1), 67-84.
- 윤기향 역, 2007, 황금전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de Voragine, J., c.1260, *Legenda aurea*.)
- 이영찬 역, 2003, 수수께끼의 기사, 생각의 나무. (Milton, G., 1996, *The Riddle and the Knight*, Picador.)
- 이은숙, 1992, “문학지리학 서설,” 문화역사지리, 4, 147-166.
- 정수일 역, 2002, 중국으로 가는 길, 세계절. (Yule, H. and Cordier, H., 1915, *Cathay and the Way Thither*, Vol. 1, Hakluyt Society.)
- 정수일 역, 2012, 오도릭의 동방기행, 문학동네. (Odoric of Pordenone, 2001, *The Travels of Friar Odoric*, trans. H. Yul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 정인철, 2010,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곡과 마곡의 표현 유형,” 대한지리학회지, 45(1), 165-183.
- 정인철, 2015, “『카탈루냐 아틀라스』의 동아시아 지리정보에 대한 연구,” 한국지도학회지, 15(2), 1-14.
- 주나미 역, 2014, 맨더빌여행기, 오롯. (Mandeville, J., 1900, *Travels of Sir John Mandeville*, Macmillan and Co.)
- Aerts, W. J., 1994, Alexander the Great and Ancient Travel Stories, in *Travel Fact and Travel Fiction*, ed. Z. von Martels, E. J. Brill, pp.30-38.
- Bar-Ilan, M., 1995, Prester John: Fiction and History, *History of European Ideas*, 20(1-3), 291-298.
- Beckingham, C. F., 1996, The Achievements of Prester John, in *Prester John: the Mongols and the Ten Lost Tribes*, ed. C. F. Beckingham & B. Hamilton, Variorum, pp.1-22.
- Bejczy, I., 1994, Between Mandeville and Columbus: *Tvoy-*

- age by Joos Van Ghistele, in *Travel Fact and Travel Fiction*, ed. Z. von Martels, E. J. Brill, pp.85-93.
- Bennett, J. W., 1954, *The Rediscovery of Sir John Mandeville*,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 Bormans, S., 1887, *Chronique et Geste de Jean Des Preis Dit D'Outremeuse*, Bruxelles, F. Hayes, Imprimeur de L'Academie Royale de Belgique, pp.cxxxiii-iv.
- Classen, A., 2013, Marco Polo and John Mandeville, in *Fundamentals of Medieval and Early Modern Culture*, ed. A. Classen & M. Sandidge, De Gruyter, pp.229-248.
- de Rachewiltz, I., 1996, Prester John and Europe's discovery of East Asia, *East Asian History*, 11, 59-74.
- Desmond, M., 2009, The Visuality of Reading in Pre-Modern Textual Cultures, *Australian Journal of French Studies*, 46(3), 219-234.
- Duncan, J., 1993, Sites of Representation: Place, Time and the Discourse of the Other, in *Place/Culture/Representation*, ed. J. Duncan & D. Ley, Routledge, pp. 39-56.
- Duncan, J. and Gregory, D., eds., 1999, *Writes of Passage: Reading travel writing*, Routledge.
- Edson, E., 2007, *The World Map, 1300-1492*,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Fleck, A., 2000, Here, There, and In Between, *Studies in Philology*, 97(4), 379-400.
- Flint, V. I., 1994, Travel Fact and Travel Fiction in the Voyages of Columbus, in *Travel Fact and Travel Fiction*, ed. Z. von Martels, E. J. Brill, pp.94-110.
- Foucault, M., 1977[1963], A Preface to Transgression, in *Michel Foucault: Language, Counter-Memory, Practice*, ed. and trans. D. F. Bouchard & S. Simon, Cornell University Press, pp.29-52.
- Friedman, J. B., 1994, Cultural conflicts in medieval world maps, in *Implicit Understandings*, ed. S. B. Schwartz,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64-95.
- Gaunt, S., 2009, Translating the Diversity of the Middle Ages, *Australia Journal of French Studies*, 46(3), 235-248.
- Hamelius, P., 1919, *Mandeville's Travels*, Vol. II: Introduction and Notes, Kegan Paul, Trench, Trubner & Co., Ltd.
- Hamilton, B., 1996a, Prester John and the Three Kings of Cologne, in *Prester John*, ed. C. F. Beckingham & B. Hamilton, Variorum, pp.171-185.
- Hamilton, B., 1996b, Continental drift: Prester John's progress through the Indies, in *Prester John*, ed. C. F. Beckingham & B. Hamilton, Variorum, pp.237-269.
- Helms, M. W., 1988, *Ulysses' Sail*,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iggins, I. M., ed., 2011, *The Book of John Mandeville with Related Texts*, Hackett Publishing Co. Inc.
- Hill, M., 2000, 'Asian values' as reverse Orientalism: Singapore, *Asia Pacific Viewpoint*, 41(2), 177-190.
- Jackson, P., 1997, Prester John redivivus: a review article,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Series 3, 7(3), 425-432.
- Kikuchi, Y., 2004, *Japanese Modernisation and Mingei Theory*, Routledge Curzon.
- Larner, J., 2008, Plucking Hairs from the Great Cham's Beard, in *Marco Polo and the Encounter of East and West*, ed., S. C. Akbari & A. Iannucci, University of Toronto Press, pp.133-155.
- Le Goff, 1984, *The Birth of Purgatory*, trans. A. Goldhamm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tts, M., 1953, Introduction, in *Mandeville's Travels, Texts, and Translations*, Hakluyt Society, xvii-l.
- Mallory, W. E. and Simpson-Housley, P., eds., 1987, *Geography and Literature: A Meeting of the Disciplines*, Syracuse University Press.
- Mancall, P. C., ed., 2006, *Travel Narratives from the Age of Discovery*, Oxford University Press.
- Martin, G. J., 2005, *All Possible Worlds*,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 Martin, H-J. and Febvre, L., 1976, *The Coming of the Book*, trans. D. Gerald, Verso.
- Moseley, C., 1974, The Metamorphoses of Sir John Mandeville, *Yearbook of English Studies*, 4, 5-25.
- Moseley, C., 1981, Behaim's Globe and 'Mandeville's Travels', *Imago Mundi*, 33, 89-91.
- Moseley, C., 2005, *The Travels of Sir John Mandeville*, Penguin Books.
- Moseley, C., 2015, *The Travels of Sir John Mandeville and*

- the Moral Geography of the Medieval World, *Portal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International Studies*, 12(1).
- Northrup, D., 1998, Vasco da Gama and Africa: An Era of Mutual Discovery, 1497-1800, *Journal of World History*, 9(2), 189-211.
- Nunn, G. E., 1924, *Geographical Conceptions of Columbus: A Critical Consideration of Four Problems*,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Research Series No. 14.
- Olesen, J., 2011, The Persistence of Myth: Written Authority in the Wake of New World Discovery, *Canadian Review of American Studies*, 41(2), 129-148.
- Phillips, K. M., 2013, *Before Orientalism: Asian Peoples and Cultures in European Travel Writing, 1245-1510*,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Phillips, S., 1994, The outer world of the European Middle Ages, in *Implicit Understandings*, ed., S. B. Schwartz,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3-63.
- Powell, J. M., 1977, *Mirrors of the New World*, Dawson.
- Seymour, M. C., 1993, *Sir John Mandeville*, Variorum.
- Sobecki, S., 2002, Mandeville's Thought of the Limit, *Review of English Studies*, 53(3), 329-343.
- Souers, P. W., 1956, Review: The Rediscovery of Sir John Mandeville by Josephine Waters Bennett, *Comparative Literature*, 8(2), 161-164.
- Speer, M. B., 1980, Wrestling with Change: Old French Textual Criticism and *Mouvance*, *Olifant*, 7(4), 311-326.
- Tinkle, T., 2014, God's Chosen Peoples: Christians and Jews in *The Book of John Mandeville*,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ic Philology*, 113(4), 443-471.
- True, D. O., 1954, Some early maps relating to Florida, *Imago Mundi*, 11, 73-84.
- Uebel, M., 2005, Appendix: Translation of the Original Latin Letter of Prester John, in *Ecstatic Transformation*, Palgrave Macmillan, pp.155-160.
- von Martels, Z., 1994, Introduction: The eye and the mind's eye, in *Travel Fact and Travel Fiction*, ed. Z. von Martels, E. J. Brill, pp.xi-xviii.
- Weever, J., 1767[1631], *Ancient Funeral Monuments*, W. Tooke.
- Wittkower, R., 1942, Marvels of the East: A Study in the History of Monsters,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s*, 5, 159-187.
- Wixted, J. T., 1989, Reverse Orientalism, *Sino-Japanese Studies*, 2(1), 17-27.
- Zumthor, P., 1992[1972], *Toward a Medieval Poetics*, trans. P. Bennett, Minnesota University Press.
- Zumthor, P., 1994, The Medieval Travel Narrative, *New Literary History*, 25(4), 809-824.
- 교신: 홍금수,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kshong85@korea.ac.kr, 전화: 3290-2366)
- Correspondence: Hong, Keumsoo,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Korea(e-mail: kshong85@korea.ac.kr, phone: +82-2-3290-2366)
- 최초투고일 2018. 7. 24  
수정일 2018. 8. 7  
최종접수일 2018. 8. 19

## 마주신 사례를 통해서 본 타이완 민속종교경관의 영적 치유로서의 의미

박수경\*

### The Meaning of Folk Religious Landscapes in Taiwan As Spiritual Healing Through a Case Study of the Goddess of Mazu

Sookyung Park\*

**요약** : 비록 마주신앙은 중국의 송나라 때부터 신격화된 여성을 모티브로 한 도교, 불교, 유교, 애니미즘 등을 아우르는 민속종교이지만, 영험함, (피보다 진한) 인간관계, (평화적) 하나됨 등을 통해 타이완인의 삶과 정서를 어루만져주는 영적 치유의 힘을 갖고 있는 타이완의 대표적 종교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마주신 사례를 통해 타이완 민속종교경관의 영적 치유로서의 의미가 어떻게 구체화되어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참여관찰법과 심층 및 반구조화인터뷰를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주신앙의 영적 치유의 의미는 마주신과의 직간접적인 영험한 대화와 체험을 통해 드러난다. 다시 말해, 단순한 기도 수준을 뛰어넘어 일종의 점을 치는 행위, 신비스런 힘이 있다고 믿는 자연물(특히, 물)을 활용한 방법, 특히 지통(乩童: Jitong)이라 불리는 샤먼과 믿는 이들 사이에서의 특별한 대화와 의식 등으로 구체화된다. 둘째,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 하더라도 ‘의(義)’를 중시하는 마주신의 뜻을 따라 믿음을 같이 하는 이들은 ‘의자(義子)’와 ‘의녀(義女)’로서 피보다 진한 연결망(혹은 인간관계)을 구축하고 있으며, 서로를 끈끈하게 지지하고, 협력하는 양상을 보인다. 각 마주사원은 마치 농촌의 공동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돌봄과 관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은 마주신 순례 기간에는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비록 마주신앙의 순수성이 정치, 경제 등의 종교 외적인 것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변질되기도 하지만, 극도로 민감한 양안관계를 단숨에 녹이는 힘으로 발휘되기도 한다. 마주신을 중심으로 타이완과 중국 본토 신앙인들의 공존과 단합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궁극적인 평화에 도달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마주신이 ‘바다의 여신’이라는 이름 대신 ‘평화의 여신’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주요어** : 마주신, 민속종교, 영적 치유, 치유의 경관, 타이완

**Abstract** : Even though the Goddess of Mazu as one of the folk religions, which includes Taoism, Buddhism, Confucianism, and Animism, has been originated from a deified woman since the Song Dynasty, China, it is a representative religion in Taiwan, which has the power of spiritual healing, and encourages a lot of Taiwanese' life and emotion through supernatural powers, human relationships based on 'thicker than blood', and peaceful oneness. With this in mind, the goal of this research examines the matter as to how the meaning of folk religious landscapes as spiritual healing in Taiwan is materialized through a case study of the Goddess of Mazu; furthermore, this research arrives at considerable results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depth/substructured interview. The results are as in the following. First, the meaning of spiritual healing in the belief of Mazu is materialized by direct/indirect supernatural communication and experiences with the Goddess of Mazu beyond general prayers. In other words, it embodies in telling fortunes, utilizing natural

\* 상명대학교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Sangmyung University), maria1570@smu.ac.kr

objects, which have miracle powers (in particular, water), and communicating and performing a holy ceremony between Jitong as a shaman and believers. Second, even though the believers of Mazu have never met before, they as the 'sons/daughters of justice' have strong human networks (or human relationships) based on thicker than blood obeying the will of the Goddess of Mazu who puts emphasis on the justice. Also, they show the supportive and cooperative appearance each other adhesively. Furthermore, each Mazu temple provides caring and interests like the emotion in rural areas to the believers of Mazu; such community spirit and solidarity are expanded to a wider level much more during the pilgrimage seasons. Lastly, even though the purity of the Mazu belief influences on/is influenced by external conditions such as politics and economics and is occasionally faded in its meaning, the Goddess of Mazu exposes the power that melts the Cross-Strait Relations as the strained/uneasy relationships. The coexistence and cooperation of the believers between China and Taiwan are related to the direction, which arrives at the ultimate peace, beyond the political ideology. In this sense, the Goddess of Mazu is regarded as the Goddess of Peace instead of the Goddess of Sea.

**Key Words** : the Goddess of Mazu, folk religions, spiritual healing, therapeutic landscapes, Taiwan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들은 폭풍을 맞았고, 8척 중 7척이 침몰했다. 돛대 꼭대기에 빨간 불빛이 깜빡였는데, 알고 보니 빨간 옷을 입은 여신이 앉아있었다. 즉시 모든 것이 진정되었고, 그 배는 구석으로 인도받았다. 푸젠성 출신의 한 사람이 마주신이 그들을 구해줬다고 말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을 멈추지 못했다...” - 마주신 신화 중에서 -

마주(媽祖: Mazu)는 송나라 초 오늘날의 푸젠성(福建省: Fujian) 지역에서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점치던 무녀 린모낭(林默孃: Lin, Mo-niang)이라는 이름의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하는 ‘바다의 여신’이다(김인희, 2001; 편집부, 2006; 상기숙, 2011). 린모낭이 죽은 후 몇 차례 나타난 상서로운 징조와 살아생전 그녀의 영험한 기운을 경험했던 당시의 사람들이 그녀를 기억하며 제를 지내기 시작했고, 긴 시간에 걸쳐 신이라는 존재로 자리를 잡았다. 마주신앙은 오늘날 중국의 해안지역, 일본의 오키나와, 우리나라의 제주도,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심지어 오스트레일리아의 일부까지 넓게 퍼져 있다. 비록 도교, 유교, 불교

및 애니미즘적 요소가 결합한 타이완의 대표적인 민속종교이지만, 그 독특한 의식과 상징성은 믿는 이들의 내적 성장과 외적 연대 및 결속, 다시 말해서 영적 치유로 승화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주신의 사례를 통해 타이완의 민속종교경관의 영적 치유로서의 의미가 어떻게 구체화되어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요구된다. 이는 첫째, 치유의 경관, 특히 영적(혹은 종교적) 치유의 경관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영적 치유의 본질은 건강한 ‘애착(English *et al.*, 2008)’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셋째, 치유의 경관에 관한 지리학적 담론은 타이완의 민속종교, 혹은 마주신앙에서도 발견되는가? 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질문은 Gesler(1993, 1996), Geores(1998) 등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영적 치유 경관의 핵심적 특징은 시공간을 꿰뚫는 삶의 의미, 신화적 요소, 서로를 따뜻하게 보듬고 지지하는 인간관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더욱이 오늘날 치유의 의미가 공식적인 것에서 비공식적, 대체의학적, 자기주도적 등의 방식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해 볼 때, 영적 치유의 경관은 새로운 시선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는 연구주제임을 가늠할 수 있다(Andrews, 2003; Parr,

2003; Milligan and Power, 2009).

두 번째 질문은 최근 치유의 경관에 대한 경향, 즉 돌봄(caring)에서 찾아볼 수 있다(Bell *et al.*, 2018). 최근 치유의 경관에 대한 지리학적 접근에서 두드러지는 경향 중 하나로 치유와 관련된 상징, 교훈, 의미 등을 강하게 품고 있는 특정 장소에 대해 다루는 것보다 그 안에서의 관계성 혹은 앞서 언급한 건강한 애착을 알아보는 것에 무게를 둔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인간적·비인간적 요소 및 개인의 상상력과 기억력까지 포함하는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와 관련된 정신치유요법(psychotherapeutic), 그리고 단순한 치료를 뛰어넘어 정서적 유대에 기초한 임상간호(clinical nursing)로까지 확대되어 다뤄지고 있다(Andrews, 2004; Andrews *et al.*, 2004; Conradson, 2005; Rose, 2012). 이러한 변화는 영적 치유 경관이 이미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과 연결되어 드러나기도 한다.

마지막 질문은 인본주의지리학의 선구자인 Tuan (1976)이 언급한 바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가 '종교는 지루한 일상이 가지고 있는 틀의 졸음을 해체하는 의식(Tuan, 1976; 박수경, 2016)'이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신성한 장소에서의 치유는 자신의 내면과, 지인내지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인간 존재의 미비함에 대한 자각과 겸손을 일렁이게 하는 전능한 신 혹은 대자연과의 만남이며, 타이완의 민속종교, 더 구체적으로 마주신앙에서도 여타 종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성함이 강하게 드러난다. 다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독특한 의식과 의례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세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선행연구에서는 지리학에서 영적 치유와 관련된 연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오늘날 치유의 경관에 대한 담론 중 하나의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돌봄과의 이것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서술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마주신앙이 중국의 푸젠성 일대에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타이완에서 주요한 신앙으로 자리를 잡고, 확산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서는 참여관찰법과 심층 및 반구조화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1) 영험함, 2) (피보다 진한) 인간관계, 3) (평화적) 하나됨으로 나눠 살펴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토론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타이완인들에게 민속종교가 어떤 의미인지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치유의 경관에 관한 의료지리학적인 담론뿐만 아니라, 종교지리학에서도 영적 치유라는 주제를 풍부하게, 심지어 때때로 강력히 촉구되어 다루는 반면(Kong, 2010), 우리나라에서는 그 누적적 결과를 찾아보기 힘들다(박수경, 2016). 또한 타이완이라는 국가에 대한 지역지리적 접근, 특히 마주신앙에 대한 지리학적 접근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치유의 경관, 종교지리학, 타이완의 지역지리를 아우르며 다양한 관점을 하나로 녹여낸 혼종적 연구의 결과로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참여관찰법과 심층 및 반구조화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참여관찰법을 위해서 타이베이시(臺北市: Taipei-Shi)의 룡산스(龍山寺: Lungshan Temple), 티안후우궁(天后宮: Tianhou Temple), 타이안궁(泰安宮: Taian Temple), 신베이시(新北市: Xinbei-Shi)의 츠우회이궁(慈惠宮: Cihui Temple), 타이중(臺中: Taizhong) 따지아시(大甲市: Dajia-Shi)의 전란궁(鎮瀾宮: Jennlann Temple), 타이난(臺南: Tainan) 타이난시(臺南市: Tainan-Shi)의 따티안후우궁(大天后宮: Datianhou Temple) 등의 마주사원 6곳을 각각 최소 1회 이상 방문해 마주신앙을 믿는 이들이 어떻게 고유하고, 특별한 신앙적 의식과 의례를 행하는지,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일상적 수준에서부터 특별한 행사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2018년 7월 12일 타이안공에서 있었던 마주신앙의 샤먼인 지통(乩童: Jitong)과 신자 사이의 영험한 대화를 참여관찰한 것은 일상적 수준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함이었으며, 2018년 3월 2일부터 열린

타이중마주국제축제(Taichung Mazu International Festival) 기간에 타이중 따지아시의 찢란공을 방문해 축제 및 순례의 사전 준비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여하는 이들의 태도는 어떤지 등을 알아본 것은 특별한 행사 수준의 의식 및 의례, 그리고 관계 형성의 특징 등을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심층 및 반구조화인터뷰는 타이베이시의 티안호우공과 타이안공에서 실시했으며, 남자 3명, 여자 8명을 대상으로 최소 5분에서 최대 1시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언어를 구사하기 힘든 한계가 있어 통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더불어 사전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한계로 비록 마주신앙을 최소 5년 이상 믿고 있는 신앙인을 대상으로 판단표본추출(judgement sampling)을 통해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이들 중 마주사원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 앞서 언급한 마조신앙의 샤먼인 지통, 마주사원의 사회적 관계망을 끄는 최고 고령자, 30~40년 이상 마주신을 믿고 있는 신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된다. 인터뷰 대상자를 11명으로 정한 것은 앞서 언급한 본 연구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터뷰 결과의 다양성이 드러나지 않는 시점에 근거한 판단 결과이기도 하다. 주요 질문은 일상적 수준에서부터 특별한 그것까지의 신앙적 의식과 의례, (영적) 치유의 의미(Gesler, 1996; Love *et al.*, 2012), 문화·정치·경제 등의 타이완 사회문화적 요소와 마주신앙의 연결성 등에 기초한 내용이다. 또한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 혹은 후에 인터뷰 대상자에게 인터뷰 내용의 기록에 대한 동의를 얻는 과정도 빠지지 않고 거쳤다.

심층 및 반구조화인터뷰 내용은 비횡단적자료정리(non-cross-sectional data organization)를 통해 분석했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1) 영험함, 2) (피보다 진한) 인간관계, 3) (평화적) 하나됨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는 자료의 부분이나 요소가 서로 차별성을 보일 때, 자료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부분적으로 접근해야할 경우, 자료의 성질이 특수하고 구체적인 특징이 있어 자료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지 않는 상황 등에서 사용하는데(이중권, 2003), 본 연구의 심층 및 반구조화인터뷰 결과가 이러한 경우

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횡단적자료정리 방식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에 관한 표기는 성별, 연령대에 근거하고 있다. 더불어 통역에 근거해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는 직역 대신 의역한 내용을 토대로 한다. 추가적인 보충자료로 일반(타이완)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에 대한 인식도 본 연구에 포함하였음을 밝힌다.

## 2. 지리학에서의 영적 치유에 관한 담론

1990년대 초반 의료지리학의 소위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은 관련 연구자들에게 신선한 것이었다(Gesler and Kearns, 2002). 이로 인해 의료에 대한 지리학적 접근은 건강과 관련된 체형 혹은 제공이 일어나는 특정한 지리적 범주의 문화적 신념과 실체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되었고, 의료의 관점에서 소비주의, 차이성, 묘사 및 서술, 구조 혹은 조직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한층 더 부각되었다. 1992년 미국의 지리학자 Gesler가 치유의 경관(therapeutic landscapes)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Therapeutic landscapes: medical geographic research in light of the new cultural geography’는 이러한 배경 속에 이전과 확연히 다른 의료지리학에 대한 고찰을 더욱 부추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Gesler, 1992). Gesler(1993)는 치유의 경관을 치료 혹은 치유와 관련된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포괄하는 장소(place), 배경(setting), 상황(situation), 현장(locale), 환경(milieu) 등으로 규정하고, 물리적, 정신적, 영적 치유의 지속성이 상당 기간 동안 검증되거나, 그 효험이 많은 사람에게 의해서 입증된 일정한 지리적 범위로 정의했다(Gesler, 1993; Williams, 1998).

1992년 이래로 치유를 둘러싼 지리학적 접근은 약 반세기 조금 못 미치는 시간 동안 변화무쌍하게 발전했고,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의료지리학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충실히 답변해왔다. 구체적으로 치유의 경관 초기 연구는 주로 ‘(시간의 확장을 뛰

어넘어)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가치, 사회적 행태, 개인의 활동 등을 집약하는 것'에 중심을 두었고, 신성한 유적지에서의 감정적 일렁임과 치유와의 관계(Gesler, 1993), 온천 및 신성한 물에 관한 연구(Geores, 1998), 인디언과 같은 특정 집단의 치유의 특징(Wilson, 2003) 등이 이의 대표적인 저작으로 회자되고 있다. 흥미를 끄는 사실은 대개 영적 치유와 상당한 관련성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영적 치유를 둘러싼 종교 및 유적지, 기적을 일으킨다는 장소 등의 논의들은 한마디로 '신 혹은 절대적 존재와의 상징적, 의미적, 내재적인 끊임 없는 대화, 그리고 실체가 없는 존재를 대신하는 누군가의 관심, 애정, 호혜, 더 나아가 희생과 돌봄으로 수렴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가 종교 혹은 신성한 장소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핵심적 치유를 자극시키는 요소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후자에서 지칭하는 누군가는 단순히 종교에 몸을 담고 있는 수행자 혹은 수도자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친절한 직원, 헌신적이며, 열려 있는 봉사자, 같은 목적으로 그곳에 머물고 있는 장기체류자 혹은 잠시 인생의 숨을 고르기 위한 단기방문자 등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Gesler, 1993; Gesler, 1996; Wilson, 2003; 박수경, 2016).

한편,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전통에 변화의 조짐이 서서히 나타났고, 현재는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곳에서의 애착 혹은 관계성, 이 둘을 요약하자면 돌봄(혹은 보살핌)을 알아보는 것으로 그 경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Bell *et al.*, 2018). 다시 말해, 이러한 돌봄이 전통, 사회, 국가, 공동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혹은 지속적인 건강한 신체, 정신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등을 탐구하는 것이 치유의 경관에 관한 새로운 관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Andrews, 2004; Gastaldo *et al.*, 2004; Conradson, 2005; English *et al.*, 2008; Rose, 2012; 박수경, 2014; 박수경, 2017). 여기서 말하는 돌봄은 물질적인 만남, 기억, 갈망과 욕망, 정신적 내면화된 경험, 일생을 걸친 의미 있는 의식 혹은 무의식의 공감 등(Rose, 2012)으로 확장된 것을 의미하며, 치유 혹은 더 좁혀 누군가의 돌봄의 본질은 실

용적이면서 실체적인 면을 뛰어넘어 감정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흐름 혹은 복잡한 네트워크까지 아우른다는 사실을 기본으로 한다(Kearns and Gesler, 2002; Parr, 2003). 이런 의미에서 종종 치유의 경관에 관한 애착 및 관계성, 결국 돌봄에 대한 논의는 심리치료적 접근방법 및 임상간호학과 연결—더 포괄적으로는 대체의학(CAM: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되어 드러난다(Andrews, 2004; Andrews *et al.*, 2004; Gastaldo *et al.*, 2004; Conradson, 2005; Rose, 2012; 박수경, 2017).

심리치료적 접근방법은 Conradson(2005)과 Rose(2012)의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들의 견해는 '인식 및 상상력을 통한 특정한 지리적 범위 혹은 구체적으로 특별한 경관과의 만남은 물리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체험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건강을 향상시키고, 잘 산다는 느낌을 유지하게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Willis, 2009; Rose, 2012). 같은 맥락에서 치유의 경관은 반드시 실제적인 시간과 물리적 공간에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가정, 다시 말해 오히려 정신에 의해 창조되고, 마음에서 떠오르는 그것까지 포함한다는 논리와 연결된다.

이런 배경에서 Conradson(2005)은 시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억과 상상력을 연결하는 존재로 관계적 자아의 개념을 활용했으며, 이는 실제적인 것을 포함해, 비실체적인 복잡하면서도 다차원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Conradson, 2005). 역동적인 관계적 자아와 경관 혹은 특정한 지리적 범주는 마음, 신체, 혹은 전인적인 모든 것의 안정적인 관계의 형성과 재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Rose, 2012). 또한 상상력과 기억력을 통해 마음에서 떠오르는 모든 형상은 초기의 심리치료적 방법에서 종종 활용되는 애착과 친숙함의 형성과 연관성을 가진다(Conradson, 2005).

그의 연구에 첨언해 Rose(2012)의 결과에서는 관계적 자아를 정신화(mentalizing: 일종의 마음속에서 이미지를 떠올리는 작업이며, 주로 기억력과 상상력과 관련성을 지님) 관점에서 해석했으며, 이는 감정적인 인식을 얼마만큼 자각할 수 있는지의 개인적 능력

과 연결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는 특정한 개인이 현실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스스로 혹은 타인의 행동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의 능력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Rose, 2012). 이러한 과정은 자아의 능력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궁극적으로 삶을 더 나은 수준으로 이끌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Rose, 2012). 결국 자신의 시공간을 돌아보는 혹은 상상력을 가미해 반추하는 행위는 일종의 무의식과의 대화이며, 과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재현하는 행위가 된다(Andrew, 2004).

한편, 임상간호학적 접근은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의료진-환자 사이에서의 관계를 뛰어넘는 그 무엇으로 정의되는 것으로 간호학적 실무에 있어 치유를 받는 특정 지리적 범위의 재구조화와 현대 보건의서비스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해 최근 더 강조되는 내용이다(Andrews, 2004; Andrews and Evans, 2008). Andrews(2004)는 선도적인 임상간호학에 지리학적 관점을 접목시켜 대인 관계에 있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식, 예를 들어, 듣기, 쓰기, 설명, 피드백, 일치, 격려, 반성, 회상 등도 치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은 현대의학에서 드러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근대의료개혁의 선구자인 Florence Nightingale은 이미 건전한 관계성에 바탕을 둔 미시적 수준의 치유 환경의 형성—의료진과 의료수혜자 사이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라는 의미에서—및 의료 환경에서의 사회적 상호 작용에 대해 이미 언급했었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잇는 (마음의) 다리를 구축해주고,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심리적인 지지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혹은 정신적 휴식을 돕는 일종의 잠재적인 고통에 대한 중재적 기능으로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특징을 갖는다(Andrews, 2004). 그렇기 때문에 임상간호학적 보살핌은 본질적으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혹은 정서적인 실체와 관련이 있으며, 보통은 의료기관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지리적 범주의 공공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독점적인, 혹은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도 해석되곤 한다(Miligan, 2003).

결국 치유라는 것은 네트워크이면서도, 물리(신체)적인 것, 정서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호혜, 관용, 사랑 등의 형이상학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를 한다는 것 혹은 치유를 받는 경험은 '물리적인 것보다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심리적, 정서적, 감정적으로 건강한 애착 및 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와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 치유의 경관과 관련된 연구가 왜 점점 돌봄 혹은 보살핌이라는 경향을 반영해 그 방향성을 전환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발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도 바로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초기 직간접적인 영적 치유의 연구 경향은 오늘날의 관점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본 연구와 관련해 새롭게 해석할 수 있을까? 사실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연구의 경향이 이전에도 완전 무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학문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채 묻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기 영적 치유에 관한 대표적인 결과물인 Gesler(1996)의 연구에서 그는 대표적인 가톨릭 성지인 프랑스의 Lourdes의 사례를 통해 상상력과 기억력에 기초한 믿음을 통한 기적과 그곳에서 다양하게 이뤄지는 인간관계—그의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휴먼네트워크—에 중점을 두고 그곳에서 영적 치유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설명했다(Gesler, 1996). Lourdes에 들어가는 입구에 기적을 체험했음을 상징하는 수많은 목발이 걸려 있는 조형물이라던가, 오늘날의 Lourdes가 성지로 변모하게 된 계기가 된 성모 마리아가 발현한 동굴 등은 감동, 깨달음, 영감 등과 직접적인 연결성을 갖는다.

하지만 Lourdes에서 하는 믿음의 표현과 예식이 일상의 가톨릭 성당에서 하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것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에 영향을 받으며, 혹은 영향을 주는, 궁극적으로 서로 같이 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Gesler, 1996; 박수경, 2016). 성지순례를 본격적으

로 시작하기 전부터 Lourdes를 방문했던 경험자들의 스토리텔링과 감동, Lourdes에서 만난 상냥한 직원들과 자신의 모든 것을 성숙하게 내려놓은 전 세계에서 모인 자원봉사자, 특히 Lourdes에서 기적의 체험을 위해 모인 환자들을 휠체어, 이동식침대 등을 통해 기꺼이 성지순례가 원활하도록 돕는 그들의 모습, 오랜 기간 동안 Lourdes에 머물고 있는 장기체류자 및 그 순간, 그 장소에서 짧게 만난 스쳐지나가는 이들 모두가 기적의 체험이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열려 있고, 마음 속 깊이 응원하며, 누군가를 뜨겁게 보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열린 관계는 치유의 힘으로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영적 치유는 내재적으로 자연물 및 인공물, 또는 이것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시각적이며, 물리적인, 실제적인 은유(metaphor)를 통한 깨달음, 영감, 홀연히 떠오르는 무엇-결국에는 비물질적인 것과 연결되는-과 함께 돌봄에 기인하는 관계성을 통해 치유에 이르는 힘이 구체화된다 정리할 수 있으며 (Gesler, 1996; 박수경, 2016), 이는 오늘날 치유의 관점에서 핵심적으로 언급되는 내용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3. 영적 치유의 경관으로서 타이완에서의 마주신앙 형성 과정

앞서 짧게 언급한 것처럼, 마주신앙은 현재 중국의 푸젠성에서 960년부터 987년까지 실존했던 무녀를 신격화한 것을 기원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타이완의 대표적인 민속종교이다(Kuo, 2008). 이처럼 특정 지역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신봉되던 민속종교가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사적 특징부터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옛 중국에서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포섭, 통치, 부각하는 경우에 그 지역에 퍼져 있는 종교를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마주신도 이러한 과정에서 더

욱 확산되고, 종교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Lin, 2015). 오늘날 푸젠성 인근에서 시작된 마주신앙은 긴 시간 타이완섬으로의 이주, 타이완섬 내에서의 정착 및 확산 등의 주요한 과정을 거치면서 대중적인 종교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 역사는 다음과 같이 몇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청나라가 지배하던 때 대거 이민과 맞물린 가족 중심의 고립적 믿음(isolated belief) 단계를 들 수 있다(Kramer and Wu, 1970). 당시 대개 가족을 중심으로 이민 단위가 결정되었으며, 한 가족은 자신이 믿는 신을 모시고 타이완섬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민 초기 정착민들 사이에서의 갈등, 현지인들의 적대감, 무엇보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곳에 시작하는 두려움 등을 오랜 기간 동안 믿어왔던 신앙 속에서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양신으로 추앙받는 마주신이 크게 신봉 받는 이유는 당시 청나라와 타이완섬 사이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배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전과 번영을 기원하고, 의탁할 수 있는 존재로 마주신의 탄생 배경 및 설화가 가장 적합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이민 정착 후 안정기에서 나타나는 이웃 종교와의 통합(syncretism of another folk religions)의 단계이다(Kramer and Wu, 1970). 사실 가족 중심의 고립적인 믿음 형태는 주변 사람들의 몰이해, 질투, 혹은 때때로 갈등 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관심의 방향이 외부로 향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가족과 연합하게 되었고, 타인이 믿는 종교에 대해 관용(tolerance)의 정신을 발휘해 서로가 서로를 허용하며, 포섭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었다.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종교적 측면의 교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고, ‘확장된 가족 혹은 혈연 공동체’로서의 관계적 성격을 띠는 사실과 연결된 것이었다(Lin, 2015).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주신을 비롯한 타이완의 민속종교 사원을 방문하면 여러 신이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관련성을 가진 특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변영의 시기만 지속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또한 머지않아 일제통치 하의 제국주의에 반

대하는 종교적 결속(religious consolidation) 단계를 거쳤다(Kramer and Wu, 1970). 일본은 이 당시에 타이완섬을 일본화하기 위해 강력히 민속종교와 관련된 활동을 금지했었고, 종교적으로 의미가 깊은 기념일 혹은 이와 관련된 축제는 철저히 감시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억압과 탄압은 오히려 믿는 이들 사이에서의 결속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민속종교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외부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농촌 중심의 공동체 문화가 더욱 강조되었고, 민속종교가 큰 구심점으로 역할을 했었다. 아직도 타이완의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지역의 어르신, 연장자, 엘리트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민속종교 운영위원회가 관찰되는데, 이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맥락과 관련성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안정화, 미국의 보호 하에 빠르게 달성한 경제성장, 서민층 확장으로 인한 민속종교의 번영 단계를 들 수 있다(Kramer and Wu, 1970; Chang, 2017). 물론, 1940년대 후반부터 1987년까지 타이완 전역에 내려진 계엄령<sup>1)</sup>과 도시화와 산업화 등으로 민속종교의 세력 확산이 주춤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다수의 평화와 안녕을 추구하는 보편종교와 달리 민속종교는 개인의 번영, 건강, 가족의 행복, 무엇보다 경제적 풍요 등의 지극히 사적이고, 세속적인 요소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이어온 앞서 언급한 피보다 진한 확장된 가족 혹은 혈연 공동체가 도시 생활에서도 그대로 이어오고 있었으며(Lin, 2015), 특정 지역의 정치 및 경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 확산이 빠르게 나타났다(Kuo, 2008).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주신앙도 주요한 타이완의 대표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 600만 명 정도가 그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마주신앙은 무시할 수 없는 타이완의 민속종교임은 분명하다(Kuo, 2008). 또한 마주신에 대한 믿음은 타이완에도 존재하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의 보편종교를 뛰어넘는 사람들의 염원이 강렬히 응집된 결정체이다. 이러한 특징은 일상적 수준의 믿음과 의식, 때때로 마주신 탄생일 즈음에 열리는 대대적인 행사, 대표적으로 타이중 따지아시의 마주신축제와 성지순례

혹은 개별 마주사원의 신도들이 본사원으로 마주신상을 모시고 가는 연례행사, 해안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주신 문화 혹은 더 나아가 타이완의 정치, 경제, 외교, 교육 등의 부문과의 관련성 등에서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믿는 이들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비신자들의 그것에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 4. 마주신앙에 있어 영적 치유의 구체성

### 1) 영험함

마주신앙에 있어 치유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발현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답변에 믿는 이들은 입을 모아 ‘영험함’을 언급했다. 특히, 마주신을 처음 믿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영험함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 신체의 이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마주신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한 이후 이 종교를 선택하거나, 자신의 경험은 아니지만 제 3자가 경험한 것을 직접 보거나 혹은 들은 후 신자가 된 경우도 적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물론, 마주신과의 특별한 체험이 아니더라도 우연한 기회에 신앙을 믿게 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종의 소명, 즉 마주신의 부름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대개였다. 또한 이들은 마음이 편안하고, 무사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능력도 마주신의 은혜와 연결된다고 언급했다.

“원래 나는 불교였습니다. 언젠가부터 몸이 많이 아팠는데, 마주신을 믿은 후부터 아픈 것이 사라져 개종을 하였습니다...(중략)...우리 아이들은 회사에 다녀서 사원에 잘 못 오지만, 가족 모두가 사원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아픈 것이 나은 이후로 이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50대, 여)

“(오랜 기간 마주신을 믿어 온) 다른 신자분이 나를 대신해 마주신께 기도를 드렸고, 그 이후에 다리가 아픈 것이 나았습니다. 시먼(역이름)(西門:

Ximen)에서 이 사원까지 10분이면 오는데, 나는 1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70대, 여)

“예전부터 사원에 와서 (기도)불을 피우거나 하는 일들은 자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습시다. 은퇴를 하고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부인이 마주사원의 일을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지금 7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마주신이 나를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불러서 내가 이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원에서 여러 신비한 경험을 보면서 마주신에 대한 믿음이 커졌습니다…(중략)…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일을 한 이후에 마음이 더 편해진 것 같다고 느낍니다.” (60대, 남(마주사원 사무장))

마주사원에 들어서면 몇 단계의 의식을 하게 되는데, 이는 입구 혹은 중앙에 위치한 향로에서 향을 피우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옥황상제에게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향을 들고 마주신, 불멸의 물의 신, 용왕, 마주신의 부모, 불교의 보살 등의 신상 앞에서 차례로 인사와 돈을 대신하는 금색 종이와 예물을 바치는 등의 예를 표하고, 그들 앞에서 보통 대나무통 혹은 나무통에 담겨 있는 일종의 점을 치는 나무막대를 뽑거나, 나무 조각을 던지는 의식을 하게 된다. 믿는 이들은 이러한 행위를 일종의 마주신 혹은 같이 모신 신들의 응답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마주신 앞에서 물으며, 이러한 응답을 결정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또한 때때로 치유에 있어 마주신의 영험함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자연물, 특히 물을 이용하거나, 부적을 활용해 신자들의 안위를 돕기도 한다.

“나는 미션 스쿨에서 공부한 적도 있고, 외국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와서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곤 합니다. 인생에 있어 궁금한 일이 있을 때 여기에 와서 마주신께 물어보며 나무

조각을 던지면 확실히 대답을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60대 후반, 여)

“아픈 사람에게 신자들이 같이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신비한 물을 부었고, 그 이후에 그 아픈 사람이 나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70대, 여)

무엇보다 이 영험함의 근거에는 지통의 역할이 매우 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통은 마주신앙에서 일종의 사면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무속신앙의 그것과는 차별적이다. 그들의 본연의 임무인 마주사원에서의 의식을 거행하는 것에서부터 농촌 지역에서는 한 마을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할 때도 있을 정도로 그 역할이 중요하다(Lin, 2015). 지통은 마주신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주신과 정확히 소통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주신의 신상 앞에 마련된 작은 탁자 밑에서 49일간 마주신과 대화를 나누고, 진짜 지통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 예를 들어 뽀족한 쇠꼬챙이로 양쪽 볼을 관통하며 뚫지만, 피가 나오지 않아야 하는 과정을 거친 후 비로소 지통으로 인정된다. 그들의 중요한 임무는 우리의 시선으로 보자면 점신을 하고, 마주신에게 치유와 조언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안정과 편안함을 전하는 것이다. 마주신을 통해 빠르면서, 정확한 응답 혹은 반응을 기대하는 바쁜 일상을 보내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신자를 위해 지통이 점을 쳐주고, 이를 전화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마주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한다.

“나도 원래 신을 잘 믿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지통인 된 이후에 마주신을 믿고 있습니다. 마주신이 나에게 직접 계시를 준 것은 아니고, 우리 어머니를 통해 내가 지통임을 알려주셨습니다…(중략)…행사 때 허리춤에 마주신 부적을 붙이고 나 자신에게 상처를 냅니다. 하나도 아프지 않고, 다음날이면 아픈 상처가 다 아뭙니다.” (70대, 남(지통))

“마주신이 그렇다고 마주신을 통해서만 치유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가봤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중략)…물론, 마주신을 통해서 직접 고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고치기 힘든 암에 걸린 사람이 건강해 지고, 소위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중략)…우리 사원의 지통은 마주신과 만나면 눈을 가린 채 글을 쓰기도 하고, 무엇이든 적혀 있는 지 글을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주신을 영접한 이후(접신 이후) 신자들과 말을 할 때도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중략)…치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혹은 영적인 면에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0대, 남(마주사원 사무장))

그렇다고 이러한 마주신의 영험함은 엄숙하고, 진지한 형식 속에서 드러나기 보다는 매우 편안하고, 친숙하며, 심지어 마치 집이나 익숙한 장소에서 일상적 행위를 이어나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지통과 신자 사이에서 영험한 대화가 있을 때 다른 신자들은 일상을 주고받거나, 농담을 하기도 한다. 또한 길을 지나가는 신자들, 특히 택시기사들<sup>2)</sup>은 향을 피우고, 기도를 드리고, 마주신의 응답을 기다리는 행위를 하지 않은 채 간단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그들의 예를 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비공식적이면서도, 자기치유적이면서도, 비전통적인 방식의 의료적 접근은 대체의학(CAM: complementary/alternative medicine) 혹은 전체론적 의학(holistic medicine)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Williams, 1998). 기억을 포함한 상상의 공간을 토대로 마음, 이미지, 장소를 하나로 통합하는 치유의 경관에서의 모든 행위는 대체의학과 관련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위는 과거의 시간과 공간을 되돌아보게 하고, 일종의 무의식과의 대화이며, 과거를 재구성하게 해주는 힘이 된다(Williams, 1998; Andrew, 2004; Conradson, 2005; Rose, 2012). 특히, 이는 태국, 세네갈 등과 같은 종교-보편종교 혹은 민속종교의 구분 없이-가 강한 나라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경향이기도 하며, 요가와 같은 심신수련의 방식을 통해 관점과 사고를 시공간을 초월한 우주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마음의 안위와 평화를 얻는 방식과 같은 선상에서 마주신의 영험함은 해석될 수 있다(Hoyez, 2007; Lea, 2008; Bignante, 2015; Liamputtong and Suwankhong, 2015).

기억력과 상상력을 통해 일상의 시간을 돌아보는 행위는 일종의 무의식과의 대화이며, 과거를 드러내고, 재구현하는 행위로 간주된다(Andrew, 2004). 이러한 과정은 과거에 얽혀 있는 죄책감, 아쉬움, 책임감 등을 해소시키면서 뒤뜰린 자신의 삶의 시공간을 정리하며 심리적 해방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다시



그림 1. 마주사원에서 도구를 이용해 기도하는 모습(왼쪽)과 지통을 통한 마주신과의 영험한 대화를 하는 모습(오른쪽)

출처: 연구자 촬영(2017, 2018).

말해, 인생의 위기 앞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미숙함과 모자람의 부정적 감정을 절대적인 신 앞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위로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는 허용과 포용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박수경, 2017).

비단 이러한 행위는 과거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을 제시한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과거의 궤적을 고찰하고, 시간간의 기억력과 상상력을 통한 자신과의 대면은 현재의 삶에 대한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애매함에서 오는 불안을 해소하는 원천이 된다. 다시 말해, 이미 지난 것과 달리 앞으로의 자신이 원하는 성숙한 삶의 달성의 근본적인 힘은 이미 자신 속에 내재된 과거의 경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삶의 의미가 누락되었다고 판단했던 특정 시기는 오히려 의미가 되며, 성숙한 삶으로 승화하는 계기로 간주되고, 무엇보다 행동의 변화로 거듭나는 것이다(박수경, 2017).

비록 마주신앙에서는 우리의 시선에서 해석했을 때 비과학적이면서도, 통상적 종교적 믿음 행위와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영험함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은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직간접적인 체험, 신의 응답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식, 지통의 역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특징이 신자들의 기억력과 상상력을 충분히 자극하고 있고, 이러한 관계를 믿는 이들은 영험함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피보다 진한) 인간관계

마주신과 둘러싼 치유의 담론은 ‘(피보다 진한) 인간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마주사원을 중심으로 하는 마치 혈연관계와 같은 관계맺음으로 드러나며, 치유가 개인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족 더 나아가 마주신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공동체 모두의 것으로 승화되는 현상과 연결된다. 원래 마주사원은 농촌 지역에 분포하던 것으로 이후에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대도시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주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거나, 혹은 다른 중

교로 믿는 이들의 신앙이 옮겨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종교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 믿음이 긴 시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혹은 농촌 지역에서 모든 삶의 중심은 마주사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마을의 중요한 결정은 마주사원에서 이뤄지거나, 마을의 대소사를 아낙들은 마주사원의 뒤뜰에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어린이들에게는 또래와의 만남에서부터 어르신들과의 교류까지 할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기능도 제공했었다. 이러한 공동체성과 연대의 식에 바탕을 둔 활동을 통해 혈연관계를 뛰어넘는 피보다 진한 인간관계가 긴 시간 동안 형성되었다(Lin, 2015).

타이완도 예외일 수 없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농촌에 거주하던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려들면서 마주사원도 그곳으로 따라가는 경향, 다시 말해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 나온 여러 갈래의 가지처럼 농촌 지역의 본사원에서 갈라져 나온 여러 사원이 대도시 지역에 분포 및 정착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마주사원은 규모에 있어서 한 지역에서 소유 및 운영하는 것에서부터 개인의 그것까지 다양하게 드러났다(Kuo, 2008).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의 마주사원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생활양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를 대신해 대도시에 맞는 믿음을 유지하는 방식이 정착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마주사원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인식된다. 바꿔 말하면, 마주사원에서 발견되는 일상적 수준의 의례와 행사는 길으로 드러나는 것을 뛰어 넘는 긴 시간 형성된 끈끈한 인간애가 바탕에 진하게 깔려 있다. 또한 이는 마주사원을 지키는 행정 직원 혹은 여러 봉사자를 통해 재현되는 ‘대리적 성격의 돌봄’의 형태로 가시화된다. 정서적 유대는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신자들의 일상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됨을 잠시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며, 믿는 이들은 이를 종교적 치유의 일환으로 여긴다. 더 나아가 이들에게 같은 신앙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조우한다는 사실은 이미 마주신의 신념과 이상을 함께 지키고, 따른다는 약속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특별한 인연이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서

로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보듬을 수 있는 마음은 이미 그들 마음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마주사원에서 관리하는 신자가 꽤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부부가 너무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갖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원에서 기도하도록 권했습니다. 이후에 신기하게도 아이를 가졌고, 현재 그 아이가 5살입니다. 5살 아이도 우리가 관리하는 신자의 명부에 올라와 있습니다...(중략)...우리 사원 명부에 올라 있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 사원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지 신자들에게 연락합니다...(중략)...마주신이 영험한 분이고, 무엇보다 ‘의(義)’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주신의 아들과 딸이라는 의미에서 서로를 의자(義子) 혹은 의녀(義女)로 부릅니다. 비록 서로를 잘 모르는 관계라 하더라도 마주신을 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형제, 자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사 때 서로를 잘 몰라도 어려움 없이 친근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60대, 남(마주사원 사무장))

“저 분(마주사원의 인간관계를 이끄는 최고령자)은 약 40년 이상 마주신을 믿어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저 분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저 분이 기도하시면 신기하게 병이 낫기도 합니다. 나도 저 분이 기도해 주어서 아픈 곳이 나왔습니다...(중략)...다른 신자가 아프면 우리도 같이 집에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70대, 여)

예를 들어, 의식과 의례가 없는 날에도 마주사원은 인근의 신자들에게 소소한 답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된다. 그리고 특별한 행사는 오래간만에 친인척들을 만나는 것과 같은 반가운 만남이 더하는 날이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 자신의 가족의 안부를 서로 전한다. 또한 누군가가 아프거나, 위로가 필요할 경우에는 신앙공동체가 함께 방문해 기도를 마주신께 드리기도 한다. 그리고 이전부터 마치 가족과 같은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신앙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대소사를 챙기는 일이나 안부를 공유하는 일도 거를

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더 확대해서는 본사원의 주요한 행사 및 소식을 게시판을 통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알리며, 본사원의 신자들과 연대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은 비단 오프라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SNS(Social Network Services) 등을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이는 동일한 마주사원에 신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정보를 손쉽게 공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주된다(Lin, 2015).

이처럼 피보다 진한 인간관계는 마주신 축제와 순례에서의 의례와 의식에서 한층 더 강해진다. 마주신과 관련된 종교적 연례행사는 여타의 종교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이 12달 동안 꼭 차 있지만, 특히 마주신 탄신일부터 몇 달에 걸쳐 행하는 마주신 축제와 순례는 연례행사에서 최고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모든 사원은 본사원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현재 모시고 있는 신상을 본사원으로 모시고 가는 연례행사를 한다. 이는 마주신을 믿는 이들에게 있어 마치 흩어져 있는 친척들이 명절에 고향을 방문해 만나는 것 같은 성격의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타이종 따지아시에서 열리는 마주신 축제와 순례는 원래 지역 수준의 것이었지만, 2004년부터 국제적인 승격시킨 후 마주신 축제 기간에는 마주신을 믿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본사원에 가면 사실 잘 모르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주신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낯선 것은 없습니다. 가서 만나면 마음이 좋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사원에 잡자리도 마련해 줍니다.” (70대, 여)

사실 마주신 축제와 순례<sup>3)</sup>에 있어 신앙인들에게 더 큰 의미는 후자에 조금 더 무게감이 있다. 이는 8박 9일 동안 걷는 과정에서 마주신을 내면으로 만나고, 이들을 응원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그 무엇인가가 구체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마주신 순례는 그 시작부터 신성한 의식

으로 시작된다. 마주신 순례의 날짜는 누군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주신 축제가 시작되는 날에 경건한 예식 속에서 언제 올해의 순례를 시작할 것인지 마주신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른다. 매해 약 20만 명의 신자들이 매일 해안가와 거친 지형을 12시간 이상을 걸으며 거룩한 마주신상을 옮기게 되는데, 그 순례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규모이다. 이러한 행렬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을 뛰어넘어 마주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라는 의식과 따뜻한 인간애를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된다.

순례의 기간에는 많은 신자들이 거리로 나와 이들의 인내와 신성함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모든 식음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순례자들은 순례 일정에 방문하는 마주사원에서 잠을 청한다. 그러나 이들은 때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신자들이 자신의 안방을 내어주는 후한 대접을 받기도 한다. 이는 마치 먼 곳에 출타했던 가족을 반기거나, 먼 친척이 자신의 집에 오래간만에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또한 당일의 베이스캠프가 되는 사원의 신자들은 마주신상과 함께 방문하는 순례자들을 환호의 폭죽과 노래 속에서 반긴다.

무엇보다 순례자들이 따지아시에 도착할 때 많은 군중이 몰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하지만, 열렬한 환호와 대량의 폭죽을 터뜨리며 이들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은 마치 또 다른 축제로 착각이 들게 한다.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들에 대한 열렬한 맞이함과 무사귀환에 대한 기쁨은 따지아시 전체에 충만하게 된다. 또한 가마에 태운 마주신상 아래에 머리를 조아리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모습 혹은 마주신상에 손이 닿기를 바라면서 자신 및 가족의 안녕과 복을 바라는 행동은 왜 이토록 순례의 마지막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지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따지아시의 마주신 축제와 순례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좋고, 신과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먹을 것 이외에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0대, 여)

결론적으로 마주신 축제와 순례는 신앙인만의 행사는 아니며,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 것으로, 마주신의 포용력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특히, 순례의 기간 중 마치 오래간만에 만나는 가족을 대하는 것과 같은 융숭한 대접과 환대는 피로 맺어진 관계를 뛰어넘는 무엇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는 매해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을 잠시 미뤄두면서까지 이 행렬에 참여하는지 말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수반하는 모든 치유 행위는 임상간호, 더 넓게는 대체의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Andrews, 2004). 누군가와의 만남은 공간을 질을 결정하며, 현실과 환상의 조화를 유지하게 해준다. 이를 통한 개개인의 진정한 의도와 애정을 기초로 하는 상호 간의 마음을 잇는 행위는 중요한 자극이 되기 때문이다. 존중, 배려, 동정 등과 같은 태도를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서로의 다른 삶의 방식과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며,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 관심 속에서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형성시킨다(Andrews, 2004). 실제로 이러한 행위들은 공포, 불안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이미 의학적 차원에서도 상당 부분 확인이 된 결과이다(Rose, 2012).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한 돌봄 혹은 보살핌은 그동안 살아온 궤적이 차별적인 누군가와 인생의 깊은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 이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차별적이었던 삶의 궤적-수직적 관계를 바탕으로, 설령 수평적 관계라 하더라도-이 서로 맞물리는 현상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진실로 우러나오는 경험의 공유를 통해 개인의 인생에 있어 직면한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해 낼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일상적인 수준에서부터 특수한 행사에서 드러나는 마조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는 사실 특별한 것도 없는 사랑방에서 조곤조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일들이지만, 동일한 신앙이라는 목적이 뚜렷하고, 비슷한 사람들의 연대이기 때문에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묘한 기류에 서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 자신을 쉽게 드러내고, 상대적으로 빨리 타인과의 관계를 맺게 된다(박수경, 2017). 그리고 암묵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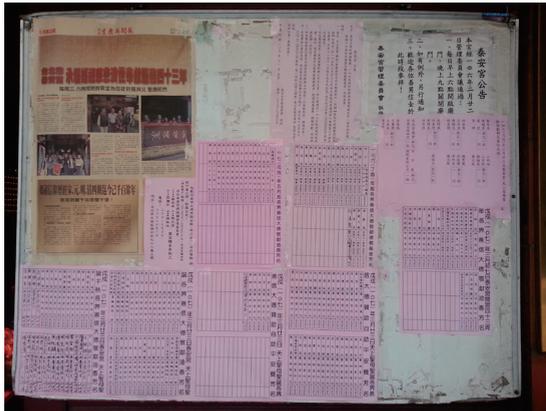


그림 2. 마주사원의 소식을 알리는 게시판(왼쪽)과 마주신 순례 기간에 마주사원 앞마당에서의 식사 나눔(오른쪽)  
출처: 연구자 촬영(2017, 2018)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생의 교훈을 통해 각자의 인생에 대한 안목을 확장시켜주며, 이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에 닿게 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마주신앙의 (피보다 진한) 인간관계의 치유적 효과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 3) (평화적) 하나됨

마지막으로 마주신의 치유의 힘은 ‘(평화적) 하나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정치적인 면인데, 이는 마주신의 공인화 과정을 의미한다. 1987년 계엄령 해제 이후 얼어붙은 양안관계의 긴장을 마주신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 풀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양국의 마주순례를 허용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과 상관없이 순수한 종교적 의미에서 출발했었으나, 궁극적으로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아래로부터 시작된 통합적 성격으로 변모했고,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었다. 이는 정치적 합의가 되지 못한 부분을 종교적인 것으로 극복한 사례로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마주신에 대한 인식이 ‘바다의 여신’에서 ‘평화의 여신’으로 변하고 있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믿는 이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중국과 타이완 양국의 마주신 성지순례가 열려 있고, 이러한 종교적 행위는 믿는 이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Zhang, 2017).

“나는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중국의 마주신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우리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주신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60대, 여)

물론, 마주신 순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 타이완 내에서 대륙과의 연계에 대해 열린 토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중국의 공산화된 마주신은 타이완의 마주신과 다르다”, “타이완의 마주신은 독립적인 것이다”, “중국의 마주신은 지역에서 믿는 믿음이다”, “중국의 마주신은 진짜가 아니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만만치 않았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했고, 정치적 것을 뛰어넘는 순례와 방문, 관광 등을 창조하길 선택했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까지 양국의 이해 관계를 뛰어넘어 이어져오고 있다(Kuo, 2008).

“우리 사원에 걸려 있는 저 간판은 중국에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주신의 순수성을 믿지만, 사람들이 모두 순수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종교를 빌미로 타이완을 통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60대, 남(마주사원 사무장))

“마주신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인 것처럼, 중

국의 신자들도 하나라 생각합니다. 정치는 정치적일 뿐입니다. 한국도 북한과 정치적 관계가 좋지 않지만, 북한 사람들을 동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60대, 여)

“정치와 종교는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주신 안에서 모두 다 형제, 자매입니다. 마주신을 믿는 사람들을 중국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주신을 함께 믿는 신자로 생각합니다. 이질감은 없습니다.” (60대, 여)

마주신을 중심으로 하나됨은 비단 양안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신자가 아닌 비신자들을 포함한 타이완인 전체의 일상, 구체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부정적인 면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주사원 앞은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며, 특히 선거기간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른다. 이곳에서의 선거유세의 영향력은 해당 지역에서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마주신은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번영과 평화, 그리고 강한 보수성을 특징으로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후보가 이러한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임을 마주사원 앞에서 강조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 된다.

또한 마주사원을 방문하면 다양한 형판 혹은 서예 작품 등을 볼 수 있는데, 때때로 이러한 것은 지역의 유지-대개 정치인- 혹은 엘리트라 불리는 사람들의 것으로 마주신과 자신이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물론,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마주사원에서는 좌파 혹은 우파 정치인 모두의 것을 전시하기도 하는데, 종종 마주사원에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누구의 전시를 더 중요하게 선보일 것인가를 암묵적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Kuo, 2008).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지방선거에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더 나아가 경제적 측면에서 마주신 설화는 스토리텔링의 주요한 소재로 활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타이완에서는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드라마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다. 또한 마주신을 귀여운 캐릭터로 표현해 은행의 금융상품, 일상생활용품 등에 활용한다. 심지어 라면 봉지에서조차 인쇄된 마주신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관광 및 성지순례는 어떤 경제적인 것보다 강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비단 타이완 내에서만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다. 마주신이 믿는 홍콩, 동남아시아지역, 오스트레일리아 등 해안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필리핀에서는 최근 마주신을 부각한 관광상품을 널리 알리고 있는 중이다.

“마주신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마주신이 계시다고 믿는 믿음을 마음 안에 깊이 품는다면, 길거리에서도 마주신을 만날 수 있고, 사원에서 만날 수 있고, 마주신은 어느 특정한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속 깊이 계시는 것입니다.” (90대, 여)

“당신들 종교에서도 종교적 상품이 나오면 반갑지 않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주신을 형상화한 상품을 보면 반갑고, 기쁩니다.” (60대, 여)

또한 문화 및 교육 등에서도 마주신앙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마주사원에서 볼 수 있는 그림, 조각, 건축양식 등은 오랜 시간 누적된 타이완 고유의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더한다. 특히, 마조신상은 여타의 문화적 요소와 비교해 그 위치가 절대적이다. 왜냐하면 마조신상은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마조신상만을 긴 시간 조각한 장인의 결과물이며, 세상에 유일무이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각된 마주신상에 지통이 영험한 마주신의 기운을 불어 넣음으로 단순한 조각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주신으로 변모하게 된다(Lin, 2015).

이외에 마주신의 이름을 내건 장학사업, 회화전 혹은 사진전 등과 같은 예술 활동, 마라톤 대회 등 다방면에서 마주신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 현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마주신이 더 이상 소수



그림 3. 마주사원의 마주신 및 기타 신들의 상(왼쪽)과 마주신의 이미지를 활용한 은행 상품의 광고판(오른쪽)  
출처: 연구자 촬영(2017, 2018).

의 누군가를 위한 종교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 된다. 널리 퍼져 있는 마주신을 둘러싼 문화권의 형성은 절대적 존재인 마주신 안에서는 국적, 성별, 연령 등의 인간적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는 뛰어넘는 하나됨이 존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종교적 측면에서 자신들의 내적인 것을 외적으로 발산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Gesler(1996)의 연구에서도 드러나 있는 것처럼, 좁게는 성지 안에서의 소리, 냄새, 색깔, 분위기, 이미지 및 역사 등을 포함한 그 모든 것이 방문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것이 새로운 방문자를 유인하는 입소문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것은 특정한 성지의 이미지 혹은 기호를 담은 상품의 판매로 활용되기도 하며, 성지가 가지고 있는 신성한 기억은 병원이나 요양원과 같은 시설을 짓는데 유리한 모티브로 활용되기도 한다. 물론, 부정적인 관점에서는 신성한 종교적 이미지를 불건전하게 이용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믿는 이들에게 신성한 곳의 상징성이 담겨진 상품을 갖고, 활용하고,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또 다른 치유의 과정이 되기도 한다. 결국 누적된 치유의 스토리(story)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의미로 형상화되며, 암묵적 연대, 영적 통합, 고유된 행동 등 하나된 정신적 혹은 영적 경험을 제공하는 매개가 된다(Gesler, 1996; Kearns and

Gesler, 2002). 마주신앙을 둘러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과의 연결 관계 혹은 하나됨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다만 타이완인들의 삶 속에 깊이 관련되어 여타의 종교에 비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 5. 결론 및 토론

본 연구는 타이완의 마주신을 사례로 하여 민속종교경관에서의 영적 치유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아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로 영험함, (피보다 진한) 인간관계, (평화적) 하나됨을 도출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영험함은 다양한 신앙적 도구 및 자연물로 구체화되며, 무엇보다 마주신의 이야기를 대신 전하는 지통을 통해 나타난다. 다음으로 인간관계는 마치 농촌 지역에서의 끈끈한 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가 도시 생활에서도 약간 변형된 모습으로 드러난다. 또한 이전에 만났던 적이 없는 사이라 할지라도 마주신의 뜻에 따라 서로를 형제, 자매로 인식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이러한 관계는 순례 기간에 더 확대되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하나됨은 얼어붙은 중국과의 관계를 마주신 성지순례로 한 번에 녹인 역사적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단 이러한 영향력은 국제적인 수준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국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공통적으로 마주신앙에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끄는 사실은 민속종교의 믿음이 보편종교의 그것과 다를 바 없으며, 신자든, 비신자든 타이완인 전체의 삶에 마주신의 치유적 의미가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이 발견되는 중요한 이유는 타이완의 민속종교의 특징, 다시 말해 특별한 조직(organization)에 의해 운영되기 보다는 형식(system)에 의존하는 경향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마주신앙은 보편종교에서 행하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 믿음으로 승화되는 것은 아니라,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신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를 사실에 기초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선택이 상대적으로 매우 자유롭다. 그리고 타이완에서 신에 대한 믿음은 경제적 풍요 혹은 개인의 안녕과 깊은 관련성이 있어 이를 충족시켜 주는 신 혹은 사원에 대한 믿음은 지속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믿음을 접고, 다른 신 혹은 사원으로 옮기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Kramer and Wu, 1970).

더불어 도교, 불교, 애니미즘에 근거한 많은 신들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상당히 차별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소원을 이를 들어 줄 수 있는 신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수의 타이완인

들에게 있어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특정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도 태어나면서부터 민속종교의 신 혹은 조상신을 섬기는 일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것이 타이완인의 삶이다. 다시 말해, 이는 마주신을 비롯한 관공(關公: Kuan Kung), 왕예(王爺: Wang Yeh) 등 타이완의 대표적인 민속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중요한 날에 반드시 제를 지내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한 경우,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상황에서 그들이 믿거나,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신 앞에서 예를 다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익힌 그들의 문화인 것이다.

예를 들어, 관공은 삼국지의 관우를 섬기는 민속종교인데, 관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위대한 장군으로서의 용감함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이미지 등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완의 다수의 경찰들이 관공을 섬기고 있으며, 일상의 삶, 특히 사회생활에 있어 억울한 일이 있는 경우 관공 앞에서 자신의 힘든 일들을 고백하고, 치유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처럼 타이완의 민속종교는 본질적인 믿음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지만, 현세에서의 복 혹은 풍요 등을 기원하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으로 가진다. 그러나 신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신뢰만큼 이들이 신에 대해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신 앞에서의 진실함



그림 4. 조상신 혹은 자신이 믿는 신에게 바치는 제사상과 관공을 모신 개인 사원의 모습  
출처: 연구자 촬영(2017, 2018).

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 또한 이에 비례해 강하게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신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를 하며, 믿음을 같이 하는 이들과의 조우와 확대된 종교적 문화권 안에서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는 일은 신성한 범주의 것이다.

타이완 민속종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으로부터의 돌봄, 서로를 믿는 사람들과의 연대 및 지원, 그리고 넓게 퍼져 있는 (종교문화에 기반을 둔) 하나됨은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유기적 연관성을 갖는다. 치유의 누적된 힘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입소문으로, 입소문은 또 다른 누군가의 이쁨으로,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는 치유의 이야기를 이루게 된다. 바로 여기에 영적 치유의 의의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속종교보다 보편종교가 우세한 우리의 시선에서 마주신의 영험함, (피보다 진한) 인간관계, (평화적) 하나됨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마주신에 대한 이해는 타이완인들 삶의 기저에 깔려 있는 고유한 그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주

- 1) 1947년 2월 27일 당시 타이완 정부가 독점하던 담배를 노인이 허락 없이 노점에서 팔았다는 이유로 전매국 직원과 경찰이 폭행했고, 이로 인해 2차 세계대전 후 국가의 정세-일본이 떠난 자리를 국민당 세력이 차지하면서 원래 타이완에 살던 본성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만 했던-에 불만이 많았던 시민과 정부가 충돌하는 2,28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유혈진압으로 지금까지도 과파하지 못할 정도의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고, 이후 계엄령이 내려졌다. 1987년에 이르러서야 이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 2) 타이완에서의 오래된 믿음 중 하나로 “선원과 기수의 수명은 일반 사람들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는 속담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바다 혹은 교통수단을 다루는 이들의 직업적 위험성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주요 교통수단이 중 하나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타이완에서는 택시 혹은 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에 빨간색 주머니를 매달고

달리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원에서 받은 재를 넣어 신의 영험한 기운이 그대로 전해져 믿는 이들의 생활터전이 무사안녕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신념의 표현으로 일종의 치유의 모빌리티(therapeutic mobility)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Kramer and Wu, 1970; Gatrell, 2013).

- 3) 따지아시아의 마주신 순례의 역사는 17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주신의 고향이자, 오랜 기간 동안 마주신을 숭상하던 중국의 푸젠성 메이조우섬(湄洲島: Meizhou)에서 살던 링잉싱(林永興: Lin, Ying-xing)이 현재의 타이완섬으로 이주를 하면서 첫발을 디딘 곳이 바로 오늘날의 타이종 따지아시아였다. 처음에는 마주신 숭배자들이 12년마다 메이조우섬의 차오티엔궁(朝天宮: Chaotian Temple)으로 마주신상을 가져갔었으나, 타이완의 일본 점령으로 인해 한 동안 이를 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숭배자들은 성지순례의 목적을 바꾸면서까지 이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메이조우섬의 차오티엔궁 이름을 그대로 딴 윈린시안(雲林縣: Yunlin-Xian)에 있는 또 다른 차오티엔궁까지 순례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현재는 따지아시아의 쩐란공에서부터 윈린시안의 차오티엔궁 사이의 마주사원을 방문하는 것이 순례의 주요 프로그램이며, 이 구간을 8박 9일 동안 약 300km를 걷는 것으로 정례화하고 있다. 2008년에는 타이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및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참고문헌

- 김인희, 2001, 한·중 해신신앙의 성격과 전파, 한국민속학, 33, 67-95.
- 박수경, 2014, 일상적 삶에서의 치유의 공간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심리상담카페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9(4), 546-562.
- 박수경, 2016, 영적 치유의 경관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한국 천주교 순례지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1(1), 143-166.
- 박수경, 2017, 치유의 공간에서의 관계성에 대한 고찰: 인생학교, 길답서원, 아침편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3), 470-483.
- 상기숙, 2011, 대만 민간신앙의 제양상 고찰, 동방학, 20(20), 205-238.
- 이중권, 2003, 수학교육에서 질적(Qualitative) 연구 방법, 수학교육, 42(2), 111-119.
- 편집부, 2006, 중국의 마조(媽祖)신앙과 관음신앙-중국

- 인의 시각에서 논함, *도서문화*, 27, 100-112.
- Andrews, G.J., 2003, Locating a geography of nursing: space, place and the progress of geographical thought, *Nursing Philosophy*, 4(3), 231-248.
- Andrews, G.J., 2004, (Re)thinking the dynamics between healthcare and place: therapeutic geographies in treatment and care practices, *Area*, 36, 307-318.
- Andrews, G.J. and Evans, J., 2008, Understanding the reproduction of health care: towards geographies in health care work,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2(6), 759-780.
- Andrews, G.J., Wiles, J. and Miller, K.L., 2004, The geographical study of complementary medicine: perspectives and prospects, *Complementary Therapies in Nursing and Midwifery*, 10(3), 175-185.
- Bell S.L., Foley, R., Houghton, F., Maddrell, A. and Williams, A.M., 2018, From therapeutic landscapes to healthy spaces, places and practices: A scoping review,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96, 123-130.
- Bignante, E., 2015, Therapeutic landscapes of traditional healing: building spaces of well-being with the traditional healer in St. Louis, Senegal,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16(6), 698-713.
- Chang, H., 2017, A Resurgent Temple and Community Development: Roles of the Temple Manager, Local Elite and Entrepreneurs, in Chang, H. and Penny, B.(ed.), *Religion in Taiwan and China: Locality and Transmission*, *Institution of Ethnology*, Academia Sinica, Taipei.
- Conradson, D., 2005, Landscape, care and the relational self: therapeutic encounters in rural England, *Health and Place*, 11(4), 337-348.
- English, J., Wilson, K. and Keller-Olaman, S., 2008, Health, healing and recovery: Therapeutic landscapes and the everyday lives of breast cancer survivor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7(1), 68-78.
- Gastaldo, D., Andrews, G.J. and Khanlou, N., 2004, Therapeutic landscapes of the mind: theorizing some intersections of health geography, health promotion and immigration studies, *Critical Public Health*, 14(2), 157-176.
- Gatrell, A.C., 2013, Therapeutic mobilities: walking and 'steps' to wellbeing and health, *Health and Place*, 22, 98-106.
- Geores, M., 1998, Surviving on metaphor: how 'Health = Hot Springs' created and sustained a town, in Kearns, R. and Gesler, W.M.(ed.), *Putting health into place*, Syracuse University Press, New York.
- Gesler, W.M., 1992, Therapeutic landscapes: medical geographic research in light of the new cultural geograph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4(7), 735-746.
- Gesler, W.M., 1993, Therapeutic landscapes: theory and a case study of Epidaurus, Gree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11(2), 171-189.
- Gesler, W.M., 1996, Lourdes: healing in a place of pilgrimage, *Health and Place*, 2(2), 95-105.
- Hoyez, A.C., 2007, The 'world of yoga': the production and reproduction of therapeutic landscape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5(1), 112-124.
- Kearns, R.A., Gesler, W.M., 2002, *Culture/health/place*, Routledge, New York and London.
- Kramer, G.P. and Wu G., 1970, *An Introduction to Taiwanese Folk Religions*, CAVES Book CO., Taipei.
- Kong, L., 2010, Global shifts, theoretical shifts: changing geographies of relig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4(6), 755-776.
- Kuo, C.T., 2008, *Religion and Democracy in Taiwa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New York.
- Lea, J., 2008, Retreating to nature : rethinking 'therapeutic landscapes', *Area*, 40(1), 90-98.
- Liamputtong, P. and Suwankhong, D., 2015, Breast cancer diagnosis: biographical disruption, emotional experiences and strategic management in Thai women with breast cancer,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37(7), 1086-1101.
- Lin, W.P., 2015, *Materializing Magic Power: Chinese Popular Religion in Villages and Citie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and London.
- Love, M., Wilton, R. and De Verteuil, G., 2012, 'You have to make a new way of life': women's drug treatment programmes as therapeutic landscapes in Canada, *Gender, Place and Culture*, 19(3), 382-396.
- Miligan, C., 2003, Location or Dis-Location: from community to long term care-the caring experience, *Social*

- and *Cultural Geography*, 4(4), 455-470.
- Milligan, C. and Power, A., 2009, The Changing Geography of Care, in Brown, T., McLafferty, S. and Moon, G.(ed.), *A Companion to Health and Medical Geography*, Blackwell Publishing, London.
- Parr, H., 2003, Medical geography: care and caring, *Progress of Human Geography*, 27(2), 212-221.
- Rose, E., 2012, Encountering place: A psychoanalytic approach for understanding how therapeutic landscapes benefit health and wellbeing, *Health and Place*, 18(6), 1381-1387.
- Tuan, Y.F., 1976, Humanistic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66(2), 266-276.
- Williams, A., 1998, Therapeutic landscape in holistic medicin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46(9), 1193-1203.
- Willis, A., 2009, Restorying the self, restoring place: Healing through grief in everyday places, *Emotion, Space and Society*, 2(2), 86-91.
- Wilson, K., 2003, Therapeutic landscapes and First Nations Peoples: An exploration of culture, health and place, *Health and Place*, 9(2), 83-93.
- Zhang, J.J., 2017, Paying homage to the 'Heavenly Mother': Cultural-geopolitics of the Mazu pilgrimage and its implications on rapprochement between China and Taiwan, *Geoforum*, 84, 32-41.
- 교신: 박수경, 03016,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2길 20 상명대학교 공간환경학부(이메일: maria1570@smu.ac.kr, 전화: 02-781-7545, 팩스: 02-2287-0058)  
Correspondence: Sookyung Park, Division of Space and Environment Studies, Sangmyung University, Hongjimoon 2 Gil 20, Jongro-Gu, Seoul, 110-743, Korea (e-mail: maria1570@smu.ac.kr, phone: +82-2-781-7545, fax: +82-2-2287-0058)
- 최초투고일 2018. 7. 24  
수정일 2018. 8. 10  
최종접수일 2018. 8. 22

#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본 근대 서울의 관광 이미지와 표상

김선희\*

## A Study on the Tourism Image and Representation of Seoul through Picture Postcards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unhee Kim\*

**요약** :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관광상품으로 발행된 한반도 사진그림엽서에 주목하고, 그 가운데 지배권력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식민지의 수도 서울의 장소이미지를 분류하여 빈도를 파악하고, 그 재현 양상과 특징, 이미지에 표상된 시선을 탐색하였다. 당시 서울은 조선의 '한성'에서 일제의 '경성'으로 장소 정체성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근대 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연구결과, 사진그림엽서로 재현된 서울의 장소이미지는 역사경관과 도시경관이 대중을 이루는데 역사경관은 '조선적인 것'으로서 해체, 개조, 파괴, 변용의 대상이자 전근대적이고 쇠락한 정체된 전통으로 표상된 반면 도시경관은 '일본적인 것'으로서 근대 문명을 상징하는 발전상으로 표상되었다. 나아가 역사경관과 도시경관을 작위적으로 편집한 서울의 관광이미지는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에서 차별적인 시선대비를 통한 공간의 식민화,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원된 표상이었다. 따라서 근대 사진그림엽서가 제국주의적 시선과 인식이 투영된 하나의 정치적 산물로서 '이미지의 정치', '관광의 정치'를 위한 상징도구로 이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사진그림엽서, 제국주의, 이미지, 재현, 장소상실

**Abstract** : This study classified the place image of Seoul based on the picture postcard produced as a tourist produc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alyzed the frequency, and searched the image representation aspect, characteristics, and the gaze and perception represented in the image. At that time, Seoul was emerging as a center of modern tourism as the place identity changed rapidly from 'Hansung' of Joseon to 'Kyungsung' of Japanese imperialis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lace image of Seoul is a major part of the historical landscape and urban landscape. The historical landscape was represented as a 'Chosunan', a subject of dismantling, remodeling, destruction, transformation, and a premodern and declining stagnant tradition. On the other hand, urban scenery was represented as a developmental symbol of modern civilization as 'Japanese'. Furthermore, the tourist image of Seoul, which edited the historical scenery and the cityscape, was a symbol mobilized to secure the colonialization of the space and the legitimacy of the colonial rule through discriminatory gaze contrast.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picture postcard of modern was used as a symbol tool for 'politics of image' and 'politics of tourism' as a political product projected with imperialist gaze and awareness.

**Key Words** : picture postcards, imperialism, image, representation, placelessness

---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강사(Instructo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sunny-sungshin@daum.net)

## 1. 서론

여행지 마다 지역의 명승이나 관광명소를 사진이나 그림으로 인쇄한 엽서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흔히 관광엽서라고도 부르는 사진그림엽서<sup>1)</sup>는 간단히 안부를 적어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는 서신기능도 있지만 여행지의 다양한 정보와 이미지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시각적인 소통매체라는 점에서 단순한 엽서 또는 사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는 하나의 관광상품으로서 사진책자나 원판 필름 등과 마찬가지로 엽서에 인쇄된 사진과 그림들은 대개 사실성을 전제로 보여주고 싶고, 보고 싶은 장소이미지를 재현함으로써 제작 및 소비 주체의 가치와 인식이 투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진그림엽서는 우선 당대의 자연과 인문경관의 원형을 복원해 현시점에서 과거를 읽어 내거나 시대상과 장소성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사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동시에 타자에 의해 선택되고 소비된 특정 시기, 특정 장소의 이미지에 표상된 ‘시선’의 상징도구로 또는 예술성, 차별성, 희소성 등의 편집과 구성으로 관광욕구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관광선전물로 이용되기도 한다. 유승훈에 따르면 지배나 권력구조는 정치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잘 짜여진 그물망처럼 미세하게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서구인이 동양을 타자화한 오리엔탈리즘에서 회화, 사진, 영상 등의 이미지 자료가 주요하게 활용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관념적 틀을 미리 설정하는 선형적인 시선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사진그림엽서는 ‘사실과 재현’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부산박물관, 2009).

한반도 사진그림엽서는 구한말에서 일제시기까지 일본에 의해 대량으로 제작, 발행되었는데 최근 이러한 사진그림엽서들이 근대 유물로서 한국과 일본에서 재조명되면서 다양한 전시와 도서 간행으로 이어졌다. 학계에서도 역사, 문화, 문학 분야를 중심으로 근대 사진그림엽서를 통한 한반도의 이미지와 그것이 갖는 시간적, 공간적 의미와 특징, 그리고 이미지에 표상된 시선을 탐색한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권혁희(2003)는 ‘재현의 정치학’ 관점에서 오리엔탈리

즘과 탈식민주의를 분석하고 사진그림엽서를 식민지 지배자에 의해 재현된 ‘정치적 시선’의 산물로 결론지어 근대자료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김창수(2009)는 일제시기 인천의 사진엽서 이미지를 분류하여 재현장소의 유형별 특성을 고찰하였고, 윤소라(2013)는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조선인 여성이 어떻게 시각화되고 이미지가 생산되었는지 탐색하였으며, 오운빈(2014)은 사진엽서를 통해 근대 한국의 이미지 형성과 표상을 분석하였다. 최현식(2016a; 2016b)은 일제 강점기 사진엽서와 시가의 문화정치학 관점에서 피사체의 본질과 성격, 문명과 야만, 오리엔탈리즘의 이미지, 이미지와 시가의 결속을 살펴보고, ‘조선적인 것’의 식민화와 타자화를 향한 기호구성과 담론에 주목하여 사진엽서를 시선, 대상, 지배, 동원 영역으로 분류하여 의미와 가치를 해석하였다. 신동규(2017)는 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를 분류하여 한일 병탄 과정과 합리화, 제국주의 선전을 살펴보고, 최인택(2017)은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와 문명의 관계, 조선의 풍속기억과 오리엔탈리즘을 고찰하고 식민지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실의 왜곡과 이미지 조작을 통한 사진그림엽서가 이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우라카와가즈야(浦川和也, 2017)는 한반도 그림엽서 안에 잠재된 근대 일본인의 시선과 만국박람회 등에서 보여준 ‘인간전시’의 배경에 깔린 제국주의적 시선의 공통성을 검증하였다.

사진그림엽서 외에도 다양한 기억유산을 통해 개화기부터 근대까지 서양인과 일본인의 눈에 비쳐진 한반도의 이미지와 시선을 탐색한 연구들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기행문, 일기, 편지, 견문록, 시찰보고서 등과 같이 특정 시기, 특정 장소에 대한 개인 또는 단체의 경험과 기억을 관광여행의 관점에서 재현한 기록유산을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행 기록물들은 여행지의 역사와 지리, 정치, 문화, 경제 등 사회전반의 방대한 지역정보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의 정서나 감정표현을 통해 타자의 가치와 인식 체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상담론의 자료로 이용되어 왔다.

서양인의 한국여행기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비숍(I. B. Bishop)<sup>2)</sup>의 『Korea and Her Neighbours』(신

복룡, 2000)는 19세기 말 서양인의 눈에 비친 한반도의 이미지와 재현 양상을 탐색하는 주요 텍스트이다. 이를 토대로 오리엔탈리즘, 제국주의 시선, 젠더 차별, 계몽적 시선, 상대주의적 시선 등을 다룬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박지향, 2001; 김희영, 2008a, 2008b; 신문수, 2009; 홍순애, 2010; 홍준화, 2014; 이지나·정희선, 2018). 로웰(P. Lowell)<sup>3)</sup>의 여행기 『Chosŏ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조경철, 2001)를 대상으로 서구 중심적 사고와 오리엔탈리즘 논의, 다양한 시선과 표상을 탐색하는 연구도 전개되고 있다(김종갑, 2010; 우남숙, 2014; 이지나·정희선, 2017). 또한 일본인의 근대 한국여행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생과 교원의 수학여행 및 시찰여행 같은 단체 여행을 통한 목적, 여정, 장소인식과 시선, 소감 등에 주목하고 있다(정재정, 2010; 임성모, 2011; 권희주, 2013). 특히 1925년과 1932년 일본 교원들의 한국여행을 비교 분석한 정치영·米家泰作(2017)에 의하면 1906년 아사히신문사가 기획한 ‘滿韓巡遊船’은 한국과 만주를 대상으로 한 단체해외여행 붐의 발단이 되었고,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수학여행과 교원여행의 열기로 이어졌다. 여정은 주로 전적지를 돌아보고 제국의 신흥 도시와 경제상을 시찰하였는데 당시 중앙부처나 언론사 등에서 단체여행을 적극 장려했음을 감안하면 교원들의 인식에 흐르던 쇠퇴하는 식민지와 발전하는 제국의 문명에 대한 시선대비는 조선총독부의 관광정책과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하게 한다.

위에서 살펴 본 사진그림엽서나 여행기는 모두 시대상과 장소성, 타자의 인식체계가 투영된 문화적 산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여행기가 자유의지와 가치, 시선으로 자아의 경험과 기억을 재현한 반면 사진그림엽서는 식민지 통치하에서 자아의 타자화, 대상화를 위해 선택, 편집, 소비된 이미지가 재현된 것으로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대 유물로서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장소이미지와 표상을 읽어보고 자 구한말부터 일제시기까지 제작, 발행된 한반도 사진그림엽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지배 권력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서울에 주목하였다. 당시 서울은 조선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한성’과 근대 도시문명의 상징인 ‘경성’이 혼재하는 변화와 관광여행의 중심

지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근대 서울의 사진그림엽서 이미지를 속성에 따라 주제와 내용으로 분류하여 이용 빈도를 파악하고, 관광여행의 관점에서 서울의 장소, 경관이미지가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어떻게 재현되었는지 그 양상과 의미,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그리고 관광이미지에 표상된 일본의 시선과 인식을 살펴보았다.

## 2. 근대 서울의 사진그림엽서 분류와 이용

일본에서 그림엽서(繪葉書)가 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 사제엽서 발행이 허가되면서부터이다. 러일전쟁(1904~1905) 이후 일본인들의 해외여행이 본격화되고, 그림엽서가 정보전달을 위한 대중적인 영상매체로 부상하면서 관광 기념품이나 선물용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림엽서 열풍’으로 기념엽서를 비롯해 명소, 풍속, 광고, 미인, 저명인엽서까지 다양한 엽서가 발행되었다. 그 중 한반도 그림엽서는 근대 일본이 통치했거나 세력 하에 두었던 지역의 그림엽서 중에서도 특히 다종다양하면서 대량으로 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부산박물관과 일본 나고야성 박물관(名護屋城博物館)이 수집, 소장하고 있는 구한말부터 일제시기까지의 한반도 사진그림엽서가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는 도록 출판물 두 가지를 자료로 선택하였다. 2009년 부산박물관의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1~8)』(이하 자료1)과 2017년 우라카와가즈야(浦川和也)의 『그림엽서로 보는 근대조선(1~7)』(이하 자료2)이다. 두 자료에 수록된 한반도 사진그림엽서는 총 6,375매로 지역적으로는 서울, 평양, 부산, 인천, 개성 등 도시를 비롯해 한반도 전역이 포함되어 있고, 주제는 역사유적, 명승, 건축물, 거리풍경, 풍속, 생활, 기생 등 자연 및 인문 경관이 망라되어 있다.

그 가운데 서울의 사진그림엽서는 모두 1,452매로 가장 많다. 이는 전체의 22.8%로 다음의 평양 10.1%에 비해 2배 이상을 차지하는데 일부 사진그림엽서가

표 1. 연구자료의 사진그림엽서 정보

구분	전체(%)	서울(%)	시간범위	비고
자료1	3,724(100.0)	901(24.2)	구한말~일제시기	도시, 관광 분류 중 '경성사진엽서' 대상
자료2	2,651(100.0)	551(20.8)	일제시기	명소그림엽서 분류 중 '경성그림엽서' 대상

중복되고, 제작시기가 정확하지 않으며, 도시, 풍속, 의례, 생활 등의 이미지를 관광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었다. 그러나 연구목적인 근대 사진그림엽서를 통한 20세기 전반 서울의 관광이미지 재현 양상과 시선을 살펴보는 데는 크게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 자료의 분류에 따라 도시, 관광, 명소 사진그림엽서 중 '경성'에 해당하는 이미지 전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사진그림엽서에는 중심 이미지인 사진 외에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대개 엽서 1매에 사진 1장을 사용하고 일본어 제목과 지역이 표기되어 있으며, 조선 명소·경성명소·경성백경 등 주제가 명시되어 있어서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발행된 매체임을 주지시켜 준다. 이외에 그림, 시가 등이 첨가된 경우, 채색으로 칼라사진처럼 보이게 하거나 펜화로 스케치한 경우, 영문표기가 더해진 경우, 간단한 부가설명으로 의도와 인식을 드러낸 경우, 京14·龍41 같이 시리즈 번호를 매긴 경우, 기념소인을 찍어 목적을 표시한 경우, 엽서 1매에 2~5장의 사진이나 그림을 조합한 경우 등 형식과 구성이 다양하다. 이러한 부가정보들은 이미지 재현 양상 외에 제작의 목적과 의도, 시선 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사실 서울의 근대 사진그림엽서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각 이미지의 정확한 등가(等價) 기준설정이나 일제에 의해 변질된 궁궐 풍경과 시설물을 역사경관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연구목적 달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1,452매의 서울 사진그림엽서에 재현된 각 이미지의 속성과 소속을 기준으로 크게 역사경관 이미지와 도시경관 이미지로 대별하고 각기 주제와 내용으로 하위분류하였는데 그에 따른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두 자료 모두에서 역사와 도시 등 인문경관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자연경관은 북한산, 세검정, 우이계곡

등 4~5장이 실려 거의 전무하였다. 다음으로 기타 분류를 제외하면 전체 이미지 가운데 역사경관이 485장으로 36.4%, 도시경관이 847장으로 63.6%를 차지해 도시이미지가 월등히 많고 다양했는데 이는 당시 일본인을 포함해 조선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과 조선인들에게 일본이 보여주고자 했던 이미지가 새로 건설한 식민지의 수도이며 식민지적 근대화의 표상으로서 경성의 다양한 발전상이었음을 방증해준다. 셋째, 역사경관 이미지는 두 자료 모두에서 고궁, 도성, 성균관, 원구단 순의 이용 빈도를 보인 반면 도시경관 이미지는 자료별로 다소간의 차이를 보여 자료1에서 시가지, 종교시설, 사회시설, 경제시설, 공원, 정치시설, 교통시설 순으로, 자료2에서 종교시설, 시가지, 사회시설, 정치시설, 경제시설, 교통시설, 공원 순으로 이용 빈도를 보였다. 넷째, 주제별로는 조선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고궁 이미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근대도시의 상징으로 다양한 시가지 이미지와 식민화의 상징인 조선신궁 이미지가 비슷한 수준의 높은 빈도를 보였다.

사진그림엽서 이미지를 내용으로 세분해 보면 먼저 역사경관 이미지로 경복궁의 경회루·근정전·향원정·광화문, 창덕궁의 후원·돈화문·인정전, 창경궁의 식물원·동물원·벚꽃풍경, 덕수궁의 석조전, 한성의 남대문·동대문 등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특히 경복궁 경회루, 창덕궁 후원, 창경궁 식물원 등은 주요 전각이나 궁문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빈도를 보여 궁궐의 권위와 상징을 내정의 이미지로 대체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도시경관을 대표하는 이미지로는 조선신궁이 자료1과 자료2에서 각각 6.3%, 8.5%의 점유율로 단일 이미지로는 전체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의 상징으로 이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이미지는 자료1과 자료2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표 2. 근대 서울의 사진그림엽서 이미지와 빈도 분포

이미지		자료1		자료2		이미지		자료1		자료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고궁	경복궁	광화문	15	1.7	6	1.1	정치시설	총독부	31	3.4	27	4.3
		근정전	21	2.3	16	2.9		총독관저	7	0.8	4	0.7
		경회루	42	4.7	23	4.2		경성부청	14	1.5	3	0.5
		향원정	15	1.7	10	1.8		군경시설	0	0.0	4	0.7
		기타	4	0.4	5	0.9		기타	5	0.5	1	0.2
		소계	97	10.8	60	10.9		소계	57	6.3	39	7.1
	창덕궁	돈화문	13	1.4	6	1.1	사회시설	교육기관	30	3.3	12	2.2
		인정전	10	1.1	6	1.1		우체국	19	2.1	9	1.6
		후원	20	2.2	13	2.3		병원	12	1.3	9	1.6
		주합루	7	0.8	3	0.5		언론사	7	0.8	0	0.0
		기타	5	0.5	3	0.5		극장	12	1.3	6	1.1
		소계	55	6.1	31	5.6		박물관	0	0.0	7	1.3
	창경궁	홍화문	6	0.7	2	0.4		운동시설	7	0.8	5	0.9
		식물원	23	2.6	17	3.1		기타	2	0.2	1	0.2
		동물원	12	1.3	5	0.9		소계	89	9.9	49	8.9
		벚꽃풍경	10	1.1	4	0.7		경제시설	호텔	19	2.1	7
		기타	2	0.2	2	0.4	백화점		12	1.3	7	1.3
	소계	53	5.9	30	5.4	회사	16		1.8	4	0.7	
	덕수궁	대한문	7	0.8	1	0.2	은행		16	1.8	12	2.2
		중화전	6	0.7	0	0.0	기타		2	0.2	3	0.5
		석조전	9	1.0	6	1.1	소계	65	7.2	33	6.0	
		기타	6	0.7	0	0.0	교통시설	경성역	12	1.3	11	2.0
	소계	28	3.1	7	1.3	용산역		7	0.8	3	0.5	
	한성	성곽	6	0.7	4	0.7		한강철교	19	2.1	11	2.0
		남대문	42	4.7	15	2.7		한강인도교	14	1.5	6	1.1
		동대문	14	1.5	10	1.8		소계	52	5.8	31	5.6
		서대문	2	0.2	0	0.0	종교시설	조선신궁	57	6.3	47	8.5
		기타	7	0.8	2	0.4		박문사	16	1.8	9	1.6
소계		71	7.9	31	5.6	기타신사		13	1.4	5	0.9	
성균관	9	1.0	10	1.8	명동교회	4		0.4	1	0.2		
원구단	3	0.3	0	0.0	기타	2		0.2	0	0.0		
소계	92	10.2	62	11.3	취락	선인마을		1	0.1	10	1.8	
시가전경	30	3.3	19	3.4		신시가지	2	0.2	0	0.0		
남대문로	28	3.1	14	2.5		일본가옥	0	0.0	8	1.4		
충무로	15	1.7	7	1.3		소계	3	0.3	18	3.3		
종로	12	1.3	5	0.9		기타	경성백경	22	2.4	36	6.5	
광화문로	6	0.7	1	0.2			경성신대관	19	2.1	0	0.0	
을지로	5	0.5	2	0.4	엽서봉투		0	0.0	16	2.9		
독립문로	15	1.7	11	2.0	팬화엽서		0	0.0	7	1.3		
기타	4	0.4	0	0.0	생활상		2	0.2	3	0.5		
소계	115	12.8	59	10.7	기타		9	1.0	8	1.4		
공원	과고다공원	32	3.5	12	2.2	소계	52	5.8	68	12.3		
	남산공원	13	1.4	3	0.5	합계	901	100.0	551	100.0		
	장충단공원	15	1.7	8	1.4							
	소계	60	6.6	23	4.2							

대개 시가전경과 남대문로, 파고다공원, 총독부, 교육 기관과 우체국, 호텔과 은행, 한강철교와 경성역, 박문사 등이 근대도시의 표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 분류에서는 1매의 엽서에 2~5장의 사진과 그림을 조합하여 서울의 관광이미지와 표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경성백경과 경성신대관을 비롯하여 채색엽서봉투, 편화엽서 등을 통해 관광상품으로서의 매체활용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세트로 제작, 발행된 사진그림엽서에서는 작위적으로 선택, 편집된 관광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일제의 차별적 시선과 인식을 엿볼 수 있다.

### 3. 사진그림엽서로 재현된 근대 서울의 이미지와 표상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기까지 개항과 국권상실, 식민지 지배 등의 역사적 격랑 속에서 서울은 ‘한성’에서 ‘경성’으로 장소 정체성이 빠르게 변화하였다. 조선다운 역사와 전통이 왜곡, 변질되고 지워지는 대신 제국주의 표상으로서 근대 건축물, 전차, 포장도로, 철도, 변화한 거리 등이 일본다운 모습으로 부각, 선전되었다. 개항 이후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과 새로운 식민지의 수도를 보고 싶어 하는 일본인들에게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담긴 사진그림엽서는 단순한 관광홍보물이 아니라 식민지적 이미지 만들기(image making)와 선전을 위한 수단이었다. 당시 일본이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서 서울의 이미지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재현되었을까? 앞에서 분석하였듯이 근대 서울의 사진그림엽서에 재현된 이미지는 역사경관과 도시경관이 대종을 이룬다. 본 장에서는 사실의 재현과 표상된 이미지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이미지의 구체적인 재현 양상과 의미, 특징을 살펴보았다.

#### 1) 서울의 역사경관 이미지와 표상

연구 자료에 수록된 근대 서울의 사진그림엽서 가

운데 역사경관을 담고 있는 것은 485매로 일제가 대상화, 피사체화 한 역사와 전통의 이미지는 대개 경북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고궁이미지가 74.4%, 남대문·동대문·성곽 등 한성이미지가 22.5%로 대종을 이루고, 경학원으로 소개된 성곽관, 원구단 등이 뒤를 따른다. 반면 역사경관 중 일제에 의해 파괴된 경희궁이나 종묘, 사직, 왕릉 등의 이미지는 전무하였는데 이는 고대 역사에서 같은 뿌리를 찾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적인 조선의 역사지우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역사경관 이미지 가운데 구체적으로 조선 왕조와 전통의 집약체인 궁궐에서 일제가 조선다운 것으로 가장 빈번하게 재현하고 있는 이미지는 공통적으로 각 궁의 정문과 정전, 그리고 어원이었다. 궁궐의 정문과 정전은 권위의 상징이며 어원은 최고의 심미를 엿볼 수 있는 내정으로 얼핏 일본이 수도 경성을 대표하는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궁궐 이미지를 통해 재현한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당시 일제에 의해 선택되고 소비되어진 조선의 역사경관이 해체와 개조, 파괴와 변용의 대상이었음은 재현된 이미지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그림 3은 궁문 이미지이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은 조선물산공진회의 출입문으로 이용되었고, 1926년 옛 흥례문 터에 총독부 신청사가 건립되면서 1927년에는 광화문이 해체되어 건춘문 북쪽으로 이전되었다. 돈화문은 고종과 순종의 거처로 무장군인이 경비를 서는 통제와 억압의 대상이었으며, 흥화문은 일장기와 야간개원 현수막이 걸려 있고 좌우 매표소 앞에 일본인과 조선인이 뒤섞여 입장을 기다리는 도심 유원지의 출입구로 전락했다.

그림 4~그림 13은 왕조의 상징공간인 궁궐 이미지이다. 근정전(1)은 품계석이 늘어선 앞뜰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 왕조의 쇠락을 예증하고, 근정전(2)과 경회루는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1929년 조선박람회 개최되면서 궁궐의 정체성이 인파로 붐비고 차량이 드나드는 행사장이자 전시장으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준다. 인정전은 권위를 박탈당한 사물화 된 공간으로서 기모노 차림의 일본 관광객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고, 아름다운 금원은 비원으로 불리며 내지인들의 휴식처가 되었으며, 주합루에 걸린 일장기는 왕



그림 1. 경복궁 광화문



그림 2. 창덕궁 돈화문



그림 3. 창경궁 흥화문



그림 4. 경복궁 근정전(1)



그림 5. 경복궁 근정전(2)



그림 6. 경복궁 경회루



그림 7. 창덕궁 인정전



그림 8. 창덕궁 후원



그림 9. 창덕궁 주합루



그림 10. 창경궁 명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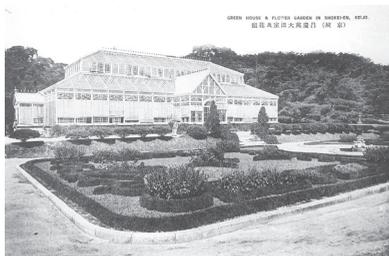


그림 11. 창경궁 식물원



그림 12. 창경궁 동물원



그림 13. 창경궁 벚꽃풍경



그림 14. 남대문(1)



그림 15. 남대문(2)



그림 16. 동대문(1)



그림 17. 동대문(2)



그림 18. 돈의문

조와 궁궐에 대한 모독이자 지배권을 주지시키고 있다. 특히 창경궁은 대표적인 궁궐 관광지화의 표상으로서 일제가 궁궐을 어떻게 훼손, 개조, 변용시켰는지를 보여준다. 일제는 명정전 앞뜰에 모란을 가득 심었고, 1909년 식물원과 동물원을 세웠으며, 내정에는 수만 그루의 벚나무를 식재하였다. 급기야 1911년 창경원으로 이름이 바뀐 창경궁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섞여 만개한 벚꽃풍경을 즐기고 야간개장으로 낮밤 없이 벚꽃놀이 관광객으로 붐비는 서울의 대표 소풍지, 볼거리로 전락했다.

그림 14~그림 18은 도성의 상징물이자 교통의 중심축을 이루던 성문 이미지이다. 남대문 성벽을 따라 상점들이 늘어선 행인들로 붐비던 옛 모습은 일제에 의해 성벽이 잘려나가고 넓은 도로 위를 전차와 자동차가 달리면서 성문의 기능은 사라지고 주변에 들어찬 근대 건축물들 속에 고립된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동대문은 웅성 밖의 민가와 생활상이 성벽이 사라진 성안의 도로와 전차길, 상점들이 들어선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돈의문은 성벽 아래로 상점들이 들어서 있고 전차가 성문을 드나들던 옛 모습이지만 도시계획을 명분으로 일제가 도성과 성문을 파괴하면서 멸실되었는데 근대성에 가려진 장소상실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서울의 역사경관 이미지들은 일제의 시선에서 ‘과거의 것’, ‘조선적인 것’으로서 파괴, 해체, 개조, 변용의 대상이었고(김백영, 2009), 전통과 왕조의 상징으로서 궁궐, 도성, 성문 등 역사공간에 대한 일본의 이미지 전략은 역사적 가치와 장소지우기를 통한 공간의 식민화였다(김덕현 등, 2005). 이를 위해 조선의 궁궐을 왕조의 쇠락과 지체, 허상의

이미지로 부각시키거나 행사장이나 유원지로 전락시켰고, 도로, 전차, 근대 건축물 등 식민지적 근대화의 표상은 도성과 성문의 파괴를 정당화했다. 결국 근대시기 일제에 의해 선택되고 소비된 서울의 전통 역사경관 이미지는 일본이 제국과 식민지의 본질과 가치를 부정적으로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시선을 대비시키기 위해 동원한 상징도구였다.

## 2) 서울의 도시경관 이미지와 표상

도시경관을 담고 있는 근대 서울의 사진그림엽서는 847매로 역사경관에 비해 절대적으로 량과 종류가 많았다. 그 중 새롭게 변모하는 시가전경과 가로 이미지가 20.5%, 일본의 가치와 식민지배의 상징인 신사 이미지가 17.4%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사회, 경제, 정치, 교통시설과 관련한 근대 건축물, 도시공원, 취락 이미지 순으로 나타났다. 일제가 러일전쟁의 승리로 조선과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면서 내지인의 해외여행을 적극 장려하였는데 특히 한일강제병합 이후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조선 지식인, 귀족, 지방유지 등의 국내여행도 장려하여 서울을 비롯한 지방도시의 관광개발이 활발하였다. 그 중 서울은 새로운 식민지의 수도이자 동경을 모방한 동아시아의 대도시로서 전통과 역사, 문명과 근대성이 공존하는 최고의 관광지로 인기를 끌었다(李良姬, 2007; 조성운, 2009). 일본인에게 조선의 한양을 압도하는 제국의 경성은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결과물이며 서울관광은 외지에서 일본을 확인하는 경험이었다. 당시 일본이 내지인과 조선인, 세계를 향해 보여주고자 했던 ‘일본다운 것’, ‘문명적인 것’으

로서 서울의 이미지는 과거 역사경관에 대비되는 근대 도시경관이었다.

그림 19~그림 21은 서울의 도시경관 중에서 단일 이미지로는 재현 빈도가 가장 높았던 조선신궁 이미지이다. 일제는 식민지배의 상징으로 한반도 전역에 신사를 세워 조선인의 참배를 강요했는데 패망 당시 무려 1,141개의 신사가 확인되어 황국신민화를 위한 폭력을 짐작케 한다(부산박물관, 2009). 이 중 일본의 건국신과 메이지천황을 모신 최고 권위의 신사로 1925년에 세워진 조선신궁 이미지들은 남산 중턱에 넓게 자리한 전경, 가파른 돌계단, 신사의 상징인 도리이(鳥居) 등으로 최고의 위상과 위엄을 표상하고 있다. 특히 신궁에서 본 시가지 이미지에서는 식민지를 내려다보는 지배자의 시선이 드러나고, 신궁 입구에 높은 각도로 설치된 360여개 돌계단은 지배 권력을 올려다보아야 하는 피지배자의 시선이 대비되고 있다.

그림 22~그림 29는 시가지 이미지이다. 시가전경에서는 조선총독부에서 광화문 대로를 따라 중심부에 자리한 경성부청을 경계로 북쪽의 조선인 거주지와 남쪽의 일본인 거주지가 대조적인 경관을 이룬다.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 이어지는 서울의 남북대로

경관에서는 경복궁, 총독부, 경성부청, 부민관, 조선은행 등 서양식 고층 건물이 즐비하고, 동서를 연결하는 가로 경관에서는 수많은 상점과 정비된 포장도로, 전차, 행인들로 붐비는 서울의 상업 중심지의 모습들이 많이 재현되었다. 또한 서대문 밖 의주로에 있는 독립문은 일제가 청일전쟁으로 조선이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기념하여 세웠다는 왜곡된 부가설명과 함께 자주 재현되었는데 독립문을 배경으로 한 이미지에서 의주로의 변화가 대조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 30~그림 33은 서울의 정치, 사회, 경제, 교통 시설과 관련한 근대 건축물 이미지이다. 철거된 경복궁 흥례문 터에 1926년 세워진 조선총독부는 조선역사의 상징인 경복궁을 완전히 가려버렸고, 총독부 신청사와 경성부청은 일제의 식민통치의 본거지로 ‘웅장하다’, ‘장대하다’ 등으로 수식되며 대표적인 도시경관으로 재현되었다. 이외에 층무로 입구에 붉은 벽돌과 화강암으로 화려하게 지은 경성우체국을 비롯한 조선은행, 조선총독부의원, 조선호텔, 미쓰코시 백화점, 명치좌 극장 등 근대 건축물들이 서울의 파노라마를 이루었다.

그림 34~그림 36은 근대를 표상하는 새로운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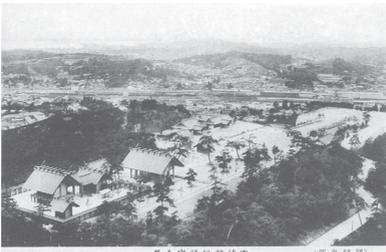


그림 19. 조선신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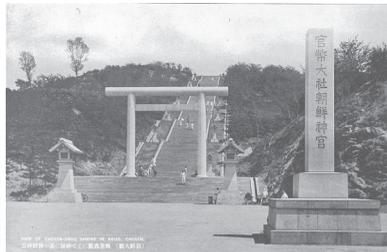


그림 20. 조선신궁 돌계단



그림 21. 신궁에서 본 시가지



그림 22. 서울 전경



그림 23. 태평로와 광화문로



그림 24. 남대문거리

김선희



그림 25. 종로거리



그림 26. 황금정거리(을지로)



그림 27. 본정거리(충무로)



그림 28. 의주로(1)



그림 29. 의주로(2)



그림 30. 조선총독부 전경



그림 31. 조선총독부



그림 32. 경성부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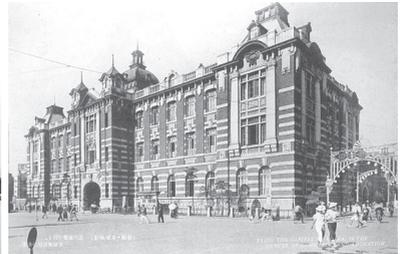


그림 33. 경성우체국



그림 34. 한강철교



그림 35. 한강인도교



그림 36. 경성역



그림 37. 파고다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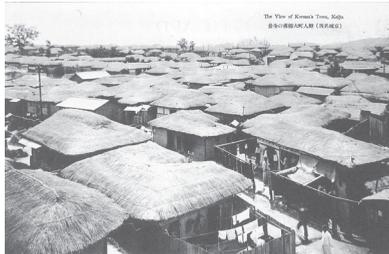


그림 38. 조선인 마을



그림 39. 일본인 거주지

수단 이미지로 1900년 노량진과 용산을 잇는 복선 한강철교는 ‘긴 뱀과 같이 길게 뻗은 장관이 실로 경이롭다’는 묘사처럼 인적, 물적 왕래를 촉진한 위대한 근대문명의 산물로 여겨졌고, 한강인도교는 사람과 자동차, 전차가 함께 도강할 수 있는 서울의 명물이 되었으며, 1925년에 세워진 경성역은 서울의 관문으로 광장에는 자동차와 이용객이 붐비는 근대도시의 상징으로 재현되었다. 일제는 총독부-경성제국대학-경성역-조선신궁을 잇는 직사각형의 서울 중심부에 경성부청을 세우고 그 주변으로 다채로운 근대 건축물을 채우면서 조선의 인상을 일본적인 도시로 바꾸어 놓았다.

그림 37은 원각사가 있던 자리에 세운 최초의 도시공원인 과고다공원으로 원각사지십층석탑과 육각당을 배경으로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상징하는 근대도시의 또 다른 표상이 되었고, 그림 38과 그림 39는 초가집이 밀집된 조선인 마을과 남산에서 용산까지 서양 가옥과 건물이 들어선 일본인 거주지인 신시가지 이미지가 대조를 이룬다. 지금까지 일본의 가치와 전통문화를 이식하고 내선일체를 실현하기 위해 시선을 대비시킨 조선신궁을 비롯하여 변화한 거리, 근대 건축물, 포장도로와 전차, 철도와 철도역, 도시공원

등 근대 문명의 표상들이 식민지 수도의 장소 정체성을 대체하고 새로운 장소이미지 만들기에 동원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4. 근대 서울의 관광이미지에 표상된 시선과 인식

사진은 시간과 공간을 순간 포착해 만든 영상언어로서 궁극적인 기능은 ‘보여 지기 위한 것’이다. 특히 관광사진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광욕구와 동기를 유발하며 관광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진의 보편적 특성에 더해 심미성, 매력성, 차별성 등이 요구되는 상업사진의 일종이다(김선희, 1997). 그러므로 관광상품으로서의 사진은 사실의 재현을 넘어 제작자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도구화의 위험성이 수반되는 시각매체이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승리로 사실상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를 시작하면서 근대 교통수단인 철도의 부설, 한일 간 정기 여객선인 부관연락선 취항, 1906년 통감부 설치 등에 이어 1910년 조선총독부 설치로



그림 40. 근정정 조망(1)



그림 41. 근정전 조망(2)



그림 42. 근정전과 관리



그림 43. 경회루와 여인



그림 44. 경복궁과 여인



그림 45. 조선총독부와 농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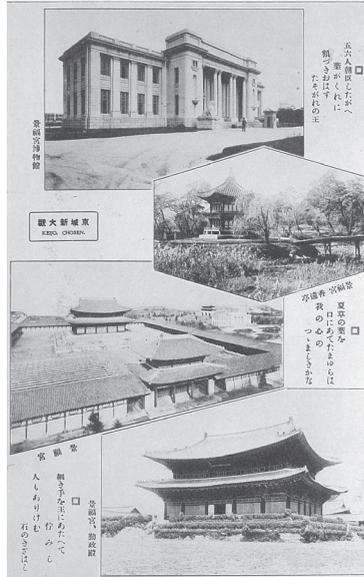


그림 46. 경성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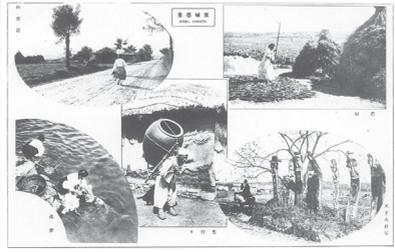


그림 47. 조선인의 생활



그림 48. 경성의 발전상

완전한 식민지화를 실현하였다. 총독부는 식민지의 수도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관광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관광기구를 설립하는 한편 관광안내서, 관광잡지 등을 비롯하여 관광상품으로서 다양한 사진그림엽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관광을 식민지 지배정책에 이용하기 위해 관광부흥정책을 입안하고 일본인이 여행할 만한 관광지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 서울은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였다. 당시 사진그림엽서에는 서울의 모습이 사실 그대로 재현된 이미지 외에 왜곡, 변질된 이미지, 의도된 차별적 이미지, 사실적 재현이라 하더라도 관광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미지, 사람과 삶이 배제된 건축물의 파노라마식 전시 이미지 등이 상당하였고, 이를 통해 표상된 이미지가 소비되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근대 서울의 역사와 도시경관이 작위적인 연출, 편집으로 관광이미지화, 상품화된 몇 가지 예증을 통해 일제의 시선과 인식을 좀 더 들여다보았다.

그림 40~그림 44는 근대 서울 사진그림엽서에서 흔히 발견되는 역사경관에 대한 연출 이미지로 특히 조선의 역사와 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을 배경으로 한 작위가 많았다. 경회루에서 근정전을 바라보는 조망은 같은 구도의 이미지에 일본 복식의 남성을 등장시

켜 왕조의 위상과 퇴락을 중첩시키고, 근정전을 바라보는 조선 관리들의 뒷모습에서 패망한 왕조에 대한 원망과 영화롭던 과거에 대한 회상이 묻어난다. 또한 경회루와 여인, 경복궁과 여인에서는 정확히 신분을 알 수는 없으나 조선여성을 등장시켜 조선이미지 형상화에 자주 이용되었던 기생이미지와 중첩시킴으로써 성적 관타지를 자극하고 궁궐의 권위를 지우고 관광지로 전락시키고 있다.

편집된 이미지를 통한 부정적 차별화 방식의 시선 대비는 사진과 그림에 시가를 더해 좀 더 노골화하였는데 그림 45는 일제의 상징 총독부 건물과 조선 민초의 상징 농부를 대비시키고 거기에 한국민요와 일본시가를 더해 미개와 문명, 조선과 일본을 차별화하고 있다. 조선민요의 ‘고삐 줄 쥔 손에 한숨을 더하면... 두 번 다시 끌고 싶지 않은 이 줄 하나’는 삶의 고단함이 묻어있는 반면 일본시가의 ‘엄숙도할사 백악(白堊)의 건물...’은 일제의 문명을 찬양하고 있다(최현식, 2016b). 또한 일본인의 서울관광 열기를 짐작하게 하는 다량의 세트 사진그림엽서에서도 차별적 시선대비가 잘 드러나는데 그 중 1매의 엽서에 2~5장의 사진과 그림을 조합해 서울의 관광이미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경성백경과 경성신대관이 대표

적이다. 그림 46은 경복궁박물관, 향원정, 경복궁, 근정전을 상하로 배치하였는데 일제가 궁궐 안에 세운 서양식 박물관을 가장 위에 놓고 그 아래로 수풀이 무성한 내정과 계단에 모란이 식재된 정전 이미지를 배치해 권위와 위상을 폄하하고 궁궐을 사물화 된 전시물로 취급하고 있다. 그림 47은 시골길, 농사일, 손빨래, 향아리장수, 장승 등 조선인의 생활상이 전근대적이고 미개하며 정체(停滯)된 후진성(後進性)으로, 그림 48은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경성우체국, 동양척식회사, 주식현물취인소 등 일제가 세운 건물들이 근대적이고 문명적이며 발전된 선진성(先進性)으로 표상되고 있다.

## 5. 요약 및 결론

100여 년 전의 관광상품이 근대 유물로서 사료적 가치를 조명 받고 있다. 서울의 사진그림엽서에 담긴 다양한 이미지들은 당시의 시대상과 장소성은 물론 당대 사람들의 가치와 인식체계 등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다. 흔히 사진이미지는 피사체에 대한 취사선택, 성형과정에서 배제와 통제가 작용하므로 일종의 편집된 기억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관광으로 위장한 작위적인 이미지들은 단순한 관광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텍스트로서 제작자의 의도가 투영된 시선의 표상이다.

서울의 근대 사진그림엽서 1,452매에 담긴 이미지는 역사경관과 도시경관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일제의 한반도 주요 도시에 대한 관광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서울의 역사경관은 전통과 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창덕궁·창경궁 등의 고궁과 도성의 상징인 성문에 집중되었는데 대개 해체, 개조, 파괴, 변용의 대상으로 재현되었다. 권위와 위엄을 박탈당한 궁궐은 관광지 또는 유원지로 전락하였고, 근대성에 가져진 장소상실의 단면으로서 성벽과 성문이 파괴되면서 조선다운 것으로서의 역사경관은 전근대적이고 쇠락한 과거의 표상으로서 지우거나 대체되어야 하는 이미지들로 재현되었다.

반면 식민지 경영의 전시장로서 일제가 서울에 재현하고자 했던 이미지는 제국주의 일본의 전통과 식민화의 상징인 신사와 근대 문명을 상징하는 도시의 발전상에 집중되었다. 신사를 대표하는 조선신궁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시선이 대비되도록 설계되어 서울의 중심부인 남산에서 일제가 새로 건설한 식민지의 수도를 관조하며 내선일체의 표징으로 재현되었다. 또한 남산에서 북악까지 이어지는 서울의 중심사기에는 포장도로, 전차로 연결되는 변화한 남북, 동서 가로망을 따라 정치, 행정, 사회, 문화, 교육, 경제, 상업 등을 관장하던 근대 건축물들이 파노라마처럼 채워졌다. 여기에 새로운 교통수단인 철도가 부설되고 도시공원이 만들어졌으며, 조선인 거주지와는 대비되는 일본인 거주지인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서울의 근대적 도시경관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고 선전하는 이미지로 재현되었다.

서구식 근대화를 표방했던 일본이 식민지 수도 서울을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은 지배와 통제의 기제로서 영상, 시각, 관광 매체를 이용했던 서구의 오리엔탈리즘과 다르지 않았다. ‘조선적인 것’으로서 왜곡, 변질된 역사경관과 ‘일본적인 것’으로서 제국의 선전물이 된 도시경관을 편집한 서울의 관광이미지는 식민지 조선과 문명국 일본의 본질과 가치를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차별화하고, 장소지우기와 장소만들기 과정을 통한 공간의 식민화를 완성하기 위해 동원된 표상이었다. 나아가 일제는 전근대와 근대, 미개와 문명, 후진성과 선진성 등으로 대비되는 우월적, 지배적, 제국주의적 시선과 태도가 투영된 근대 서울의 사진그림엽서를 다양한 주제의 관광상품으로 소비, 유통시켜 식민지에 대한 차별적 폭력을 확대 재생산하였다. 특히 작위적으로 연출된 서울의 관광이미지는 조선 폄하와 일제 찬양을 노골화하는 하나의 정치적 산물로서 ‘이미지의 정치’, ‘관광의 정치’를 위한 상징 도구로 이용되었다.

본 연구는 일제에 의해 만들어지고 소비된 근대 한반도 사진그림엽서 중에서 지배자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식민지의 수도 서울에 국한하여 관광이미지와 표상, 시선 등을 포괄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주요 이미지의 시대별 변천이나 이미지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

분석 등이 미흡하여 추후 보완이 요구된다. 나아가 일제는 식민지에 대한 정보 획득과 식민지배의 정당성 확보, 제국민의 자부심과 식민지민의 열등의식을 확인시키고자 내지인의 물론 조선인의 관광여행을 적극 장려하고 다양한 관광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는 식민지 경영전략의 일환으로서 근대 관광지 형성과 관광자원 개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부산, 인천, 평양, 개성 등 주요 관광지역의 이미지 표상과 시선에 대한 연구와 관광안내서, 관광잡지, 여행기 등 당대의 다양한 자료와의 비교 연구 등 우리나라 근대관광의 실체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주

- 1) 관광지의 경관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인쇄해 관광상품으로 판매하는 엽서를 흔히 ‘관광엽서’라고 부른다. 관광, 시각 이미지, 우편 기능이 합쳐진 관광사진엽서, 관광그림엽서의 축약이라 할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서 다양한 관광엽서를 발행했던 일본에서는 ‘에하가키(繪葉書)’ 즉 ‘그림엽서’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진엽서와 그림엽서가 모두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구한말부터 일제시기까지 우편엽서에 나타난 한반도의 장소, 경관 이미지의 유형과 내용, 표상된 시선 등에 주목하면서 좀 더 명확한 ‘사진그림엽서’로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 2) Isabella Bird Bishop(1831~1904)은 영국의 여성 여행가로 1854년 7개월 동안 북미를 여행한 데 이어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동아시아, 러시아, 북아프리카 등지를 여행하며 1899년까지 총 10권의 여행기를 남겼다. 그 중 1894년 처음 인천 제물포를 통해 조선에 입국해 1897년까지 4년간 4번에 걸쳐 11개월을 체류하며 서울, 개성, 평양, 금강산, 원산 등을 비롯해 만주의 조선인 이주지역까지 여행했다. 그녀의 한국여행기(Bishop, I., 1898, *Korea and Her Neighbours: a narrative of travel, with an account of the recent vicissitudes and present position of the country*, Revell, New York) 출간은 19세기 조선이 서구 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 3) Percival Lowell(1855~1907)은 1883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로 미국공사가 부임한 담례로 조선의 외교사절단인 보빙사가 미국에 파견될 때 안내할 최초의 외국인 서기관으로 임명되었다. 보빙사 일행의 외교 안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로웰은 고종의 빈객으로 초대되어 입국한 최초

의 서양인이다. 1883년 12월~1884년 3월까지 약 3개월을 체류하는 동안 서울의 명승고적을 비롯하여 기후, 지형, 민속, 풍습, 생활, 문화, 도시 및 상업경관 등을 관찰하고, 사진과 함께 여행기(Lowell, P., 1885, *Chosŏ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Harvard Univ. Press, Boston)를 출간했다. 조선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서구에 소개한 최초의 기록물이다.

## 참고문헌

- 권혁희, 2003, “일제 강점기 사진엽서에 나타난 재현의 정치학,” *한국문화인류학*, 36(1), 187-217.
- 권희주, 2013,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수학적여행-그 혼종의 공간과 교차되는 식민지의 시선,” *한일군사문화연구*, 15, 279-300.
- 김덕현·김현주·심승희(윤희),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ondon)*.
- 김백영, 2009, *지배와 공간-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 지성사*.
- 김선희, 1997, “지리사진의 관광적 활용에 관한 연구,” *사진지리*, 5, 15-29.
- 김종갑, 2010, “초월적 기표로서 ‘조용한 아침’: 퍼시발 로웰의 『조선-조용한 아침의 나라』,” *19세기 영어권문학*, 4(1), 7-33.
- 김창수, 2009, “식민지기 인천의 사진엽서와 시선들,”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2, 7-29.
- 김희영, 2008a, “제국주의 여성 비숍의 여행기에 나타난 조선 여성의 표상,” *동학연구*, 24, 145-163.
- 김희영, 2008b, “오리엔탈리즘과 19세기 말 서양인의 조선 인식: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을 중심으로,” *경주사학*, 26, 165-181.
- 박지향, 2001, “고요한 아침의 나라와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 이사벨라 버드 비숍과 조지 커즌의 동아시아 여행기,” *안과 밖*, 10, 295-320.
- 부산박물관, 2009,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1-8)*, 민속원.
- 신동규, 2017, “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한일병탄의 서막과 일본 제국주의 선전,” *동북아문화연구*, 51, 151-169.
- 신문수, 2009, “동방의 타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한국

- 과 그 이웃 나라들』, 한국문화, 46, 119-138.
- 신복룡(역), 2000,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Bishop, I., 1898, *Korea and Her Neighbours: a narrative of travel, with an account of the recent vicissitudes and present position of the country*, Revell, New York).
- 오윤빈, 2014, 근대기에 형성된 한국이미지: 사진엽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남숙, 2014, “퍼시벌 로웰과 한국,”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5(2), 171-213.
- 우라카와 가즈야(浦川和也), 2017, 그림엽서로 보는 근대 조선(1-7), 민속원.
- 윤소라, 2013,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인 여성의 시각화와 이미지 생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이지나·정희선, 2017, “P. 로웰(P. Lowell)의 여행기에 나타난 개화기 조선에 대한 시선과 표상,” 문화역사지리, 29(1), 21-41.
- 이지나·정희선, 2018, “I. B. Bishop의 19세기 말 조선 여행기 속 재현양상 분석 연구: 주제어와 형용사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4(1), 1-17.
- 임성모, 2011, “1930년대 일본인의 만주 수학여행-네트워크와 제국의식,” 동북아역사논총, 31, 157-188.
- 정재정, 2010, “식민도시와 제국일본의 시선-奈良女子高等師範學校 생도의 조선·만주 수학 여행(1939년),” 일본연구, 45, 69-93.
- 정치영·米家泰作, 2017, “1925·1932년 일본 지리 및 역사교원들의 한국 여행과 한국에 대한 인식,” 문화역사지리, 29(1), 1-20.
- 조성운, 2009, “일제하 조선총독부의 관광정책,” 동아시아문화연구, 46, 7-45.
- 조경철(역), 2001, 내 기억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예담
- (Lowell, P., 1885, *Chosö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Harvard Univ. Press, Boston).
- 최인택, 2017,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를 통해서 본 조선의 풍속 기억,” 동북아문화연구, 51, 131-149.
- 최현식, 2016a, “이미지와 시가(詩歌)의 문화정치학(I) -일제시대 사진엽서의 경우-,” 동방학지, 175, 225-265.
- 최현식, 2016b, “이미지와 시가(詩歌)의 문화정치학(II) -일제시대 사진엽서의 경우-,” 한국학연구, 42, 9-56
- 홍순애, 2010, “근대계몽기 여행서사의 환상과 제국주의 사이: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3, 99-122.
- 홍준화, 2014,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對韓政治觀: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을 중심으로,” 韓國人物史研究, 21, 425-445.
- 李良姬, 2007, “植民地朝鮮における朝鮮總督府の觀光政策,” 東北アジア研究, 13, 149-167.
- 교신: 김선희, 02844,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34다길 2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이메일: sunny-sungshin@daum.net, 전화: 02-920-7382)
- Correspondence: Sunhee Kim,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2 Bomun-ro 34da-gil, Seongbuk-gu, Seoul 02844, Korea(e-mail: sunny-sungshin@daum.net, phone: +82-2-920-7382)

최초투고일 2018. 8. 6

수정일 2018. 8. 20

최종접수일 2018. 8. 28

## 교통의 지리

허우궁, 2018, 푸른길, 서울, 452쪽.

韓柱成\*

경부선이 통과하지 않아 조치원 주민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고, 도시의 발달이 지체되었다고 생각해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을 유치하는데 오래 동안 많은 힘을 기울인 청주시민들을 보면 교통변혁이 공간변화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교통과 공간간의 관계를 포함해 교통현상을 다면적으로 다룬 『교통의 지리』 출간은 교통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과 전공자들에게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 책은 저자가 오래 동안 대학에서 교통지리학 강의를 하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집필한 것인데, 제1장은 서론, 제1부는 교통과 지역(제2장~제6장), 제2부는 교통과 도시(제7장~제9장), 제3부는 네트워크와 흐름(제10장~제14장), 제4부는 미래의 교통(제15장~제1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교통의 정의와 특성 및 기능에 대해 서술하고, 또 결절점, 연쇄선으로 구성된 교통망과 이를 위상기하학적으로 나타낸 네트워크, 거리와 운송비에 대해 기술하고 운송비와 운임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리고 누적기회모형의 접근성과 효용기반모형 및 공간-시간적 접근성에 대해 설명해 교통지리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기술했다. 그러나 교통지리학의 기초로 교통현상에 대한 언급과 교통현상의 수단과 대상이라는 이원성 문제를 지적했으면 하고, 이동성과 기동력이라 부르기도 하는 모빌리티(mobilities)의 내용은 17장의 관련 내용부분에서 언

급했으면 그 구성이 더 좋았으리라 생각한다.

제1부 제2장(지역교통체계의 형성)에서는 Taaffe 등에 의한 아프리카 가나에서의 교통망 발달과정 등과 Rimmer의 항만 발달과정을 소개하고, 유럽과 식민지 미국과의 도매업 발달에 따른 취락 및 교통로 발달과정인 Vance 모형에 대해 기술했다. 또 Rimmer가 미얀마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식민지시대와 그 이후의 항만발달 및 교통로, 중심지의 변화 모형을 밝힌 것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한국의 고려~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김포반도 포구 성쇠 및 호남평야의 교통로와 중심지체계 변화에 대해 서술했다. 이어서 관문으로서의 중심지와 항구의 역할과 그 성쇠에 대해 상술했으나 제목과 달리 배후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아쉬웠다. 그러나 제4장에 항만과 배후지의 내용이 담겨 있어 이들을 합쳐서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지역교통체계 내용은 지리학의 경우 아주 많은 교통현상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했으면 한다.

제3장(교통투자와 지역)은 교통로 건설에 따른 비용·편익에 관한 내용으로 지역에 미치는 접근성의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면과 환경영향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교통투자와 전략에서 경제부문의 긍정적·부정적 영향과 중립적인 허용적 역할에 대해 기술했다. 그리고 교통투자의 전략을 수요부응 전략과 공급선도 전략으로 구분하고, 교통투자의 특징과 교통투자평가의 지리적 범위와 접근법 및 비

\* 충북대학교 명예교수(Emeritus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jshan@chungbuk.ac.kr)

용·편익분석법과 비용·효과분석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장은 교통현상을 다루는 기초적인 내용으로 서론에서 서술했던지 아니면 제9장의 교통수요의 예측과 분석에서 수요예측에 따른 교통투자의 내용에 기술했으면 더 연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제4장(해상교통)에서는 해운의 지리적 특징과 해상 화물의 약 70%를 차지하는 벌크화물, 컨테이너 화물, 근거리 수운에 대해 언급했는데, 화물의 분류와 거리에 의한 내용이 혼합되어 있다. 이어서 20세기 해운 산업의 변모에서는 화물수송의 세계화, 항만의 민영화 및 조선과 하역부문의 변화, 일관수송과 복합수송 및 정기선항로의 유형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항만과 배후지에서는 Anyport 모형<sup>1)</sup>과 평가 및 수정에 대해 기술했으나 배후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항만의 내용은 그 발달과정을 먼저 설명한 후 화물수송 및 배후지의 순으로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통기관은 육상·해상·항공교통의 순으로 다루는데 해상교통을 먼저 다루었고 하항교통은 언급하지 않았다.

제5장(항공교통)에서는 항공교통의 특성과 항공기의 발달과정, 세계 항공교통의 현황과 항공화물 및 O'Conner의 국제항로망 발달과정 모형을 설명했다. 또 항공운수산업의 제도와 정책의 변화에서는 항공규제완화와 민영화, 네트워크 항공사의 등장 및 허브-스포크스(hub-spokes)형 항로망의 장단점, 항공사 동맹체에 대한 내용과 저가비용항공사, 항공사의 특성에 대해 서술했다. 끝으로 공항에 대해 지리적 특성과 지역개발로서 공항도시와 공항회랑 및 공항이 안고 있는 연계교통, 공항의 혼잡성, 환경문제 등의 과제는 제시했으나, 공항배후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제6장(철도교통)에서는 철도교통의 발달에 따른 지역변화와 일제강점기 한국의 철도망 발달을 운영주체의 정책적 판단과 전쟁발발, 산업화를 기준으로 네 시기로 구분하고, 또 건설목적에 따라 세 가지 철도망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리고 철도망의 발달에 따른 시간소요의 축소와 화객수송량의 변화를 파악하고, 철도개설로 인한 지역구조의 변화를 설명했다. 끝으로 21세기 철도교통에서는 고속철도의 등장과 철도망의 유형, 고속철도역의 운영, 환경, 시장 접근성,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등 입지요인에 대해 기술하고, 연도별 시간수렴으로 시공간 변화의 왜곡과 고속철도가 다른 교통수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이상에서 육상교통으로 대표하는 철도교통만을 기술하고 도로교통, 자동차교통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제2부 제7장(교통의 발달과 도시성장)에서는 교통이 도시에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고 교통수단의 시대적 발달과 이로 인한 도시의 형태와 내부구조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살펴보고, 서울시의 교통발달에 따른 도시형태를 Boyce-Clark 형태지수로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했다. 끝으로 항만도시의 형태와 구조를 살펴보고 한국의 항만도시 경관과 구조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를 제4장의 항만과 배후지에서 항만도시의 구조로 다루었으면 한다.

제8장(도시 내 통행의 이해)에서는 통행의 구성요소와 통행의 종류, 거리조각성과 時空同調性에 의한 규칙성을 설명하고, 이어서 도시통근의 유형, 통근거리와 임계거리, 직주불일치로 인한 초과통근 및 통근권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도시 내 통행은 통근 이외에도 다양한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제9장(교통수요의 예측과 분석)에서는 도시교통계획과 교통수요의 예측 및 통행연구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20세기 후반부터 교통계획이 시작되었다고 하고 그 배경과 역사 및 그 과정도 서술했다. 그리고 교통수요예측에서는 발생교통량, 통행량 배분, 교통수단 분담률의 결정, 교통수단 선택 및 노선배분과 노선선택에 대한 4단계 평가의 장단점을 기술했다. 다음으로 교통수요예측과 통행연구에 관한 새로운 접근방법에서는 교통공학자들이 기여한 교통과 토지이용과의 상호작용 모형, 의사결정의 방법과 비보상모형(non-compensatory models)<sup>2)</sup>, 연성변수와 인지적 접근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지리학자들이 기여한 활동기반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동향과 전망을 기술했다.

제3부 제10장(교통망의 구조와 네트워크 분석법)에서는 교통망 그래프 이론의 각종 용어 및 지표를 설명하고, 연결성의 활용도와 결절점의 중요도 및 사회망 분석법을 소개하고 교통망분석과 비교했다. 그러

나 두 분석법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점은 있으나 교통망의 분석은 평면그래프와 수치그래프를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망 분석은 비평면그래프와 비수치그래프를 전제로 사용한다고 했다.

제11장(네트워크의 디자인)에서는 교통망과 유동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의 수리적 최적해를 구하는 네트워크 알고리즘(algorithm)의 유형을 나무(tree)네트워크 구성하기, 경로분석, 교통량 비정하기, 네트워크 디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나무네트워크 구성하기, 최단거리에 대해 설명하고, 네트워크 디자인에서는 W. Bunge의 6개의 기본적인 최적 교통망 중 세 가지에 대해, J. Steiner의 문제와 더불어 K. Kansky의 시칠리아 철도망 복원을 위한 시뮬레이션에 대해 설명했다. 여기에서 K. Kansky의 시칠리아 철도망 복원은 지역교통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제2장에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제12장(교통흐름과 상호작용모형)에서는 화물유동에서 E. Ullman의 세 요소를 설명하고, 상호작용 모형에 대해 거리지수, 중력모형의 사례분석 및 회귀분석에 대해 언급하고 공간적 상호작용 모형의 확장으로 잠재력모형, D.L. Huff의 상권 확률 모형과 제약형 모형 및 A. Wilson의 엔트로피(entropy) 최대화형 공간적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중력모형이나 제약모형, 엔트로피 최대화형 공간적 상호작용의 문제점을 충분히 진술하지는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제12장과 제13장의 위치를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경험적 분석방법과 이론적인 내용에서 이론적 내용을 분석방법 다음에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13장(유동자료와 지역구조의 이해)에서는 유동(flow)구조의 분석방법으로 J.D. Nystuen과 F. Dacey가 개발한 그래프 이론과 그 쟁점에 대해 기술하고, 또 R·Q모드 인자분석법(factor analysis)의 분석과정과 사례분석을 설명했다. 또 고차(high-order)·결절적(dyadic)인자분석, 이원(1, 0)연결성 행렬에 의한 직접인자분석법, 군집분석법을 소개했는데, 이밖에도 E.W. Soja의 상호교류분석(transaction analysis), 기능적 거리법으로 마르코프 연쇄(Markov

chain)모형, R·Q모드 인자분석법을 이용한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등도 언급했으면 한다.

제14장(흐름의 최적화)에서는 최소비용으로 최대수송이라는 유형으로 수리적 기법인 선형계획법의 수송문제 사례와 그 활용 및 한계점과 그래프 이론에 의한 유동알고리즘의 개요와 변형에 대해 기술했다. 그리고 중심시설의 입지-배분모형에서는 효율중시형과 공평중시형 및 이들 둘을 절충한 센디언(centroid) 모형을 소개했다. 그러나 중심시설계획에 따른 입지배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이 장을 제9장 교통수요의 예측과 분석에서 다루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제4부 제15장(지속가능한 교통)에서는 다차원적 지역수준에서 교통에 직접적·간접적·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기·수질·토양오염 등의 환경문제와 자연환경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고, 교통부문의 에너지에서는 교통부문별 에너지 소비량 변화와 가격변동에 따른 문제 등과 신재생 에너지 사용에 대해 서술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교통과의 관계에서 事故, 대기오염, 혼잡, 소음, 파괴 등의 외부효과와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이들의 평가지표도 기술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교통을 구현하기 위해 토지이용-교통통합계획기구를 조직해야 하고, 교통의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기술적·정책적 해법을 제시하며,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구현방안으로 첫째, 토지이용의 고밀도화, 둘째 자전거의 활용, 셋째 화물수송에서 녹색물류를 들었다. 또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구현에서는 교통과 관련된 사회적 소외문제 및 형평성에 대한 언급을 했다.

제16장(정보통신기술과 교통)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모바일 기술과 사람통행에 대해 활동의 분절과 다중작업이 가져오는 통행의 지리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원격근무(telework)의 유형과 장단점에 대해 서술했고 지리적 의미를 설명하며 새로운 제도로 유연근무제, 공유사무실, 나아가 이워킹(e-working)의 등장에 대해 서술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과 화물수송에서는 글

로벌 생산네트워크로 공급사슬이 변화해 3자 로지스틱스(third-party logistics)의 활성화, 전자상거래의 물류에 대해 설명해 이들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의 정보가 필요하고, 물류보다 상류의 내용이 낫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통지리정보시스템(GIS-T)에서는 그 기능과 효용을 설명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교통지리정보시스템에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이동식 GIS-T의 출현 및 참여형 GIS-T도 발달했다고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7장(교통지리학의 발달과정과 전망)에서는 교통지리학의 정의와 내용구성 및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그 발달과정을 크게 두 시기(1950년대~1980년대, 1990년대 이후)로 나누어, 전기에 교통지리학이 정립되고, 계량혁명으로 공간적 관점에서 큰 발전을 했으나 그 후 행동론적 접근방법과 사회교통지리학이 등장하고 교통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이 추구되었다고 했다. 후기는 재도약기로 교통관련 지리학회지 등장과 학술서의 출간을 들고 여덟 가지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며 교통변화를 가져온 동인들을 설명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교통지리학 동향을 소개했다. 끝으로 새로운 조류로 시간지리학과 네트워크 지리학의 부활에 대해, 또 과거 주택이동에서 사용된 용어가 의미와 지시대상(referent)이 달라진 사회과학계의 모빌리티 연구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전통적인 교통지리학이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지만 두 학문의 조화와 협력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의 성찰을 통해 4차 산업의 발달로 지능형 교통지리학의 탐색이 21세기의 연구과제라고 했다.

저자가 이 책을 공간적 관점, 논리실증주의와 공간·지역·생태라는 지리학의 세 전통에 초점을 맞추어 크게 교통과 지역 및 도시, 교통네트워크와 흐름,

미래의 교통으로 그 내용을 구성했다. 그리고 새로운 관련주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사례를 들어 이해도를 높이려 했으나, 지리학분야에서 교통현상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서술하는가에 따라 내용구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서평자의 짧은 지식으로 보아 장의 배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마지막 장에 교통지리학의 전망의 내용 중에서 그 발달과정에 관한 내용은 오히려 서론부분에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생각한다. 또 육상 교통에 이어 해상·항공교통에 관련 내용들을 덧붙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통현상은 사회적 현상인 사람 이동과 사회경제적 현상인 화물의 유동에 관한 연구로, 경제현상보다는 사회적 현상에 중점을 둔 것 같다. 그리고 『교통의 지리』라고 한 이유는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책의 곳곳에 교통지리학이란 용어가 등장해 굳이 『교통의 지리』라고 할 필요성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끝으로 이 책은 오랜 동안의 노고가 담겨 있는 力著로 이 분야의 전공자, 정책입안자의 필독서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 주

- 1) 영국의 지리학자 J.H. Bird가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조선 및 토목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항만이 변화하는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만든 모형을 말한다.
- 2) 각 차원의 능력이 서로 별개라고 가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읽기능력과 수학계산능력을 필요로 하는 수학문제해결 문항이 있을 때, 문항을 읽을 수 없는 학생은 계산능력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그 문항에 정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 31대 임원(2017.1.1 ~ 2018.12.31)



회 장	이승호(건국대)		
부 회 장	이원섭(국토연구원)	권상철(제주대)	이의한(강원대)
감 사	정재준(성신여대)	김영훈(교원대)	
지리연구소장	전경숙(전남대)		
미래위원회공동위원장	안영진(전남대)	이원호(성신여대)	
지리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숙(충북대)		
총무이사	황철수(경희대)	진종현(공주대)	김민호(상명대)
학술이사	박정재(서울대)	홍일영(남서울대)	김대현(서울대)
국제이사	이용균(전남대)	이영아(대구대)	최광용(제주대)
홍보이사	전종한(경인교대)	이정운(부경대)	김 곁(교원대)
편집이사	이태수(전남대)	이종원(이화여대)	지상현(경희대)
이 사	강영옥(이화여대)	강창숙(충북대)	권동희(동국대)
	기근도(경상대)	김미정(국토연구원)	김선기((주)푸른길)
	김오진(중문고)	김형태(한국국토정보공사)	김회환(전남대)
	남기포(농협대)	남승일(극지연구소)	노영순(한국문화관광연구원)
	Douglas R. Gress(서울대)	박병익(서울대)	박선엽(부산대)
	박지만(한국국토정보공사)	박효석(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백선혜(서울연구원)
	송언근(대구교대)	신영재(잡신고)	오충원(남서울대)
	유성종(조도고)	이강원(전북대)	이인희(충남연구원)
	이자원(성신여대)	이재덕(서원대)	이중용(한국토지주택공사)
	임석희(대구대)	임은진(공주대)	전병운(경북대)
	전보애(가톨릭관동대)	전영권(대구가톨릭대)	정치영(한국학중앙연구원)
	정환영(공주대)	정희선(상명대)	조일현(중동중)
	조철기(경북대)	최영은(건국대)	최진무(경희대)
	홍성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황유정(청주대)	
고 문	권용우(전 성신여대)	권혁재(전 고려대)	김일기(전 한국교원대)
	류우익(전 서울대)	박삼옥(전 서울대)	박영한(전 서울대)
	박찬석(전 경북대)	서찬기(전 경북대)	손 일(전 부산대)
	양보경(성신여대)	이기석(전 서울대)	이민부(한국교원대)
	이정록(전남대)	이철우(경북대)	이현영(전 건국대)
	장보용(전 전남대)	최형규(성지문화사)	허우궁(전 서울대)
	형기주(전 동국대)	황재기(전 서울대)	
사 무 장	황선영		

### 학회비 납부 및 회원 가입 안내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비납부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은행 : 841-25-0006-810 [예금주 : (사)대한지리학회]

본 학회의 회원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한지리학회 사무실(geography77@hanmail.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위원회

위원장	남기범(서울시립대)		
부위원장	오충원(남서울대)	이태수(전남대)	이종원(이화여대)
	지상현(경희대)		
편집위원	구동희(부산대)	김숙진(건국대)	김영훈(교원대학교)
	백선혜(서울연구원)	신혜란(서울대)	이광률(경북대)
	이용균(전남대)	이정훈(경기연구원)	장동호(공주대)
	정성훈(강원대)	정현주(서울대)	홍금수(고려대)
	Heejun Chang(Portland State University)		Douglas R. Gress(서울대)
	Robert Hassink(Kiel University, Germany)		
	Jeong Chang Seong(University of West Georgia)		

### 대한지리학회지

제53권 제4호(2018년 8월 31일)

발행인 : 이승호

발행처 :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

© 04376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213-12, 1413호

전화 : 02) 875-1463, 팩스 : 02) 876-2853

e-mail : geography77@hanmail.net

http://www.kgeography.or.kr

조판·인쇄 : (주)푸른길

전화 : 02) 6942-9570~2, 523-2907 팩스 : 02) 523-2951

Copyright © 2018,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

본지에 게재된 논문, 기사, 도표 등의 저작권은 본 학회가 갖는다.

\* 이 학술지는 2017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